

투자설명서

2026년 5월 8일

(발행회사명)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증권의종목과발행증권수)

보통주식 2,635,000주

(모집또는매출총액)

39,525,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6년 5월 5일

2. 모집가액 : 15,000원

3. 청약기간 : 2026년 5월 11일 ~ 2026년 5월 12일

4. 납입기일 : 2026년 5월 14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마키나락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3 12층 (서초동 신덕빌딩)

3) 미래에셋증권(주):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수하동)

지점 - 별첨 참조

4) 현대차증권(주)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여의도동)

지점 - 별첨 참조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표 주 관 회 사 명)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인 수 회 사 명)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 (estimate)", "F (forecast)", "P (project)",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Ⅲ.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지사항】

"당사", "동사", "회사", "마키나락스", "(주)마키나락스",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MakinaRock s"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마키나락스를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주)" 또는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인수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인수 업무를 맡고 있는 현대차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주)"은 현대차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인수단"이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를 말합니다.

"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미래에셋증권(주) 본 · 지점망

본 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콜센터	1588-6800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지점명	도로명 주소
The Sage 강남파이낸스센터 (사전 예약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층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The Sage 센터원 (사전 예약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35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The Sage 패밀리오피스 (사전 예약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30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강남역WM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4층 (서초동, 홍우빌딩)
거제WM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54, 2· 3층 (옥포동, 아주비지니스텔)
건대역WM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0, A동 3층 (자양동, 더클래식500)
구미WM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2층 (송정동, 산업은행빌딩)
노원WM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3층 (상계동, 교보생명빌딩)
대치WM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3층 (대치동, 재경빌딩)
도곡WM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3층 (도곡동, Lynn Square)
동래WM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225, 2층 (수안동, 엘빌딩)
디지털구로WM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2층 (구로동, 우림e-Biz센터2차)
마곡WM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56, 6층 (마곡동, 건와빌딩)
마포WM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2층 (공덕동, S-에빌딩)
명일동WM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4, 4층 (명일동, 이화빌딩)
미래에셋증권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반포역WM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2층 (반포동, 반포자이프라자)
방배W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3, 4층 (방배동, 디엠타워)
방이역WM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길 10, 3층 (오금동, 삼아빌딩)
부천WM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5층 (중동, 부천농협빌딩)
북대구WM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11, 2층 (태전동, 스카이빌딩)
분당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6, 2· 5층 (서현동, KT&G 분당타워)
사하WM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3층 (하단동, 일성빌딩)
서대구WM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4· 5층 (죽전동, 골든뷰메디타워)
성동WM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34, 3층 (행당동, 나래타워)
세종WM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3층 (어진동, 청암힐빌딩)

센터원영업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B1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송도WM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A동 3층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2차)
송파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문정프라자)
수원WM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2층 (인계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회관)
수지WM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2번길 11, 4층 (성북동, 성북프라자)
순천WM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19, 5층 (조례동, 세븐빌딩)
안산W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2, 3층 (고잔동, 센트럴타워)
여수WM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3층 (학동, KDB산업은행빌딩)
영통W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0, 2층 (영통동, 밀레니엄프라자)
울산WM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1, 3층 (달동, 舊 미래에셋증권빌딩)
원주WM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9, 6층 (무실동, 정한프라자)
인천WM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4, 9층 (구월동, 맨하탄빌딩)
일산WM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7, 2층 (주엽동, 화성프라자)
전주WM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 2층 (서신동, 국민연금전북회관)
제주W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78, 3층 (노형동)
진주WM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36, 2· 3층 (동성동, 미래에셋증권빌딩)
천안아산WM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2층 (우성메디피아)
청주WM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2층 (북문로1가, 미래에셋증권빌딩)
투자센터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1, 1층 (치평동, 대아빌딩)
투자센터 광화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2층 (당주동, 로알빌딩)
투자센터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2층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
투자센터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2층 (둔산동, 파이낸스타워)
투자센터 목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3층 (목동, 트라펠리스이스턴에비뉴)
투자센터 반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 1층 (반포동, 원베일리 스퀘어)
투자센터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5· 6층 (부전동, 영광도서빌딩)
투자센터 압구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 2층 (신사동, 용기빌딩)
투자센터 여의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 2층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투자센터 잠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2층 (신천동, 타워730)
투자센터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6, 1층 (중앙동, 미래에셋증권빌딩)
투자센터 테헤란밸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1· 2층 (대치동, 해성빌딩)
투자센터 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3층 (백현동, 판교테크원타워)
투자센터 평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3층 (호계동, 평촌스포츠허브)
포항WM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71, 1층 (죽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해운대W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2층 (우동, 센텀사이언스파크)

주) 미래에셋증권(주) 지정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정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정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여의도동)
주문업무센터	1588 - 6655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hmsec.com

영업점	주소명
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28, 2층 (여의도동)
강남프리미어PB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25층(역삼동, 강남파이낸스빌딩)
경인지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06, 3층 (호계동, 인탑스빌딩)
광주지점	광주 서구 화운로 233,1층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주교육센터)
남양브랜치	경기 화성시 남양읍 현대연구소로150 (장덕리)
당진지점	충남 당진시 시청1로 33, 1층 (수정동,상아빌딩)
대구지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2, 3층(범어동, 호명빌딩)
부산지점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해운대아이파크 C1동 4층
서초지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14, 3층(서초동, 정보통신공제조합빌딩)
양재지점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1층(양재동, 현대기아차빌딩)
울산중앙지점	울산 중구 번영로 564, 9층 (남외동)
울산지점	울산 남구 화합로 152, 2층 (삼산동,광장빌딩)
의왕브랜치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삼동), 현대차그룹 의왕연구소 1층
인천브랜치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 3층 현대제철 인천공장 한마음관 (송현동,현대제철(주))
전주지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28, 2층(송천동, 에코프라자)
종로지점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1 라이온스회관 1층
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2층 (중앙동,교원공제회관)
천안아산지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92, 3층 (불당동, 마블러스티타워)
화성브랜치	경기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95(매항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丙
현대차브랜치	울산 북구 염포로 700, 현대자동차 (양정동)

주1) 현대차증권(주)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공시서류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한함).

* * *

2026년 5월 8일

주식회사 마키나팍스

대표이사 윤 성 호 

신고업무담당이사 박 민 수 

대표이사등의 확인_마키나락스_투자설명서

【 본 문 】

요약정보

구 분	내 용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화 인공지능(Vertical AI) 사업은 전방산업인 인공지능(AI) 산업의 영향을 받으며, 거시경제 환경 및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의 확대 또는 위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1월 1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25년 10월 대비 0.1%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2%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상반기 경제 지표들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러한 개선은 경기 자체의 구조적 회복 때문이 아니라, 관세 인상 및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무역, 투자 확대와 재고 축적 등 단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0%, 2027년을 1.8%로서, 2025년 11월 전망 대비 2026년 기준 0.2%p 상향 조정, 2027년 기준 0.1%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① 반도체 경기 호조(+0.2%p), ②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0.05%p), ③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시점 지연(+0.05%p), ④ 정부의 소비·투자지원책(+0.1%p) 등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건설 경기의 더딘 회복(-0.2%p)이 이를 일부 상쇄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인공지능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연

	구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폐쇄망 등 특수한 환경에서 산업 특화 AI(Vertical AI, 버티컬 AI)의 개발과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화 인공지능(Vertical AI) 사업은 전방산업인 글로벌 AI 시장의 성장 속도 및 기업의 AI 도입 확산 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26년 전세계 AI 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약 2.5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AI 인프라(AI 최적화 서버, 반도체 등), AI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전 분야에 걸친 급격한 지출 증가를 반영합니다. 또한, 맥킨지(McKinsey)에서 발간한 「The State of AI in 2025」(2025.11)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률이 2024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조사 대상 기업의 약 78%가 최소 1개 이상의 비즈니스 기능에 AI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T, 마케팅, 영업, 서비스 운영 분야에서의 도입률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당사가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전방시장은 Enterprise AI 시장 내 "Platform Application Service" 세그먼트입니다. EY가 발간한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에 따르면, 글로벌 Enterprise AI 시장은 향후에도 24%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2030년 약 35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항목 기준으로 볼 때 시장 성숙에 따라 Application 시장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Platform 시장이 연평균 34% 수준으로 가장 빠르게 확장하여 현재 5조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약 30조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기와 같이 글로벌 및 국내 AI 시장은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
--	--

	나, AI 투자 확대가 실물 생산성 향상으로 실제 전환되지 않을 경우 'AI 투자 버블'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생성형 AI의 '환멸의 계곡(Trough of Disillusionment)' 진입은 기업들의 신규 AI 투자 결정을 보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AI 데이터 거버넌스 부재, AI 윤리·규제 불확실성, 숙련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장벽이 AI 도입 확산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AI 투자 심리의 급격한 냉각 또는 기업 AI 도입 속도의 구조적 저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AI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실적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용 AI(Enterprise AI) 특성 관련 위험 당사는 기업 고객(B2B)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폐쇄망 등 특수한 환경에서 산업 특화 AI(Vertical AI, 버티컬 AI)의 개발과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주력 제품인 AI 플랫폼 Runway를 중심으로 고객의 AI 도입 준비도와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AI 솔루션은 고객사의 업무 시스템과 긴밀하게 통합되는 특성 상 도입 결정이 다층적인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와 같은 긴 영업 사이클은 당사의 분기별 수주 변동성을 높이며, 연간 영업계획 수립 시 예측 정확도를 저해합니다. 또한, 가트너(Gartner)가 발표한 「Hype Cycl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25」에서는 기업 AI 프로젝트의 개념검증(Proof of Concept, PoC) 성공률이 약 47%에 그치며, PoC 성공 후 실제 프로덕션 배포로 이어지는 비율도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수주계약 이후에도 프로젝트 중단이나 납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수익 인식 시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업용 AI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회인 동시에 중대한 위험 요인입니다. 생성형 AI의 성능이 약 7개월마다 2배씩 향상되고 있는 최근 기술 발전 속도 하에서, 기업이 AI 솔루션의 투자타당성 검토, 선정, 개발, 안정화를 거쳐 실 배포하는 시점에는 해당 기술
--	--

	이 이미 후발 기술에 의해 추월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당사는 기업용 AI 시장의 구조적 위험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으나, 기업용 AI 시장의 특성인 장기 영업 사이클,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 높은 PoC 실패율 등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실적에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당사의 기존 기술 및 제품이 시장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실적 확보가 어려울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향후 장기적인 사업 목표의 달성 시기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 기술 기반 사업은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해외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라는 외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탠퍼드 HAI(Stanford Human-Centered AI Institute)가 발표한 AI Index Report 2025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기관이 40개의 주요(notable) AI 모델을 개발하여 중국(15개), 유럽(3개)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미국의 민간 AI 투자는 1,091억달러로 중국(93억달러)의 약 12배, 영국(45억달러)의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미국의 투자가 중국과 EU·영국의 합산 투자를 255억달러 상회하는 등 미국은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투자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해외업체의 경우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 범용 플랫폼을 지향하는 반면, 당사는 폐쇄망 환경에 특화된 인프라 운영, AI 개발 및 배포, 그리고 플랫폼 생산성에 걸쳐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핵심 차별화 요소로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Runway의 경쟁우위도는 ① 폐쇄망 지원 인프라 및 자원 효율화, ② 보안 프로세스 통합, ③ 데이터 처리 및 저장, ④RAG 파이프라인 최적화, ⑤ 외부 시스템 연결 및 배포, ⑥ AI 애셋(Asset) 재 활용 환경, ⑦ 사용자 경험으로 7개 핵심 영역에서 구현되며, 이를 통해 기존 클라우드 기반 경쟁사들이 제공할 수 없는 핵심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실제로 글로벌 대형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대형기업이 가진 자금력·브랜드 인지도·기술 포트폴리오 등 여러 측면에서 당사는 구조적 열위에 놓일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실적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빠른 기술 변화에 따른 위험 인공지능 산업은 2023년 이후 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 모두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 기술 트렌드의 부상이 아닌, 모델 아키텍처, 연산 패러다임, 배포 환경, 그리고 기업 활용 방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환되는 복합적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은 AI 연산의 중심축이 훈련(Training)에서 추론(Inference)으로, 대형 모델(LLM)에서 소형 특화 모델(SLM)로, 클라우드 중심에서 엣지(Edge) 분산 환경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패러다임 전환은 당사가 영위하는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시장의 수요 구조, 기술 요구 수준, 그리고 경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이 빠른 기술 변화에 대한 다각적 대응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기술 경쟁력 약화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글로벌 AI 시장에서는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용 AI 플랫폼, MLOps, Agent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술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경쟁우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추진 중인 'Runway' 플랫폼 고도화 및 산업 간 확장 관련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개발된 기술이 고객의 실제 요구나 시장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용화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된 매출 실현이 지연되거나 신규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나 외부 인프라 제약이 발생할 경
--	--

	우, 개발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투자금의 회수 지연과 더불어 향후 현금흐름 및 사업 확장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산업 내 경쟁심화 및 신규 경쟁사 출현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기업용 버티컬 AI 솔루션 시장은 기술 진입장벽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국내외 경쟁자의 수와 다양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압력 및 시장점유율 축소 위험이 상존합니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시장의 주요 경쟁사로는 팔란티어, C3 ai, 데이터이쿠 등이 있으며, 이들 또한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는 전사 데이터의 수집, 통합, 정제, 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고객 조직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공공기관,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며, 각 부서나 기능 조직의 데이터를 연결해 하나의 통합된 뷰를 제공하고, 그 위에 시뮬레이션·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략적 결정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공급망, 재무, 인사, 운영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는 '상위 레벨(Planning/Decision Layer)' 중심의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반면, 당사의 Runway 플랫폼은 팔란티어와 유사하게 완전 폐쇄망 환경을 지원하면서도, 제조업 현장의 복잡한 OT 시스템과의 긴밀한 연동, 도메인 특화 AI 모델 개발 및 검증 전문성, 그리고 산업 현장의 구체적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하는 특화 솔루션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한 것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23년 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CB Insights가 선정한 '세계 100대 AI 기업'에 포함되는 등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성형 AI 시장이 자연어·이미지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것과 달리, 당사는 수치 데이터 기반의 산업 특화형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방산 분야의 높은 진입장벽과 결합하여 후발 기업이 단기간 내 따라잡기 어려운
--	---

	구조적 우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크로스 플랫폼 최적화 역량, 국내 산업 특화 데이터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고객사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핵심 차별화 요소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및 정부 지원을 받는 해외 경쟁사의 산업용 AI 시장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픈소스 AI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 진입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심화로 인해 당사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점유율이 점차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세계 각국 정부는 제조업을 국가 경쟁력 핵심으로 보고 AI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독일 '인더스트리 4.0', 한국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보조금, 세제 혜택, 데이터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감소시키고,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혁신을 과감히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투자, 국가 차원의 전략기금 조성을 통해 대규모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AI 투자 확대는 기업용 AI 솔루션 기업인 당사에겐 공공부문 수주 기회 확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R&D 보조금 수혜 등의 측면에서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당사는 국가대표 AI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Manufacturing AX) 사업에 선별된 AI 대표 전문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M.AX 사업은 국내 1,000개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하여 100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며, 2026년 약 1조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어 당사의 제조 AI 솔루션 사업에 직접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
--	---

	원 사업(AI 솔루션 도입 비용 5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350억원 규모)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당사의 전방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내외 AI 규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모든 규제 변화에 완벽히 대응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정부 지원 정책은 국내외 경기 변동, 재정 건전성 우려, 국정 운영 방향 변화 등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 AI 지원 정책의 지속성 여부, AI 기본법 및 글로벌 AI 규제 강화에 따라 당사의 정부 발주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사의 사업 구조와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인공지능 불신 및 인력 대체 효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위험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동자 및 사회 구성원의 불신과 반발은 기업 고객의 AI 솔루션 도입 의사결정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동의·협의 없는 AI 도입에 대한 법적·사회적 저항이 증가하는 추세로, 노동조합이 강한 산업 또는 공공 부문에서는 AI 도입 속도가 더 느리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품질 오류, 알고리즘 편향,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등에 관한 부정적 언론 보도가 잇따를 경우 해당 솔루션 유형 전체에 대한 시장 냉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의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를 위한 AI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 인력 대체가 아닌 '인간-AI 협업(Human-AI Collaboration)'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솔루션 설계 및 영업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AI의 경우 인간의 최종 검토 및 감독(Human Oversight)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AI 불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사회적 불신 확산과 인력 대체 효과로 인한 노동시장 갈등이 기업 고객의 AI 도입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당사에 대한 평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환경 및 고객 설득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
--	---

사업위험	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위험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이 전 산업에 걸쳐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학습·추론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보안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AI 모델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국방,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AI 시스템은 범용 AI 대비 보안 요건이 한층 높습니다. 산업용 AI는 공정 제어, 설비 운영, 품질 관리 등 물리적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보안 침해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생산 중단, 설비 파손, 인명 피해 등 물리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 공정 데이터에는 기업의 핵심 기술 노하우, 설비 운영 파라미터, 생산 레시피 등 고도의 영업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AI 모델의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Runway 플랫폼은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제조·국방·에너지 등 보안과 망분리가 요구되는 산업에서 필수적인 폐쇄망 환경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산업용 AI에 특화된 추가 규제가 도입될 경우 당사의 사업 모델 및 제품 설계에 대한 수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온프레미스 배포 모델은 고객사의 내부 보안 인프라 및 운영 역량에 일정 부분 의존하는 구조임에 따라, 고객사의 보안 관리 수준이 미흡할 경우 당사 솔루션의 운영 환경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제품 신뢰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데이터 보안 또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는 발생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의 성장에 따른 데이터
------	--

	량의 증가, 복잡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데이터 보안 이슈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데이터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제재와 함께 기업 신뢰도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평판 및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업간 거래(B2B) 사업 특성의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기업용 AI(Enterprise AI) 솔루션 사업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B(Business-to-Business) 사업입니다. B2B 사업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Business-to-Consumer) 사업과 사업 구조, 매출 특성, 고객 관계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B2B 사업 모델은 높은 계약 단가와 매출 안정성,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에 기반한 고객 Lock-in, 예측 가능한 매출 구조, 고객사 협업을 통한 기술 고도화 등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긴 영업 주기(Long Sales Cycle) 및 수주 예측 불확실성, 높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구 및 프로젝트 리스크, PoC-to-Production 전환율 불확실성, 고객 집중도 및 의존도 위험 등의 위험요소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은 특정 거래처에 집중되지 않고 다수의 거래처로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3개년간 상위 매출처의 구성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상위 5개 매출처는 서로 상이한 거래처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 거래처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 거래처별 매출 비중은 대체로 6%~15% 수준에 분포하고 있으며, 상위 5개 거래처 합계 비중 역시 약 38.67%~49.6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특정 거래처에 대해 매출이 편중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B2B 사업의 특성 상 향후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매출 편중이 심화될 경우 공급자인 당사의 교섭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분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상기와 같은 B2B 사업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고객 포트폴리오의 산업군 다변화, 구독형 라이선스 계약 확대, 표준화된 솔루션 모듈 구축을 통한 커스터마이제이션 범위 관리 등을 통해 B2B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용 AI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AI 솔루션 개발 사업에서 지식재산권(IP)은 사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AI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환경은 학습 데이터 저작권 분쟁의 글로벌 확산,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불명확성, 경쟁사의 특허 공세 등 복합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및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프로젝트 계약서에 기술 비밀유지(NDA) 및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국 특허 29건과 국내 특허 55건을 포함하여 총 8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1건, PCT 7건과 국내 11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특허가 출원 중에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미국 3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이나 분쟁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현재 인지하고 있는 특허 침해 위험 또한 없습니다. 다만,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역설계 또는 독자개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시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사업분야의 진출영역이 확대될 경우 예상치 못한 특허 관련 소송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당사 영업상황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핵심 인력 유출 가능성에 따른 위험
--	--

	당사의 사업 경쟁력은 AI 연구개발, 솔루션 설계·구현, 고객 산업 도메인 이해 등 핵심 역량을 보유한 인재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AI 전문 인력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가 업계 공통의 난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핵심 인력의 이탈은 당사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 연속성에 직접적 위협이 됩니다 당사는 내부 임직원의 동기부여 강화를 통한 연구 개발 활동 활성화 및 핵심인력 이탈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성과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특히 출원 및 등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대해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12월에 도입되어 최근까지 총 341건, 107,500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인 평가 및 프로젝트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엔지니어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당사의 지속적인 인사관리 및 핵심인력 이탈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직이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주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기술 인력 또는 고객과의 접점을 관리하는 주요 인력이 이탈할 경우, 연구개발 일정 지연, 고객 대응력 약화,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수행과 미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위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평균 임금은 매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 7.7%, 2020년 5.0%, 2021년 2.6%, 2022년 6.9%, 2023년 8.3%, 2024년 4.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상승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전문 인력의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와 클라우드 분야, 빅데이터 분
--	--

	야, 나노 분야에서 각각 12,800명, 18,800명, 19,600명, 8,400명의 신규 인력 부족이 전망됩니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해외 유출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 관련 고급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부터는 Runway 플랫폼의 개발을 본격화하였으며, 2022년 첫 상용 버전을 출시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인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업 특성에 따라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72.2%, 2024년 67.3%, 2025년 57.3%로 높은 편입니다. 향후 당사는 주요 제조 대기업 및 방산 업체와의 사업협력 확대, 그리고 글로벌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Runway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산업군 진출 및 Runway 제품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면,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상승을 피할 수 없으며 당사의 신규 인력의 충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한 핵심 개발인력을 유지하고 고급 인력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주요 고객사와 재계약에 실패할 위험 당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국방부 및 산하기관들과 국군에 AI 운영체계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On,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 ASM, 혼다, 요코가와 등 국내외 선도 제조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합동참모본부, 해군1함대 등 국방 분야 고객과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등 금융 분야 고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고객군은 거래 단가가 높은 대형 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GS, LG, SK, 삼성,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포스코, 한화, 현대 등 당사의 전략적 투자자들이 자본 참여를 넘어 고객으로서 사업 모델과 기술 잠재력을 산업 현장에서 함께 검증해 오고 있습니다.
--	---

	당사는 AI 운영체계(Runway) 공급, AI 컨설팅과 AI 운영체계(Runway)를 동시에 공급, AI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사업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으며,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AI 플랫폼(Runway)는 고객의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병합되어 운영되는 산업 특화 AI 인프라로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대비 높은 전환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당사가 주요 고객사와 재계약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기반 매출 비중 확대, 장기 계약 확대, 고객 저변 다변화(제조→국방→금융→해외), SaaS 기반 반복 수익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하여 재계약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AI 전략 변경, 예산 삭감, 경영환경 악화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구독형 또는 연간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 시점마다 고객의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요 고객사와의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당사는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가 신규 고객 유입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상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고객사와의 협상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기업 고객(B2B)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군은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입니다. 당사와 같은 AI 전문 솔루션 기업은 규모 면에서 고객사 대비 현저히 작은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전반에서 협상력이 열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 차별화와 과거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가격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교섭력 격차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고객사와의 협상력 열위로 인해 단가 하락 압력, 불리한 계약 조건 수용, 자금 유동성 문제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해외시장 진출 추진에 따른 위험
--	--

	국내 시장 규모만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B2B 기술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은 불가피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술 기업으로서의 당위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3월 중 미국 현지법인 MakinaRocks, Inc.을 설립하였으나, 2024년 이후 미국 현지법인의 수익성 악화 및 국내 사업역량 집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미국 사업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현지법인은 2025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장기적으로 미국 지역으로의 재진출 가능성 및 누적된 결손금을 활용한 미래 법인세 부담 감소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자금만을 유지한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제조 AI 시장의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4월 중 제조 산업이 강한 일본을 최우선 공략 시장으로 판단하여 일본 현지에 MakinaRocks KK.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본격적인 일본 시장 진출 전인 2024년에 일본 현지 SI 기업(System Integrator) 비전크리에이터(Vision Creator)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의 SI 계열사인 NTT 데이터 엔지니어링(NTT Data Engineering), 후지(Fuji)의 SI 계열사인 후지소프트(Fuji Soft)와 현재 NDA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사업협력을 위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본 시장 내 절대적인 영향을 가진 미쓰비시 상사(Mitsubishi Corporation)와도 2025년 7월 NDA를 체결하고 사업협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현지 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2개 회사(디바이스 인사이트, 레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해당 회사가 자사의 가망 고객에게 당사의 레퍼런스를 소개하여 수요를 발굴한 뒤 확인된 사업기회에 대해 공동 대응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인사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당사는 2025년 7월 독일 신재생 에너지 회사인 노르덱스(Nordex)사에 생성형 AI 기반의 특화 AI 솔루션(AI Agent)을 공급하는 약 4.5억 원 규모의 사업 건을 수주했으며 디바이스 인사이트와 함께 개발/
--	--

	공급 과정에 있습니다. 레달과의 협업을 통해 당사는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 프로세싱 장비를 공급하는 ASM International N.V와 약 2.5억 규모의 AI 플랫폼 개념검증 계약 건을 체결했습니다. 상기와 같은 해외 진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 빅테크 기업을 비롯하여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선도사업자가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의 경우에도 현지 대기업 및 SI 사업자들의 AI 사업 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기술적 차별성(폐쇄망 환경 지원, 산업 특화 AI 모델링 등)이 현지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현지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 역량을 확보할 경우 당사의 시장 점유율 확보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시장에 대한 초기 시장 침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법인 운영비용, 인력 확보 비용, 파트너십 구축 비용 등 해외사업 관련 고정비 지출이 매출 발생에 선행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안착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신규사업 추진 위험 당사는 AI 도입 의지는 있으나 내부 역량이 부족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I 적용 영역 발굴, 모델 개발, Runway 기반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한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도입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 기반 매출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검증된 AI 플랫폼인 Runway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난 7년간 글로벌 선도 제조 기업과 80건 이상의 다양한 특화 AI 솔루션 개발을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AI 기반 PLC(Programable Logic Controller, 자동화된 생산라인 내 장비를 제어하는 일종의 산업용 PC) 코드 분석, 설계도면 분석 등 SaaS 형태로 사업화가 가능한 가망 영역을 발굴하고 시장에 테스트했습니다. 검증된 서비스의 본격적인 사업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발굴로 솔루션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분야의 사업화를 위해 관련 아키텍처와 핵심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시장 성숙도 및 기술 완성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AI 플랫폼 Runway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
--	--

	해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정의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현행 사업 및 기술 기반을 동시에 고려하여 필수 항목들을 구비해가는 활동을 추진하되, 아직 초기 시장임을 고려하여 시장 및 당사 준비 상황에 따라 점검하며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중견기업 대상 AI 솔루션 사업의 경우, 고객사의 내부 기술 수용성과 운영 역량 부족으로 인한 도입 확산 지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온디바이스 AI 사업은 아직 초기 시장 단계로, 기술 표준의 부재와 상용화 지연, 연구개발 투자 대비 단기 수익성 부족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예상 자금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상황들이 악화될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성장전략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 사업의 확장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상장요건 적용 관련 기업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 기술 및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11월 7일 2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는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에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규상장 당시 추정 경영실적과 현재 실적간 괴리 위험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유관 정책과 규제 개정, 대외적인 변수 등으로 인한 고객사 임상 일정의 지연, 고객사의 임상 실패 및 투자금 부족으로 인한 임상 일정의 중단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및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 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만약 추정 실적 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으로 인한 위험 당사의 산업 특화 AI 솔루션 공급 사업은 그 성격상 계절적 요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과 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B2B 사업의 특성상, 고객사의 업무 사이클 및 AI 도입 일정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년 초 AI 관련 기획 및 투자심의를 진행하며, 통상 연내 도입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연말에는 그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년도의 투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업무 사이클을 고려할 때, B2B 사업은 통상 4분기 신규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

	분기 별 매출 편중이 지속될 경우 매출이 저조한 시기에도 인건비, R&D 비용, 인프라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위험, 주요 고객사의 예산 소진, 내부 승인 절차 지연, 또는 당사의 개발 일정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집중된 매출이 차년도로 이월됨에 따른 실적 변동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 및 고객 저변 확대, 라이선스 기반 매출 증가, 장기 계약 확대 등을 통해 계절 요인의 영향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Runway 플랫폼의 연간 라이선스(ARR) 계약 비중 확대, 유지보수 계약 확대를 통한 기간별 반복 매출 구조 강화, 그리고 B2B 제조·금융 분야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B2B, B2G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단기간에 계절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기별 실적 편차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분기별 실적만으로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연간 누적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 당사의 사업성과가 미진하여 재무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4년말 2,630,026천원, 202
--	--

	5년말 14,659,919천원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단기간 내 상기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유예 조건 없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므로 적자지속에 따라 큰 폭의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5,206백만원, 2024년 8,294백만원, 2025년 11,459백만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술 축적에 따른 사업 구조 개선, 특화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시장 내 입지 강화, 제조 분야 실적 기반 국방 분야 진출에 기인합니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은 2023년 11,158백만원, 2024년 10,897백만원, 2025년 8,041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고도화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 강화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판관비 증가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는 2023년 18,344백만원, 2024년 6,073백만원, 2025년 13,772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과거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의 차이는 주로 금융손익에 기인합니다. 외부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금융비용으로 계상되었으며,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라 발생한 당사 발행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파생상품평가손익은 2023년 (-)4,815백만원, 2024년 5,867백만원, 2025년 (-)4,774백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손익이 영업손실에 더해져 당기순손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는 매출 확대 및 규모의 성장을 이루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	---

	방산업(AI 반도체, 자동차, IT 디바이스 등)의 시황 악화 또는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실적 감소, 신규 산업군 진출 및 Runway 제품 고도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이 가중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40.4%, 2024년 89.2%, 2025년 246.5%로서, 2024년 중 상환전환우선주 추가 발행에 따른 자금 조달로 유동자산이 증가하여 개선되었으며, 2025년 중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관련 유동부채가 자본항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유동부채 금액이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153.6%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상 재고자산이 없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동일합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40.8%, 2024년 847.7%, 2025년 52.8%로서, 2023년에는 완전자본잠식임에 따라 부채비율이 음(-)의 값을 보였으나, 2024년 및 2025년 중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총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잠식이 해소되었으며 2025년 기준 업종평균 85.1%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14.2%, 2024년 17.8%, 2025년 16.6%로서, 업종평균 20.7%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4.9배, 2024년 (-)8.7배, 2025년 (-)7.2배로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부(-)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당사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이익 및 현금흐름만으로는 이자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당사는 2025년중 상환전환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감소하여 관련 이자비용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차입금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유동성 악화 및 기한이익 상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가 영위하는 제조 및 국방 특화 AI 솔루션 사업은 초기 개발단계에서 자금 투입이 큰 구조로서, 당사는 연구개발 인력 확충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여러 차례 증자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요 프로젝트 상용화가 지연되거나 추가 자금 확보가 지체될 경우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일정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국내 제조 대기업 및 방산 업체와의 협력 확대로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가 필수적이며, 만약 당사가 목표하는 실적 달성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장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 및 재무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현금흐름활동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0,183백만원, 2024년 (-)10,638백만원, 2025년 (-)7,803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보이는 것은 AI 모델 최적화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선행 투자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 등 투자성 비용 지출로 인해 단기 수익성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과 향후 주요 제조 대기업 및 방산 업체와의 사업협력 확대, 그리고 글로벌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Runway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다만, 당사가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를 실현하기까지는 높은 불확실성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신규 산업군 진출 및 Runway 제품 고도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금흐름 개선 속도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2.9회, 2024년 7.0회, 2025년 2.7회 수준으로 업종평균을 다소 하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사업확장에 따른 매출액 증가로 매출채권 잔액은 2023년말 1,766백만원, 2024년말 1,191백만원, 2025년말 4,245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 인식시점이 주로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특성에 따라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동시점 차이 외 과거 채권의 연체 또는 대손 등의 경험이 없어 향후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말, 2024년말 및 2025년말 기준 모두 0.0%입니다. 당사 매출채권 연령 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매출채권 중 만기미도래 채권이 96.09% 수준이며, 매출채권 회수 또한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점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주요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부실화되거나,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	---

회사위험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향후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종속회사 관련 위험 당사는 글로벌 제조 AI 시장의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8년 3월 중 미국 현지법인 MakinaRocks, Inc.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2025년 4월 중 제조 산업이 강한 일본을 최우선 공략 시장으로 판단하여 일본 현지에 MakinaRocks KK.를 설립하였습니다. 미국 현지법인인 MakinaRocks, Inc.은 2025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나, 중장기적으로 미국 지역으로의 재진출 가능성 및 누적된 결손금을 활용한 미래 법인세 부담 감소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자금만을 유지한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일본 현지법인인 MakinaRocks KK.은 2025년 중 설립되어 사업 초기 단계이나, 향후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추가 자금 대여 또는 출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향후 종속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영업활동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별도재무제표 상 추가적인 손상차손이 인식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상 종속회사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 및 사업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관련 위험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과제를 포함하여 총 21건에 대해 76억원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이중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건(29억원)의 정부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국책 과제의 수행을 통해 당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충당하여 왔습니다.
-------------	--

	통상적으로 정부 과제는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연구기간 동안 자금 지원이 연속성을 가지나, 연도별 정부 과제의 수행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과제 수행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향후 과제 참여 제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인해 당사 연구개발 활동이 일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영업 마케팅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윤리규정 제정,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거나 혹은 재무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
--	--

	를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상장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사 윤리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2023년 5월 대주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으며, 2023년 12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 및 회사의 감사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이 첨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인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산업 특화 AI 플랫폼(Runway) 및 맞춤형 AI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빠르게 진화하는 AI 모델 아키텍처(LLM, Agent, 파운데이션 모델 등)와 제조·국방 분야 고객사의 고도화된 성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AI 모델링·최적화
--	---

	알고리즘, 폐쇄망 MLOps/LLMOps 엔진, 에이전틱 AI 시스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719백만원, 2024년 3,338백만원, 2025년 3,402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수익 대비 비율은 2023년 52.2%, 2024년 40.2%, 2025년 29.7%로 매출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당사의 운영 자본 및 현금 흐름에 부담을 주면서 다른 중요한 사업 기회에 자원을 배분하는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는 기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PoC(Proof of Concept) 단계에서 실제 생산 환경 적용(Production)으로의 전환율이 낮은 것이 업계 공통의 과제입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고객사의 내부 의사결정 지연, 기술 검증 기간의 장기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주 단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 대비 매출 회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연구개발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당사가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달하여 상용화 또는 매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1,389,568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7.92%)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594,124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294,400주를 제외한 501,044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2.86%)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AI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
--	--

	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소송 및 분쟁 관련 위험 당사는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이행하였으나, 시험성적서 지연 제출을 사유로 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년 처분 및 제재부가금 194,476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2025년 9월 중 당사, 윤성호 대표이사, 허영신 CBO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은 집행정지 인용되었으나,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부과된 제재부가금 194,476천원을 2025년 10월 31일에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본 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당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사업 실적은 제조 분야 민간 기업과의 특화 SI 공급 계약 및 국방기관과의 특화 SI 공급 계약을 통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의 계약은 본 제재 처분과 무관하며, 국방기관과의 계약 역시 연구개발과제가 아닌 공급 계약의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지원금은 회계 인식 기준상 매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수주 규모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은 2025년 기준 약 16.1% 수준으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당사는 2026년과 2027년 수주 및 매출 추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수익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유지하더라도 2026년 및 2027년 매출 및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 보전적 성격의 정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련 처분에 따라 1년 간 정부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제한될
--	---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데이터 수집, 반입, 저장, 활용, 백업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내부 보안 절차와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데이터 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고객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당사 창업 초기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미비로 인해 발생한 건입니다. 이후 당사는 내부 연구개발 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협약 변경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건 이후부터 2025년말까지 수행하여 완료된 총 16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SI 바우처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당사는 모두 별도의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완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분쟁건 외 당사는 피소된 소송 건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분쟁 성격에 따라 대규모 소송가액의 지출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피소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	---

	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감사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1월 매출액 1,004백만원, 영업손실 568백만원, 2026년 2월 매출액 728백만원, 영업손실 1,402백만원, 2026년 3월 매출액 1,303백만원, 영업손실 381백만원, 2026년 4월 매출액 964백만원, 영업손실 619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30.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635,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6,666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5.86%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등 중 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 이재혁 1인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
--	---

	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등 중 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 이재혁 1인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보유 12개월에 자발적 의무보유 24개월로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자발적 의무보유 3년으로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대주주등 중 박민수, 허영신 2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에정주식수(보통주) 17,541,640주 중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이재혁) 1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5,477,016주(상장 후 31.22%)를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

	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2,781,698주(상장 후 15.86%)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또는 2개월의 추가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전략적투자자 중 SK텔레콤, 네이버(주), (주)에스, 한화세미텍 주식회사는 보유한 주식 1,567,080주(상장 후 8.93%)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소액주주 중 김대성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주식 6,000주(상장 후 0.03%)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의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주)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260,869주(공모 후 1.49%)를 과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66,666주(공모 후 0.38%)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

	우리사주조합 349,300주(공모 후 1.99%)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6,755,207주(38.51%)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	--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예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666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을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	---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4월 28일(화) ~ 2026년 5월 6일(수)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5월 11일(월) ~ 12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79,05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	--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263,5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263,500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주관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는 2025년 10월 31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 보통주 260,869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9%)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주)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
--	---

기타 투자위험	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을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윤성호는 보통주 1,82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0.39%)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7,541,640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501,044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2.86%)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가가 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예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제6호의 개정예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	---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실권 발생 위험 본 건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3.26%(349,300주)가 우선배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합의 청약이 해당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너.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더.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당사 자체 결산에 따른 최근 분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별도 기준 월별 잠정 영업수익 및 영업손익을 공시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말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5년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 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	--

	로 투자자들에게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머.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버.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서.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실적 기준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해 있으며,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엑셈,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4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
--	--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커.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위험 본 공모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 평가 오류로
--	---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최종 공모가격이 실제 기업가치를 완벽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작성 기준일 현재의 시장 전망과 당사의 영업환경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수치는 시장 추세와 당사의 내부 데이터에 따라 추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변화 등 불확실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장 규모와 당사의 실적은 전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경쟁 심화 등의 외부 요인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전망 수치가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퍼.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보통주	2,635,000	500	15,000	39,525,000,000	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예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인수(주선)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2,239,750	33,596,250,000	1,502,424,600	총액인수		
인수	현대차증권	보통주	395,250	5,928,750,000	118,575,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6년 05월 11일 ~ 2026년 05월 12일			2026년 05월 14일		2026년 05월 11일		2026년 05월 14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36,392,246,780				
발행제비용				2,132,763,22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보통주			15,000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기 타】			-					

주1) 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2,635,000	500	15,000	39,525,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2,239,750	33,596,250,000	1,502,424,600	총액인수
인수회사	현대차증권	기명식보통주	395,250	5,928,750,000	118,575,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6년 5월 11일 ~ 2026년 5월 12일	2026년 5월 14일	2026년 5월 11일	2026년 5월 14일	-

- 주1) **모집(매출) 확정가**(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마키나락스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주5) 청약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5월 11일(월) (1일간)
 -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 (2일간)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5월 11일(월)에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까지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7)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

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주8)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1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9)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이외에 최종공모가격이 공모 희망가액의 최고가액(상단)인 15,000원으로 결정되어,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5,249,900원**이 공모주식 모집에 관한 성과수수료로 지급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인수대가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0)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는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증권(주)	기명식보통주	66,666주	999,99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1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주2)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증권(주)	기명식 보통주	26,350	395,25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26,350	395,250,000	-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66,666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주6)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금번 (주)마키나락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635,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우리사주조합	349,300주	13.26%	우선배정
일반공모	2,285,700주	86.7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635,000주	100.00%	-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 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주2)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9,300주(13.26%)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일반공모총액	비고
우리사주조합	349,300주	13.26%	15,000원 주1)	5,239,500,000원	주2)
일반청약자	658,750주 ~790,500주	25.00% ~30.00%		9,881,250,000원 ~11,857,500,000원	주3,4)
기관투자자	1,626,950주 ~1,976,250주	61.74% ~75.00%		24,404,250,000원 ~29,643,75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635,000주	100.00%		39,525,000,000원	-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주2)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9,300주(13.26%)를 우선배정합니다.
-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4)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7)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주9)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수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수량으로서 공모수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주10)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수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수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주11)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주12)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 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주1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우리사주조합	349,300주	13.26%	우선배정
일반공모	2,285,700주	86.7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635,000주	100.0%	-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일반공모총액	비고
우리사주조합	349,300주	13.26%	15,000원	5,239,500,000원	주2)
일반청약자	658,750주 ~790,500주	25.00% ~30.00%		9,881,250,000원 ~11,857,500,000원	주3,4)
기관투자자	1,626,950주 ~1,976,250주	61.74% ~75.00%		24,404,250,000원 ~29,643,75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635,000주	100.00%		39,525,000,000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2,239,750주	85.0%	15,000원	33,596,250,000원
인수회사	현대차증권	395,250주	15.0%		5,928,750,000원
합계		2,635,000주	100.0%		39,525,000,000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559,940주 ~ 671,920주	15,000원	8,399,000,000원 ~10,078,800,000원
인수회사	현대차증권	98,810주 ~ 118,580주		1,482,150,000원 ~1,778,700,000원
합계		658,750주 ~ 790,500주		9,881,250,000원 ~11,857,500,000원

주3)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 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349,300주(13.26%)를 우선배정합니다.

주5)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 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

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

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

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경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경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 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 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 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회사(이하 "경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6-2) 경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경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보하는 경우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보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경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경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경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자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자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자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자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자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 고유자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
나. 위탁자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자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자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위탁자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

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자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경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경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

⑧ 기업공개에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 주당 모집가액은 발행회사가 ㈜마키나락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주8)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마키나락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미래에셋증권(주)	66,666주	15,000원	999,990,0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금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주)마키나락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 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 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단,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는 불가능함)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 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은 희망공모가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격	12,500원 ~ 15,000원
주당 확정공모가격	15,000원
확정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격의 범위는 (주)마키나락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은 상기 희망공모가격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격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 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5,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분	내 용	비 고
공고 일시	2026년 4월 28일(화)	주1)
기업 IR	2026년 4월 13일(월) ~ 2026년 5월 6일(수)	주2)
수요예측 일시	2026년 4월 28일(화) ~ 2026년 5월 6일(수)	주3)
공모가액 확정공고	2026년 5월 8일(금)	-
문의처	미래에셋증권(주) (☎ 02-3774-7126, 02-3774-7117, 02-3774-7150)	-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4월 28일(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n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2)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5월 6일(수) 17:00(한국시간 기준)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 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

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들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들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

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확인대상 및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구분	내용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참여 건(계좌)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 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입니다. 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 참여 건(계좌)별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개별 위

구분	내용
확인대상	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입니다.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 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자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방법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 (*) 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정한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미래에셋증권(주)의 One-AsiaEquitySales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구분	내용
확인대상	미래에셋증권(주)의 One-AsiaEquitySales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QIB)에 해당하거나 ②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USD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 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
확인방법	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본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임을 확인한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호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또는 직전 분기(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 3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 본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	"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입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

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를」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중략)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

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 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 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인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 등]

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

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회사(이하 "경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⑨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경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⑩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경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 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

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

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

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 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혹은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 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 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

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인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인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인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 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7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③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④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⑥ 금번 공모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⑦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⑧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2에 의거 미래에셋증권(주)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 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 적용)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	규모	
미청약·미납입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	규모	
		1억원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주1)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신청한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12개월 X 환매비율 주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개월 이내 금지
비고: 동일 종목에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			

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 가중:

-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와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주4) 감면:

-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

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인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 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주) 확약준수율: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5) 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 ② 가중만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가중', '기타 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
- ③ 감면만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감면', '기타 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②,③에 따라 가중 · 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④의 방식으로 가중 ·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 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 · 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증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증가로 적용하여 산정

- 주6)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주7)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주8)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기관투자자	1,626,950주 ~1,976,250주	61.74% ~75.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주1)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주2)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2,635,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주3) 일반청약자 배정분 658,750주~790,500주(25.00%~30.0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349,300주(13.26%)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관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1,976,250주(기관투자자 배정수량) 중 적은 수량	1,000주

-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1,976,25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분	내용
수량단위	100주
가격단위	100원

-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도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하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및 서면 접수(인터넷 접수가 불가한 경우)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래에셋증권(주)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बैं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 미래에셋증권(주)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수요예측 참여
- ④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 20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수요예측 참여자는 주금납입능력에 관한 확인서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 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전체 물량(유추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과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증권(주)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③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면 접수 방법](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 통 서 류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주1)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주금납입능력에 관한 확약서
---------	--

추가서류	집합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소정양식) - 수탁회사의 펀드설정상확인서 및 수탁회사에 대한 투자신탁금 입금증 사본
	투자일임회사 (투자일임재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투자일임회사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투자일임회사 확약서 ※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한하여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 제출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
	벤처기업 투자신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벤처기업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해외 기관투자자	-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이나 정보 주2)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1)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는 미래에셋증권(주)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상단의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 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2026년 4월 28일(화) ~ 2026년 5월 6일(수) 17:00 (한국시간)
접수처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증권(주)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증권(주) 동관 35층 IPO1팀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5층 IPO1팀
TEL	02-3774-7126, 7117, 7150
FAX	0505-085-1360

【해외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2026년 4월 28일(화) ~ 2026년 5월 6일(수) 17:00 (한국시간)
접수처	미래에셋증권(주) 동관 36층 One-Asia Equity Sales팀
접수방법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증권(주)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증권(주) 동관 36층 One-Asia Equity Sales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6층 One-Asia Equity Sales팀
전화번호	02-3774-3775
E-mail	minjune.kim@miraeasset.com
Fax	0505-085-3775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주)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미래에셋증권(주) 「securities.miraeasset.com ⇒ banking관리/대출/청약⇒ 청약⇒ 수요예측⇒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 여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 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인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

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⑫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IPO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⑮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미래에셋증권(주)의 수요예측 참가안내 공지사항(securities.miraeasset.com → बैं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주)마키나락스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 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주1)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과 발행회사인 (주)마키나락스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희망공모가 산정방식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 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1,976,250주 중 적은 수량 2) 최저한도 : 1,000주 3) 수량단위 : 100주 4) 가격단위 : 100원 5) 가격 : 가격 미제시 불가 (관계인수인 외에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불인정함) 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질적	

구분	주요내용	비고
배정대상	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 (단, 확정공모가격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격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 하에 배정이 가능)	-
배정기준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 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인수업무규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격 미제시 인정함 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

- 주1)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 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1,976,250주(공모물량 중 75.0%를 기관투자자에 배정할 경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3)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 주4)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주5) 금번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보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영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주6)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보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

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7)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
-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
- 주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미래에셋증권(주)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합니다.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미래에셋증권(주) 「securities.miraeasset.com ⇒ बैं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②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운용사(고유)	투자매매·중개 업자	연기금, 은행, 보험	투자일임사 (고유, 일임)	기타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공모	사모								
건수	27	1,110	309	25	2	681	182	86	5	2,427
수량	34,705,900	809,750,600	182,468,000	49,403,200	3,602,000	525,040,700	257,586,600	78,704,700	4,699,000	1,945,960,700
경쟁률 (주2)	21.33	497.71	112.15	30.37	2.21	322.71	158.32	48.38	2.89	1,196.08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수량인 1,626,950주 ~ 1,976,250주 중 1,976,25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626,95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건수
	운용사(집합)				운용사(고유)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은행, 보험		투자일임사 (고유, 일임)		기타						
	공모		사모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 초과	2	1,581,200	13	8,294,500	15	7,912,400	1	1,976,000	-	-	9	4,038,000	6	9,354,400	14	11,856,900	3	4,500,000	63
밴드상단	24	33,073,700	1,080	783,925,600	294	174,555,600	24	47,427,200	2	3,602,000	665	510,891,400	175	246,495,700	72	66,847,800	2	199,000	2,338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1	1,736,500	-	-	-	-	1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				운용사(고유)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은행, 보험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기타						
	공모		사모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 하위 25% 이상 ~ 중간값 미만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이상 ~ 25% 미만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이상 ~ 50% 미만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100% 초과 ~ 75% 미만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미제시	1	51,000	17	17,530,500	-	-	-	-	-	-	7	10,111,300	-	-	-	-	-	-	
합계	27	34,705,900	1,110	809,750,600	309	182,468,000	25	49,403,200	2	3,602,000	681	525,040,700	182	257,586,600	86	78,704,700	5	4,699,000	2,427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	참여건수 기준		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	비율
가격 미제시	25	1.0%	27,692,800	1.4%
15,000원 초과	63	2.6%	49,513,400	2.5%
15,000원	2,338	96.3%	1,867,018,000	95.9%
12,500원 초과 ~ 15,000원 미만	1	0.0%	1,736,500	0.1%
12,500원	-	-	-	-
12,500원 미만	-	-	-	-
합계	2,427	100.0%	1,945,960,700	1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						운용사(고유)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은행, 보험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기타		
	공모			사모																	
	건수	수량	신청가격	건수	수량	신청가격	건수	수량	신청가격	건수	수량	신청가격	건수	수량	신청가격	건수	수량	신청가격	건수	수량	신청가
6개월 확약	9	10,212,800	15,012	351	236,802,400	15,029	47	30,366,500	15,036	3	5,928,600	15,000	-	-	-	167	86,988,900	15,007	17	27,047,300	15
3개월 확약	6	10,647,400	15,000	388	311,254,800	15,000	79	41,257,900	15,092	7	13,833,400	15,000	2	3,602,000	15,000	206	167,563,400	15,000	31	45,453,700	15
1개월 확약	1	1,430,000	15,000	199	147,492,300	15,000	53	27,643,000	15,022	5	9,880,400	15,000	-	-	-	129	89,132,800	15,000	27	41,320,300	15
15일 확약	4	5,089,500	15,000	80	48,915,700	15,025	27	19,473,400	15,000	3	5,928,200	15,000	-	-	-	52	54,299,600	15,017	22	30,791,200	15
미확약	7	7,326,200	16,063	92	65,285,400	15,058	103	63,727,200	15,086	7	13,832,600	15,429	-	-	-	127	127,056,000	15,056	85	112,974,100	15
계	27	34,705,900	15,228	1,110	809,750,600	15,015	309	182,468,000	15,060	25	49,403,200	15,120	2	3,602,000	15,000	681	525,040,700	15,016	182	257,586,600	15

구분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신청가격	건수	수량	신청가격	건수	수량	신청가격
6개월 확약	2	1,999,800	15,000	-	-	-	596	399,346,300	15,053
3개월 확약	4	6,075,700	15,976	3	4,500,000	16,000	726	604,188,300	15,024
1개월 확약	13	12,879,300	15,210	2	199,000	15,000	429	329,977,100	15,010
15일 확약	24	23,159,300	15,184	-	-	-	212	187,656,900	15,034
미확약	43	34,590,600	15,436	-	-	-	464	424,792,100	15,144
계	86	78,704,700	15,355	5	4,699,000	15,958	2,427	1,945,960,700	15,055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마키나락스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 15,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2,635,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12,500원 주1)	
	확정가액	15,000원 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32,937,500,000원	
	확정가액	39,525,000,000원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26년 5월 11일(월)
		종료일	2026년 5월 11일(월)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6년 5월 11일(월)
		종료일	2026년 5월 12일(화)
	일반청약자	개시일	2026년 5월 11일(월)
		종료일	2026년 5월 12일(화)
청약 증거금 주4)	우리사주조합		100%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26년 5월 14일(목)

주1)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마키나락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와 (주)마키나락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 청약단위

-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와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와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주)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1일간)
- ②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 (2일간)
- ③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 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

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5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5월 14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5월 14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5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증권(주) 본점

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주) 본 · 지점

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주) 및 현대차증권(주) 본 · 지점

④ 일반청약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5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신 문	비고
수요예측 안내공고	2026년 4월 28일(화)	인터넷 공고	(주2)
모집(매출)가액 확정공고	2026년 5월 8일(금)	인터넷 공고	(주3)
청약공고	2026년 5월 11일(월)	인터넷 공고	(주4)
배정공고	2026년 5월 14일(목)	인터넷 공고	(주5)

- 주1)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2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4월 28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3) 모집(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5월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공시 및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주)의 홈페이지(www.hm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4)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5월 14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및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주)의 홈페이지(www.hm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5)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5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균등배정수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주5)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미래에셋증권(주) 본 · 지점, 현대차증권(주) 본 · 지점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청약사무취급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미래에셋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구분	청약 한도	배정 비율	자격요건	증거금률	청약수수료
우대	200%	100%	온라인 매체 청약 (HTS, MTS, Web, ARS)	50%	0원 (단, Bronze 등급 2,000원)
일반	100%		영업점 청약 (내점/유선)	50%	건당 5,000원
제한사항			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 주1)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합니다.
- 주2) 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합니다.
- 주3) 개인,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주4)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민, 외국인, 법인계좌 개설 불가
- 주5) 온라인 개설: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 주6) 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 주7) 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 주8) 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주9) 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현대차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청약 초일 전일까지 주식계좌 개설 고객	
청약방법	- 지정 내방청약 - 온라인청약(HTS, 홈페이지, MTS) - ARS 청약 - 유선청약은 불가	
우대고객	기 준	아래의 5가지 조건 중 1가지 충족 시 우대자격 적용 - 다수 계좌 존재시, 한 계좌에 우대자격 요건 충족 시 전계좌 우대적용 - 1~5번조건 익월부터 우대자격 적용 1) 연속 3개월 이상 급여이체 입금계좌(주1) 2) IRP계좌 월 10만원이상 & 연속 3개월 이상 자동이체(대체) 3) 연금펀드/계좌 및 IRP 계좌 청약 직전 3개월 평잔 400만원이상(주2)

구 분	내 용		
		4) 당사 고객등급 VP등급 이상 (VP.B/MP.P/MP.G/MP 등) 5) 중개형ISA 계좌개설 및 유지 (매월 말일 기준)	
	우대내용	최고 청약한도 부여(일반고객 - 우대고객 50% 수준의 최고 청약한도 부여)	
청약수수료	일반	HTS, MTS, 홈페이지,ARS	건당 2,000원
		영업점 내방	건당 5,000원
	우대	HTS, MTS, 홈페이지, ARS,	면제
		영업점 내방	
배정기준	배정수량을 안분배정 후 잔여주식은 추첨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주1) 급여이체 인정조건
 ① 급여이체코드가 명확하게 들어오는경우(전자금융망 입금시 금융결제원, 펌뱅크, 타행인터넷뱅킹 등)
 ②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입금 시 입금 내용이 '급여', '월급', '봉급', '상여금'으로 표시되고, 50만원 이상 입금 확인되는경우
 ③ 급여이체가 되는데도 전산상 급여 이체로 자동인식되지 않는 경우 영업점에서 '급여이체확인서' 등록 후 입금(등록한 급여일 +/- 2영업일, 50만원이상) 확인 시 익월부터(또는 당월 입금된 경우 당월부터) 급여인정 시작월 부여(전산상 급여이체로 자동인식 되지 않는 경우)
- 주2) ① 평잔의 개념은 잔고 평가금액입니다. 3개월 평잔은 일 별 평가금액의 3개월 평균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품가입이 1월 10일이어서 1월~3월까지 총 81일잔고가 쌓였다면 81일치를 90일로 나눈 평잔으로 그 평잔이 400만원 이상일 경우 우대자격 인정이 됩니다.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주)의 각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증권(주), 현대차증권(주)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을】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률
미래에셋증권(주)	559,940주~671,920주	주1)	50%

주1) 미래에셋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55,000주 ~ 67,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7,500주 ~ 33,500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주)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0주 이하	1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200주
10,000주 초과	500주

【현대차증권(주)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증거금율】

구분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 증거금율
현대차증권(주)	98,810주~118,580주	주 1)	50%

주 1) 주) 현대차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 한도 : 9,000주 ~ 11,000주
- 일반그룹의 청약 한도 : 4,500주 ~ 5,500주

【현대차증권(주)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200주
2,000주 초과	500주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5월 11일(월) ~ 12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률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5월 14일(목)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주)의 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주)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बैं킹 → बैं킹/대출/청약 → 청약 → 기관청약 → 청약신청
 -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증권(주)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③ 납입방법(미래에셋증권(주)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8)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 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

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13.26% (349,3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
-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61.74%~75.00% (1,626,950주~1,976,250주)를 배정합니다.
-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 (658,750주~790,500주)를 배정합니다.
-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에 즉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 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13.26%인 349,300주에 우리사주

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131,75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수량(수요예측 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수량으로서 공모수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수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수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

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주), 인수회사 현대차증권(주)와 (주)마키나락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329,375주 ~ 395,250주 이상입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

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청약이 있는 인수단 구성원에 해당 물량을 배정하며,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에 있을 경우 해당 미청약 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미청약 주식에 있을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

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예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증권사별 추가납입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 미래에셋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5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예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5월 13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현대차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 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5월 14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예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5월 13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

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5월 14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주)(www.hmsec.com)
의 홈페이지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
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
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
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
를 서면·전화·전신·모사전송·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
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
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미래에셋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기관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해당사항 없음
일반청약자	1) 과 2) 를 병행 1) 미래에셋증권(주) 본 · 지점 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미래에셋증권(주) 본 · 지점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까지 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다운로드 : 청약종료일까지

【미래에셋증권(주) 청약유형별 청약방법】

구분	청약방법
영업점내 방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HTS)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ARS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고객 중 투자설명서 수령을 원치 않거나 이미 수령하신 고객에 한해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현대차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	청약방법
영업점 내방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HTS, 모바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ARS	청약전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거나, ARS 공모주청약 진행 중 투자설명서를 SMS(문자메세지)로 교부 받은 후 청약 가능합니다.
유선	본 공모의 경우 유선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주)마키나락스 및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미래에셋증권(주)의 본·지점 및 현대차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

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5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26년 5월 14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5월 14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5월 14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인수단은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납입금은 우리은행 서초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

②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263,5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10%인 263,5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격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여대상자	미래에셋증권(주)
행사가능주식수	263,500주
행사가격	확정공모가격
행사가능기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5)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주)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5년 11월 1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2월 2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

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8)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9)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단위: 원)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	인수금액	인수 조건
구분	명칭	주소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보통주 2,239,750주(85%)	33,596,250,000	총액인수
인수회사	현대차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 로2길 28 현대차증권	보통주 395,250주(15%)	5,928,750,000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원)

구분	대가수령자	금액	금액산정내역	대가수령시기	대가관련 계약내용	대가관련 계약내용 변경이력	대가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유	비고
인수수료 (성과수수료 제외)	미래에셋증권	691,924,800	인수금액(의무인수 금액 포함)의 2.0%	납입 이후 5영업일 이내	인수계약서 참조	-	-	주1)
	현대차증권	118,575,000	인수금액의 2.0%	납입 이후 5영업일 이내	인수계약서 참조	-	-	주1)
(대표)주관수수료	미래에셋증권	810,499,800	공모금액(의무인수 금액 포함)의 2.0%	납입 이후 5영업일 이내	인수계약서 참조	-	-	주1)
성과수수료	미래에셋증권	405,249,900	공모금액(의무인수 금액 포함)의 1.0%	납입 이후 5영업일 이내	인수계약서 참조	-	-	주2)
기타	-	-	-	-	-	-	-	-

주1)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500원 ~ 15,000원 중 최고가액인 15,000원을 **달성하여, 총 조달 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5,249,900원)을**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은 (주)마키나락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증권(주)	보통주	66,666주	999,99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은 발행회사인 (주)마키나락스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66,666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주2)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증권(주)	기명식 보통주	26,350	395,25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26,350	395,250,000	-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격인 15,000원** 기준입니다.
-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6,35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주6)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인수회사인 현대차증권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

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법령에 의한 자기주식의 매수는 제외됩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2대주주(이재혁) 1인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3년간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 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text{조정가격} = \text{공모가격의 } 90\% \times [1.1 + (\text{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text{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div \text{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보통주 260,86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주)의 당사 주식 취득 내역]

(단위: 원, 주, %)

주주명	주식의 종류	취득방식	취득일	취득주식수 (지분율)	주당 취득가액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증권(주)	보통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2025.10.31	260,869 (1.76)	11,500	2,999,993,500	주1)
합계	보통주	-	-	260,869 (1.76)	11,500	2,999,993,500	-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260,869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확정공모가격이 15,000원으로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주3)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6% 공모 후 기준 약 1.49%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주)마키나락스 보통주 주당 취득가액은 11,500원으로 금번 공모시 **확정공모가격인 15,000원**과의 괴리율은 30.43%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격 괴리율]

인수인 명	주식의 종류	확정공모가격	취득일	주당 취득가액 주1)	괴리율	비고
미래에셋증권(주)	보통주	15,000원	2025.10.31	11,500원	30.43%	-

- 주1) 평균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2) **확정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확정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2)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주)의 지분율은 1.76%(공모 후 1.49%)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후략]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미래에셋증권(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

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은 사내 내부통제규정 아래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준칙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상장주선인의 내부통제 기준]

제52조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관리)

-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 ①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기타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 ③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마련 등 기업실사 절차, 조사·검증 등에 관한 별도의 기업실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최종 공모 가격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263,5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

-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10%인 263,5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여대상자	미래에셋증권(주)
행사가능주식수	263,500주
행사가격	확정공모가액
행사가능기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

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에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수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수량으로서 공모수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수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수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666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주(1주의 금액 5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1.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3.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배당우선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배당우선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배당우선 종류주식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우선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이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4. 배당우선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5. 배당우선 종류주식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6.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배당우선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배당우선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3 (잔여재산분배우선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은 회사가 청산할 때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최초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3.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4.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5.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4 (전환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전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 종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합병,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서면으로 청구 및 주권을 제출 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5. 기타 전환청구의 절차, 효력, 전환조건, 전환비율 및 전환 가액의 조정, 기타 전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전환 종류주식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7.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전환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전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5 (상환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법적으로 상황가능한 자금)으로 상환되는 종류주식 (이하 "상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상환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상환 종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 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 상환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상환권의 행사방법, 절차, 효력 등 상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6. 상환 종류주식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7.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환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상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0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②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 ③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⑤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해외진출, 생산·판매·자본채류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⑧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⑩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⑪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

1.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13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에 해당할 경우 100분의 20, 「상법」 제542조의2에서 규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에 해당할 경우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상장회사에 해당할 경우,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하며,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할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자로 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의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회사가 “상장회사”에 해당할 경우 「상법」 제340조의2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와 「상법」 제542조의8 제6호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8.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5.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②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③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

1.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56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으로 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57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3.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3일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주요 용어 해설]

용어	설명
에이전트 플로우 (Agent Flow)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에이전트 및 요소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것을 의미함. 기업용 AI에서 복잡한 작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데 적합한 구조임.
에이전틱 AI(Agentic AI)	단순한 응답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실행·피드백까지 수행하는 자율적 AI. LLM에 도구 사용·메모리·계획 능력을 결합해 에이전트처럼 동작함.
무인 운반차(AGV, Automated Guided Vehicle)	센서나 경로 유도 시스템을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무인 운반 차량. 물류·제조 현장에서 자재 운송 자동화에 활용됨.
AI 에셋(AI Asset)	기업이나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 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자산으로 정의한 것. 재사용·확장 가능한 형태로 관리됨.
OLP	Off-Line Programming: 실제 장비를 멈추지 않고 가상 환경에서 로봇 동작 경로를 프로그래밍하는 방식. 산업용 로봇의 생산성 향상과 다운타임 최소화에 기여함.
지속통합/배포/학습 (CI/CD/CT)	Continuous Integration(CI)/Continuous Deployment(CD)/Continuous Training(CT): 코드 변경을 자동으로 통합하고 테스트하여 배포와 학습까지 이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빠른 개발 사이클과 품질 확보를 지원함.
DOMINO	Domain Informed Objective Modeling: 목적/보상함수를 대규모 언어모델 에이전트(LLM Agent)와 인간개입형 (Human-In-The-Loop, HITL) 피드백 기반 모델링 기술.
JDBC	Java Database Connectivity: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SQL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 API.
래더 다이어그램 (Ladder Diagram)	전기 릴레이 회로를 도식화한 것처럼 표현하는 PLC 언어. 직관적이라 전기·제어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활용함.
대규모언어모델운영 (LLMOps)	대규모 언어모델의 특성에 최적화된 전문 (Large Language Model Operations)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외부 톨 연동, 안전장치(가드레일), RAG 파이프라인, 응답 품질 모니터링 등을 통합 관리함. LLM 특유의 환각 현상 억제와 정확도 향상, 일관된 응답 품질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별 도메인 특화 요구사항과 지속적인 모델 튜닝 필요성으로 인해 ML Ops의 확장 개념으로 인식됨.

용어	설명
머신러닝 모델 운영(MLOps)	머신러닝 모델의 전체 생애주기(개발-배포-운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Machine Learning Operations)로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학습, 레지스트리 관리, 배포, 모니터링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표준화함.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델 품질을 보장하여 AI 모델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성능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
머신러닝 모델 보안 운영 (MLSecOps)	머신러닝 모델 개발과 운영 과정에 보안을 통합하는 접근법으로, AI 모델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요소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
다단계예측(Multi-step Prediction)	여러 단계에 걸쳐 미래 값을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기법. 시계열 데이터나 공정 예측에서 누적 오차 관리가 중요함.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이미지나 문서에서 글자를 인식해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 스캔 문서 자동화, 번호판 인식 등에 활용됨.
ODBC	Open Database Connectivity: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에 상관없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 API.
온디바이스 AI (On-device AI)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직접 실행하는 기술
온프레미스(On-Premise)	클라우드가 아닌 자체 데이터센터나 서버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방식. 보안과 커스터마이징에 강점이 있음.
파서(Parser)	문법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해석해 구조화하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컴파일러, 데이터 처리, 언어 모델 등에서 활용됨.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산업 현장에서 기계와 공정을 제어하는 전용 컴퓨터. 내구성과 안정성이 뛰어나 자동화 설비에 널리 쓰임.
개념증명(PoC)	Proof of Concept: 기술적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 가능한지 검증하는 단계. 사업화 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행됨.
Query	데이터베이스나 검색 시스템에 정보를 요청하는 질의. SQL 문이나 검색어 입력 형태로 사용됨.
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외부 지식을 불러와 생성 모델과 결합하는 방식. 최신 정보와 사실성을 강화할 수 있음.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	Role-Based Access Control: 사용자 권한을 역할 단위로 관리하는 보안 모델. 조직 내 권한 관리 효율성을 높임.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HTTP 기반 시스템 간 데이

용어	설명
	터 교환 방식
SaaS	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 없이 웹을 통해 제공하는 모델. 사용자 편의성과 확장성이 높음.
의미 기반 다양성 제어 (Semantic Diversity Control)	생성 모델에서 출력의 의미적 다양성을 조절하는 방법. 반복적이거나 편향된 응답을 줄이는 데 활용됨.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SOA)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기능을 독립적 서비스 단위로 분리해 연결하는 시스템 구조. 재사용성과 유연성이 높음.
비전-언어모델(VLM)	Vision Language Model: 시각 정보(이미지·영상)와 언어 정보를 함께 이해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예를 들어, 이미지를 설명하거나 그림과 질문을 연결하는 작업에 활용됨.
VPC-P	Virtual Private Cloud-Private: 가상 사설 클라우드 중에서도 폐쇄형(Private) 환경을 의미. 보안·규제 요건이 엄격한 산업에서 선호됨.
WBL(World Best LL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별칭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보상(Reward)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기계학습 기법. 자율주행, 게임, 로봇 제어 등에서 활용됨.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 (Domain-Specialized AI Modeling)	마키나락스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제조·국방 등 복잡하고 고도화된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AI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역량임. 이 기술은 크게 데이터 처리·분석, AI 시뮬레이션, 태스크 특화 AI 설계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와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Domain-Specialized AI Engineering)	마키나락스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배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역량임. 특히, 제조 및 국방과 같은 환경에서는 폐쇄망, 이기종 장비, 높은 보안 요구사항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특화된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 기술은 AI 인프라 구성, AI 배포 및 운영, 보안 프로세스 체계의 세 영역으로 구분됨
도메인(Domain)	특정 문제 영역이나 적용 분야를 의미함. 예를 들어 제조, 금융, 의료 등이 각각의 도메인이며, 제조의 하위 항목인 반도체, 철강, 자동차가 개별 도메인임.
모바일 AP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 CPU·GPU·AI 가속기 등을 통합해 연산, 그래픽,

용어	설명
	통신 등을 처리함.
모션 플래닝 (Motion Planning)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장애물을 피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최적의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함.
모폴로지 연산	영상 처리에서 객체의 형태를 강조하거나 잡음을 제거하는 연산 기법. 침식, 팽창, 열기, 닫기 등이 대표적임.
미충족 요구(Unmet Needs)	현재 제품이나 서비스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용자·시장의 요구. 새로운 혁신이나 사업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버티컬 AI 솔루션	특정 산업(제조, 국방, 금융, 의료 등)에 특화된 인공지능 솔루션. 도메인 지식을 반영해 일반 AI보다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 산업 특화 AI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
벡터 데이터베이스	텍스트·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해 저장·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 생성형 AI와 검색 증강(RAG)에서 핵심 역할을 함.
컴파운드 AI 시스템(Compound AI System)	BAIR(Berkeley AI Research)가 2024년 2월 발표한 “Compound AI System”이라는 블로그를 통해 주목을 받게 된 개념으로 복잡한 태스크를 AI로 자동화 및 지능화하기 위해서는 단일 모델의 확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여러 도구와 모델, 외부 컴포넌트 등 다양한 구성요소를 결합한 시스템 설계가 더 효율적이라 밝힘. 이를 위해서는 모듈화된 구조, 외부 리소스와 결합해 동적으로 확장 가능한 기능이 중요함.
서비스 가능 시장(SAM)	잠재시장(TAM) 중에서 기업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 지역·규제·채널 등의 제한을 반영함.
서비스 확보 가능 시장(SOM)	서비스 가능 시장(SAM) 중에서 기업이 실제로 점유할 수 있는 시장 규모. 경쟁 구도와 자사 역량을 반영한 최종 타깃 시장임.
잠재시장(TAM)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 가장 넓은 범위를 의미하며, 이론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대 시장임.
파이프라인(Pipeline)	데이터 처리, 머신러닝 학습, 소프트웨어 배포 등에서 작업 단계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흐름. 자동화와 병렬화로 효율성을 높임.
폐쇄망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독립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의미함. 보안이 중요한 군사, 방위, 제조, 금융 분야에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됨.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	오피스 영역을 넘어 제조 및 생산 설비를 보유한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생산·품질관리, 수요·공급 관리, 유통·물류와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용어	설명
	의미.
멀티 에이전트(Multi-Agent) 시스템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상호 협력·분업하여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시스템. 각 에이전트가 독립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체 목표를 달성하며, 단일 모델 대비 확장성과 유연성이 뛰어나.
SML	Small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모델(LLM) 대비 파라미터 수가 적은 경량 언어모델. 특정 도메인이나 태스크에 특화하여 낮은 연산 비용과 빠른 추론 속도를 제공하며, 엣지 디바이스나 폐쇄망 환경에서의 배포에 적합함.
엣지 AI	Edge AI: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현장의 디바이스(센서, 게이트웨이, 산업용 PC 등)에서 직접 AI 추론을 수행하는 기술. 저지연·데이터 보안·네트워크 비의존성이 요구되는 제조·국방·자율주행 등의 환경에서 활용됨.
AIP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팔란티어(Palantir)가 제공하는 기업용 AI 플랫폼으로,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업의 기존 데이터·시스템과 연동하여 전사 차원의 의사결정 지원·업무 자동화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당사의 Runway 플랫폼과 비교되는 해외 대표 제품임.
싸이썬나이즈(Cythonize) 처리	Python 소스코드를 Cython을 이용하여 C 언어 수준의 바이너리로 변환하는 처리 방식. 코드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원본 소스코드의 역분석(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활용됨.
테넌트	Tenant: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여러 고객(조직)이 공유하는 멀티테넌트(Multi-Tenant) 아키텍처에서 각각의 독립된 사용 단위를 의미함. 테넌트별로 데이터·설정·접근 권한이 논리적으로 격리되어 보안과 독립성이 보장됨.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화 인공지능(Vertical AI) 사업은 전방산업인 인공지능(AI) 산업의 영향을 받으며, 거시경제 환경 및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의 확대 또는 위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1월 1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25년 10월 대비 0.1%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2%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상반기 경제 지표들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러한 개선은 경기 자체의 구조적 회복 때문이 아니라, 관세 인상 및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무역, 투자 확대와 재고 축적 등 단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0%, 2027년을 1.8%로서, 2025년 11월 전망 대비 2026년 기준 0.2%p 상향 조정, 2027년 기준 0.1%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① 반도체 경기 호조(+0.2%p), ②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0.05%p), ③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시점 지연(+0.05%p), ④ 정부의 소비·투자지원책(+0.1%p) 등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건설경기의 더딘 회복(-0.2%p)이 이를 일부 상쇄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인공지능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화 인공지능(Vertical AI) 사업은 전방산업인 인공지능(AI) 산업의 영향을 받으며, 거시경제 환경 및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의 확대 또는 위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1월 1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25년 10월 대비 0.1%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2%p 상향 조정

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상반기 경제 지표들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이러한 개선은 경기 자체의 구조적 회복 때문이 아니라, 관세 인상 및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무역, 투자 확대와 재고 축적 등 단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01월 19일 전망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p)

구 분	2024년	2025년(E)			2026년(E)		
		2025년 10월 전망	2026년 01월 전망	조정폭	2025년 10월 전망	2026년 01월 전망	조정폭
		(A)	(B)	(B-A)	(C)	(D)	(D-C)
세계	3.3	3.2	3.3	0.1	3.1	3.3	0.2
선진국	1.8	1.6	1.7	0.1	1.6	1.8	0.2
신흥개도국	4.3	4.2	4.4	0.2	4.0	4.2	0.2
미국	2.8	2.0	2.1	0.1	2.1	2.4	0.3
유로존	1.2	1.2	1.5	0.3	1.1	1.5	0.4
일본	-0.2	1.1	1.1	0.0	0.6	0.7	0.1
한국	2.0	0.9	1.0	0.1	1.8	1.9	0.1
중국	5.0	4.8	5.0	0.2	4.2	4.5	0.3
인도	6.5	6.6	7.3	0.7	6.2	6.4	0.2
러시아	4.3	0.6	0.6	0.0	1.0	0.8	-0.2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1)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 리스크가 하방에 더 크게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며, 주요 하방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통상정책 불확실성 증가, 노동공급 충격, 국가 재정 및 금융시장 취약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로, 미국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4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무역정책 전환과 불확실성

급증을 반영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크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이후 일부 관세 인하 및 정책 완화가 이루어지며 2026년 01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세계에서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블록화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며 이는 교역 회복을 제한하고 글로벌 투자 저하, 공급망 붕괴,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 정책 강화,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 기술/숙련 노동자 부족 등이 노동공급을 제약할 수 있고, 이는 잠재성장률과 생산능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정부 부채가 누적된 상태이며, 금리 상승 또는 금융시장에 불안이 올 경우, 차입 비용이 늘어나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롤오버(roll-over)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부채의 부담 확대로 경기,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기업 중심의 실적 하락이나 AI 생산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꺾일 경우, 기술주 중심의 자산 가격이 조정되며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가 가능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은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상방 요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 진전으로 인한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진다면 무역과 투자가 재개되고 성장 잠재력이 회복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AI 및 디지털 기술이 실물 경제에서 기대만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낸다면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각국의 통상정책 기조 및 정책 불확실성의 전개 방향에 따라 높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주요국의 관세 인상 조치 완화와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될 경우,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단기적인 성장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부담의 지속은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주요국 간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투자와 교역 활동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생산 비용 상승, 공급 지연 확대 등을 야기하여 세계 경제성장률이 현 전망치 대비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노동공급 제약, 정책 신뢰도 약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구조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 및 지역 분쟁의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과 실물경제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합동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공습을 시작으로 역내 안보 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란은 이스라엘은 물론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 걸프 주변국 내 미군 기지와 민간 시설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보복 공격을 감행하여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선언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조선 통행량이 약 70% 감소하고 15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 밖에서 정박하는 등 사실상의 해상 봉쇄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WTI 선물 기준)는 급등하였으며, 글로벌 주요 해운사(머스크, 하파그로이드 등)가 해협 및 홍해 관련 경로의 운항을 중단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4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식 요청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외교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물류비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으로 국내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화, 위험자산 회피 및 신흥국 자본유출 등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고, 만약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당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에 중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민간소비 회복 지연, 기업의 투자 계획 축소 또는 유보, 건설 및 설비투자의 둔화 등 다양한 실물경제 지표를 통해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편, 한국은행은 매 3개월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0%, 2027년을 1.8%로서, 2025년 11월 전망 대비 2026년

기준 0.2%p 상향 조정, 2027년 기준 0.1%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① 반도체 경기 호조(+0.2%p), ②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0.05%p), ③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시점 지연(+0.05%p), ④ 정부의 소비·투자지원책(+0.1%p) 등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건설경기의 더딘 회복(-0.2%p)이 이를 일부 상쇄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성장흐름을 보면, 1/4분기중에는 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전분기 역성장(-0.3%)의 기저효과와 투자부문도 작용하면서 성장률이 당초 예상(0.3%)을 상회하여 1%에 근접(0.9%)할 전망입니다. 2/4분기 이후에도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완만하게 확대되고 글로벌 AI투자 호조,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양호한 성장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나, 건설 등 비IT부문의 미약한 회복이 성장을 일부 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으로 증가하며 1.8%의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E)	2026년(E)	2027년(E)
GDP 성장률	4.6	2.7	1.4	2.0	1.0	2.0	1.8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2월))

주) 2025년~2027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입니다.

2026년 GDP 성장률은 기존 2025년 11월 전망치인 1.8%에서 2.0%로 0.2%p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반도체 경기 호조,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정부 소비·투자지원책 등이 건설경기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은 결과입니다. 다만, 건설투자는 2025년(-9.9%)으로 위축된 이후 2026년에도 1.0%에 그쳐 회복세가 더딘 전망이며, 재화수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상반기 3.5%→하반기 0.8%)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측 압력이 아직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품목(전자기기 및 보

협료 등)의 비용상승 압력 등으로 2026년 2.2%, 2027년 2.0%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크게 상회하여 2026년 1,700억달러로 전망됩니다.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2026년 17만명으로 전년(19만명) 대비 다소 둔화되겠지만, 민간고용 상황은 부진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대내외 여건 측면에서는, IT기업 실적 호조, 주가 상승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경제심리도 양호하나, 비IT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4년	2025년(E)			2026년(E)			2027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2.0	0.3	1.6	1.0	2.4	1.6	2.0	1.8
민간소비	1.1	0.7	1.9	1.3	2.3	1.3	1.8	1.8
건설투자	-3.3	-12.2	-7.5	-9.9	-0.8	2.6	1.0	1.5
설비투자	1.7	4.5	-0.4	2.0	2.4	2.3	2.4	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2	1.9	3.8	2.9	3.4	3.5	3.5	2.6
재화수출	6.4	1.7	4.4	3.1	3.5	0.8	2.1	2.3
재화수입	1.3	1.7	2.5	2.1	3.4	1.5	2.5	2.6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2월))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인공지능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폐쇄망 등 특수한 환경에서 산업 특화 AI(Vertical AI, 버티컬AI)의 개발과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화 인공지능(Vertical AI) 사업은 전방산업인 글로벌 AI 시장의 성장 속도 및 기업의 AI 도입 확산 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26년 전세계 AI 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약 2.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AI 인프라(AI 최적화 서버, 반도체 등), AI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전 분야에 걸친 급격한 지출 증가를 반영합니다. 또한, 맥킨지(McKinsey)에서 발간한 「The State of AI in 2025」(2025.11)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률이 2024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조사 대상 기업의 약 78%가 최소 1개 이상의 비즈니스 기능에 AI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T, 마케팅, 영업, 서비스 운영 분야에서의 도입률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당사가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전방시장은 Enterprise AI 시장 내 "Platform Application Service" 세그먼트입니다. EY가 발간한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에 따르면, 글로벌 Enterprise AI 시장은 향후에도 24%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2030년 약 35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항목 기준으로 볼 때 시장 성숙에 따라 Application 시장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Platform 시장이 연평균 34% 수준으로 가장 빠르게 확장하여 현재 5조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약 30조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기와 같이 글로벌 및 국내 AI 시장은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나, AI 투자 확대가 실물 생산성 향상으로 실제 전환되지 않을 경우 'AI 투자 버블'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생성형 AI의 '환멸의 계곡(Trough of Disillusionment)' 진입은 기업들의 신규 AI 투자 결정을 보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AI 데이터 거버넌스 부재, AI 윤리·규제 불확실성, 숙련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장벽이 AI 도입 확산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AI 투자 심리의 급격한 냉각 또는 기업 AI 도입 속도의 구조적 저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AI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실적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폐쇄망 등 특수한 환경에서 산업 특화 AI(Vertical AI, 버티컬AI)의 개발과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보유한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Domain-Specialized AI Modeling) 기술과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Domain-Specialized AI Engineering) 기술을 기반으로 Runway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당사의 Runway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 인공지능 개발 및 운영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관리부터 모델 학습-배포-운영-모니터링까지 인공지능 전 생애주기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국방·에너지 등 보안과 망분리가 요구되는 산업에서 필수적인 폐쇄망 환경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력 제품인 Runway를 기반으로 제조 및 국방을 포함한 국내외 산업 영역의 기업과 기관 고객에게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의 AI 도입 준비도와 수요에 따라 ① AI 운영체계(Runway) 공급, ② AI 컨설팅과 AI 운영체계(Runway)를 동시에 공급, ③ AI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층적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시장]

구분(주2)	설명
총 잠재 시장 (TAM): 기업용 AI 시장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 시장 조사기관의 시장 분류를 고려하여 이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시장 - 기업용 AI 시장은 기술과 산업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산업에 따라서는 제조, 금융, 공공, 국방 등으로 구성됨 - 장기 확장 가능 시장
서비스 가능 시장(SAM): 플랫폼/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장	- 기업용 AI 시장 내 기술항목에 따른 세분류로 구분되는 시장 - 하드웨어 시장과 클라우드 시장(소프트웨어_인프라스트럭처)을 제외한 시장으로 서비스 시장의 경우 구분이 불명확하고 솔루션을 통해 대체 가능한 시장이므로 포함함 - 단기 확장 가능 시장
서비스 확보 가능 시장(SOM): 제조 및 국방 분야 특화 AI 솔루션 시장	-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내 플랫폼·애플리케이션·서비스 시장 내 세부 시장을 산업 분류에 따라 구분시 제조 및 국방 분야 시장 - 국방 AI 분야는 폐쇄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기 목표 시장 관점에서는 글로벌이 아닌 국방 분야로 한정함 - 초기 목표 시장

(출처: EY 및 당사 정리)

주1) EY(Emst & Young)는 1849년 영국에서 기원한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으로, Deloitte, PwC,

KPMG와 함께 세계 4대 회계법인(Big 4)으로 분류됩니다. EY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 700개 이상의 지사를 두고 약 39만 명의 전문 인력이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경영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산업별 심층 분석 보고서 및 시장 전망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주2) 총 잠재 시장(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은 기술적, 개념적으로 진출 가능한 최대 시장, 서비스 가능 시장(SAM, Serviceable Addressable Market)은 총 잠재 시장 중 보유한 제품 및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될 수 있는 시장, 서비스 확보 가능 시장(SOM, Serviceable Obtainable Market)은 현재 해당 기업의 역량, 자원, 영업 네트워크로 실제 점유 가능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총 잠재 시장(TAM)은 글로벌 기업용 AI(Enterprise AI) 시장, 서비스 가능 시장(SAM)은 동 시장 내 플랫폼/어플리케이션/서비스 세그먼트, 서비스 확보 가능 시장(SOM)은 글로벌 제조 및 국내 국방 분야 특화 AI 솔루션 시장으로 정의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화 인공지능(Vertical AI) 사업은 전방산업인 글로벌 AI 시장의 성장 속도 및 기업의 AI 도입 확산 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26년 전세계 AI 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약 2.5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AI 인프라(AI 최적화 서버, 반도체 등), AI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전 분야에 걸친 급격한 지출 증가를 반영합니다. AI 인프라 구축만으로도 AI 최적화 서버 지출이 49% 증가하여 전체 AI 지출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AI 인프라는 기술 공급자들의 AI 기반 구축으로 인해 4,010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AI 지출은 2027년에 약 3.3조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별 글로벌 AI 지출 전망]

(단위: 백만달러, %)

Market	2025년(E)	2026년(E)	2027년(E)
AI 서비스	439,438	588,645	761,042
AI 사이버보안	25,920	51,347	85,997
AI 소프트웨어	283,136	452,458	636,146
AI 모델	14,416	26,380	43,449
AI 기반 데이터 사이언스/머신러닝 플랫폼	21,868	31,120	44,482
AI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6,587	8,416	10,922
AI 데이터	827	3,119	6,440

Market	2025년(E)	2026년(E)	2027년(E)
AI 인프라	964,960	1,366,360	1,748,212
합 계	1,757,152	2,527,845	3,336,690

(출처: 가트너, 2026.01)

주1) 가트너(Gartner, Inc.)는 1979년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퍼드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IT) 분야 리서치 및 자문회사입니다. 가트너는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1,300명 이상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약 2,500명의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IT 산업 전반에 걸친 시장 분석, 기술 동향 예측 및 전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발표하는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 및 '매직 쿼드런트(Magic Quadrant)' 등의 분석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IT 시장의 주요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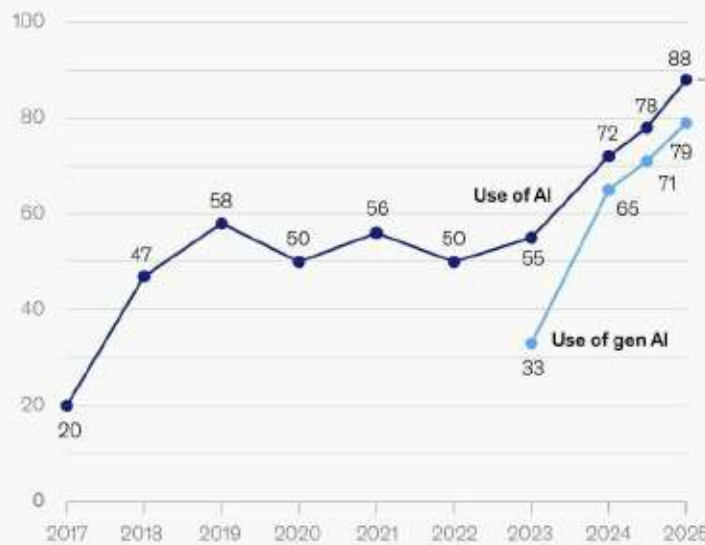
또한, 맥킨지(McKinsey)에서 발간한 「The State of AI in 2025」 (2025.11)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률이 2024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조사 대상 기업의 약 78%가 최소 1개 이상의 비즈니스 기능에 AI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T, 마케팅, 영업, 서비스 운영 분야에서의 도입률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AI 도입 과정에서 ROI 측정의 어려움, 데이터 품질 문제, 인력 역량 부족 등을 주요 장벽으로 꼽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AI 도입의 전사적 확산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맥킨지는 AI가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비율이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진단하며, 기업 AI 도입의 'PoC에서 Production 전환' 단계가 핵심 과제를 강조하였습니다.

[전 세계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 현황]

Reported use of AI in at least one business function continues to increase.

Use of AI by respondents' organizations, % of respondents

Organizations that use AI in at least 1 business function¹



Phase of AI use among organizations using AI in 2025



¹In 2017, the definition for AI use was using AI in a core part of the organization's business or at scale. In 2018-19, the definition was embedding at least 1 AI capability in business processes or products. From 2020, the definition was that the organization has adopted AI in at least 1 function, and in 2025, the definition was regular use of AI in at least 1 function.

Source: McKinsey Global Surveys on the state of AI, 2017-25

McKinsey & Company

전세계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 현황

(출처: 맥킨지)

주1) 맥킨지(McKinsey & Company)는 1926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설립된 글로벌 전략 경영컨설팅 회사입니다. 맥킨지는 전 세계 65개 이상의 국가, 130개 이상의 도시에서 3만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포브스 글로벌 2000 기준 전 세계 100대 기업 중 90개 이상의 기업을 포함하여 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경영 전략 수립, 산업 분석, 시장 전망 등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략컨설팅 기관입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24년 54.7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 71.7억달러에서 연평균 33.40% 성장하여 2032년 538.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AI를 디지털 경제에 통합하겠다는 국가 비전에 힘입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역동적인 강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고속 통신 인프라, 첨단 제조업,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모빌리티, 교육,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차별화하는 요인은 측정 가능한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응용

AI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이며, 전략적 정부 자금 지원, 선제적 규제 체계, 그리고 성장하는 스타트업 및 연구센터 생태계의 지원을 바탕으로 실험 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도입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AI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십억달러)



국내 ai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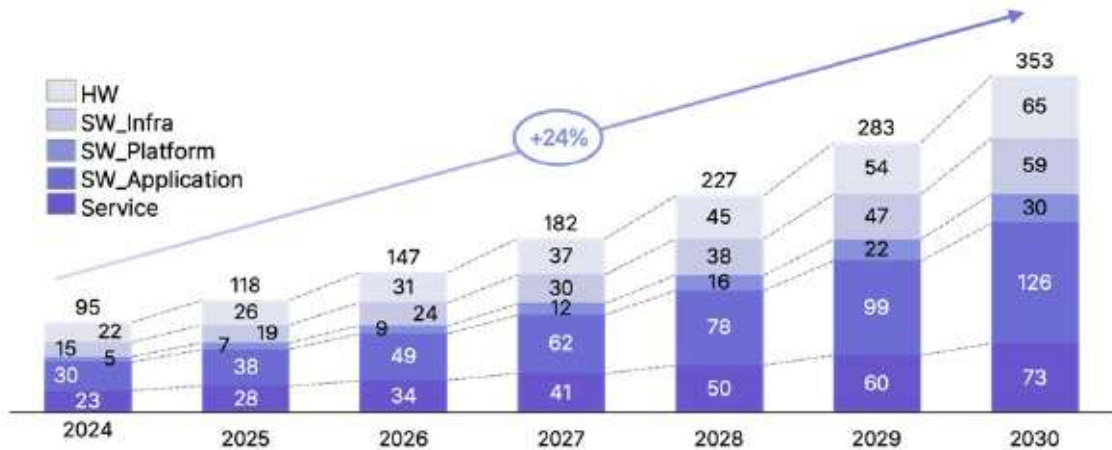
(출처: Fortune Business Insights, South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Market(2026.02))

주1) Fortune Business Insights는 2019년 인도 푸네(Pune)에 설립된 글로벌 시장조사 및 컨설팅 업체로서, 헬스케어, 기술, 화학·소재, 에너지, 식품, 항공우주·방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시장 규모 추정, 성장을 예측, 경쟁 환경 분석 등을 포함한 시장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리서치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전방시장은 Enterprise AI 시장 내 "Platform Application Service" 세그먼트입니다. EY가 발간한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에 따르면, 글로벌 Enterprise AI 시장은 향후에도 24%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2030년 약 35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항목 기준으로 볼 때 시장 성숙에 따라 Application 시장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Platform 시장이 연평균 34% 수준으로 가장 빠르게 확장하여 현재 5조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약 30조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nterprise AI 시장 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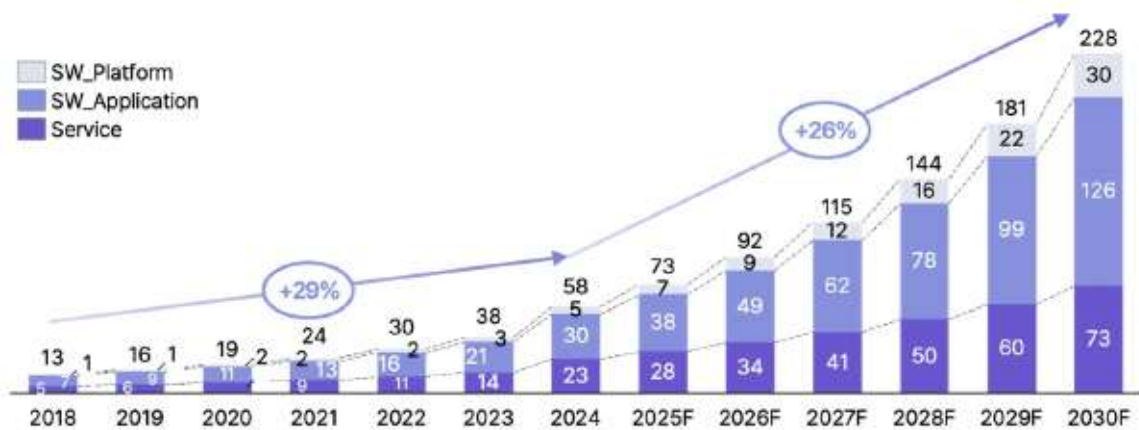
enterprise ai 시장 전망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Enterprise AI 시장에서 당사가 단기간 내 확장 가능한 Platform, Application 및 Service 시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연평균 29% 성장하여 2024년말 기준 약 58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연평균 26% 성장하여 2030년 228조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연평균 성장세는 Platform 시장이 34%, Application 시장 27%, Service 시장 21%로 전망되며, 이는 시장 발전에 따라 모든 세부 시장이 함께 성장하기는 하나, 기술 발전에 따라 Platform과 Application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Service를 통해 제공되던 수요들이 점진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nterprise AI 시장 내 Platform 및 Application 시장 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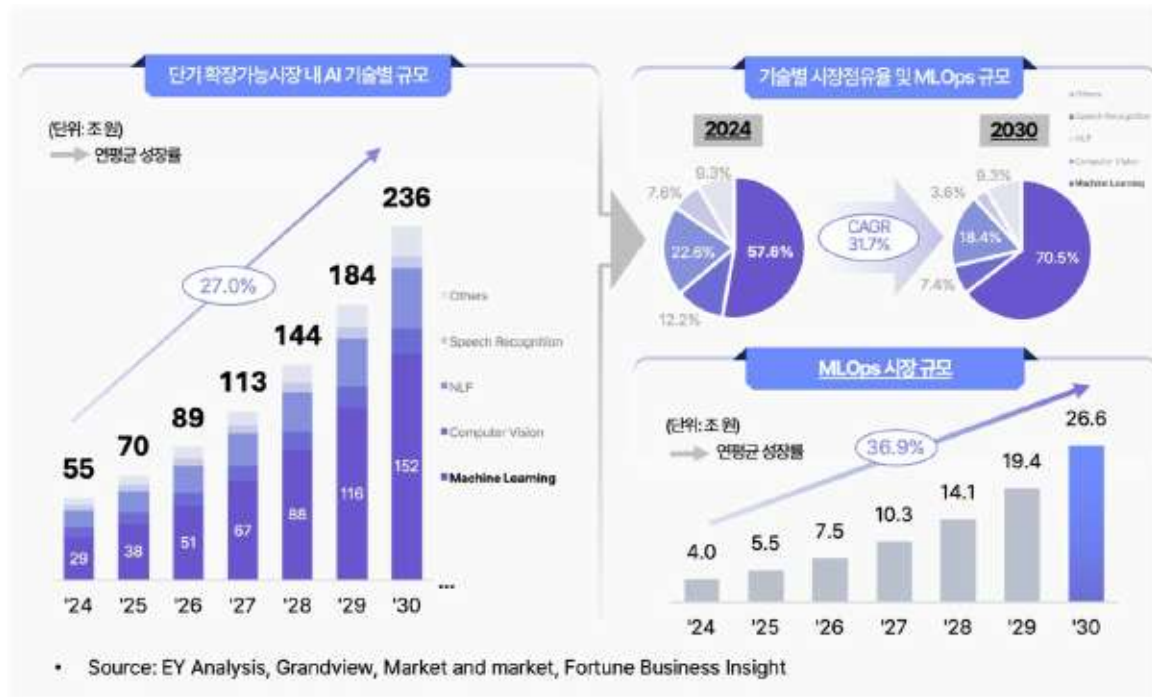


enterprise ai 시장 내 platform 및 application 시장 전망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Platform, Application, Service 시장을 구성하는 세부 AI기술 관점에서는 광범위한 Machine Learning 기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이러한 Machine Learning 기술에 기반하여 개발 및 활용되는 모델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MLOps(Machine Learning Operations)에 대한 수요는 연평균 3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 확장가능시장 내 AI 기술별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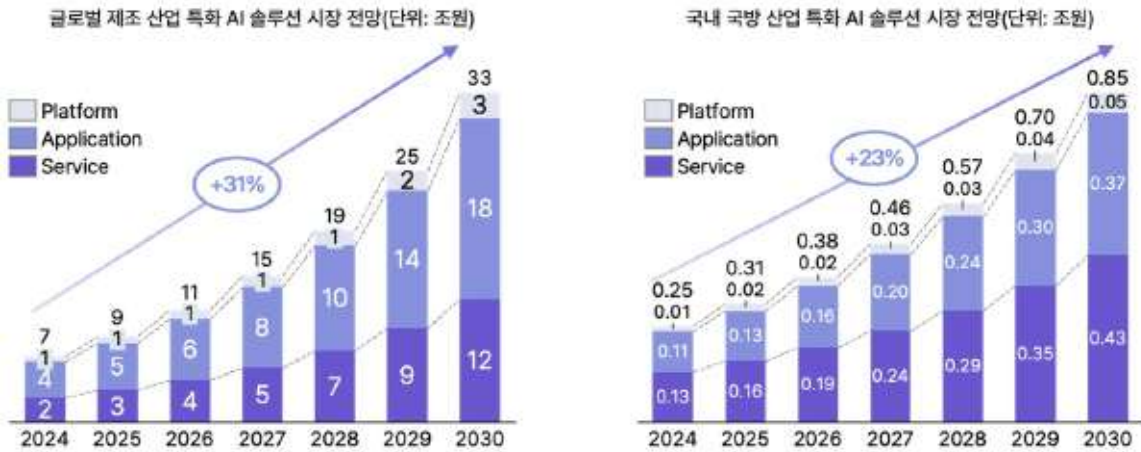
단기 확장가능시장 내 ai 기술별 상세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Enterprise AI 시장 내 Platform, Application 및 Service 시장을 세분류하여 당사가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사업 영역에 해당되는 글로벌 제조 산업 분야와 국내 국방 분야로 구분할 경우 각 시장의 규모는 2024년 현재 약 6.5조원, 0.3조원 규모로 이를 합산한 당사의 초기 Target 시장의 규모는 6.8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초기 목표 시장 성장 전망]

(단위: 조원)



초기 목표 시장 성장 전망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한편, 최근 글로벌 AI 시장은 전례 없는 투자 확대와 빠른 기술 진화를 배경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 기대치의 조정, 기업 AI 도입 속도 지연, 투자 버블 우려 등 성장 둔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투자 확대가 실물 생산성 향상으로 실제 전환되지 않을 경우 'AI 투자 버블'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생성형 AI의 '환멸의 계곡(Trough of Disillusionment)' 진입은 기업들의 신규 AI 투자 결정을 보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AI 데이터 거버넌스 부재, AI 윤리·규제 불확실성, 숙련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장벽이 AI 도입 확산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용 AI 시장의 가치 사슬(Value Chain) 관점에서 현재 AI 산업의 투자는 데이터 및 GPU로 대변되는 전방 단계(Upstream)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실제 수요와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중·후방 단계(Mid/Downstream)에서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AI 버블 논란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적용 및 가치 창출을 담당하는 AI 플랫폼, 특화 AI 어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영역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활동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3대 AI 강국'을 목표로 AI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 정부 AI 관련 총 예산은 역대 최대인 10조1,0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사는 국가대표 AI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약 1조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사

업에도 선별된 AI 대표 전문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당사 사업의 직접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 'AI-Powered Industrial Operations'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 중 불과 16%만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기업들조차 98%가 AI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2024년 10월 'Where's the Value in AI?' 조사에서도 기업의 약 74%가 아직 AI를 개념검증 단계에서 가치 창출 및 조직 내 확산 단계로 전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AI 적용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하며, 범용 AI가 아닌 산업 특화 AI(Vertical AI) 솔루션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산업 특화 버티컬 AI 솔루션 역량 강화 및 고객사별 맞춤형 ROI 제시 역량 개발을 통해 시장 성장 둔화 위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AI 투자 심리의 급격한 냉각 또는 기업 AI 도입 속도의 구조적 저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AI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실적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용 AI(Enterprise AI) 특성 관련 위험

당사는 기업 고객(B2B)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폐쇄망 등 특수한 환경에서 산업 특화 AI(Vertical AI, 버티컬 AI)의 개발과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주력 제품인 AI 플랫폼 Runway를 중심으로 고객의 AI 도입 준비도와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AI 솔루션은 고객사의 업무 시스템과 긴밀하게 통합되는 특성 상 도입 결정이 다층적인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와 같은 긴 영업 사이클은 당사의 분기별 수주 변동성을 높이며, 연간 영업계획 수립 시 예측 정확도를 저해합니다. 또한, 가트너(Gartner)가 발표한 「Hype Cycl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25」에서는 기업 AI 프로젝트의 개념 검증(Proof of Concept, PoC) 성공률이 약 47%에 그치며, PoC 성공 후 실제 프로덕션 배

포로 이어지는 비율도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수주계약 이후에도 프로젝트 중단이나 납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수익 인식 시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업용 AI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회인 동시에 중대한 위험 요인입니다. 생성형 AI의 성능이 약 7개월마다 2배씩 향상되고 있는 최근 기술 발전 속도 하에서, 기업이 AI 솔루션의 투자타당성 검토, 선정, 개발, 안정화를 거쳐 실 배포하는 시점에는 해당 기술이 이미 후발 기술에 의해 추월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당사는 기업용 AI 시장의 구조적 위험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으나, 기업용 AI 시장의 특성인 장기 영업 사이클,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 높은 PoC 실패율 등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실적에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당사의 기존 기술 및 제품이 시장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실적 확보가 어려울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향후 장기적인 사업 목표의 달성 시기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업 고객(B2B)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폐쇄망 등 특수한 환경에서 산업 특화 AI(Vertical AI, 버티컬 AI)의 개발과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주력 제품인 AI 플랫폼 Runway를 중심으로 고객의 AI 도입 준비도와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On,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지빌리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 ASM, 혼다, 요코가와 등 국내외 선도 제조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제조·국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미충족 요구(Unmet Needs)를 빠르게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확대하는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용 AI 플랫폼 시장은 클라우드 기반 범용형 플랫폼과 폐쇄망 특화형 플랫폼으로 양분되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당사의 Runway 플랫폼은 제조·국방 등 데이터 주권과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서 온프레미스·폐쇄망 지원으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AI 플랫폼 시장 구분]

구분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	폐쇄망(온프레미스) AI 플랫폼
인프라 위치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모델 및 데이터 처리	기업 자체 데이터센터 또는 전용망(폐쇄망) 내 서버에서 로컬 처리
초기 구축비용	초기 비용은 낮지만, Deloitte에 따르면 AI API 호출 수수료로 퍼블릭 클라우드 지출이 예산을 15% 초과하며, 퍼블릭 클라우드 비용의 27%가 낭비로 간주됨	초기 인프라 비용이 높으나 자산 감가상각 및 세제 혜택이 가능하며, 대규모 사용 시 변동 거래비용이 낮아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
가용성 (Availability)	부하와 인프라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나 벤더 SLA로 보호 가능	인터넷 연결이나 외부 서버에 의존하지 않으며, 가장 낮은 지연시간을 보장하여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적합
확장성 · 탄력성	수요 변화에 따라 컴퓨팅 리소스를 신속하게 확장/축소 가능하며, 글로벌 지역 활용 가능	물리 장비 증설이 필요해 확장에 시간 · 비용 소요되며, 데이터센터 용량 한계에 영향
커스터마이제이션 (Customization)	표준 제품 설계와 기본 기능에 의해 제한	sLLM(Small LLM)을 기업 고유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하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기업별 맞춤화가 가능
규제 · 컴플라이언스	해외 리전 이용 시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제, 금융 · 공공기관은 별도 가이드(전용망/국내 리전 요구 등) 적용	망분리 · 폐쇄망 요구를 충족하기 쉬워, 금융보안 · 전산설비 규정 · 국방/공공 보안 규제 대응에 유리
대표 활용 사례	글로벌 SaaS형 AI 서비스, 대규모 데이터 분석 · 모델 트레이닝, 다국적 기업용 공통 플랫폼	국방 · 제조 · 통신 인프라, 금융 코어시스템, 공공 · 의료 등 민감 정보 · 폐쇄망 기반 업무

(출처: 당사 자체 조사자료)

특히, 퍼지컬 AI 기술과 멀티 에이전트(Multi-Agent) 시스템의 융합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랜섬웨어 공격 확산 등 심화되는 보안 위협이 폐쇄망 AI 플랫폼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60%가 보안 · 프라이버시를 AI 도입 시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답하였으며(CohnReznick, 2025), 약 70%의 기업이 AI 모델을 자체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Verperter, 2024)도 존재합니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국 정부는 AI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M.AX(Manufacturing AX) 사업에 약 1조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은 Stargate 프로젝트를 통해 약 5,000억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용 AI 솔루션은 고객사의 업무 시스템과 긴밀하게 통합되는 특성 상 도입 결정이 다층적인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맥킨지(McKinsey)의 「The State of AI in 2025」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AI 도입 의사결정에서 경영진 승인, 법무·보안 검토, 구매부서 협상, 기술검증(PoC) 등 복합적 절차를 거치는 데 통상 6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긴 영업 사이클은 당사의 분기별 수주 변동성을 높이며, 연간 영업계획 수립 시 예측 정확도를 저해합니다.

또한, 가트너(Gartner)가 발표한 「Hype Cycl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25」에서는 기업 AI 프로젝트의 개념검증(Proof of Concept, PoC) 성공률이 약 47%에 그치며, PoC 성공 후 실제 프로덕션 배포로 이어지는 비율도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수주계약 이후에도 프로젝트 중단이나 납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수익 인식 시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기업용 AI 프로젝트 수주·완료 파이프라인 단계별 이탈률]

단계	단계별 통과율	누적 완료율	주요 이탈 원인
초기 관심 → 수주계약	약 30~40%	30~40%	예산 미확보, 내부 우선순위 변경
수주계약 → PoC 성공	약 47%	14~19%	기술·데이터 요건 미충족
PoC 성공 → 프로덕션 배포	약 50%	7~10%	인프라·보안·변경관리 장벽

(출처: 가트너(Hype Cycl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25) 맥킨지(State of AI 2025))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업용 AI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회인 동시에 중대한 위험 요인입니다. 생성형 AI의 성능이 약 7개월마다 2배씩 향상되고 있는 최근 기술 발전 속도 하에서, 기업이 AI 솔루션의 투자타당성 검토, 선정, 개발, 안정화를 거쳐 실 배포하는 시점에는 해당 기술이 이미 후발 기술에 의해 추월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가트너는 2027년말까지 에이전트형 AI(Agentic AI) 프로젝트의 40% 이상이 비용 증가, 불명확한 사업 가치, 리스크 통제 미흡 등의 사유로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신기술 출현에 따른 기존 솔루션의 경쟁력 약화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용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은 이러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트렌드의 전환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다.

상기와 같은 기업용 AI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사의 Runway 플랫폼은 제조·국방 등 데이터 주권과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서 온프레미스·폐쇄망 지원으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Domain-Specialized AI Modeling) 기술과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Domain-Specialized AI Engineering) 기술이라는 두 가지 고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AI를 실험의 영역에서 운영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쇄망 특화 역량은 보안 위협 심화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중심의 범용 플랫폼 사업자가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차별적 경쟁우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AI 플랫폼 Runway를 중심으로 세 가지 방식(AI 운영체제(Runway) 공급, AI 컨설팅과 AI 운영체제(Runway)를 동시에 공급, AI 컨설팅 서비스 제공)의 다층적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AI 도입 성숙도에 따라 단계별로 접근함으로써 영업 사이클의 장기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초기 PoC 성공률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술 라이선싱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3단계 사업 로드맵에 따라 제조업 중심에서 국방, 금융, 에너지 등 인접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일본 법인 설립(2025.04), 유럽 고객(ASM, 노르텍스) 확보, 국방과학연구소·합동참모본부·해군 등 국방 분야 진출을 통해 수주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지역 다변화는 특정 산업이나 고객군에 대한 매출 집중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기업용 AI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중심 사업모델로 전환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로 고객 기반을 확장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당사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2018년부터 산업 현장에서 기술과 데이터 자산을 축적해 왔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데이터와 노하우가 당사 Runway 제품에 집약되어 Time-to-value를 단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고객사에 대한 제품형 수주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8년까지 당사는 중소 중견 제조기업들 대상으로 AI 운영체제 도입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전체 매출의 80%를 제품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국가사업 참여 및 기술 확보를 통해 Runway 제품의 적용 범위를 SaaS와 On-Device AI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축적된

레퍼런스 자산과 가치 창출 시간의 단축, 선제적인 기술 확보 전략 등에 기반하여, 당사의 제품 매출의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을 최우선 시장으로, 유럽과 중동은 기회 기반 접근 시장으로, 미국은 중장기 목표시장으로 구분하는 단계적이고 선택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제조 및 국방 분야에서 기술 신뢰도와 실증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요코가와 전기, 나치-후시코시 등 주요 기업들과 PoC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본 시장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기업용 AI 시장의 구조적 위험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으나, 기업용 AI 시장의 특성인 장기 영업 사이클,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 높은 PoC 실패율 등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실적에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당사의 기존 기술 및 제품이 시장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실적 확보가 어려울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향후 장기적인 사업 목표의 달성 시기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 기술 기반 사업은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해외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라는 외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탠퍼드 HAI(Stanford Human-Centered AI Institute)가 발표한 AI Index Report 2025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기관이 40개의 주요(notable) AI 모델을 개발하여 중국(15개), 유럽(3개)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미국의 민간 AI 투자는 1,091억달러로 중국(93억달러)의 약 12배, 영국(45억달러)의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미국의 투자가 중국과 EU·영국의 합산 투자를 255억달러 상회하는 등 미국은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투자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해외업체의 경우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 범용 플랫폼을 지향하는 반면, 당사는 폐쇄망 환경에 특화된 인프라 운영, AI 개발 및 배포, 그리고 플랫폼 생산성에 걸쳐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핵심 차별화 요소로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Runway의 경쟁우위도는 ① 폐쇄망 지원 인프라 및 자원 효율화, ② 보안 프로세스 통합, ③ 데이터 처리 및 저장, ④RAG 파이프라인 최적화, ⑤ 외부 시스템 연결 및 배포, ⑥ AI 애셋(Asset) 재활용 환경, ⑦ 사용자 경험으로 7개 핵심 영역에서 구현되며, 이를 통해 기존 클라우드 기반 경쟁사들이 제공할 수 없는 핵심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글로벌 대형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대형기업이 가진 자금력·브랜드 인지도·기술 포트폴리오 등 여러 측면에서 당사는 구조적 열위에 놓일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실적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 기술 기반 사업은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해외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라는 외부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탠퍼드 HAI(Stanford Human-Centered AI Institute)가 발표한 AI Index Report 2025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기관이 40개의 주요(notable) AI 모델을 개발하여 중국(15개), 유럽(3개)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미국의 민간 AI 투자는 1,091억달러로 중국(93억달러)의 약 12배, 영국(45억달러)의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미국의 투자가 중국과 EU·영국의 합산 투자를 255억달러 상회하는 등 미국은 AI 분야에서 압도적인 투자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탠퍼드 HAI(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는 2019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내에 설립된 인공지능 연구기관입니다. 컴퓨터과학, 경제학, 의학, 교육학, 법학 등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AI Index Steering Committee를 중심으로 매년 「AI Index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AI의 기술적 성과, 경제적 영향, 교육, 정책, 책임 있는 AI 등 분야를 데이터 기반으로 종합 분석하여 각국 정부, 글로벌 기업 및 투자기관의 AI 전략 수립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Microsoft(Azure AI), Google(Vertex AI), Amazon(AWS Bedrock) 등 글로벌 클라우드·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직접 개발·공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방대한 클라우드

인프라, 기존 기업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역량을 결합하여 버티컬 AI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당사와 같은 전문 AI 솔루션 기업의 시장 공간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기업들이 AI 기능 구현에 있어 기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클라우드·ERP 등)의 내장 AI를 우선 활용하는 비율이 독립 AI 솔루션 도입 비율을 처음으로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Meta AI의 LLaMA 시리즈, Mistral, DeepSeek 등 고성능 오픈소스 AI 모델의 빠른 확산은 AI 솔루션 구축의 기술적·비용적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고객사 내부 개발팀도 직접 AI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이는 당사와 같은 전문 솔루션 공급사에 대한 외부 구매(Buy) 수요를 내재화(Build)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맥킨지(McKinsey, The State of AI in 2025, 2025.11)에 따르면, 기업 AI 도입 방식 중 내부 개발(Build)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AI 아바타, 건축, 리테일 등 다양한 산업에 생성형 AI를 접목하는 응용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며 복합지능 분야의 기술력이 상승하고 있으나, 머신러닝 등 학습지능 영역에서는 뚜렷한 기술 진보나 사업화 성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의 AI 기본법 시행(2026.01) 및 AI G3 도약 정책 등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향후 기술력이 빠르게 고도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해외업체의 경우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 범용 플랫폼을 지향하는 반면, 당사는 폐쇄망 환경에 특화된 인프라 운영, AI 개발 및 배포, 그리고 플랫폼 생산성에 걸쳐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핵심 차별화 요소로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Runway의 경쟁우위도는 ① 폐쇄망 지원 인프라 및 자원 효율화, ② 보안 프로세스 통합, ③ 데이터 처리 및 저장, ④ RAG 파이프라인 최적화, ⑤ 외부 시스템 연결 및 배포, ⑥ AI 애셋(Asset) 재활용 환경, ⑦ 사용자 경험으로 7개 핵심 영역에서 구현되며, 이를 통해 기존 클라우드 기반 경쟁사들이 제공할 수 없는 핵심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글로벌 대형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대형 기업이 가진 자금력·브랜드 인지도·기술 포트폴리오 등 여러 측면에서 당사는 구조적 열위에 놓일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 실적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빠른 기술 변화에 따른 위험

인공지능 산업은 2023년 이후 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 모두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 기술 트렌드의 부상이 아닌, 모델 아키텍처, 연산 패러다임, 배포 환경, 그리고 기업 활용 방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환되는 복합적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은 AI 연산의 중심축이 훈련(Training)에서 추론(Inference)으로, 대형 모델(LLM)에서 소형 특화 모델(SLM)로, 클라우드 중심에서 엣지(Edge) 분산 환경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패러다임 전환은 당사가 영위하는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시장의 수요 구조, 기술 요구 수준, 그리고 경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이 빠른 기술 변화에 대한 다각적 대응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기술 경쟁력 약화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글로벌 AI 시장에서는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용 AI 플랫폼, MLOps, Agent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술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경쟁우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추진 중인 'Runway' 플랫폼 고도화 및 산업간 확장 관련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개발된 기술이 고객사의 실제 요구나 시장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용화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된 매출 실현이 지연되거나 신규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나 외부 인프라 제약이 발생할 경우, 개발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투자금의 회수 지연과 더불어 향후 현금흐름 및 사업 확장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산업은 2023년 이후 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 모두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 기술 트렌드의 부상이 아닌, 모델 아키텍처, 연산 패러다임, 배포 환경, 그리고 기업 활용 방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환되는 복합적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은 A

I 연산의 중심축이 훈련(Training)에서 추론(Inference)으로, 대형 모델(LLM)에서 소형 특화 모델(SLM)로, 클라우드 중심에서 엣지(Edge) 분산 환경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패러다임 전환은 당사가 영위하는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시장의 수요 구조, 기술 요구 수준, 그리고 경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Epoch AI의 Notable AI Models 데이터베이스(543개 모델 수록)에 따르면, AI 모델의 훈련에 투입되는 연산량(Training Compute)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시기별로 뚜렷한 성장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딥러닝 이전 시기(~2010년 이전)에는 연간 약 1.5배 수준의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딥러닝 시대(Deep Learning Era, 약 2010년 이후)에 진입하면서 연간 약 4.3배로 성장 속도가 급격히 가속화되었으며, 2020년대 이후에는 Grok-2, OpenAI Five Rerun, Gato 등 프론티어 모델들의 훈련 연산량은 1950년대 초기 AI 모델(Theseus) 대비 약 10의 24승배(1조의 1조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편, Epoch AI는 2022년 설립된 비영리 다학제 연구기관으로, 인공지능의 발전 궤적(trajec-tory)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예측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Deloitte)는 「TMT Predictions 2026」에서 AI 산업이 화려한 기술적 돌파구보다 AI를 대규모로 실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보다 성숙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026년 전체 AI 연산의 약 2/3가 추론(Inference) 워크로드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론 수요의 증가가 엣지 디바이스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대부분의 추론은 약 0.5조 달러 규모의 신규 데이터센터와 2,000억 달러 이상의 고성능 AI 칩이 탑재된 온프레미스 엔터프라이즈 서버에서 수행될 것이며, 추론에 최적화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용 칩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데이터센터와 엔터프라이즈 서버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AI 산업의 경쟁 초점이 '모델 훈련'에서 '대규모 추론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AI 인프라 투자가 축소되기보다 오히려 확대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한편, 딜로이트(Deloitte)는 1845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전문서비스 네트워크로, 감사, 세무, 컨설팅, 재무자문, 리스크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산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 트렌드 중 하나는 소형 언어 모델(Small Language Model, SLM)의 급부상입니다. NVIDIA 연구진은 2025년 6월 발표한 포

지션 페이퍼("Small Language Models are the Future of Agentic AI")에서 "차세대 Agentic AI의 핵심은 모델의 대형화가 아니라 소형 특화 모델의 분산 협업"이라고 주장하며, 10B 파라미터 이하의 SLM이 대부분의 에이전틱 작업에서 대형 모델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가트너(Gartner)는 2027년까지 기업이 범용 LLM 대비 소형 과업 특화 AI 모델을 3배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실시간 추론, 데이터 프라이버시, 비용 효율성에 대한 기업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SLM의 부상은 기업 고유 데이터로 파인 튜닝하여 특화된 성능을 발휘하는 '도메인 특화 AI(Vertical AI)'의 시장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Grand View Research(2025)는 엣지 AI 시장 규모를 2025년 249억달러에서 2033년 1,187억달러(CAGR 21.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엣지 AI 확산은 네트워크·보안 제약으로 클라우드 사용이 어려운 제조 및 국방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개별 공정 장비, 산업용 로봇, 무기 체계 등에 AI를 직접 탑재하여 지연 없는 실시간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Grand View Research, Inc.는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업으로서, 기술, 화학·소재, 에너지, 헬스케어 등 45개 이상의 산업 분야에 걸쳐 글로벌 및 지역별 시장 규모, 성장률, 경쟁 환경에 관한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240건 이상의 시장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빠른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주력 제품인 Runway 플랫폼은 특정 AI 모델이나 아키텍처에 종속되지 않고, AI 모델의 개발·배포·운영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체계(System)' 자체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되더라도 새로운 모델과 기술을 기존 운영 체계에 신속히 통합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사의 Runway 플랫폼은 AI 모델의 개발, 배포, 운영 등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머신러닝운영(MLOps) 기능에서 시작하여 데이터운영(Data Ops), 대규모언어모델운영(LLMOps), 에이전트 운영(AgentOps)까지 시장 수요와 기술 발전에 따라 그 기능범위를 확대하여 산업 특화 AI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딥러닝 → LLM → 에이전트)에 맞추어 플랫폼 기능을 선제적으로 확장해 온 실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Runway 플랫폼의 기술 트렌드 대응 기능 확장 경과]

기간	기술 트렌드	Runway 대응 기능	핵심 역할
2018년~2022년	딥러닝 기반 산업 AI 확산	MLOps	AI 모델 개발·배포·운영 전주기 관리
2022년~2024년	데이터 중심 AI, LLM 부상	DataOps, LLMOps	데이터 파이프라인, LLM 운영 체계
2025년~현재	AI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AgentOps	에이전트 운영·모니터링·거버넌스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상기와 같이 빠른 기술 변화에 대한 다각적 대응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3개년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개년 기술개발 로드맵]

(단위: 백만원)

연도	제품의의	핵심개발과제	공수	인프라 시 설장치	인건비와 운영비	기타경비	합계
2026년	FM 기반 지능형플랫폼으로 전환	자체 FM 기반 제품내 에이전틱 AI 서비스 개발 - Code Assistant - Help Desk	25%	438	1,067	244	1,748
		HPC·Edge 지능형 오케스트레이션 - 워크로드 기반 자원 분할·스케줄링 - GPU fractionalization	45%	788	1,921	438	3,146
		플랫폼 기능의 Agent화 - 자연어 기반 제어	30%	525	1,280	292	2,098
	소계		100%	1,750	4,268	974	6,992
2027년	산업과 국방을 아우르는 차세대 AI 운영 환경 확립	제품의 모든 기능을 AI 에이전트로 접근 가능 -AI 에이전트에 의한 모니터링 및 최적 운영 추천	45%	338	2,391	595	3,323
		Compound AI System 1차 상용화 - 모델 시뮬레이터 통합	55%	413	2,922	727	4,062
	소계		100%	750	5,313	1,322	7,385
2028년	Runway가 산업·국방 전반으로 확 장된 완전 자동화형 폐쇄망 플랫폼 으로 진화	자율형 학습·운영 체계 - 드리프트 감지 및 재학습 배포 자동화 - AI 에이전트에 의한 최적 운영 수행	65%	1,176	4,445	1,312	6,932
		산업 특화 Multi-Agent 생태계 정착	35%	633	2,393	706	3,733
	소계		100%	1,809	6,838	2,018	10,665
합계			-	4,309	16,419	4,314	25,042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2026년 아키텍처 및 제품 일관성을 대폭 개선한 Runway 2.0을 출시하였습니다. Runway 2.0은 플랫폼 코어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명확히 분리한 구조로, 플랫폼 코어는 계산 자원, 인증 및 보안 등 공통 운영 기반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유연하게 확장 가능한 실행 계층을 구성함으로써 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Compound AI 및 에이전틱 AI 지원을 위한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체계와, AI 에이전트와 연동되는 지식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AI를 하나의 환경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업 및 공정 전반의 최적화를 보다 지능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계속해서 Code Assistant, AI Help Desk 등 제품 내장형 AI 서비스를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상용화하고, 플랫폼 기능 전반을 에이전트 단위로 구조화하여 자연어 기반의 제어 및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HPC 및 Edge 환경을 아우르는 지능형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확보하여, GPU Fractionalization과 자원 스케줄링을 통해 워크로드별 효율적 자원 분할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방 장비용 On-device AI 기술을 고도화하여 드론·센서 등 폐쇄망 장비에서도 실시간 추론과 자율 판단이 가능한 구조를 실증할 것입니다.

2027년에는 모델 및 시뮬레이터 통합을 통해 Compound AI 시스템의 실사용을 본격화하고, 운영 환경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품의 주요 기능을 AI 에이전트를 통해 접근 및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키고, AI 에이전트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시스템 전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 자동화를 넘어 자율적 운영 지원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며, 해당 구조는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까지 확장 가능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모델 성능 드리프트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학습 및 재배포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AI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 체계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에이전트가 운영 전반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운영 방안을 실행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동화 중심의 운영 환경으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사는 이러한 기술적 진화를 바탕으로 산업 및 국방 전반에 적용 가능한 폐쇄망 기반의 고신뢰 AI 플랫폼으로 확장함으로써, 안정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차세대 AI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술개발로드맵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소요자금을 포함하여 공모자금 사용 목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기술 경쟁력 약

화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글로벌 AI 시장에서는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용 AI 플랫폼, MLOps, Agent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술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경쟁우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추진 중인 'Runway' 플랫폼 고도화 및 산업 간 확장 관련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개발된 기술이 고객사의 실제 요구나 시장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용화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된 매출 실현이 지연되거나 신규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나 외부 인프라 제약이 발생할 경우, 개발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투자금의 회수 지연과 더불어 향후 현금흐름 및 사업 확장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산업 내 경쟁심화 및 신규 경쟁사 출현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기업용 버티컬 AI 솔루션 시장은 기술 진입장벽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국내외 경쟁자의 수와 다양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압력 및 시장점유율 축소 위험이 상존합니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시장의 주요 경쟁사로 팔란티어, C3 ai, 데이터이쿠 등이 있으며, 이들 또한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는 전사 데이터의 수집, 통합, 정제, 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고객 조직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공공기관,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며, 각 부서나 기능 조직의 데이터를 연결해 하나의 통합된 뷰를 제공하고, 그 위에 시뮬레이션·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략적 결정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공급망, 재무, 인사, 운영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는 '상위 레벨(Planning/Decision Layer)' 중심의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반면, 당사의 Runway 플랫폼은 팔란티어와 유사하게 완전 폐쇄망 환경을 지원하면서도, 제조업 현장의 복잡한 OT 시스템과의 긴밀한 연동, 도메인 특화 AI 모델 개발 및 검증 전문성, 그리고 산업 현장의 구체적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하는 특화 솔루션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한 것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23년 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CB Insights가 선정한 '세계 100대 AI 기업'에 포함되는 등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성형 AI 시장이 자연어·이미지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것과 달리, 당사는 수치 데이터 기반의 산업 특화형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방산 분야의 높은 진입장벽과 결합하여 후발 기업이 단기간 내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적 우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크로스 플랫폼 최적화 역량, 국내 산업 특화 데이터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고객사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핵심 차별화 요소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및 정부 지원을 받는 해외 경쟁사의 산업용 AI 시장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픈소스 AI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 진입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심화로 인해 당사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점유율이 점차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Enterprise AI Platform) 시장은 2025년 들어 보안 위협 심화와 기술 융합 가속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전환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 EY(Ernst & Young)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전체 시장이 연평균 34.7%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보안과 성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조업과 국방 등 주요 목표 산업에서 하이브리드 및 온프레미스 솔루션의 성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보안 위협 심화에 따른 폐쇄망 AI 솔루션 수요 확대로 주요 경쟁업체들의 시장 포지셔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은 국내 기업들에 비해 더욱 방대한 솔루션 포트폴리오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과 문제영역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업체들은 클라우드 기반 범용 AI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폐쇄망 환경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통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시장은 아직 명확한 시장 리더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특히 폐쇄망 특화 영역에서는 기술력을 보유한 일부 기업 중심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시장의 주요 경쟁사로는 팔란티어, C3 ai, 데이터이쿠 등이 있으며, 이들 또한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파운드리(Foundry, 데이터 통합), AIP(AI 애플리케이션 개발), 고담(Gotham, 공공 데이터 통합)을 중심으로 완전 폐쇄망 환경 지원과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을 핵심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내 애플리케이션 포털(Applications Portal)을 통해 주요 AI 개발·운영 프로세스별 애플리케이션을 플랫폼과 함께 패키지로 제공하여 고객의 도입 속도를 대폭 단축시키는 번들링 전략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C3 ai는 산업별 특화 애플리케이션과 파트너 생태계 활용을 통해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차별화 요소로 하며, 하이브리드 배포를 지원하지만 완전 폐쇄망 환경 지원에서는 제한적인 역량을 보입니다. 데이터이쿠는 데이터 사이언스 민주화와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주로 클라우드 기반 배포를 지향하고 있어, 온프레미스 지원이 제한적이며 폐쇄망 환경이 필수적인 제조·국방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입니다.

[글로벌 주요 경쟁사 현황 비교]

구분	팔란티어	C3 ai	데이터이쿠
비즈니스모델	- 제품기반 통합 서비스	- 제품 라이선스 공급	- 제품 라이선스 공급
제품 포트폴리오	- 파운드리(Foundry): 데이터통합 - AIP: AI 애플리케이션개발 - 고담(Gotham): 공공데이터통합	- AI 플랫폼: AI 통합개발/운영플랫폼 - AI Apps: 업종특화애플리케이션	- AI 플랫폼: AI 통합개발/운영플랫폼
핵심차별화	- 최고 수준 보안인증 - 정부시장 독점적 지위 - 완전 폐쇄망 환경 지원	- 산업별 특화 애플리케이션 - 파트너 생태계 활용 - 턴키 솔루션 제공	- 데이터 사이언스 민주화 -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 데이터 거버넌스
배포유형	- 하이브리드 (온프레미스/클라우드)	- 하이브리드 (온프레미스/클라우드)	- 클라우드 기반 (온프레미스제한적)
타겟시장	- 대기업/정부기관 특화	- 중대형기업	- 중대형기업

(출처: 당사 내부자료 및 각 사 홈페이지 및 IR 자료)

특히, 팔란티어는 전사 데이터의 수집, 통합, 정제, 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고객 조직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공공기관,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며, 각 부서나 기능 조직의 데이터를 연결해 하나의 통합된 뷰를 제공하고, 그 위에 시뮬레이션·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략적 결정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

서 공급망, 재무, 인사, 운영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는 '상위 레벨(Planning/Decision Layer)' 중심의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반면, 당사의 Runway 플랫폼은 팔란티어와 유사하게 완전 폐쇄망 환경을 지원하면서도, 제조업 현장의 복잡한 OT 시스템과의 긴밀한 연동, 도메인 특화 AI 모델 개발 및 검증 전문성, 그리고 산업 현장의 구체적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하는 특화 솔루션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한 것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당사의 Runway 플랫폼은 제조업 내 개별 공정이나 설비, 혹은 특정 기능 영역(예: 예지보전, 생산 스케줄링, PLC 시뮬레이션, 설비 장비 제어 등)에 존재하는 도메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통해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기업입니다. 특정 공정에 대한 강화학습 기반 제어 최적화, 장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예지보전 시스템, 제조 스케줄링 자동화, 설비 자체 데이터 기반 설비 직접 제어, 비전 기반 로봇 경로 최적화 등 제어 및 실행 수준(Control/Execution Layer)에서의 AI 적용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제조현장 즉 라인과 플랜트에서의 적용과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내 주요 제조업체 및 국방 기관에 직접 플랫폼을 상용화하여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 격리된 폐쇄망 환경에서 AI개발·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검증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팔란티어는 단일 프로젝트 성격보다는 고객사 전반의 운영 체계를 디지털 트윈 형태로 구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서 간 시뮬레이션을 가능케 하는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구축형 사업모델을 채택한 반면, 당사는 고객사의 개별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듈형 AI 프로젝트 수행을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팔란티어의 사업모델 차이]

구분	당사	팔란티어
적용 레벨	제어/실행 레벨 (Control/Execution Layer)	상위 레벨 (Planning/Decision Layer)
핵심 가치	AI 기반의 자동화 및 최적화를 통한 장비 레벨 생산성 개선	데이터 통합 및 전사 전략 의사결정 지원
사업모델	모듈형 AI 프로젝트 수행 중심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구축형
강점	"어떻게 더 잘 실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실행 중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방향 제시

(출처: 당사 자체 정리)

국내 경쟁기업에는 베슬에이아이, 래블업, 에이프리카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각각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프로젝트에서 솔루션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SI(System Integration) 업무에 의존하지 않고 공통화 요소를 기반으로 범용 솔루션 및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슬에이아이, 래블업, 에이프리카 등 다수의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경쟁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특정 산업군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제조, 국방, 에너지 등 폐쇄망 환경이 중요한 산업의 경우, 다양한 산업 현장 환경에 맞춰 도메인 특화 AI 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는 전문성과 다수의 AI 모델을 제한적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배포 및 운영하는 범용성이 요구되나, 대부분의 국내 경쟁사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장의 OT 시스템과 긴밀한 연동이 필수적인 폐쇄망 환경에서는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배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23년 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CB Insights가 선정한 '세계 100대 AI 기업'에 포함되는 등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성형 AI 시장이 자연어·이미지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것과 달리, 당사는 수치 데이터 기반의 산업 특화형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방산 분야의 높은 진입장벽과 결합하여 후발 기업이 단기간 내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적 우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조업과 국방 분야에서 8년간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6개 분야에서 총 83건의 특허권 확보를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누적 153건의 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113개 주요 기업과의 비밀유지계약(NDA) 기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도별 프로젝트 수행 내역]

(단위: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합계
프로젝트수	3	4	12	13	14	25	30	52	153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요 산업별 프로젝트 수행 건수 및 대표 프로젝트]

(단위: 백만원)

산업	건수	주요 프로젝트	금액
자동차	34	현대자동차: 산업용로봇 이상탐지 AI 모델 개발	330
		현대오토에버: SDF 혁신플랫폼 POC 개발	567
		한온시스템즈: AI기반 차세대 EMS연구 개발	550
전기전자	16	글로벌 반도체 선도 기업: On device AI 모델 개발 및 모델 개발 관리 플랫폼 개발	2,000
		글로벌 반도체 선도 기업: FDC 이상 감지 연계 분석 제조 특화 AI 알고리즘 개발	749
		글로벌 반도체 선도 기업: HVAC 시스템 최적 제어 및 설계를 위한 AI Agent 개발 PoC	200
2차전지	22	삼성SDI: 배터리 생산라인 모터 이상탐지	394
		SK On: 비전검사 모델 개발	1,405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셀 추적 PLC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332
에너지	28	SKE&S: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 개발	646
		SK에코플랜트: 강화학습 기반 소각로 제어 최적화	180
		Device Insight: 풍력발전기 GTS 업무 지원 LLM서비스 개발 (Nordex 向)	350
중공업	19	두산 에너지빌리티: 설계 및 생산 AI 도입	690
		두산 에너지빌리티: HPC 운영 플랫폼 개발	225
		KG스틸 : 강화학습 기반 퍼니스 제어 최적화	132
국방	3	국방과학연구소: Cloud 최적화 아키텍처 기반 MLOps 이식 및 검증용 프레임워크 제작 용역	269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인공지능 무기체계용 MLSecOps 환경구축	1,818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생성형AI적용 KJOCS 정보검색 및 운영기술 실증	1,229

(출처: 당사 내부자료)

또한, 당사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93개 통제항목을 준수·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AI 플랫폼 기업 중 폐쇄망 환경에서 동작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수준의 독자적 라이선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소프트웨어의 보안성과 사업 모델을 동시에 보호하는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소프트웨어는 프론트엔드 98% 난독화 및 백엔드 코어 엔진의 싸이썬나이즈(Cythonize) 처리를 통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산업 특화 AI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다년간 축적한 투자·인력·인프라·플랫폼 경험을 기반으로 견고한 진입장벽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보유

를 넘어, 데이터·알고리즘·플랫폼·운영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독자적 기술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합 구조는 개별 요소보다 훨씬 높은 재현 장벽을 형성하며, 당사의 기술 우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쟁력은 단기적 자금 투입이 아닌,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조직적 투자를 통해 축적된 결과입니다. 당사는 2018년부터 산업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 기술을 고도화해 왔으며, 초기 이상탐지 중심의 기술을 제어·최적화·Agent 기술로 확장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MLOps 기반의 산업 특화 AI 엔지니어링 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개발 플랫폼인 Runway를 통해 모델의 개발·운영·배포 전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당사가 기술과 제품 개발에 투자한 인적·물적 현황]

개발 기간		하드웨어 투자		연구개발 인력 전문성		
기술 개발기간	제품 개발기간	서버 대수	서버 구매 비용	석박사 비율	리더십 평균 경력	관련 전공 비율 (컴퓨터/IT관련/산업공학)
8년	6년	38대	2,052백만원	49.4%	18년	77.9%

(출처: 당사 내부자료)

이와 같이 당사는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크로스 플랫폼 최적화 역량, 국내 산업 특화 데이터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고객사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핵심 차별화 요소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및 정부 지원을 받는 해외 경쟁사의 산업용 AI 시장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픈소스 AI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 진입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심화로 인해 당사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점유율이 점차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세계 각국 정부는 제조업을 국가 경쟁력 핵심으로 보고 AI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독일 '인더스트리 4.0', 한국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정책이 대표적인 사

례로서, 보조금, 세제 혜택, 데이터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감소시키고,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혁신을 과감히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투자, 국가 차원의 전략기금 조성을 통해 대규모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AI 투자 확대는 기업용 AI 솔루션 기업인 당사에게 공공부문 수주 기회 확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R&D 보조금 수혜 등의 측면에서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당사는 국가대표 AI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Manufacturing AX) 사업에 선별된 AI 대표 전문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M.AX 사업은 국내 1,000개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하여 100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며, 2026년 약 1조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어 당사의 제조 AI 솔루션 사업에 직접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AI 솔루션 도입 비용 5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350억원 규모)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당사의 전방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내외 AI 규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모든 규제 변화에 완벽히 대응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정부 지원 정책은 국내외 경기 변동, 재정 건전성 우려, 국정 운영 방향 변화 등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 AI 지원 정책의 지속성 여부, AI 기본법 및 글로벌 AI 규제 강화에 따라 당사의 정부 발주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사의 사업 구조와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기업용 AI(Enterprise AI) 사업은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에 의한 수혜와 함께, AI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으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환경, 수주 기회, 규제 준수 비용, 자금 조달 여건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제조업을 국가 경쟁력 핵심으로 보고 AI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독일 '인더스트리 4.0', 한국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보조금, 세제 혜택, 데이터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감소시키고,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혁신을 과감히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투자, 국가 차원의 전략기금 조성을 통해 대규모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산업 AI 지원 정책]

국가	설명
대한민국	- '20~'25 AI 바우처 사업, 중소·중견기업 AI 확산을 위해 총 약 3천1백억 원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 '24 전 국민 AI 일상 사용 예산안 발표, 총 9천억 원 투입 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5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와 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정부, 산업은행) - '25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얼라이언스 출범, 국내 1천개 이상 산학연 참여해 100조 원 부가가치 창출 목표(산업통상자원부) - '25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2조 원 규모의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첨단 GPU를 대폭 확충해 산·학·연에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5 첨단 GPU 1만장 확보를 위한 1.46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5 빅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5천5백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모태펀드의 AI·딥테크 분야 투자 확대(중소벤처기업부) - '25 산업AI 개발 확산, 445개 과제에 4천7백억 원 투자 계획(산업통상자원부) - '25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WBL, World Best LLM) 프로젝트, 약 2천억 원 투자해 GPU·데이터셋·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5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스마트그린산단 10곳에 2028년까지 1천4백억 원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25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AI 솔루션 도입 비용 50%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25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350억 원 규모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AI 활용·확산 프로그램 지원(중소벤처기업부) - '25 산업단지 AX 카라반 출범, AI·로봇 기업이 산업단지 4500여개 기업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상담 추진(산업통상자원부)
일본	- '24 역대 최대 규모의 AI예산 편성, 반도체 산업과 연계하여 2030년까지 약 10조 엔 편성 계획 - '24 AI 개발자용 슈퍼컴 환경 보조, KDDI·Sakura Internet 등 5개사 대상 최대 725억엔 보조 - '24 GENIAC 프로젝트, 일본 내생성AI 개발력 강화 위해 대규모 언어모델 중심 계산자원 지원 포함된 프로젝트 개시 - '24 일본 AI 슈퍼컴퓨터 ABCI 3.0 인프라 구축 위해 360억 엔 투자 - '25 총리 직속 'AI전략본부' 내각부에 설치해 국가 AI 정책 총괄 및 추진
미국	- '24 '국가인공지능연구자원' NAIRR 프로그램(파일럿) 시작, 공공 연구자 및 교육자 대상 AI 연구 자원접근성 확대 - '25 정부 예산 제출 지침에 '신뢰할 수 있는 AI R&D' 우선 고려 발표, FY2025 예산안 구성 시 AI R&D 및 안전/책임성 있는 AI 개발이 우선됨 - '25 '국가인공지능연구자원' NAIRR-OC 설립 예산 3천5백만 달러, 파일럿을 지속가능한 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운영센터 설립 지원 - '25 America's AI Action Plan 발표, AI 인프라 확충·데이터센터 현대화·반도체 생산 확대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 연방 예산 반영

국가	설명
	- '25 Stargate 프로젝트 추진, OpenAI · Oracle · SoftBank 등 참여,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 약 5천억 달러 규모로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구축 계획 - '25 국방부 AI 계약 체결, DoD가 구글, xAI 등 주요 기업과 수억 달러 규모 계약 맺고 국방 AI 워크플로우 적용 추진
중국	- '24 상하이 전략 산업 펀드 발표, AI · 집적회로 · 바이오 산업 중심, 총 1천억 위안 규모 펀드 조성 - '24~'25 컴퓨팅 파워 바우처 프로그램, 베이징 · 상하이 · 청두 등에서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센터 자원 보조, 상하이의 경우 총 6억 위안 규모, 최대 80%비용 보조 - '24 국가 전략기술로 가장 먼저 AI 지정, AI를 포함한 7대 첨단 기술을 2035년까지 완성할 목표 기술로 지정 - '24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확대, 국가전략기술 7대 핵심 분야에 약 5조 원 규모 연구개발 예산 투입 - '25 중국 AI 자본 지출 확대, 연간 약 840~980억 달러 예상, 이 중 정부 주도 약 560억 달러, 민간 약 240억 달러 투입 - '25 국가 AI 산업 투자기금 설립, 약 82억 달러 규모 펀드 신설, AI 생태계 전반 지원 목적 - '25 국가 벤처캐피탈 유도기금(National Venture Capital Guidance Fund) 조성, 총 1조 위안 규모로 하드테크 · 반도체 · AI 분야 투자 유도
영국	- '23 Science & Technology Framework 발표, 2030년까지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강화에 3억7천만 파운드 신규 정부 자금 투입 - '23~'24 AI 칩 · GPU 확보 투자, 정부가 AI 반도체 · 칩 조달 위해 1억 파운드 투입 - '25 공공부문 AI 도입 확대, 정부 AI 계약 누적 규모 5.7억 파운드 기록, 행정 · 공공서비스에 AI 적용 확산
독일	- '18 국가 AI 전략(Nationale KI-Strategie) 발표, 2025년까지 30억 유로 투자 계획, 연구 · 산업 적용 · 윤리적 기준 수립 3대 목표 - '23 독일 AI 연구 지원 확대, 정부가 향후 2년간 10억 유로를 AI 연구에 투입, 기존 대비 2배 이상 규모로 증액.

(출처: 당사 정리)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AI G3) 도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범정부적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9월 8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AI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로서 기술혁신 · 인프라, 산업 · 공공 AX, 데이터, 국제협력 등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AI 관련 총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1,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5년도 본예산(3조2,000억원) 대비 약 2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산업 · 생활 · 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 6,000억원,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 예산은 23조 7,417억원으로 확정되어 AI 대전환(AX) 지원에 4조 5,000억원을 투입합니다.

[2026년 정부 AI 관련 주요 예산 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부처	2025년(추경)	2026년(안)	증감률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GPU 확충)	과기정통부	16,195	21,087	+30.2%
산업·생활·공공 AI 도입 지원	범부처	-	26,000	신규
AI혁신거점 조성 (4개 권역)	과기정통부	-	31,000	신규(예타면제)
국가 AGI 연구소 설립	과기정통부	-	350	신규
정부 총 AI 예산	범정부	32,000*	101,000	+211%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예산안 (2025.11),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주1) 2025년은 본예산 기준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AI 투자 확대는 기업용 AI 솔루션 기업인 당사에게 공공부문 수주 기회 확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R&D 보조금 수혜 등의 측면에서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당사는 국가대표 AI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Manufacturing AX) 사업에 선별된 AI 대표 전문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M.AX 사업은 국내 1,000개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하여 100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며, 2026년 약 1조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어 당사의 제조 AI 솔루션 사업에 직접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AI 솔루션 도입 비용 5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350억원 규모)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당사의 전방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2020년 7월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면서, 한국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종합적인 AI 규제 체계를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를 ① 인공지능 개발사업자, ② 인공지능 이용사업자, ③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 ④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로 분류하고, 사업 형태에 따라 중첩적으로 의무를 부과합니다. 당사는 기업용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개발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으며, 솔루션의 적용 영역에 따라 고영향 AI 사업자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

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AI를 의미합니다. 당사의 경우 금융, 제조, 물류, 공공 등 분야에 AI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으며, 사용영역·기본권 위협의 중대성·빈도·활용 영역별 특수성 등에 따라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AI 도입 확대에 따른 신규 수주 기회가 증가하는 반면, 공공조달 입찰 요건으로 AI 기본법 준수 인증 또는 고영향 AI 안전성 평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경우 수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본법상 투명성 고지, 안전성 확보 문서화, 영향평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인력·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시행령 개정이나 새로운 하위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고영향 AI 범위 및 사업자 의무가 확대될 경우, 당사의 일부 솔루션 재설계 또는 서비스 제공 방식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AI 기본법 시행령 동향 및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을 통해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AI 규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모든 규제 변화에 완벽히 대응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정부 지원 정책은 국내외 경기 변동, 재정 건전성 우려, 국정 운영 방향 변화 등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 AI 지원 정책의 지속성 여부, AI 기본법 및 글로벌 AI 규제 강화에 따라 당사의 정부 발주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사의 사업 구조와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인공지능 불신 및 인력 대체 효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위험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동자 및 사회 구성원의 불신과 반발은 기업 고객의 AI 솔루션 도입 의사결정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동의·협의 없는 AI 도입에 대한 법적·사회적 저항이 증가하는 추세로, 노동조합이 강한 산업 또는 공공 부문에서는 AI 도입 속도가 더 느리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품질 오류, 알고리즘 편향,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등에 관한 부정적 언론 보도가 잇따를 경우 해당 솔루션 유형 전체에 대한 시장 냉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의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를 위한 AI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 인력 대체가 아닌 '인간-AI 협업(Human-AI Collaboration)'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솔루션 설계 및 영업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AI의 경우 인간의 최종 검토 및 감독(Human Oversight)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AI 불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사회적 불신 확산과 인력 대체 효과로 인한 노동시장 갈등이 기업 고객의 AI 도입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당사에 대한 평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환경 및 고객 설득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25년 1월 발표한 「미래 일자리 보고서 2025(Future of Jobs Report 2025)」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AI와 기술 혁신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9,200만개의 일자리가 소멸하는 반면, 신규 일자리는 약 1억7,000만개가 창출되어 순증 효과가 전망됩니다. 그러나 소멸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 간 직종 및 역량 요건의 격차(Skill Gap)가 크고, 기존 근로자의 39%가 보유한 직무 역량이 2030년까지 쓸모없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전환 과정에서의 구조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세계 고용의 약 40%가 AI의 영향권에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 약 3억개 정규직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IDC가 22개국 비즈니스 리더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앳 워크(AI at Work)」 조사(2025.11)에서는 전세계 기업의 66%가 향후 3년간 초급 인력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한국에서도 61%가 초급 채용 축소를, 93%가 직무 변화 또는 대체를 이미 경험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KDI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2023) 보고서를 통해 AI 도입 확대가 IT·정보통신 전문직 고용은 증가시키는 반면, 서비스·단순노무직 고용 감소 및 특히 청년층(여성 15~29세, 남성 30~44세)의 고용·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 분석하였습니다. 삼일PwC경영연구원도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우려가 사회적 불안 확산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교육(Reskilling)과 역할 재정의가 해결책이나 단기적 전환 과정의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동자 및 사회 구성원의 불신과 반발은 기업 고객의 AI 솔루션 도입 의사결정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동의·협의 없는 AI 도입에 대한 법적·사회적 저항이 증가하는 추세로, 노동조합이 강한 산업 또는 공공 부문에서는 AI 도입 속도가 더 느리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제조·금융·공공기관 고객사들은 AI 도입 과정에서 직원 대표 기구와의 협의, 영향평가, 단계적 도입 계획 수립 등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프로젝트 수주 후 구현 단계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품질 오류, 알고리즘 편향,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등에 관한 부정적 언론 보도가 잇따를 경우 해당 솔루션 유형 전체에 대한 시장 냉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신용평가 AI의 차별 사례, 채용 AI의 편향 문제 등이 규제기관 조사나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고객들이 AI 솔루션 도입 시 검증·책임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기업의 업무 자동화 및 효율화를 위한 AI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 인력 대체가 아닌 '인간-AI 협업(Human-AI Collaboration)'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솔루션 설계 및 영업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AI의 경우 인간의 최종 검토 및 감독(Human Oversight)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AI 불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사회적 불신 확산과 인력 대체 효과로 인한 노동시장 갈등이 기업 고객의 AI 도입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당사에 대한 평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 환경 및 고객 설득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위험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이 전 산업에 걸쳐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학습·추론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보안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AI 모델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보안 및 개인정

보 보호에 대한 규제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국방,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AI 시스템은 범용 AI 대비 보안 요건이 한층 높습니다. 산업용 AI는 공정 제어, 설비 운영, 품질 관리 등 물리적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보안 침해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생산 중단, 설비 파손, 인명 피해 등 물리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 공정 데이터에는 기업의 핵심 기술 노하우, 설비 운영 파라미터, 생산 레시피 등 고도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AI 모델의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Runway 플랫폼은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제조·국방·에너지 등 보안과 망분리가 요구되는 산업에서 필수적인 폐쇄망 환경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산업용 AI에 특화된 추가 규제가 도입될 경우 당사의 사업 모델 및 제품 설계에 대한 수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온프레미스 배포 모델은 고객사의 내부 보안 인프라 및 운영 역량에 일정 부분 의존하는 구조임에 따라, 고객사의 보안 관리 수준이 미흡할 경우 당사 솔루션의 운영 환경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제품 신뢰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데이터 보안 또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는 발생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의 성장에 따른 데이터량의 증가, 복잡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데이터 보안 이슈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데이터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제재와 함께 기업 신뢰도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평판 및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이 전 산업에 걸쳐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학습·추론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보안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AI 모델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IBM이 2025년 7월 발표한 「2025 Cost of a Data Breach Report」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13%가 AI 모델 또는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침해를 경험하였으며, 추가로 8%의 기업은 침해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

I 관련 보안 침해를 경험한 기업 중 97%가 적절한 AI 접근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I 보안 사고의 60%가 데이터 유출로, 31%가 운영 중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비인가된 AI 도구를 임의로 사용하는 이른바 '새도 AI(Shadow AI)'로 인한 보안 침해 비용은 건당 평균 463만달러로, 일반적인 보안 침해 비용(396만달러) 대비 67만달러가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2025년 「Cybersecurity Framework Profile for AI(Cyber AI Profile)」 초안을 발표하여, AI 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기존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CSF 2.0)와 통합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넘어 조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으면서, AI 고유의 보안 위험(모델 포이즈닝, 프롬프트 인젝션, 학습 데이터 유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AI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EU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EU AI Act」를 제정하여,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사이버보안, 인적 감독 등의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AI 관행 위반 시 최대 3,500만유로 또는 전세계 연간 매출의 7%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위반 시에도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매출의 3%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1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간소화 방안(Digital Omnibus Regulation Proposal)」에 따라 고위험 AI 관련 규정의 시행이 2027년 12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NIST의 「AI Risk Management Framework(AI RMF)」를 통해 자율적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최소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AI의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법은 AI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사업자의 특별 책무, AI 영향 평가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AI 기본법은 EU AI Act 대비 산업 진흥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으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여 실질적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국방,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AI 시스템은 범용 AI 대비 보안 요건이 한층 높습니다. 산업용 AI는 공정 제어, 설비 운영, 품질 관리 등 물리적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보안 침해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생산 중단, 설비 파손, 인명 피해 등 물리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 공정 데이터에는 기업의 핵심 기술 노하우, 설비 운영 파라미터, 생산 레시피 등 고도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AI 모델의 학습 및 추론 과정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은 대부분 외부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로 기업 내부망에서 운영되며, 엄격한 보안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을 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이터 반출입, 소프트웨어 배포, 접근 권한 관리 등에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 현장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범용 AI 서비스 대신, 폐쇄망(Air-gapped Network)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온프레미스형 AI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AI와 폐쇄형 AI의 비교]

구분	개방형(클라우드 기반) AI	폐쇄형(온프레미스) AI
데이터 소재지	외부 클라우드 서버(제3자 인프라)	고객사 내부 네트워크/데이터센터
데이터 전송 경로	학습·추론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	데이터가 내부망을 벗어나지 않음
데이터 통제권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에 의존	고객사가 전 과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보유
비인가 AI 사용(Shadow AI) 위험	임직원의 비인가 AI 도구 사용 가능성 높음	폐쇄망 환경에서 비인가 외부 AI 접근 원천 차단 가능
모델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	서비스 제공자가 자동 관리, 적시성 높음	고객사 내부 역량에 의존, 적시 적용을 위한 별도 프로세스 필요
확장성	수요에 따른 탄력적 확장 용이	하드웨어 증설에 따른 시간·비용 소요
초기 구축 비용	낮음(종량제/구독형)	높음(하드웨어·인프라 초기 투자 필요)
장기 운영 비용	사용량 증가 시 비용 급증 가능	대규모 운영 시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
적합 산업	보안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기업 환경	제조(공정 데이터), 국방, 금융, 의료 등 보안·규제 민감 산업

(출처: 당사 자체 정리)

개방형(클라우드 기반) AI의 경우, 학습 및 추론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므로 전송 과정 및 저장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수의 테넌트가 인프라를 공유하는 구조에서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의 가능성이 있으며, 앞서 언급된 IBM 보고서에서 지적된 '새도 AI' 문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 변경, 제3자 API 연동 등에 따른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가 존재합니다.

반면, 폐쇄형(온프레미스) AI의 경우, 데이터가 고객사 내부 네트워크를 벗어나지 않아 물리적 데이터 유출 경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기업의 기존 보안 정책(방화벽, 망분리, 접근 통제 등)과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모델의 학습·추론·업데이트 전 과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고객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인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역량이 필요하며, 보안 패치 및 모델 업데이트의 적시성이 고객사의 내부 역량에 의존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은 대부분 외부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로 기업 내부망에서 운영되며, 엄격한 보안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을 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이터 반입·반출, 소프트웨어 배포, 접근 권한 관리 등에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제조·국방과 같은 분야는 보안, 망분리, 실시간성 등의 제약으로 인해 외부 클라우드 자원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제한된 온프레미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연산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당사의 AI 인프라 구성 기술은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단일 환경에서 로컬·클러스터·HPC 등 다양한 연산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외부 클라우드 수준의 성능과 편의성을 제공하면서도 산업별 보안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이 기술은 복잡한 인프라 구조를 단일한 실행 체계로 추상화하여 개발자와 엔지니어가 고성능 연산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연산 자원의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작업의 자동화·표준화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안이 중요한 폐쇄망 환경에서도 대규모 모델 학습, 시뮬레이션, 최적화 연산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외부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I 인프라 구성 기술은 산업용 인공지능의 실용적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안정성·효율성·확장성의 균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Runway 플랫폼은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제조·국방·에너지 등 보안과 망분리가 요구되는 산업에서 필수적인 폐쇄망 환경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산업용 AI에 특화된 추가 규제가 도입될 경우 당사의 사업 모델 및 제품 설계에 대한 수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온프레미스 배포 모델은 고객사의 내부 보안 인프라 및 운영 역량에 일정 부분 의존하는 구조임에 따라, 고객사의 보안 관리 수준이 미흡할 경우 당사 솔루션의 운영 환경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제품 신뢰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데이터 보안 또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는 발생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의 성장에 따른 데이터량의 증가, 복잡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데이터 보안 이슈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데이터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제재와 함께 기업 신뢰도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평판 및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업간 거래(B2B) 사업 특성의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기업용 AI(Enterprise AI) 솔루션 사업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B(Business-to-Business) 사업입니다. B2B 사업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Business-to-Consumer) 사업과 사업 구조, 매출 특성, 고객 관계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B2B 사업 모델은 높은 계약 단가와 매출 안정성,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에 기반한 고객 Lock-in, 예측 가능한 매출 구조, 고객사 협업을 통한 기술 고도화 등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긴 영업 주기(Long Sales Cycle) 및 수주 예측 불확실성, 높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구 및 프로젝트 리스크, PoC-to-Production 전환율 불확실성, 고객 집중도 및 의존도 위험 등의 위험 요소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은 특정 거래처에 집중되지 않고 다수의 거래처로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3개년간 상위 매출처의 구성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상위 5개 매출처는 서로 상이한

거래처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 거래처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 거래처별 매출 비중은 대체로 6%~15% 수준에 분포하고 있으며, 상위 5개 거래처 합계 비중 역시 약 38.67%~49.6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특정 거래처에 대해 매출이 편중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B2B 사업의 특성 상 향후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매출 편중이 심화될 경우 공급자인 당사의 교섭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분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B2B 사업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고객 포트폴리오의 산업군 다변화, 구독형 라이선스 계약 확대, 표준화된 솔루션 모듈 구축을 통한 커스터마이제이션 범위 관리 등을 통해 B2B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용 AI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기업용 AI(Enterprise AI) 솔루션 사업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B(Business-to-Business) 사업입니다. B2B 사업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Business-to-Consumer) 사업과 사업 구조, 매출 특성, 고객 관계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B2B와 B2C 사업 비교]

구분	B2B	B2C
고객 유형	기업·기관·공공기관	일반 소비자(개인)
거래 단가	고단가 (수억~수십억원/건)	저단가 (수천원~수만원/건)
영업 주기	장기 (6~24개월)	단기 (즉시 구매 가능)
의사결정 구조	다단계 (기술검토·예산 승인/법무검토 등)	단독 또는 소규모 의사결정
고객 관계	장기 계약,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	단기 이용, 낮은 전환비용
매출 가시성	계약 기반 예측 가능 (Backlog)	수요 변동성 높음
커스터마이제이션	고객별 맞춤형 요구 높음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마케팅 방식	관계 기반 영업, 산업 전시/컨퍼런스	대중 마케팅, 디지털 광고

(출처: 당사 정리)

B2B 거래는 건당 계약 규모가 크고, 일단 도입된 AI 솔루션은 고객사의 핵심 업무 프

로세스에 깊이 연동되므로 계약 갱신율이 높고 장기적인 매출 기반(Recurring Revenue)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MLOps 플랫폼 Runway는 고객사의 AI 개발, 배포, 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반 인프라 성격을 가지므로, 도입 이후 타 솔루션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아 높은 고객 잔존율(Retention Rate)이 기대됩니다. 또한, 기업 고객은 AI 솔루션 도입 시 자사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존 IT 인프라, 업무 프로세스와의 연동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초기 투자는 높은 전환비용으로 작용하여, 경쟁사 제품으로의 교체를 억제하는 자연스러운 진입장벽(Moat)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B2C 사업이 소비자 심리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반면, B2B 사업은 연간 계약, 다년 구독, 유지보수(Maintenance) 계약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가시성(Revenue Visibility)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주 잔고(Backlog) 관리를 통해 향후 매출을 일정 부분 사전에 추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B2B 사업에서는 고객사와의 긴밀한 기술 협업 과정에서 산업 도메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전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제조/국방 분야 고객사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4,000여개 이상의 AI 모델을 배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누적 경험은 후발주자가 단기간 내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B2B 사업 구조에서는 거래 단가가 높은 대형 고객 몇 곳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고객의 예산 삭감, 계약 해지, 또는 동종 솔루션의 내재화(Insourcing) 전환은 당사 전체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맥킨지가 「The State of AI in 2025」(2025.11, 105개국 1,993명 대상)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약 2/3가 여전히 AI 실험·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AI 고성과 기업(AI에서 EBIT의 5% 이상을 창출하는 기업, 전체의 약 6%)은 외부 솔루션 도입이 아닌 워크플로우의 근본적 재설계와 내부 역량 구축을 통해 AI를 전사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 고성과 기업의 55%가 AI 도입 시 기존 프로세스에 AI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워크플로우 자체를 재설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비고성과 기업(20%)의 약 2.8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AI 역량의 내재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외부 AI 솔루션에 대한 수요 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B2B 사업 모델은 기업용 AI 솔루션은 도입을 검토하는 고객사 내부에서 기술

검토(PoC), 예산 승인, 법무·보안 검토, 계약 협상 등 다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기업용 AI 솔루션의 평균 영업 주기(Sales Cycle)는 초기 접촉부터 계약 체결까지 평균 6~18개월에 달하며, 공공기관 또는 대형 금융기관 대상 프로젝트의 경우 24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 영업 주기는 당사의 분기별 매출 인식 시점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수주 파이프라인 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은 범용 솔루션보다 자사의 데이터 환경, 인프라, 업무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맞춤형(Customized) AI 솔루션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당사의 개발 인력이 다수의 고객사 프로젝트에 동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 요구사항의 사후 변경, 고객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 등으로 인해 납기 지연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당초 계획 대비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한편, AI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는 고객사의 데이터 품질, 인프라 환경, 담당자 협조 여부 등 외생 변수가 많아 납기 지연, 추가 공수 발생, 범위 변경(Scope Creep) 등의 프로젝트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고정가 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경우 추가 개발 공수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보상이 어려워 프로젝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시간단가(T&M) 방식 계약에서는 프로젝트 기간 변동으로 인한 수익 인식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당사는 수주 전 기술 타당성 검증(Technical Feasibility Assessment)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계약 단계에서의 범위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2B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이러한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B2B 사업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Business-to-Consumer) 사업과 사업 구조, 매출 특성, 고객 관계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B2B 사업 모델은 높은 계약 단가와 매출 안정성,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에 기반한 고객 Lock-in, 예측 가능한 매출 구조, 고객사 협업을 통한 기술 고도화 등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긴 영업 주기(Long Sales Cycle) 및 수주 예측 불확실성, 높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구 및 프로젝트 리스크, PoC-to-Production 전환율 불확실성, 고객 집중도 및 의존도 위험 등의 위험요소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처 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매출처 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처 (26개사)	금액	비율	매출처 (37개사)	금액	비율	매출처 (49개사)	금액	비율
1	국내기업A	617	11.85	국내기업F	1,005	12.12	국내기업J	1,624	14.17
2	국내기업B	406	7.80	국내기업G	873	10.52	국내기업K	1,213	10.58
3	국내기업C	360	6.92	국내기업H	856	10.33	국내기업L	1,013	8.84
4	국내기업D	330	6.34	국내기업I	852	10.27	국내기관A	928	8.10
5	국내기업E	300	5.76	국내기업J	534	6.43	국내기업M	693	6.04
-	소계	2,013	38.67	소계	4,120	49.67	소계	5,471	47.74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 사업 특성상 동사 및 고객사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사항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고객사명은 익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은 특정 거래처에 집중되지 않고 다수의 거래처로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3개년간 상위 매출처의 구성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기간의 상위 5개 매출처는 서로 상이한 거래처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는 낮은 편입니다. 또한, 각 거래처별 매출 비중은 대체로 6%~15% 수준에 분포하고 있으며, 상위 5개 거래처 합계 비중 역시 약 38.67%~49.6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특정 거래처에 대해 매출이 편중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B2B 사업의 특성 상 향후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매출 편중이 심화될 경우 공급자인 당사의 교섭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B2B 사업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고객 포트폴리오의 산업군 다변화, 구독형 라이선스 계약 확대, 표준화된 솔루션 모듈 구축을 통한 커스터마이제이션 범위 관리 등을 통해 B2B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용 AI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하

기는 어려운 상황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AI 솔루션 개발 사업에서 지식재산권(IP)은 사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AI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환경은 학습 데이터 저작권 분쟁의 글로벌 확산,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불명확성, 경쟁사의 특허 공세 등 복합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및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프로젝트 계약서에 기술 비밀유지(NDA) 및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국 특허 29건과 국내 특허 55건을 포함하여 총 8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1건, PCT 7건과 국내 11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특허가 출원 중에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미국 3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이나 분쟁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현재 인지하고 있는 특허 침해 위험 또한 없습니다.

다만,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역설계 또는 독자개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시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사업분야의 진출영역이 확대될 경우 예상치 못한 특허 관련 소송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당사 영업상황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AI 솔루션 개발 사업에서 지식재산권(IP)은 사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AI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환경은 학습 데이터 저작권 분쟁의 글로벌 확산,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불명확성, 경쟁사의 특허 공세 등 복합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AI 산업에서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지식재산권 소송 건수는 2023년 약 20건에서 2025

년 70건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가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수억달러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5년 1월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상대로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6년 2월에는 동일한 방송 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언론사가 글로벌 빅테크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쟁 확산 추세는 당사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가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외부 데이터 또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저작권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 및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AI 솔루션이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해당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적 기준이 아직 불명확합니다. 현행 한국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사람의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어, 순수하게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 솔루션이 생성한 결과물을 고객이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당사가 개발에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 이후 AI 생성물에 대해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에만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은 사례별로 달라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습니다.

AI 알고리즘, 학습 방법론, 특화 모델 아키텍처 등은 특허 출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특허성(Patentability) 판단이 복잡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기술 특허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사가 유사 기술에 대한 특허를 먼저 확보하거나, 역으로 당사의 기술이 제3자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 파견 근무, 공동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당사의 핵심 알고리즘이나 구현 노하우가 의도치 않게 외부에 노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및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프로젝트 계

약서에 기술 비밀유지(NDA) 및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국 특허 29건과 국내 특허 55건을 포함하여 총 8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1건, PCT 7건과 국내 11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특허가 출원 중에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미국 3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 및 출원 현황]

특허등록			특허출원			합계
해외	국내	계	해외 (PCT 포함)	국내	계	
29	55	84	8	11	19	103

(출처: 당사 내부자료)

[특허 등록 및 출원 현황 상세]

번호	내용	특허(출원)번호	권리자(비중)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적용제 품	출원국
1	어노말리 디텍션	10-194002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8-07-11	2019-01-14	2038-07-11	Runway	대한민국
2	어노말리 디텍션	10-210197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9-04-30	2020-04-10	2039-04-30	-	대한민국
3	강화학습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제어 방법 및 장치	10-223427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0-10-29	2021-03-25	2040-10-29	-	대한민국
4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상치 검출 (NOVELTY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10-226188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7-27	2021-06-01	2040-04-08	-	대한민국
5	입력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최적의 어노말리 감지 모델 결정 방법	10-226745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2-24	2021-06-15	2040-02-24	-	대한민국
6	비정상 데이터 생성 방법	10-228767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2-24	2021-08-03	2040-02-24	-	대한민국

번호	내용	특허(출원)번호	권리자(비중)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적용제 품	출원국
7	피쳐 셋 정보에 기초한 전이 학습 방법	10-229270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7-02	2021-08-17	2040-07-02	-	대한민국
8	학습 데이터 관리 방법	10-229580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9-06-07	2021-08-25	2039-06-07	-	대한민국
9	입력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최적의 어노탈리 감지 모델 결정 방법	10-237248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5-03	2022-03-04	2040-02-24	-	대한민국
10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방법	10-242007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11-18	2022-07-07	2041-11-18	-	대한민국
11	반도체 소자의 배치를 평가하는 방법	10-243048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04	2022-08-03	2042-02-04	-	대한민국
12	금지 영역 정보를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를 배치하는 방법	10-243048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14	2022-08-03	2042-02-14	-	대한민국
13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방법	10-243048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17	2022-08-03	2042-02-17	-	대한민국
14	비정상 데이터 검출 방법 및 장치	10-243818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6-14	2022-08-25	2041-06-14	-	대한민국
15	반도체 설계를 위한 신경망 모델 학습 방법	10-244062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18	2022-09-01	2042-02-18	-	대한민국
16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0-244257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3-08	2022-09-06	2042-03-08	Runway	대한민국
17	패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패널의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및 시스템	10-245013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4-06	2022-09-28	2040-04-06	-	대한민국
18	패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패널의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및 시스템	10-245013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12-10	2022-09-28	2040-04-06	-	대한민국
19	다이내믹 모델 기반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10-246156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1-06-17	2022-10-27	2041-06-17	-	대한민국
20	환경 인자 조절 장치 및 그 운전 방법	10-247292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4-24	2022-11-28	2040-04-24	-	대한민국
21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방법	10-247485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11-18	2022-12-01	2041-11-18	-	대한민국
22	오토 인코더 모델의 선택 및 최적화 방법	10-247921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22	2022-12-15	2042-02-22	-	대한민국
23	수집이 필요한 정보의 영역을 예측하는 방법	10-248953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11-14	2023-01-12	2042-11-14	-	대한민국
24	모델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10-253164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2-24	2023-05-08	2040-05-29	Runway	대한민국
25	지원된 보상에 기초하여 공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10-253164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11-14	2023-05-08	2042-11-14	-	대한민국
26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	10-254970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3-14	2023-06-27	2040-02-24	-	대한민국
27	오토 인코더 모델의 데이터 선별 및 비정상 스코어 산출 방법	10-256219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04	2023-07-27	2042-02-04	-	대한민국
28	작업 수행 로봇의 작업 경로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	10-256641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3-08-08	2043-01-30	-	대한민국
29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조절 방법	10-257077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2-02	2023-08-22	2043-02-02	-	대한민국
30	인공지능 기반 제어 시뮬레이션 방법	10-257364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11-14	2023-08-29	2042-11-14	-	대한민국
31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10-257387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3-08-29	2043-01-30	-	대한민국
32	어노탈리 데이터 생성 방법	10-258358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2-24	2023-09-22	2040-02-24	-	대한민국
33	로봇 공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방법	10-259049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3-10-12	2043-01-30	-	대한민국
34	핀 방향 최적화를 통한 집적 회로 설계 방법	10-259606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5	2023-10-26	2043-01-25	-	대한민국
35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에 작업 지점들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	10-259662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3-10-27	2043-01-30	-	대한민국
36	반도체 소자의 배치를 평가하기 위해 2중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방법	10-259732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5	2023-10-30	2043-01-25	-	대한민국

번호	내용	특허(출원)번호	권리자(비중)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적용제 품	출원국
37	매크로 셀들을 그룹화하는 것에 기초하여 반도체를 설계하는 방법	10-259721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6	2023-10-30	2043-01-26	-	대한민국
38	매크로 소자로부터의 거리 정보를 고려하여 반도체 소자를 배치하는 방법	10-259781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5	2023-10-31	2043-01-25	-	대한민국
39	반도체 설계와 관련하여 데드 스페이스를 제거하는 방법	10-260225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5	2023-11-09	2043-01-25	-	대한민국
40	원격지 실행을 통한 개발 환경 제공 방법	10-260259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2-15	2023-11-10	2043-02-15	Runway	대한민국
41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에 작업 지점들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	10-261409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6-22	2023-12-11	2043-01-30	-	대한민국
42	이상탐지 모델 재학습 여부 및 학습 구간 적절성 판단 로직	10-261696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7-13	2023-12-19	2043-07-13	-	대한민국
43	로봇의 유효 작업 지점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10-262610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4-01-12	2043-01-30	-	대한민국
44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	10-262610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7-24	2024-01-12	2043-07-24	Runway	대한민국
45	산업용 로봇의 작업 경로 생성 방법	10-262902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4-01-19	2043-01-30	-	대한민국
46	강화 학습 기반의 스케줄링 방법	10-262902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7-21	2024-01-19	2043-07-21	-	대한민국
47	작업 수행 로봇의 작업 경로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	10-263824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6-20	2024-02-14	2043-01-30	-	대한민국
48	작업 수행 로봇의 작업 경로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	10-266016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6-20	2024-04-19	2043-01-30	-	대한민국
49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10-267187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04-26	2024-05-29	2041-06-17	-	대한민국
50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10-267696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8-21	2024-06-17	2043-08-21	Runway	대한민국
51	장비의 이상 원인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 방법	10-268702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7-13	2024-07-17	2043-07-13	-	대한민국
52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방법	10-268898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9-27	2024-07-23	2043-09-27	Runway	대한민국
53	기계 학습 모델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0-271020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12-06	2024-09-23	2043-12-06	Runway	대한민국
54	이상 탐지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10-287778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3-04	2025-10-23	2045-03-04	-	대한민국
55	도면 검토를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	10-2025-012985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9-11	2026-03-04	2045.09.11	-	대한민국
56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0-2022-011277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9-06	-	-	-	대한민국
57	보상 페널티에 기초한 강화학습 방법	10-2023-014418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10-25	-	-	-	대한민국
58	장비의 이상 탐지를 위한 인공 신경망 모델의 업데이트 방법	10-2024-017225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11-27	-	-	Runway	대한민국
59	인공 신경망 모델 기반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브레이크 패드 설계 방법	10-2024-017369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11-28	-	-	-	대한민국
60	기계 학습 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지속 배포 방법	10-2025-002669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2-28	-	-	Runway	대한민국
61	기계 학습 플랫폼의 지속적 학습 방법	10-2025-002732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3-04	-	-	Runway	대한민국
62	기계 학습 플랫폼의 지속적 통합 수행 방법	10-2025-002801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3-05	-	-	Runway	대한민국
63	기계 학습 플랫폼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0-2025-002947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3-07	-	-	Runway	대한민국
64	작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	10-2025-013007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9-11	-	-	Runway	대한민국
66	도면 작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10-2025-012984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9-11	-	-	Runway	대한민국
66	신경망 모델을 활용하여 도면 검토를 수행하는 방법	10-2025-012989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9-11	-	-	Runway	대한민국
67	어노말리 디텍션	10,803,38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8-09-17	2020-10-13	2038-09-17	Runway	미국
68	어노말리 디텍션	11,120,33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9-10	2021-09-14	2038-09-17	-	미국

번호	내용	특허(출원)번호	권리자(비중)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적용제 품	출원국
69	환경 인자 조절 장치 및 그 훈련 방법	11,156,96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4-22	2021-10-26	2041-02-05	-	미국
70	모델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11,226,89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2-23	2022-01-18	2041-02-23	Runway	미국
71	NOVELTY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11,301,75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3-05	2022-04-12	2040-10-15	-	미국
72	입력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최적의 어노말리 감지 모델 결정 방법	11,308,36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10-28	2022-04-19	2040-12-01	-	미국
73	어노말리 디텍션	11,537,90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9-12-23	2022-12-27	2040-12-12	-	미국
74	학습 데이터 관리 방법	11,562,16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3-27	2023-01-24	2040-06-11	-	미국
75	비정상 데이터 생성 방법	11,625,57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10-28	2023-04-11	2040-10-28	-	미국
76	모델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11,636,02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12-08	2023-04-25	2041-02-23	-	미국
77	강화학습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제어 방법 및 장치	11,645,72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1-10-28	2023-05-09	2041-10-28	-	미국
78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방법	11,657,20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13	2023-05-23	2043-01-13	-	미국
79	금지 영역 정보를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를 배치하는 방법	11,663,39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13	2023-05-30	2043-01-13	-	미국
80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방법	11,734,48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11-14	2023-08-22	2042-11-14	-	미국
81	입력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최적의 어노말리 감지 모델 결정 방법	11,769,06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3-11	2023-09-26	2040-10-28	-	미국
82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방법	11,790,13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11-14	2023-10-17	2042-11-14	-	미국
83	환경 인자 조절 장치 및 그 훈련 방법	11,797,85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9-16	2023-10-24	2041-05-31	-	미국
84	비정상 데이터 검출 방법 및 장치	11,803,17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2-07	2023-10-31	2042-06-09	-	미국
85	NOVELTY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11,816,57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3-03	2023-11-14	2040-03-05	-	미국
86	반도체 소자의 배치를 평가하는 방법	11,854,91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09	2023-12-26	2043-01-09	-	미국
87	SYSTEMS AND METHODS FOR DETECTING	11,948,29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7-01	2024-04-02	2041-03-25	-	미국
88	반도체 소자의 배치를 평가하기 위해 2중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방법	12,008,29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01-23	2024-06-11	2044-01-23	-	미국
89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12,049,01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01-27	2024-07-30	2044-01-27	-	미국
90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에 작업 지점들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	12,093,83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01-27	2024-09-17	2044-01-27	-	미국
91	자연된 보상에 기초하여 공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12,188,67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10-23	2025-01-07	2043-10-23	-	미국
92	수집이 필요한 정보의 영역을 예측하는 방법	12,198,03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10-06	2025-01-14	2043-10-06	-	미국
93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2,254,29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2-27	2025-03-18	2043-02-27	Runway	미국
94	인공지능 기반 제어 시뮬레이션 방법	12,373,70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11-10	2025-07-29	2043-11-10	-	미국
95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18/020,68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02-10	-	-	-	미국
96	다이내믹 모델 기반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18/020,83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02-10	2026-01-13	2042-10-21	-	미국
97	어노말리 디텍션	PCT/KR2019/00793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9-07-01	-	-	-	PCT

번호	내용	특허(출원)번호	권리자(비중)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적용제품	출원국
98	NOVELTY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PCT/KR2020/00473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4-08	-	-	-	PCT
99	환경 인자 조절 장치 및 그 훈련 방법	PCT/KR2021/00151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2-05	-	-	-	PCT
100	비정상 데이터 검출 방법 및 장치	PCT/KR2022/00811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6-09	-	-	-	PCT
101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PCT/KR2022/00819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06-10	-	-	-	PCT
102	다이나믹 모델 기반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PCT/KR2022/00819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06-10	-	-	-	PCT
103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PCT/KR2023/00014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04	-	-	Runway	PCT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의 IP 현황은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기업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P 경쟁력 검증 및 전략 수립을 위해 '과이특허법인'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특허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개별 특허에 대한 권리 분석을 실시하고, 침해 발생 시 대응 방안까지 고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핵심기술 및 세부기술과의 연관성, ③ 주요 프로젝트 및 제품, ④ 산업 및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태깅을 통해 기술과 특허의 사업적 연계성을 검토하고, 비즈니스적 임팩트를 반영한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⑤ 또한 BC G(Boston Consulting Group)의 산업 분류를 기반으로 AI 기술요소를 결합한 특허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글로벌 IT 기업 및 국내 주요 AI 기업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방향, 특허 출원 추이, 사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의 기술 경쟁력과 전략적 우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당사의 권리 범위가 넓은 주요 특허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주요 특허에 대한 권리분석]

출원상태	특허명	등록번호	권리범위
등록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	10-2549702	넓음
등록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방법	10-2474856	넓음
등록	인공지능 기반 제어 시뮬레이션 방법	10-2573643	다소넓음
등록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0-2442577	넓음
등록	수집이 필요한 정보의 영역을 예측하는 방법	10-2489534	넓음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각 핵심기술별로 중요도와 활용성을 검토하여 침해가능성이 있는 기술과 보호 필요성이 큰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별 특허 현황]

핵심기술	특허 수	주요 특허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 기술	53	10-2461569
		10- 2573643
		10- 2234270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기술	13	10-2602593
		10-2442577
		10-2688986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주요 고객이 속한 다양한 산업 분야와 비즈니스 단계에서 특허를 확보해 왔으며, 이는 해당 영역에서 당사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근거로 판단됩니다.

[산업별 특허 현황]

산업분야	특허 수	주요 특허
반도체	20	10-2474856

산업분야	특허 수	주요 특허
일반	20	10-2602593
자동차	13	10-2573643
로보틱스	9	10-2590491
전자	2	10-2570771
화학	2	10-2438189

(출처: 당사 내부자료)

[비즈니스 단계별 특허 현황]

비즈니스 영역	특허 수	주요 특허
생산/운영	28	10-1940029
일반	21	10-2688986
설계	15	10-2420071
품질	2	10-2450130

(출처: 당사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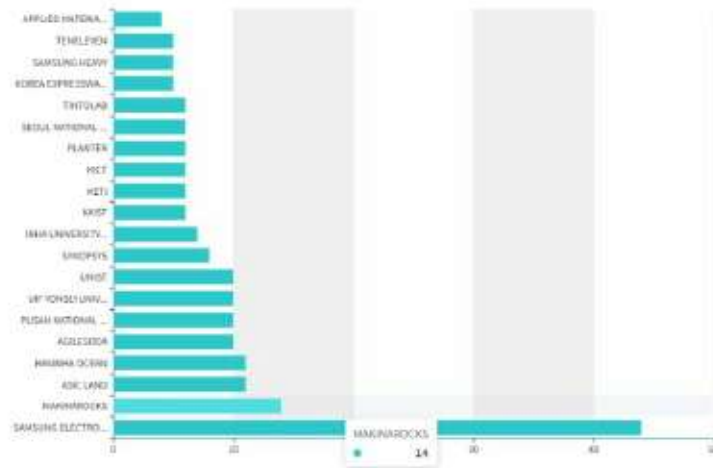
당사는 BCG의 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산업별 구분과 AI 기술요소를 결합한 특허 매트릭스를 구축하여 기업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의 특허 출원 경향성을 파악하고, 시장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며, 당사의 특허 출원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특허 분석 결과, 당사는 기업 규모와 시장 내 지위를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외부 전문기관(파이특허법률사무소)을 통해 "AI 기반 설계 및 최적화" 기술 영역에 대한 국내 특허 문헌 총 1,602건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및 설계·최적화 관련 키워드와 IPC 분류를 결합한 검색식을 적용하고, 중복 제거 및 노이즈 필터링을 거쳐 유효 데이터 627건을 기준으로 출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당사는 (주)삼성전자, 한화오션(주), 부산대학교, KAIST 등 20개 기업 및 기관 중 동 기술 분야에서 14개의 특허 건수로 (주)삼성전자 다음으로 상위권의 특허 출원 건수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I 기반 설계 및 최적화" 관련 특허 문헌 검색 결과]

“AI 기반 설계 및 최적화” 관련 특허 문헌 검색

검색 결과



ai 기반 설계 및 최적화 관련 특허 문헌 검색

(출처: 파이특허법률사무소)

주1) 파이특허법률사무소(PI IP LAW)는 국내 지식재산권(IP) 전문 로펌으로, 특히 AI·소프트웨어 특허 분야에 특화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다만, 상기 결과는 한국 특허 문헌을 대상으로 출원 사건 수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공개 및 등록 문헌의 중복 제거 및 산업·제조 관련성 기준을 적용한 특정 검색 조건 하에서 도출된 결과이며, 2026년 4월 7일 기준으로 공개된 사건을 대상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또한 2차원 히트맵을 활용한 정성적 분석 결과, 당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Vertical Solution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시에 모델 아키텍처 및 학습 방법 등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에도 폭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Vertical Solution 관련 특허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플랫폼 관련 특허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머신러닝 플랫폼 영역에서는 Siemens, SAP, Amazon 등 글로벌 선도기업과 비교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이나 분쟁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현재 인지하고 있는 특허 침해 위험 또한 없습니다.

다만,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역설계 또는 독자개발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시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사업분야의 진출영역이 확대될 경우 예상치 못한 특허 관련 소송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당사 영업상황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핵심 인력 유출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사업 경쟁력은 AI 연구개발, 솔루션 설계·구현, 고객 산업 도메인 이해 등 핵심 역량을 보유한 인재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AI 전문 인력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가 업계 공통의 난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핵심 인력의 이탈은 당사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 연속성에 직접적 위협이 됩니다

당사는 내부 임직원의 동기부여 강화를 통한 연구 개발 활동 활성화 및 핵심인력 이탈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성과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특허 출원 및 등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대해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12월에 도입되어 최근까지 총 341건, 107,500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인 평가 및 프로젝트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엔지니어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당사의 지속적인 인사관리 및 핵심인력 이탈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직이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주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기술 인력 또는 고객과의 접점을 관리하는 주요 인력이 이탈할 경우, 연구개발 일정 지연, 고객 대응력 약화,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수행과 미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경쟁력은 AI 연구개발, 솔루션 설계·구현, 고객 산업 도메인 이해 등 핵

심 역량을 보유한 인재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AI 전문 인력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가 업계 공통의 난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핵심 인력의 이탈은 당사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 연속성에 직접적 위협이 됩니다.

IDC가 22개국 비즈니스 리더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at Work」 보고서(2025.11)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71%가 AI 전문 인력 부족을 실감한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전세계 22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전세계 기업의 84%가 AI 기술 인재 확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기술 역량 검증의 어려움(42%)과 치열한 인재 확보 경쟁(42%)이 가장 큰 채용 장벽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핵심 R&D 인력 및 기술 리더가 이탈할 경우, 진행 중인 고객 프로젝트의 기술 연속성이 단절되어 납기 지연 및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 고유의 알고리즘, 구현 방법론, 고객 도메인 지식 등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 인력과 함께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 경쟁사 또는 고객사 내재화 팀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당사의 경쟁 우위가 훼손될 수 있으며, 핵심 인력 교체를 위한 채용·교육 비용과 기간 소요가 영업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당사는 AI 스타트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 및 구글·Meta·Microsoft 등 글로벌 빅테크와 동일한 AI 인재 풀을 두고 채용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기업·빅테크는 높은 기본급 외에도 성과급, 스톡옵션, 복리후생, 브랜드 가치 등에서 당사보다 우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격 근무 일반화 및 글로벌 채용 시장 통합으로 인해 국내 AI 인재들이 해외 기업의 원격 포지션을 수락하거나 실리콘밸리 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사의 인재 확보 경쟁 범위가 글로벌로 확대되었습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각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FDE본부, PD본부, 보안/인프라팀, Cognition팀, CS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 조직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 조직 구성]

구분	주요업무
FDE본부	-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만드는 조직 - 구체적인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 - ML Engineer로 구성
PD본부	- Runway 제품의 구성 요소들 및 고객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 데이터 어노테이션, AutoML, Continuous Training, LLM 서빙 등 다양한 MLOps, DataOps, LLMOps 기능을 통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AI 운영 환경을 제공 - 사용자경험(UX)팀, Frontend 엔지니어링팀, Backend 엔지니어링팀, 품질보증(QA)팀으로 구성
보안/인프라팀	- AI/ML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보호 거버넌스 운영 및 정보보안 인증 획득 및 유지관리 - Infrastructure Engineer와 Solution Engineer로 구성
Cognition팀	-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위한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CS팀	- 제품 및 모델 적용 이후 발생하는 운영 이슈에 대응하여 고객이 AI/ML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정규직 기준 총 115명의 임직원 중에서 임원을 포함한 연구개발인력이 81명인 연구 중심 AI 솔루션 개발 기업입니다. 당사는 AI 솔루션 개발을 위하여 본사 및 자회사 포함 전체 연구인력의 48%에 해당하는 39명이 석박사학위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연구개발인력의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규직 인원 현황]

(기준일 : 2026년 4월 9일)

(단위 : 명, %)

구분	팀 리더	팀원	합계	비율
연구개발인력	12	69	81	70%
비연구개발인력	9	25	34	30%
합계	21	94	115	100%

출처: 당사 내부자료

[최근 4개년 연구개발 인력현황]

(기준일 : 2026년 4월 9일)

(단위 : 명)

구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합계
2022년	2	27	35	1	65
2023년	3	35	38	2	78
2024년	3	32	42	3	80
2025년	1	29	34	2	66
현재	4	35	39	3	81

출처: 당사 내부자료

[핵심 연구인력 현황]

담당업무	성명	주요 경력	주요연구실적
FD프론티어팀 / 팀 리더	김병완	2007-2017 GCT Research 2006-2007 카이로넷 2003-2005 서울대컴퓨터연구소 1999-2003 LG전자	• A predictive call admission control scheme for low Earth orbit satellite networks (IEEE Transactions on Vehicular Technology, Volume 49 Issue 6, Nov 2000) • FSA-based link assignment and routing in low-earth orbit satellite networks (IEEE Transactions on Vehicular Technology, Volume 47 Issue 3, Aug 1998) • 저궤도 위성망에서의 호 수용 제어 기법 (2001, 서울대학교)
FD Agent팀 / 팀 리더	장병선	2021-2022 몬드리안에이아이 2015-2021 (주)에스이티시스템	• Wave observation method using high-frequency ocean radar, 교신저자(J. of Coastal Research, 95(sp1):1273-1278(2020))
FD Vision팀 / 팀 리더	이호진	2021-2023 Z엔터프라이즈 2008-2021 LG전자 2005-2008 SK 이노에이스	
FD 모델최적화팀 / 팀 리더	이재열	2020-2025 마키나락스	• Improvement of Learning Stability of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Using Variational Learning Appl. Sci. 2020, 10(13), 4528
PD본부 / 본부장	신현석	2021-2022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2019-2021 오드컨셉 2016-2018 네이버랩스 2014-2016 카카오 2011-2013 케이티하이텔	
FE팀 / 팀 리더	장환	2018-2021 텐디 2015-2018 즐라이몬스터 2009-2015 인텔코리아 2004-2006 벨웨이브	• 효율적인 SNP 발견을 위한 TDGS 영상 자동 분석 시스템, 학위논문
애플리케이션팀 / 팀 리더	허선웅	2020-2021 엔텔스 2014-2020 골프존 2005-2007 나우콤	
QA팀 / 팀 리더	배선대	2022-2025 코코지 2016-2022 오스탐임플란트	
Project Management팀 / 팀 리더	김대성	2018-2021 텐디 2015-2018 즐라이몬스터 2008-2015 인텔코리아	

담당업무	성명	주요 경력	주요연구실적
국방사업팀 / 팀 리더	김민성	2023-2025 국방과학연구소 2020-2023 합동참모본부 2019-2020 국방부 전략지원지원실	- 국방기술로드맵 개발 방법론 연구 - 국방기술로드맵 개발을 중심으로 - 첨단기술발전과 국방기획체계를 고려한 국방기술기획 개선방안 연구 - 북한의 핵사용가능성 평가체계 연구 2개의 CCD 카메라를 이용한 와이어현수기구 원격조종 시스템 개발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지난 2024년 상장예비심사신청을 철회한 이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일시적인 퇴직률 상승을 경험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발생한 연구개발인력 퇴직자는 총 13명(팀 리더 직급 퇴직자 0명)으로 2024년-2025년 2년간 전체 퇴직자 38명의 34%가 이 시기에 집중되었으나, 이는 구조적인 조직 관리 상의 문제보다는 상장예비심사신청 철회라는 특수한 경영 이벤트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핵심 인력으로 관리되고 있는 팀 리더 인력의 퇴직은 없었다는 점에서, 회사의 전략 방향, 기술 로드맵, 주요 고객 및 사업 구조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핵심 인력의 이탈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사 연구개발인력 유출입 현황]

(단위 : 명)

연도	입사자수	퇴사자수	연말 인원	연평균 인원	퇴사율
2021년	23	11	41	35	31.88%
2022년	37	13	65	56	23.21%
2023년	30	16	78	75	21.48%
2024년	18	16	83	82	19.51%
2025년	10	22	69	76	28.95%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 퇴사율 = 퇴사자수 / 연평균인원 [= (연초인원수 + 연말인원수) / 2]

[2024년 및 2025년 정규직 퇴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구개발인력	팀리더	0	2*	0	1	3
	팀원	7	7	12	9	35
	소계	7	9	12	10	38
비연구개발인력	팀리더	1	0	2	0	3
	팀원	0	3	7	3	13
	소계	1	3	9	3	16
합계		8	12	21	13	54

(출처: 당사 내부자료)

*) 상장애비심사신청 철회 이전 퇴사

[2025년말 기준 당사 연구개발인력 유출 내역]

(단위 : 명)

직급	퇴사자	일본법인 전직	자발적퇴사
Lv7	1	-	1
Lv6	3	1	2
Lv5	7	-	7
Lv4	7	-	7
Lv3	4	-	4
총인원	22	1	21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다만, 연구개발 인력의 퇴직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보유한 기술 및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에 대비하여 퇴직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자료 및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분리하고, 내부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등 사전적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내부 임직원의 동기부여 강화를 통한 연구 개발 활동 활성화 및 핵심인력 이탈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성과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

는 특허 출원 및 등록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12월에 도입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41건, 107,500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인 평가 및 프로젝트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엔지니어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당사의 지속적인 인사관리 및 핵심인력 이탈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직이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주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기술 인력 또는 고객과의 접점을 관리하는 주요 인력이 이탈할 경우, 연구개발 일정 지연, 고객 대응력 약화,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수행과 미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위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평균 임금은 매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 7.7%, 2020년 5.0%, 2021년 2.6%, 2022년 6.9%, 2023년 8.3%, 2024년 4.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상승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전문 인력의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와 클라우드 분야, 빅데이터 분야, 나노 분야에서 각각 12,800명, 18,800명, 19,600명, 8,400명의 신규 인력 부족이 전망됩니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해외 유출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 관련 고급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부터는 Runway 플랫폼의 개발을 본격화하였으며, 2022년 첫 상용 버전을 출시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인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업 특성에 따라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72.2%, 2024년 67.3%, 2025년 57.3%로 높은 편입니다. 향후 당사는 주요 제조 대기업 및 방산 업체와의 사업협력 확대, 그리고 글로벌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Runway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산업군 진출 및 Runway 제품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전문인

력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면,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상승을 피할 수 없으며 당사의 신규 인력의 충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한 핵심 개발인력을 유지하고 고급 인력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및 산하기관들과 국군에 AI 운영체계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솔루션 개발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최근 몇 년간 소프트웨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문 인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급격한 임금 상승이 발생해 왔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평균 임금은 매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 7.7%, 2020년 5.0%, 2021년 2.6%, 2022년 6.9%, 2023년 8.3%, 2024년 4.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상승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전문 인력의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SW기술자 일평균 임금 추이]

(단위: 원)

직무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IT기획자	403,081	388,724	360,307	419,656	481,654	562,993
IT컨설턴트	437,900	458,818	484,732	476,007	476,404	471,166
업무분석가	501,090	532,243	548,550	544,972	532,956	436,765
데이터분석가	335,799	347,670	323,184	347,476	380,190	376,271
IT PM	362,780	411,329	406,823	463,265	456,225	443,955
IT아키텍트	-	-	-	518,084	534,135	492,609
UI/UX기획/개발자	-	-	-	291,414	315,898	326,566
UI/UX 디자이너	-	250,345	228,717	217,843	224,150	251,272
응용SW 개발자	305,985	323,174	306,034	311,962	341,404	337,061
시스템SW 개발자	247,970	253,051	238,787	247,590	278,819	296,070
정보시스템운영자	-	-	-	326,653	435,608	492,943
IT지원기술자	183,743	203,918	191,065	190,219	215,203	245,535
IT마케터	-	-	-	378,726	483,647	536,729

직무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IT품질관리자	402,554	438,304	424,780	402,626	442,826	470,490
IT테스터	198,611	207,793	200,136	208,959	189,146	173,328
IT감리	340,109	391,741	424,481	456,540	485,624	502,494
정보보안전문가	-	-	-	362,961	454,136	478,500
평균 임금상승률 (YoY)	7.7%	5.0%	2.6%	6.9%	8.3%	4.2%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주1) 2022년 통계부터 직무 구분 개편이 진행되어 가장 최근일 통계 발표의 직무 구분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표기하였습니다.
- 주2) 일평균임금은 (월평균임금/각 연도 평균근무일수)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3) 통계청 요구에 따라 2021년 이후로는 임금산정방식을 단순평균 방식에서 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와 클라우드 분야, 빅데이터 분야, 나노 분야에서 각각 12,800명, 18,800명, 19,600명, 8,400명의 신규 인력 부족이 전망됩니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해외 유출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 관련 고급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개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결과(2023~2027년)]

(단위: 명)

구분	수요			공급						수급차		
				정부, 민간			대학					
	초중급	고급	계	초중급	고급	계	초중급	고급	계	초중급	고급	계
인공지능(AI)	44,600	21,500	66,100	46,200	4,000	50,200	2,200	900	3,100	3,800	(16,600)	(12,800)
클라우드	51,400	11,200	62,600	40,300	100	40,400	2,800	600	3,400	(8,300)	(10,500)	(18,800)
빅데이터	69,000	30,000	99,000	53,000	1,800	54,800	20,300	4,300	24,600	4,300	(23,900)	(19,600)
나노	10,600	3,400	14,000	3600	-	3,600	1,200	800	2,000	(5,800)	(2,600)	(8,400)

(출처: 고용노동부, '27년까지 인공지능(AI) 12,800명, 클라우드 18,800명 신규인력 부족 전망(2023.08))

당사는 2020년부터는 Runway 플랫폼의 개발을 본격화하였으며, 2022년 첫 상용 버전을 출시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인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업 특성에 따라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72.2%, 2024년 67.3%, 2025년 57.3%로 높은 편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당사 인건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당사 인건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제9기)	2024년(제8기)	2023년(제7기)
영업비용	19,501	19,191	16,364
인건비	11,172	12,922	11,818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	57.3%	67.3%	72.2%

(출처: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주1) 인건비 = 급여 및 상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경상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 주식보상비용

향후 당사는 주요 제조 대기업 및 방산 업체와의 사업협력 확대, 그리고 글로벌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Runway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산업군 진출 및 Runway 제품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면,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상승을 피할 수 없으며 당사의 신규 인력의 충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한 핵심 개발인력을 유지하고 고급 인력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주요 고객사와 재계약에 실패할 위험

당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국방부 및 산하기관들과 국군에 AI 운영체계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On,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지빌리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 ASM, 혼다, 요코가와 등 국내외 선도 제조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합동참모본부, 해군1함대 등 국방 분야 고객과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등 금융 분야 고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고객군은 거래 단가가 높은 대형 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GS, LG, SK, 삼성,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포스코, 한화, 현대 등 당사의 전략적 투자자들이 자본 참여를 넘어 고객으로서 사업 모델과 기술 잠재력을 산업 현장에서 함께 검증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AI 운영체계(Runway) 공급, AI 컨설팅과 AI 운영체계(Runway)를 동시에 공급, AI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사업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으며,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AI 플랫폼(Runway)는 고객의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병합되어 운영되는 산업 특화 AI 인프라로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대비 높은 전환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당사가 주요 고객사와 재계약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기반 매출 비중 확대, 장기 계약 확대, 고객 저변 다변화(제조→국방→금융→해외), SaaS 기반 반복 수익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하여 재계약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AI 전략 변경, 예산 삭감, 경영환경 악화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구독형 또는 연간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 시점마다 고객의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요 고객사와의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당사는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가 신규 고객 유입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상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다양한 산업군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국방부 및 산하기관들과 국군에 AI 운영체계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On,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지빌리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 ASM, 혼다, 요코가와 등 국내외 선도 제조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합동참모본부, 해군1함대 등 국방 분야 고객과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등 금융 분야 고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고객군은 거래 단가가 높은 대형 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GS, LG, SK, 삼성,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포스코, 한화, 현대 등 당사의 전략적 투자자들이 자본 참여를 넘어 고객으로서 사업 모델과 기술 잠재력을 산업 현장에서 함께 검증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AI 운영체계(Runway) 공급, AI 컨설팅과 AI 운영체계(Runway)를 동시에 공급, AI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사업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으며,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AI 플랫폼(Runway)은 고객의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병합되어 운영되는 산업 특화 AI 인프라로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대비 높은 전환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 고유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첫째, Runway는 데이터 수집 · 학습 · 배포 · 운영 · 보안 관리에 이르는 AI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고객이 Runway 위에 구축한 AI 모델, 데이터 파이프라인, 학습 파이프라인, 거버넌스 체계 등을 타 플랫폼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구축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둘째, 당사의 AI 솔루션은 폐쇄망 환경에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고객사의 보안 정책, 인프라 환경,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와 깊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플랫폼을 교체하는 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변경을 넘어 보안 인증, 망분리 체계, 데이터 반입·반출 절차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수반합니다.

셋째, 당사는 AI 컨설팅과 Runway를 동시에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 고객의 핵심 프로세스에 당사의 AI 솔루션을 병합함으로써, 이용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기회를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락인(Lock-In)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당사가 주요 고객사와 재계약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기반 매출 비중 확대, 장기 계약 확대, 고객 저변 다변화(제조→국방→금융→해외), SaaS 기반 반복 수익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하여 재계약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AI 전략 변경, 예산 삭감, 경영환경 악화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구독형 또는 연간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 시점마다 고객의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요 고객사와의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당사는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가 신규 고객 유입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상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고객사와의 협상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기업 고객(B2B)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군은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입니다. 당사와 같은 AI 전문 솔루션 기업은 규모 면에서 고객사 대비 현저히 작은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전반에서 협상력이 열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 차별화와 과거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가격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교섭력 격차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고객사와의 협상력 열위로 인해 단가 하락 압력, 불리한 계약 조건 수용, 자금 유동성 문제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업 고객(B2B)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군은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입니다. 당사와 같은 AI 전문 솔루션 기업은 규모 면에서 고객사 대비 현저히 작은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전반에서 협상력이 열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인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발주 과정에서 경쟁 입찰, 복수 견적 비교, 협상 과정을 통해 납품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의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의 적용을 받아 인건비 단가 상한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반면,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고급 AI 인력의 시장 임금은 공표 기준 단가를 상회하면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솔루션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사들의 저가 수주 전략이 전반적인 수주 단가 하락을 유발하고 있으며, 고객사가 경쟁사 제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당사에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주요 고객으로 하는 B2B 사업 특성상, 납품 완료 후 대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기간이 기관 및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어 운전자본 부담이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공 발주 사업은 최종 납품·검수 완료 후 30~60일 내 대금 지급이 원칙이나, 검수 절차 지연, 기관별 내부 결재 일정 등으로 실질적인 수금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당사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선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외주 개발비 등과의 시간적 불일치를 야기하여 단기 유동성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 차별화와 과거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가격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교섭력 격차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고객사와의 협상력 열위로 인해 단가 하락 압력, 불리한 계약 조건 수용, 자금 유동성 문제 등

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해외시장 진출 추진에 따른 위험

국내 시장 규모만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B2B 기술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은 불가피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술 기업으로서의 당위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3월 중 미국 현지법인 MakinaRocks, Inc.을 설립하였나, 2024년 이후 미국 현지법인의 수익성 악화 및 국내 사업역량 집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미국 사업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현지법인은 2025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장기적으로 미국 지역으로의 재진출 가능성 및 누적된 결손금을 활용한 미래 법인세 부담 감소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자금만을 유지한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제조 AI 시장의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4월 중 제조 산업이 강한 일본을 최우선 공략 시장으로 판단하여 일본 현지에 MakinaRocks KK.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본격적인 일본 시장 진출 전인 2024년에 일본 현지 SI 기업(System Integrator) 비전크리에이터(Vision Creator)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의 SI 계열사인 NTT 데이터 엔지니어링(NTT Data Engineering), 후지(Fuji)의 SI 계열사인 후지소프트(Fuji Soft)와 현재 NDA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사업협력을 위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본 시장 내 절대적인 영향을 가진 미쓰비시 상사(Mitsubishi Corporation)와도 2025년 7월 NDA를 체결하고 사업협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현지 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2개 회사(디바이스 인사이트, 레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해당 회사가 자사의 가망 고객에게 당사의 레퍼런스를 소개하여 수요를 발굴한 뒤 확인된 사업기회에 대해 공동 대응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인사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당사는 2025년 7월 독일 신재생 에너지 회사인 노르덱스(Nordex)사에 생성형 AI 기반의 특화 AI 솔루션(AI Agent)을 공급하는 약 4.5억원 규모의 사업 건을 수주했으며 디바이스 인사이트와 함께 개발/공급 과정에 있습니다. 레달과의 협업을 통해 당사는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 프로세싱 장비를 공급하는 ASM International N.V와 약 2.5억 규모의 AI 플랫폼 개념검증 계약 건을 체결했습니다.

상기와 같은 해외 진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 빅테크 기업을 비롯하여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선도사업자가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의 경우에도 현지 대기업 및 SI 사업자들의 AI 사업 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기술적 차별성(폐쇄망 환경 지원, 산업 특화 AI 모델링 등)이 현지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현지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 역량을 확보할 경우 당사의 시장 점유율 확보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시장에 대한 초기 시장 침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법인 운영비용, 인력 확보 비용, 파트너십 구축 비용 등 해외사업 관련 고정비 지출이 매출 발생에 선행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안착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지 시장 내 성공적으로 안착함에 있어 많은 위험요인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스타트업으로서 큰 투자를 동반한 방식에서의 진출은 쉽지 않습니다. 기술 개발 및 사업 운영 전반에서 최소 규모로 시작하고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는 운영 전략을 취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도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고, 본사 주도로 목표 시장을 공략하며 상황에 따라 현지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운영 방향성에 기반하여 주요 권역별 시장을 분석하여 최우선 시장을 일본 시장으로 설정했습니다. 유럽과 중동 시장은 적극적인 시장 진출보다는 기회에 따라 대응하고 미국 시장은 앞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 창출로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 후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지역 확대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내 초기 고객 발굴에 있어 직접 영업 방식 보다는 현지 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파트너와의 협업을 확장하는 시장 진출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주요 글로벌 시장 특성 및 시사점]

구분	주요 특성	시사점
일본	- 전체 AI 시장은 미국, 유럽 대비 작으나 한국대비 약 10배 규모로 추정되며 제조업 비중은 21% 수준임 - 자동차, 전자부품, 로봇, 소부장 등 영역에서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에 주요 역할을 하는 글로벌 리더 기업 다수 존재	- 최우선으로 접근 - 미국, 유럽대비 단일 시장으로 규모는 작으나 국내 시장 대비 성장 동력 충분 - 산업 내 제조업 비중이 커 제조x AI 관련 사업 및 기술 발전 용이 - 제조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이 많아 해당 시장에

구분	주요 특성	시사점
	- 장인정신(Monozukuri)에 기반한 품질 중시 경향으로 초기 진입 장벽 높으나, 진입 후 장기 협업 용이 - 정부 주도로 주력산업인 제조업 DX, AX 가속화 추진	- 서의 안착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용이 - 지리적 인접성으로 운영 용이
유럽	- 전체 AI 시장은 미국과 유사한 규모로 추정되며 제조업 비중은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14% 미만임 - EU AI Act 등 AI 표준, 규제 제정으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크고 국가별 언어, 시장 성숙도, 제도 차이 존재	- 기회 기반 접근(Opportunistic) - 전체 AI 시장 규모는 크나 제조업 비중은 높지 않고, 단일 시장으로의 매력도 낮음 - 시장 진출 관점 보다는 고객 확보 관점에서 접근하여 단계적 확대 바람직함
중동	- 현재 AI 시장 규모는 추정이 어려우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빠르게 성장 전망(KSA SDIA, UAE Operation 300bn 등) - 정유, 석유화학 산업 기반 강하나 국영 기업 중심으로 구성됨	- 기회 기반 접근(Opportunistic) - 시장 규모는 크지 않으나 강력한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추진 예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선택될 경우 안정적 사업 성장 용이 - 해당 프로그램에 선택될 가능성 기준으로 진출 고려
미국	- 전체 AI 시장은 크나 제조업 비중은 GDP기준 10% 미만임 - 빅 테크를 포함하여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선도사업자 다수 포진하여 경쟁 강도 높음 - 인력/비용구조 높음 - 정치, 정책 불확실성 증가	- 신중한 접근 - 전체 AI 시장은 가장 크고 매우 상징적인 시장이나, 금융/서비스 산업이 매우 발전하여 제조업 중요도 낮음 -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높은 비용구조와 지리적 분산으로 높은 운영비용 불가피함 - 글로벌 시장 내 입지(Global Presence) 강화 후 진출 바람직함

(출처: 당사 자체 정리)

당사의 지역 별 해외진출 현황 및 향후 사업 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시장

당사는 글로벌 제조 AI 시장의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8년 3월 중 미국 현지법인 MakinaRocks, Inc.을 설립하였으며, 2018년 8월 Applied Materials 프로젝트 수주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미국 현지 업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이후 미국 현지법인의 수익성 악화 및 국내 사업역량 집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사는 잠정적으로 미국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2024년말 기준 관련 채권 및 대여금에 대해 전액 손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미국 현지법인은 2025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장기적으로 미국 지역으로의 재진출 가능성 및 누적된 결손금을 활용한 미래 법인세 부담 감소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자금만을 유지한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2) 일본시장

미국 국제무역청(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이 2025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AI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89억달러이며, 2029년까지 279억 달러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AI 산업 육성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일본 AI 시장 규모는 2024년 118.4억달러에서 2032년 1,239억달러로 연평균 34.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별로는 BFSI(금융) 부문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 Preferred Networks, ABEJA, LeapMind 등 일본 토종 AI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AI 시장 규모 전망]



일본 ai 시장규모

(출처: Fortune Business Insights)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2026년까지 AI 및 반도체 예산을 1조2,300억엔(약 79억 달러)으로 대폭 증액할 예정이며, 이는 현행 수준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증가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총 3조엔 규모를 투입해 자국산 AI 기반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2026년부터 5년간 약 1조엔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이 강점을 가진 제조업의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 기반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에 개방하여 산업별 용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적으로는 로봇도 조작할 수 있는 '퍼지컬 AI' 개발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의 제조 AI 시장은 한국의 약 10배 정도 규모로 추산되며, 기업 간 거래에서 최초 거래 관계 형성이 어려우나 이후 신뢰가 형성되면 협업이 지속되고 확대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시장에서 당사의 기술력을 많은 가망 고객에게 소개하고, 빠르게 신뢰를 구축하여 시작된 협업을 안정적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현지 유망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은 전통적으로 IT 시스템 혹은 솔루션을 도입함에 있어 기술뿐 아니라 도입 이후의 안정적인 고객 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AI 솔루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업 기반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수준의 기술 기업이 일본 시장을 진출하여 현지화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본격적인 일본 시장 진출 전인 2024년에 일본 현지 SI 기업(System Integrator) 비전크리에이터(Vision Creator)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진출 후에 인지도가 상승하며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의 SI 계열사인 NTT 데이터 엔지니어링(NTT Data Engineering), 후지(Fuji)의 SI 계열사인 후지소프트(Fuji Soft)와 현재 NDA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사업협력을 위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본 시장 내 절대적인 영향을 가진 미쓰비시 상사(Mitsubishi Corporation)와도 2025년 7월 NDA를 체결하고 사업협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미쓰비시 상사는 CEO 직속의 AI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데이터센터부터 AI 솔루션 공급까지 AI 관련 전체 가치 사슬에 걸쳐 사업 개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상사는 최근 데이터센터, NPU 등 전방 산업 분야 유망 기업에 대한 전세계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질 수요를 창출할 하방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사업 개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는 하방 산업 사업 개발을 위한 가망 파트너로 미쓰비시상사와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유럽시장

유럽 시장은 현지 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2개 회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해당 회사가 자사의 가망 고객에게 당사의 레퍼런스를 소개하여 수요를 발굴한 뒤 확인된 사업기회에 대해 공동 대응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협력관계를 구축한 첫번째 회사는 선도적인 산업용 로봇 회사인 쿠카(KUKA AG)의 자회사로 2003년 뮌헨에 설립된 IoT 및 산업DX 전문기업인 디바이스 인사이트(Device Insight)라는 회사입니다. 디바이스 인사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당사는 2025년 7월 독일 신재생 에너지 회사인 노르텍스(Nordex)사에 생성형 AI 기반의 특화 AI 솔루션(AI Agent)을 공급하는 약 4.5억원 규모의 사업 건을 수주했으며 디바이스 인사이트와 함께 개발/공급 과정에 있습니다.

당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한 두번째 회사는 헬싱키에 본사를 두고 유럽 전역 포함 전세계 30개 사업장을 기반으로 BDaaS(Business Development as a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달(Reddal)이라는 회사입니다. 레달과의 협업을 통해 당사는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 프로세싱 장비를 공급하는 ASM International N.V와 약 2.5억 규모의 AI 플랫폼 개념검증 계약 건을 체결했습니다. 본 사업 건은 ASM이 공급하는 장비에 AI를 탑재하기 위한 고유 플랫폼 개발을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품 및 기술을 검토하고자 하는 건으로 현재 Runway의 핵심 기능을 활용하여 기술검증 중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해외 진출은 단기적으로 고객 저변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착은 당사가 병행 추진 중인 있는 Runway 기반 신규 사업과 맞물려 중기적으로는 당사 사업 규모의 폭발적 성장과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 빅테크 기업을 비롯하여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선도사업자가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의 경우에도 현지 대기업 및 SI 사업자들의 AI 사업 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기술적 차별성(폐쇄망 환경 지원, 산업 특화 AI 모델링 등)이 현지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현지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 역량을 확보할 경우 당사의 시장 점유율 확보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시장에 대한 초기 시장 침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법인 운영비용, 인력 확보 비용, 파트너십 구축 비용 등 해외사업 관련 고정비 지출이 매출 발생에 선행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안착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신규사업 추진 위험

당사는 AI 도입 의지는 있으나 내부 역량이 부족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I 적용 영역 발굴, 모델 개발, Runway 기반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한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도입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 기반 매출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검증된 AI 플랫폼인 Runway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난 7년간 글로벌 선도 제조 기업과 80건 이상의 다양한 특화 AI 솔루션 개발을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AI 기반 PLC(Programable Logic Controller, 자동화된 생산라인 내 장비를 제어하는 일종의 산업용 PC) 코드 분석, 설계도면 분석 등 SaaS 형태로 사업화가 가능한 가망 영역을 발굴하고 시장에 테스트했습니다. 검증된 서비스의 본격적인 사업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발굴로 솔루션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분야의 사업화를 위해 관련 아키텍처와 핵심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시장 성숙도 및 기술 완성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AI 플랫폼 Runway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정의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현행 사업 및 기술 기반을 동시에 고려하여 필수 항목들을 구비해가는 활동을 추진하되, 아직 초기 시장임을 고려하여 시장 및 당사 준비 상황에 따라 점검하며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중견기업 대상 AI 솔루션 사업의 경우, 고객사의 내부 기술 수용성과 운영 역량 부족으로 인한 도입 확산 지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온디바이스 AI 사업은 아직 초기 시장 단계로, 기술 표준의 부재와 상용화 지연, 연구개발 투자 대비 단기 수익성 부족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예상 자금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상황들이 악화될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성장전략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 사업의 확장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Runway를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SaaS (Software-as-a-Service) 기반 사업으로서, Runway를 클라우드 인프라(AWS, Azure, Naver Clo

ud 등)에 탑재해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둘째는 온디바이스 AI를 위해 폐쇄망 기반 Runway 경험을 확장하여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MCU: Micro Control Unit),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Application Processor), 산업용 로봇, 무인 운반차(AGV: Automated Guided Vehicle), 드론 등 디바이스 단위에서 AI를 구동하는 AI 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 Runway 기반 SaaS 사업

당사는 AI 도입 의지는 있으나 내부 역량이 부족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I 적용 영역 발굴, 모델 개발, Runway 기반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한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도입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 기반 매출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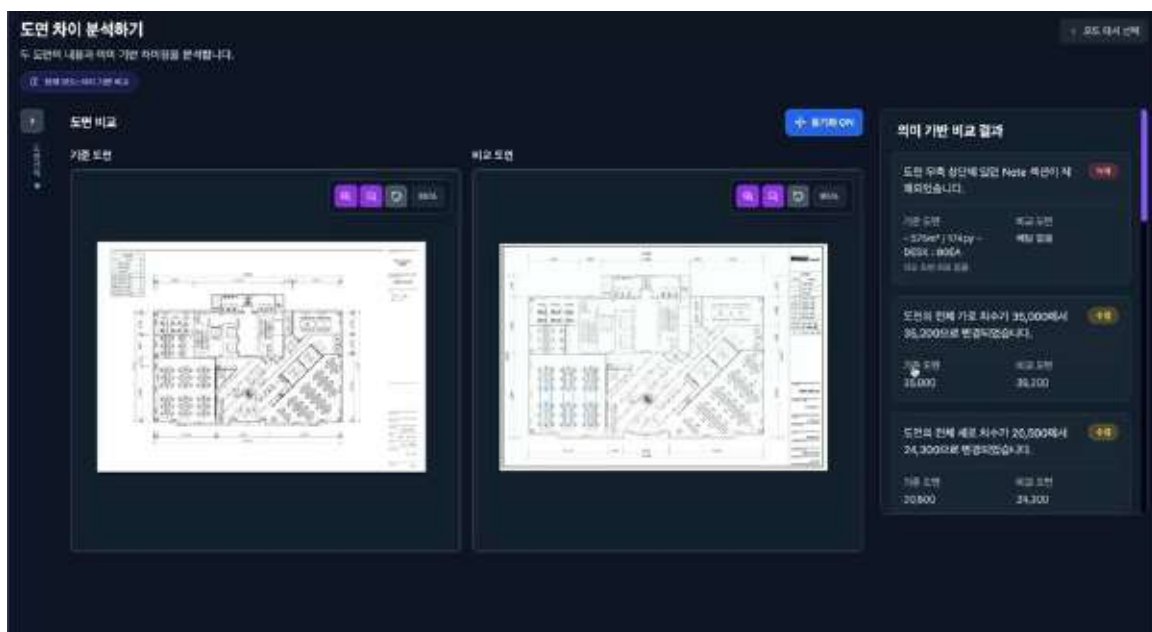
SaaS 형태의 사업 모델은 사업적으로 큰 이득이 있습니다. 첫째, 구독(Subscription) 기반의 반복 수익(Recurring Revenue)을 창출함으로써 계절적 수요 변동이나 단발성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며 모든 고객이 동일한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고 운영 비용은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격 부담을 낮춰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고 더 적은 비용 증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 확보가 용이합니다. 셋째, 고객의 사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SaaS 기반의 AI 서비스는 아직까지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7년 무렵 펄콘리(Falkonry) 등 미국의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고장 예측 등을 위한 특화 AI 솔루션을 SaaS 기반으로 공급한 사례들이 있었으나 유의미한 예측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외면당하고 못하고 성장 모멘텀을 상실했습니다. 제조 현장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특히 각 기업 별 고유한 적용 환경이 있기 때문에, 범용 AI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특화 AI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유로, 공통적인 서비스로는 성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조 특화 AI 솔루션을 SaaS 형태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한 다수의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I 운영체계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상적인 제조 기업의 AI 적용 수요와 환경이 기업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제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검증된 AI 플랫폼인 Runway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난 7년간 글로벌 선도 제조 기업과 80건 이상의 다양한 특화 AI 솔루션 개발을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AI 기반 PLC(Programable Logic Controller, 자동화된 생산라인 내 장비를 제어하는 일종의 산업용 PC) 코드 분석, 설계도면 분석 등 SaaS 형태로 사업화가 가능한 가망 영역을 발굴하고 시장에 테스트했습니다. 검증된 서비스의 본격적인 사업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발굴로 솔루션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도면 검토 AI]



생성형 ai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도면 검토 ai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2025년 국가대표 AI 사업이라고 불리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업스테이지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컨소시엄에서 개발하게 될 소버린 AI의 제조 및 국방 분야 확산을 추진하는 역할로 당사는 본 사업을 통해 확보한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전문가(공정 Operator) 보조, 비정형 문서(CAD, 조치이력) 활용 등 다양한 중견/중소 기업들이 쉽게 이용해 볼 수 있는 시범 서비스 출시 및

검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이후부터 한국생산기술원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다수 제조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운용하는 공정(예: 열처리 공정)에 적용 가능한, 보다 현장 문제 해결에 집중한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자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과 AI 플랫폼 Runway를 결합하여 SaaS 기반의 특화 AI 솔루션을 중견, 중소 제조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제조 산업 내 AI 실사용을 늘리고 당사의 고객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AI 운영체제 공급 사업

당사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분야의 사업화를 위해 관련 아키텍처와 핵심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시장 성숙도 및 기술 완성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AI 플랫폼 Runway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정의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현행 사업 및 기술 기반을 동시에 고려하여 필수 항목들을 구비해가는 활동을 추진하되, 아직 초기 시장임을 고려하여 시장 및 당사 준비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 기술 확보 방안]

아키텍처 계층	설명	확보 방안
엣지 하드웨어 레이어 (Edge Hardware)	SoC(NVIDIA Jetson, Qualcomm RB5, NXP i.MX 등) AI 전용 가속기(TPU Edge, FPGA, ASIC 등)	자체 수급 불가 파트너십 통한 호환성 확보
디바이스 런타임 레이어 (Device Runtime Layer)	OS 및 RTOS(리눅스 기반, VxWorks, QNX 등) Device Driver & Middleware(센서/액추에이터 인터페이스)	직접 개발 보다는 표준 기술을 활용하되 Runway와의 인터페이스 강화
AI 런타임 및 최적화 (AI Runtime & Optimization Layer)	경량화된 모델 실행 프레임워크(TensorRT, ONNX Runtime, TFLite, OpenVINO 등) 모델 최적화 기법(Quantization, Pruning, Knowledge Distillation) 하드웨어별 커널 최적화	관련 협업, 직접 연구를 통해 직접 연구개발 Runway의 핵심 적용 가능 영역으로 기능 개발 및 탑재 추진
애플리케이션 로직 레이어 (Application Logic Layer)	실시간 제어(Motion control, Path planning, Safety monitoring)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 품질 검사(Vision-based Inspection)	산업 특화 AI 솔루션 개발 관련하여 협업 기회 확보, 관련 기술 연구 및 적용 시도 온디바이스 환경에 따른 요건 확인, 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 기능 Runway 탑재
연동 및 관리 레이어 (Connectivity & Management Layer)	경량 메시지 프로토콜(MQTT, OPC UA, DDS 등) 클라우드/서버와의 하이브리드 구조(주요 이벤트·모델 업데이트만 송신) 보안 모듈(Secure Boot, TPM, Enclave 등)	직접 개발 보다는 표준 기술, 선도 솔루션과 Runway와의 인터페이스 강화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다만, 중견기업 대상 AI 솔루션 사업의 경우, 고객사의 내부 기술 수용성과 운영 역량 부족으로 인한 도입 확산 지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온디바이스 AI 사업은 아직 초기 시장 단계로, 기술 표준의 부재와 상용화 지연, 연구개발 투자 대비 단기 수익성 부족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예상 자금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상황들이 악화될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성장전략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 사업의 확장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상장요건 적용 관련 기업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 기술 및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11월 7일 2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는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에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

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 기술 및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11월 7일 2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전문평가기관의 종합의견]

구분	평가등급	종합의견
나이스디앤비 및 이크레더블	A등급	동사의 평가대상기술은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 기술(Domain-specialized AI Modeling, 평가대상 기술 1)과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기술(Domain-specialized AI Engineering, 평가대상기술 2)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서비스 적용 기술이다. 평가대상기술 1은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설계, 학습 및 최적화하는 기술이며, 평가대상기술 2는 이렇게 구축된 모델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산업 현장에 배포, 적용 및 운영하기 위한 MLOps 기술이다. 두 기술 모두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Domain-specialized AI) 기술에 속한다. 동사의 주요 기술제품은 이미 개발된 제품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비용과 자원 투입을 최소화하며 산업 특화 AI 솔루션의 서비스화(SaaS)와 On-device AI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용 로봇과 AGV, 제조 현장의 각종 장비, 드론 등 국방 분야 무기체계까지 Runway 설치가 가능한 응용 영역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현재 사업형태를 살펴보면 앞서 거론된 다양한 산업분야에 이미 적용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타제품/ 산업으로의 확대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제품/서비스의 확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사는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판단돼 기술평가등급 'A'를 제시한다.
	A등급	동사는 2017년 설립된 AI 모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MLOps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초기에는 이상탐지 기술로 출발하여, 이후 제어·최적화 기술로 확장했고, 최근에는 에이전트 기술까지 모델링 기술 영역을 넓히며 지속적으로 보유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음. 동사는 전술한 AI 모델링 기술의 실질 적용 및 지속 활용 과정에서 반복적인 일회성 시스템(AI 모델 배포 시스템 등) 개발/투자과 같은 AI 모델 개발/배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업용 AI 엔지니어링 기술인 MLOps 솔루션(AI 모델 운영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2020년 MLOps 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음. 동사의 기술성은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기술개발 환경 및 인프라를 고려할 때 기술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목표시장의 잠재력,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수준,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감안 시 시장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동사의 최종 기술평가등급은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준인 A로 의견 제시함.

(출처: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당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기술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경쟁력, 상용화 수준, 시장성장성, 인력 수준 및 전문성 등과 관련된 평가결과를 수령하였습니다.

당사가 수령한 A등급은 기술기반기업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기술성을 가진 기업(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으로 정의됩니다. 기술기반기업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등급별 정의
AAA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확실함
AA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A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음
BBB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다소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양호함
BB	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다소 낮음
B	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CCC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CC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음
C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음
D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없음

(출처: 한국거래소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별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구 분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기술성장기업	
	수익성 · 매출액 기준	시장평가 · 성장성기준	혁신기술기업 (기술평가)	사업모델기업 (상장주선인 추천)
주식 분산 (택일, 신규상장신청일 기준)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a) 또는 (b) (a)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b)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 원[벤처: 10억원] & 시가총액 90억원	① 시가총액 500억원 & 매출 30억원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원]	② 시가총액 300억원 & 매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등급 중 높은 등급이 A등급 이상, 낮은 등급이 BBB등급 이상일 것	상장주선인이 지식 기반 독창적 사업모델의 경쟁력 과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추천할 것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시가총액 200억원 &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원]	③ 시가총액 500억원 & PBR 200% 이상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	④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감사 의견	최근 사업연도 적정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기타 요건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주1) 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500만주(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상기와 같이 혁신기술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영성과 지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제9기)	2024년 (제8기)	2023년 (제7기)
매출액	11,459	8,294	5,206
영업이익(손실)	(8,041)	(10,897)	(11,15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774)	(6,073)	(18,344)
당기순이익(손실)	(13,774)	(6,073)	(18,344)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주1) 상기 수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규상장 당시 추정 경영실적과 현재 실적간 괴리 위험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대외적인 변수 등으로 인한 고객사 임상 일정의 지연, 고객사의 임상 실패 및 투자금 부족으로 인한 임상 일정의 중단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및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 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만약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

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도 영업수익은 2023년 5,206백만원, 2024년 8,294백만원, 2025년 11,459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64.18%, 59.31%, 38.71%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영업수익 및 성장률]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제9기)	2024년(제8기)	2023년(제7기)
영업수익	11,459	8,294	5,206
영업수익 성장률	38.17%	59.31%	64.18%

(출처: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또한, 당사가 예상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 및 향후 5개년의 추정손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2030년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영업수익	22,493	37,381	58,675	82,235	106,651
영업비용	24,750	32,484	42,791	50,795	57,622
영업이익	(2,257)	4,897	15,884	31,440	49,029
영업외수익	348	356	369	378	383
영업외비용	288	324	382	456	506
법인세차감전손익	(2,197)	4,929	15,871	31,362	48,906
법인세비용	-	-	-	-	-
당기순이익	(2,197)	4,929	15,871	31,362	48,906

주1)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폐쇄망 등 특수한 환경에서 산업 특화 AI(Vertical AI)의 개발과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Runway는 AI 모델

의 개발, 배포, 운영 등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산업 특화 AI 플랫폼이며, AI 컨설팅 사업은 특정 고객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당사의 매출액 추정치는 개별 계약의 특성, 사업 진행 단계, 산업의 성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026년 및 2027년의 매출 추정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및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단순 예측이 아닌 실질적인 수주 내역과 과거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추정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과 2027년 매출액은 사업 진행 단계별로 상이한 영업단계 별 수주 확률을 적용하였으며, 각 단계별 확률은 당사 내부적으로 확립한 각 프로젝트별 단계에 대한 기준표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부터는 각 사업군별로 관련 산업의 공신력 있는 시장조사기관이 제시한 성장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26년과 2027년 매출 추정과 관련하여, 당사는 영업 기회를 기반으로 기존의 거래처와 가망 거래처와 계약금액 추정치를 S급부터 D급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 추정 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매출만을 반영하기 위해 D급은 제외하고 C급까지만을 대상으로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중립적 시나리오 상 C급의 경우 수주 확률을 "0%"로 가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영업조직과 현재의 영업상황을 파악하여 매출 계약별 등급을 산정하였으며, 매출 추정 시 프로젝트 별로 적용한 수주확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등급 별 기준 및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수주확률]

구분	내용	수주확률
계약완료	- 계약완료	95%
S급	- 계약서 날인단계 - 계약예정 및 계약확정에 해당	95%
A급	- 경쟁자 없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상태 - 계약서 Draft 단계	70%
B급	- 1~3개 정도의 경쟁업체 존재 - 당사가 기술력 또는 가격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자체 판단되는 경우 - 단독으로 고객과 협상중이나 고객사의 니즈(Needs)가 명확하	50%

구분	내용	수주확률
	지 않은 경우 - 당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되더라도 엔지니어 리소스 제약으로 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C급	- 3개 이상의 경쟁업체 존재 - 당사가 경쟁업체 중 상위 2개 업체 내에 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러한 수주확률에 대한 정합성 측면에서, 과거 유사 사업의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계약 건이 실제 매출액으로 인식된 비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치와 비교하였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매출증가율은 'MLOp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7 [MarketsAndMarkets(2022)]'상의 미국을 제외한 AI Platform 성장률(32.6%)과 AI Consuling(Service) 성장률(33.2%)을 고려하였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성장률 산정 내역]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	예상 시장규모		예상성장률	비고
		2026(E)	2027(E)		
AI Platform	아시아태평양 지역	640.0	857.1	33.9%	-
	기타지역	1,500.8	1,969.3	31.2%	(주1)
	평균			32.6%	-
AI Consuling	아시아태평양 지역	224.9	302.7	34.6%	-
	기타지역	527.3	696.5	31.9%	(주1)
	평균			33.2%	-

(출처: MLOp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7 [MarketsAndMarkets(2022)])

주1) 전체 시장규모에서 북미지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제외한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예상 시장규모입니다.

다만, Runway 제품매출의 2027년 추정 매출성장률은 109.9% 수준임에 따라 이후 3

개년동안 매출성장률이 선형으로 하락하여 2030년에 32.6%로 수렴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AI 컨설팅 용역매출의 경우 매출 성장에 따른 인력 증가 효과로 인한 Capa 제약을 고려하여 시장성장률보다 10% 이상 낮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21.3%의 성장률을 가정하였습니다.

[2028년~2030년 매출 증가율 가정]

구분	매출증가율 가정
Runway 제품매출	사업계획 기반 추정 매출에서 산정한 2027년의 매출 성장률에서 2030년 성장률(32.6%)까지 수렴하는 형태로 3가지 시나리오 모두 구성하였으며 Best case에서 Worst case로 갈수록 2028년과 2029년의 성장률이 더 높은 감소폭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Best case의 경우 선형으로 매년 같은 비율로 감소하여 2030년에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Base case의 경우 선형에서 1.2배 수준으로 급속히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Worst case의 경우는 2배수준으로 더 급속히 감소하여 2029년부터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였는데, 이는 Runway 제품매출의 성장률이 급속하게 하락할수록 사업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AI 컨설팅 용역매출	Best case에서는 제품(Runway)의 경우와 동일한 수렴방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Base case와 Worst case의 경우는 글로벌 평균성장률(33.2%)보다 10%이상 하락한 21.3%~22.8%로 동일한 증가율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용역(AI Consulting)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 제품과 다르게 인력의 증가를 동반하게 됨으로 용역 매출성장률을 낮게 가정함으로써 인력의 Utilization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인력계획은 3가지 시나리오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제품(Runway)기반의 매출확대가 부족한 용역(AI Consulting)의 성장은 수행인력의 부족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제품(Runway)의 매출비중에 맞추어 성장률을 수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주력제품인 Runway 플랫폼의 경우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 및 엔지니어링 기술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으로, 관련하여 경장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AI 인력에 대한 급여성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해외 진출 등과 관련하여 외적으로 당사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매출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컨설팅비와 같은 지급수수료

항목에 대한 지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당사는 2026년까지는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제품 매출 비중의 확대 및 전체적인 고객 기반 확대 등으로 매출이 성장하면서 흑자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 추정 손익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제1부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상기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예상하였으나, 경기 변동성, 산업 내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유관 정책과 규제의 개정, 대외적인 변수 등으로 인한 고객사 계약 또는 주문 감소, 제품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증가, 사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외주용역비의 증가 등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험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별 수주계약의 특성, 사업 진행 단계, 산업의 성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주 확률을 달리 적용한 낙관적, 중립적, 보수적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계획은 여러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과는 추정치와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부터는 각 사업군별로 관련 산업의 공신력 있는 시장조사기관이 제시한 성장률을 반영하여 영업실적을 추정하였으나, 이 또한 실제 결과와 추정치 간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당사의 추정 매출이 변동되거나 및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 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상장 이후 당사가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충실히

기재하고, 만약 추정 실적 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시에는 그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으로 인한 위험

당사의 산업 특화 AI 솔루션 공급 사업은 그 성격상 계절적 요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과 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B2B 사업의 특성상, 고객사의 업무 사이클 및 AI 도입 일정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년 초 AI 관련 기획 및 투자심의를 진행하며, 통상 연내 도입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연말에는 그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년도의 투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업무 사이클을 고려할 때, B2B 사업은 통상 4분기 신규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분기 별 매출 편중이 지속될 경우 매출이 저조한 시기에도 인건비, R&D 비용, 인프라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위험, 주요 고객사의 예산 소진, 내부 승인 절차 지연, 또는 당사의 개발 일정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집중된 매출이 차년도로 이월됨에 따른 실적 변동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 및 고객 저변 확대, 라이선스 기반 매출 증가, 장기 계약 확대 등을 통해 계절 요인의 영향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Runway 플랫폼의 연간 라이선스(ARR) 계약 비중 확대, 유지보수 계약 확대를 통한 기간 별 반복 매출 구조 강화, 그리고 B2B 제조·금융 분야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B2B, B2G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단기간에 계절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기별 실적 편차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분기별 실적만으로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연간 누적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산업 특화 AI 솔루션 공급 사업은 그 성격상 계절적 요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과 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B2B 사업의 특성상, 고객사의 업무 사이클 및 AI 도입 일정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년 초 AI 관련 기획 및 투자심의를 진행하며, 통상 연내 도입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연말에는 그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년도의

투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업무 사이클을 고려할 때, B2B 사업은 통상 4분기 신규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만약, 분기 별 매출 편중이 지속될 경우 매출이 저조한 시기에도 인건비, R&D 비용, 인프라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위험, 주요 고객사의 예산 소진, 내부 승인 절차 지연, 또는 당사의 개발 일정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집중된 매출이 차년도로 이월됨에 따른 실적 변동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분기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연결기준 분기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제9기)		2024년(제8기)		2023년(제7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분기	1,134	9.90%	1,981	23.88%	464	8.91%
2분기	1,480	12.92%	1,770	21.34%	1,395	26.80%
3분기	2,309	20.15%	2,064	24.89%	1,130	21.71%
4분기	6,536	57.04%	2,479	29.89%	2,217	42.59%
합 계	11,459	100.00%	8,294	100.00%	5,206	100.00%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2024년 이후 고객 기반이 확대되면서 4분기에도 신규 수주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수주 실적을 상회하는 신규 수주를 달성하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아직 B2B 사업 특성에 따른 계절 요인을 극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시장 및 고객 저변 확대, 라이선스 기반 매출 증가, 장기 계약 확대 등을 통해 계절 요인의 영향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Runway 플랫폼의 연간 라이선스(ARR) 계약 비중 확대, 유지보수 계약 확대를 통한 기간별 반복 매출 구조 강화, 그리고 B2B 제조·금융 분야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B2B, B2G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단기간에 계절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기별 실적 편차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분기별 실적만으로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연간 누적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 당사의 사업성과가 미진하여 재무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4년말 2,630,026천원, 2025년말 14,659,919천원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단기간 내 상기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유예 조건 없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므로 적자지속에 따라 큰 폭의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미래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2030년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9기)	2027년(E) (제10기)	2028년(E) (제11기)	2029년(E) (제12기)	2030년(E) (제13기)
영업수익	22,493	37,381	58,675	82,235	106,651
영업비용	24,750	32,484	42,791	50,795	57,622
영업이익	(2,257)	4,897	15,884	31,440	49,029
당기순이익	(2,197)	4,930	15,871	31,362	43,145

(출처: 당사 내부자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관리종목 지정사유]

구분	지정사유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2024년말	2025년말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 혁신기술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i)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ii)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293,903천원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1,216,548천원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연결재무제표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6,073,430천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13,774,178천원
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 10,249,185천원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 7,776,185천원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을 100분의 50 이상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률: 59.07% 자기자본: 2,679,566천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률: 해당사항 없음 자기자본: 14,447,854천원

구분	지정 사유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2024년말	2025년말
	한다) 동안 지속		

주1) 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주2)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 ÷ 자본금 × 100(%)

주3) 상기 당사 재무수치는 K-IFRS 기준입니다.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유예기간 이전에도 상장폐지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절차는 효율화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총액/매출액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매출액	시가총액	매출액
현행	50억원	50억원	40억원	30억원
2026년 이후	200억원	50억원	150억원	30억원
2027년 이후	300억원	100억원	200억원	50억원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매출액	시가총액	매출액
2028년 이후	500억원	200억원	300억원	75억원
2029년 이후	-	300억원	-	100억원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발표, 2025.01.21))

주1) 매출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며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건인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이 기간에 걸쳐 상향조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

1.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다만, 해당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 해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해당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반기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중략)...

6.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4년말 2,630,026천원, 2025년말 14,659,919천원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단기간 내 상기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유예 조건 없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므로 적자지속에 따라 큰 폭의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과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5,206백만원, 2024년 8,294백만원, 2025년 11,459백만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술 축적에 따른 사업 구조 개선, 특화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시장 내 입지 강화, 제조 분야 실적 기반 국방 분야 진출에 기인합니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은 2023년 11,158백만원, 2024년 10,897백만원, 2025년 8,041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고도화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 강화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판관비 증가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는 2023년 18,344백만원, 2024년 6,073백만원, 2025년 13,772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과거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의 차이는 주로 금융손익에 기인합니다. 외부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금융비용으로 계상되었으며,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라 발생한 당사 발행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파생상품평가손익은 2023년 (-)4,815백만원, 2024년 5,867백만원, 2025년 (-)4,774백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손익이 영업손실에 더해져 당기순손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는 매출 확대 및 규모의 성장을 이루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AI 반도체, 자동차, IT 디바이스 등)의 상황 악화 또는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실적 감소, 신규 산업군 진출 및 Runway 제품 고도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이 가중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제9기)	2024년(제8기)	2023년(제7기)
영업수익	11,459	8,294	5,206
영업수익성장률	38.17%	59.31%	64.18%
영업이익(손실)	(8,041)	(10,897)	(11,158)
영업이익(손실)률	-70.17%	-131.38%	-214.33%
당기순이익(손실)	(13,774)	(6,073)	(18,344)
당기순이익(손실)률	-120.20%	-73.22%	-352.36%

(출처: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당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5,206백만원, 2024년 8,294백만원, 2025년 11,459백만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술 축적에 따른 사업 구조 개선, 특화 AI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시장 내 입지 강화, 제조 분야 실적 기반 국방 분야 진출에 기인합니다.

최근 3년간 당사의 제품 매출은 연평균 57.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전체 매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객 확대에 따라 제품 기능 및 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운영 데이터와 고객 피드백이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품 기능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Runway 기반 제품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프트웨어 제품 중심의 매출 구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업 확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는 폐쇄망 등 특수한 환경에서 특화 AI의 개발과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외 제조 및 산업분야 기업, 국내 국방 기관으로 기업과 기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활동과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활동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IT 투자 및 R&D 예산이 축소될 경우 당사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 심화, 신규 사업의 시장 안착 지연 등은 당사의 향후 성장성을 저해하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은 2023년 11,158백만원, 2024년 10,897백만원, 2025년 8,041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고도화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 강화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판관비 증가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당사의 인건비(영업비용 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경상연구개발비, 주식보상비용)는 2023년 11,818백만원에서 2024년 12,922백만원으로 증가한 후 2025년 11,172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영업비용 중 인건비의 비중은 2023년 72.2%, 2024년 67.3%, 2025년 57.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당사의 인건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당사 인건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제9기)	2024년(제8기)	2023년(제7기)
영업비용	19,501	19,191	16,364
인건비	11,172	12,922	11,818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	57.3%	67.3%	72.2%

(출처: 당사 연결재무제표)

주1) 인건비 = 급여 및 상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경상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 주식보상비용

한편, 당사는 연구개발비용을 자산처리하여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전액 비용 처리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경상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경상연구개발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제9기)	2024년(제8기)	2023년(제7기)
영업수익	11,459	8,294	5,206
경상연구개발비	3,402	3,338	2,719
영업수익 대비 비율	29.7%	40.2%	52.2%

(출처: 당사 연결재무제표)

주요 제조 대기업 및 방산 업체와의 사업협력 확대, 그리고 글로벌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Runway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매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규 산업군 진출 및 Runway 제품 고도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이 상승하여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3개년 영업외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제9기)	2024년(제8기)	2023년(제7기)
기타수익	121	81	10
기타비용	404	29	15
금융수익	445	6,036	345
금융비용	5,895	1,264	7,526

(출처: 당사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2023년 18,344백만원, 2024년 6,073백만원, 2025년 13,774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과거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의 차이는 주로 금융손익에 기인합니다. 외부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금융비용으로 계상되었으며,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라 발생한 당사 발행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파생상품평가손익은 2023년 (-)4,815백만원, 2024년 5,86

7백만원, 2025년 (-)4,774백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손익이 영업손실에 더해져 당기순손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금융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제9기)	2024년(제8기)	2023년(제7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445	152	338
파생상품평가이익	-	5,884	7
금융수익 합계	445	6,036	345
금융비용:			
이자비용	1,121	1,247	2,255
금융부채평가손실	-	-	449
파생상품평가손실	4,774	17	4,822
금융비용 합계	5,895	1,264	7,526

(출처: 당사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2025년 중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보통주 전환함에 따라 보통주 전환 이후 파생상품평가손익 계상이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하거나, 해외 거래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차손익이 발생할 경우,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의 차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확대 및 규모의 성장을 이루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AI 반도체, 자동차, IT 디바이스 등)의 시황 악화 또는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실적 감소, 신규 산업군 진출 및 Runway 제품 고도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이 가중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40.4%, 2024년 89.2%, 2025년 246.5%로서, 2024년 중 상환전환우선주 추가 발행에 따른 자금 조달로 유동자산이 증가하여 개선되었으며, 2025년 중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관련 유동부채가 자본항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유동부채 금액이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153.6%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상 재고자산이 없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동일합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40.8%, 2024년 847.7%, 2025년 52.8%로서, 2023년에는 완전자본잠식임에 따라 부채비율이 음(-)의 값을 보였으나, 2024년 및 2025년 중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총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잠식이 해소되었으며 2025년 기준 업종평균 85.1%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14.2%, 2024년 17.8%, 2025년 16.6%로서, 업종평균 20.7%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4.9배, 2024년 (-)8.7배, 2025년 (-)7.2배로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부(-)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당사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이익 및 현금흐름만으로는 이자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당사는 2025년중 상환전환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감소하여 관련 이자비용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차입금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유동성 악화 및 기한이익 상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제조 및 국방 특화 AI 솔루션 사업은 초기 개발단계에서 자금 투입이 큰 구조로서, 당사는 연구개발 인력 확충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여러 차례 증자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요 프로젝트 상용화가 지연되거나 추가 자금 확보가 지체될 경우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일정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국내 제조 대기업 및 방산 업체와의 협력 확대로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가 필수적이며, 만약 당사가 목표하는 실적 달성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장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장기적인 경쟁력 악화 및 재무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

재무비율	2025년 (제9기)	2024년 (제8기)	2023년 (제7기)	2024년 업종평균(주2)
유동비율	246.5%	89.2%	40.4%	153.6%
부채비율	52.8%	847.7%	-140.8%	85.1%
차입금의존도(주1)	16.6%	17.8%	14.2%	20.7%
이자보상배율(배)	(7.2)	(8.7)	(4.9)	0.9

(출처: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주1)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장단기리스부채) / 자산총계

주2)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40.4%, 2024년 89.2%, 2025년 246.5%로서, 2024년 중 상환전환우선주 추가 발행에 따른 자금 조달로 유동자산이 증가하여 개선되었으며, 2025년 중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관련 유동부채가 자본항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유동부채 금액이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153.6%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상 재고자산이 없어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동일합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40.8%, 2024년 847.7%, 2025년 52.8%로서, 2023년에는 완전자본잠식임에 따라 부채비율이 음(-)의 값을 보였으나, 2024년 및 2025년 중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총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잠식이 해소되었으며 2025년 기준 업종평균 85.1%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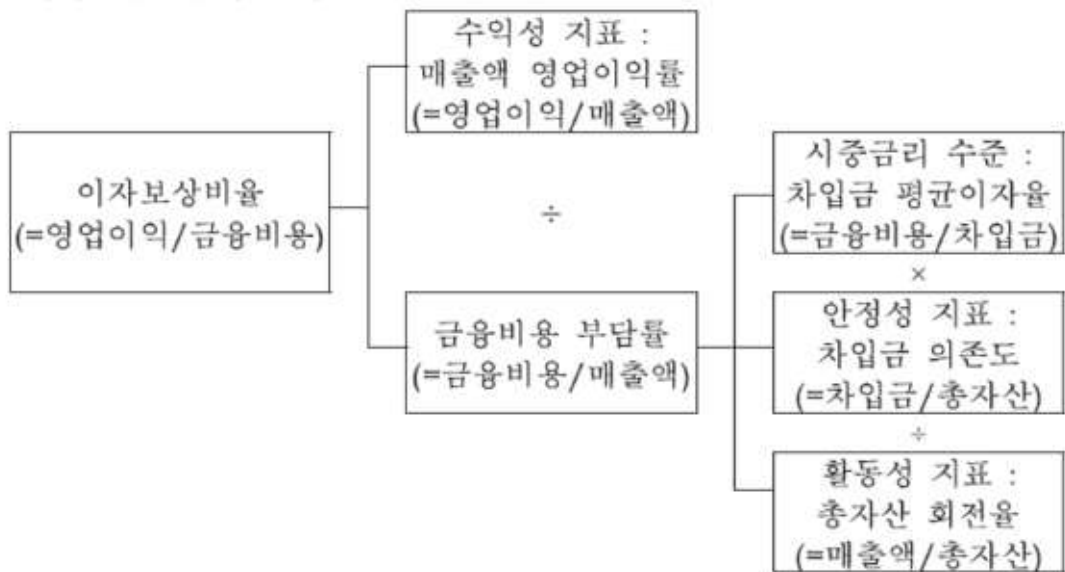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14.2%, 2024년 17.8%, 2025년 16.6%로서, 업종평균 20.7%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배 미만일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4.9배, 2024년 (-)8.7배, 2025년 (-)7.2배로 지속적인 영

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부(-)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당사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이익 및 현금흐름만으로는 이자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당사는 2025년중 상환전환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감소하여 관련 이자비용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차입금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유동성 악화 및 기한이익 상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보상배율 분해도]

※ 이자보상비율의 분해도



이자보상배율

(출처: 금융감독원,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2024.1))

[주요 재무지표 추이분석]

(단위: 배,%)

구분	2025년 (제9기)	2024년 (제8기)	2023년 (제7기)
이자보상배율	(7.2)	(8.7)	(4.9)
매출액 영업이익률(%)	-70.2%	-131.4%	-214.3%
이자비용 부담률(%)	9.8%	15.0%	43.3%

구 분	2025년 (제9기)	2024년 (제8기)	2023년 (제7기)
차입금 평균이자율(%)	30.6%	27.5%	107.9%
차입금 의존도(%)	16.6%	17.8%	14.2%
총자산 회전율(%)	51.9%	32.7%	35.5%

(출처: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 주1) $\text{이자보상배율} = \text{영업이익} / \text{이자비용}$
주2) $\text{매출액 영업이익률} = \text{영업이익} / \text{매출액}$
주3) $\text{이자비용 부담률} = \text{이자비용} / \text{매출액}$
주4) $\text{차입금 평균이자율} = \text{이자비용} / (\text{장단기차입금} + \text{장단기리스부채})$
주5) $\text{차입금 의존도} = (\text{장단기차입금} + \text{장단기리스부채}) / \text{총자산}$
주6) $\text{총자산 회전율} = \text{매출액} / \text{총자산}$

이자보상배율은 상기 분해도와 같이 (매출액 영업이익률 ÷ 이자비용 부담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자비용 부담률은 다시 (차입금 평균이자율 × 차입금 의존도 ÷ 총자산 회전율)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차입금 의존도와 이자비용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나, 지속적인 영업손실 발생으로 인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만으로는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제조 및 국방 특화 AI 솔루션 사업은 초기 개발단계에서 자금 투입이 큰 구조로서, 당사는 연구개발 인력 확충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여러 차례 증자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요 프로젝트 상용화가 지연되거나 추가 자금 확보가 지체될 경우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일정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국내 제조 대기업 및 방산 업체와의 협력 확대로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가 필수적이며, 만약 당사가 목표하는 실적 달성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연

구개발 활동 및 성장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 및 재무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현금흐름활동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0,183백만원, 2024년 (-)10,638백만원, 2025년 (-)7,803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보이는 것은 AI 모델 최적화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선행 투자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 등 투자성 비용 지출로 인해 단기 수익성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과 향후 주요 제조 대기업 및 방산 업체와의 사업협력 확대, 그리고 글로벌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Runway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를 실현하기까지는 높은 불확실성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신규 산업군 진출 및 Runway 제품 고도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금흐름 개선 속도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현금흐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제9기)	2024년 (제8기)	2023년 (제7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803)	(10,638)	(10,18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650	(8,895)	5,826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59	19,230	3,043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2,506	(303)	(1,314)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0	28	(23)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016	2,291	3,628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572	2,016	2,291

(출처: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0,183백만원, 2024년 (-)10,638백만원, 2025년 (-)7,803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보이는 것은 AI 모델 최적화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선행 투자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5,826백만원, 2024년 (-)8,895백만원, 2025년 7,650백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에 따른 현금흐름인 2023년 6,400백만원, 2024년 (-)7,503백만원, 2025년 8,003백만원에 의한 변동이며, 제조업이 아닌 당사의 사업구조 특성 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제한적입니다.

당사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3,043백만원, 2024년 19,230백만원, 2025년 2,659백만원으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재무활동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과거 수차례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외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실행하여 사업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 등 투자성 비용 지출로 인해 단기 수익성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과 향후 주요 제조 대기업 및 방산 업체와의 사업협력 확대, 그리고 글로벌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Runway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

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를 실현하기까지는 높은 불확실성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신규 산업군 진출 및 Runway 제품 고도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금흐름 개선 속도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2.9회, 2024년 7.0회, 2025년 2.7회 수준으로 업종평균을 다소 하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사업확장에 따른 매출액 증가로 매출채권 잔액은 2023년말 1,766백만원, 2024년말 1,191백만원, 2025년말 4,245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 인식시점이 주로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특성에 따라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동 시점 차이 외 과거 채권의 연체 또는 대손 등의 경험이 없어 향후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말, 2024년말 및 2025년말 기준 모두 0.0%입니다. 당사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매출채권 중 만기미도래 채권이 96.09% 수준이며, 매출채권 회수 또한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점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주요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부실화되거나,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향후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매출채권 관련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구분	2025년 (제9기)	2024년 (제8기)	2023년 (제7기)	2023년 업종평균(주1)
영업수익	11,459	8,294	5,206	-
매출채권 총액	4,245	1,191	1,766	-
대손충당금	-	-	-	-
매출채권 순액	4,245	1,191	1,766	-
대손충당금 설정률	0.0%	0.0%	0.0%	-
매출채권회전율 주2)	2.7	7.0	2.9	7.0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주2) 매출채권회전율 = 영업수익 / 기말 매출채권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2.9회, 2024년 7.0회, 2025년 2.7회 수준으로 업종평균을 다소 하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사업확장에 따른 매출액 증가로 매출채권 잔액은 2023년말 1,766백만원, 2024년말 1,191백만원, 2025년말 4,245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 인식 시점이 주로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특성에 따라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동 시점 차이 외 과거 채권의 연체 또는 대손 등의 경험 없어 향후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말, 2024년말 및 2025년말 기준 모두 0.0%입니다.

[당사의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예: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예: 기타투자자산과 파생상품)(주석 20 참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리스채권 포함)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만기 미도래	6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초과	합계
2025년말	4,079	-	166	-	4,245
2024년말	1,163	28	-	-	1,191
2023년말	1,766	-	-	-	1,766

(출처: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당사의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매출채권 중 만기미도래 채권이 96.09% 수준이며, 매출채권 회수 또한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채권 회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신규 계약 시 고객의 신용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연령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회수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점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주요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부실화되거나,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향후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 종속회사 관련 위험

당사는 글로벌 제조 AI 시장의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8년 3월 중 미국 현지법인 MakinaRocks, Inc.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2025년 4월 중 제조 산업이 강한 일본을 최우선 공략 시장으로 판단하여 일본 현지에 MakinaRocks KK.를 설립하였습니다.

미국 현지법인인 MakinaRocks, Inc.은 2025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나, 중장기적으로 미국 지역으로의 재진출 가능성 및 누적된 결손금을 활용한 미래 법인세 부담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자금만을 유지한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일본 현지법인인 MakinaRocks KK.은 2025년 중 설립되어 사업 초기 단계이나, 향후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추가 자금 대여 또는 출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향후 종속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영업활동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별도재무제표 상 추가적인 손상차손이 인식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상 종속회사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 및 사업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글로벌 제조 AI 시장의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8년 3월 중 미국 현지법인 MakinaRocks, Inc.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2025년 4월 중 제조 산업이 강한 일본을 최우선 공략 시장으로 판단하여 일본 현지에 MakinaRocks KK.를 설립하였습니다. 각 해외 종속회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종속회사 현황]

구분	MakinaRocks, Inc.	MakinaRocks KK.
지역	미국	일본
대표자	임용섭(주1)	허영신(주2)
설립일	2018.03.06	2025.04.28
업종	서비스업	서비스업
주요 제품	Runway	Runway
주요 주주	당사 100%	당사 100%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 당사의 임원(미등기)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주2) 당사의 임원(등기)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은 개별 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별도재무제표 상 손상검토 결과, 연결재무제표 상 연결회계처리 등을 통해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음에 따라, 종속회사의 영업실적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 해외 종속회사의 최근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MakinaRocks, Inc. 재무정보]

(단위: 천원)

구분	자산총액	자본금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2025년	17,079	4,182,385	(373,508)	-	(37,679)
2024년	49,541	4,182,385	(343,700)	-	(820,900)
2023년	632,678	4,512,900	474,540	443,839	(1,050,371)

(출처: 당사 내부자료)

[MakinaRocks KK. 재무정보]

(단위: 천원)

구분	자산총액	자본금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2025년	390,940	192,741	198,199	242,927	(222,494)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 MakinaRocks KK는 2025년 4월 중 설립되었습니다.

미국 현지법인인 MakinaRocks, Inc.은 2025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나, 중장기적으로 미국 지역으로의 재진출 가능성 및 누적된 결손금을 활용한 미래 법인세 부담 감소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자금만을 유지한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일본 현지법인인 MakinaRocks KK.은 2025년 중 설립되어 사업 초기 단계이나, 향후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추가 자금 대여 또는 출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3개년 당사와 해외 종속회사 간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해외 종속회사 간 채권·채무 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MakinaRocks, Inc.	매출채권(주1)	165,460	169,508	148,682
	대여금(주1)	218,391	223,733	-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 대손충당금 반영 전 총액 기준으로서, 2024년말 및 2025년말 현재 매출채권 및 대여금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매출채권 및 대여금은 외화환산 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여금 잔액에 미수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당사와 해외 종속회사 간 매출·매입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해외 종속회사 간 매출·매입거래 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역	2025년	2024년	2023년
MakinaRocks, Inc.	매출(기술서비스)	-	-	150,529

(출처: 당사 내부자료)

2023년 기술서비스 관련 거래는 MakinaRocks Inc.의 미국 현지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AI 컨설팅 프로젝트에 당사 인력이 투입되어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기타매출을 인식한 건입니다. 해당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당사와 해외 종속회사 간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해외 종속회사 간 자금거래 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역	2025년		2024년		2023년	
		대여	상환	대여	상환	대여	상환
MakinaRocks, Inc.	대여금	-	-	207,225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최근 3개년 해외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 규모는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12월 5일에 제정된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에 근거하여 관계회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당사 규모 대비 거래규모를 비교하여 비중이 큰 건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향후 종속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영업활동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별도재무제표 상 추가적인 손상차손이 인식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상 종속회사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 및 사업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관련 위험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과제를 포함하여 총 21건에 대해 76억원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이 중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건(29억원)의 정부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국책 과제의 수행을 통해 당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충당하여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과제는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연구기간 동안 자금 지원이 연속성을 가지나, 연도별 정부 과제의 수행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과제 수행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향후 과제 참여 제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인해 당사 연구개발 활동이 일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영업 마케팅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다수의 정부과제 수행 실적과 국내외 수상 경력,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의 실질적 효용과 시장 신뢰도를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과제를 포함하여 총 21건에 대해 76억원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이 중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건(29억원)의 정부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국책 과제의 수행을 통해 당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충당하여 왔습니다.

[정부과제 수행 실적]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명	주관부서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관련제품	비고
고복잡도 제조업의 공정 최적화를 위한 AI 플랫폼 개발_1~2차 년도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8-10-01	2020-09-30	500	-	완료
고복잡도 제조업의 공정 최적화를 위한 AI 플랫폼 개발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진흥원	2018-11-01	2019-11-30	190	-	
AI 기반 산업용 로봇팔 고장예지 솔루션 개발_1~2차 년도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9-10-01	2021-09-30	400	-	
AI 칩 설계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심층 강화학습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0-09-01	2020-12-31	100	Runway	
AI 기반 반도체 설계(자동화 시스템 개발 백엔드 플로우 배치_1~2차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05-01	2022-11-30	847	-	

연구과제명	주관부서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관련제품	비고
제조 설비의 AI 기반 이상 탐지 모델 개발 및 운영 플랫폼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2-04-01	2022-10-31	294	Runway	
신재생 에너지 예측 AI 모델 고도화/운영 위한 MLOps 솔루션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2-04-01	2022-10-31	300	Runway	
딥러닝 기반의 컴프레서 설비 이상 탐지 AI 솔루션	과학기술정보통신부_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2-06-01	2022-11-30	70	-	
냉방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인공지능 축열시스템 제어 모델 개발 및 운영플랫폼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3-04-01	2023-10-31	250	Runway	
강화학습 기반 용광로 제어 최적화 및 에너지 효율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3-04-01	2023-10-31	240	Runway	
AI 반도체를 이용한 생산 공정 프로세스 최적화 모델 개발 및 MLOps 솔루션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3-05-01	2023-11-30	360	Runway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용한 고효율, 저비용 산업용 로봇 예지보전 솔루션 실증 및 운영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24-05-01	2024-11-30	235	-	
고성능 브레이크 패드 성능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운영 플랫폼 도입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24-05-01	2024-11-30	185	Runway	
항공기 정밀가공부품 공정 예지보전용 데이터셋 구축 및 설비 상태 진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_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4-06-01	2024-11-30	54	-	
산업용 로봇 태스크와 모션 생성을 자동화하는 AI OLP 솔루션_1~3차 년도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진흥원	2023-04-27	2025-12-01	435	-	
클라우드 기반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운영 기술 개발_1~2차 년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4-08-01	2026-02-28	150	-	
제조AI 특화 데이터 생성 에이전트 개발 개념검증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진흥원	2025-07-14	2025-12-31	100	-	
글로벌 프런티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대규모 다국어·멀티도메인 데이터(1~2차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_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08-14	2026-06-30	50	-	진행중
AI 플랫폼 기반 함정용 장비 운용 및 관리 챗봇 시작품 제작	방위사업청_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5-10-15	2026-10-14	200	Runway	
K-AIP 기반 지능화 GOP작전지원 체계 개발	방위사업청_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5-12-01	2028-10-31	2310	-	
반도체 전공정 설비 최적화를 위한 AI기반 자율운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산업통상부_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5-12-01	2026-11-30	340	-	
합계				7,610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향후에도 당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또는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된 정부지원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과제는 연구과제의 최

중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연구기간 동안 자금 지원이 연속성을 가지나, 연도별 정부 과제의 수행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과제 수행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향후 과제 참여 제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인해 당사 연구개발 활동이 일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영업 마케팅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윤리규정 제정,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거나 혹은 재무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윤리규정 제정,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거나 혹은 재무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상장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사 윤리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공시 담당 인력 현황]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 경력
			02.10~06.09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등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 경력
공시책임자	박민수 (1974년생)	CFO	06.09~15.12 신한회계법인 감사본부 14.09~16.04 올릭스(주) CFO 16.05~17.09 (주)로보쓰리 부사장 17.10~23.03 (주)브릭스원 대표이사 20.02~현재 마키나락스 CFO
공시담당자	장지선 (1976년생)	회계팀장	00.07~03.02 액센츄어 회계팀 03.07~07.02 (주)컴투스 경영지원부 08.01~15.08 액센츄어 회계팀 15.08~17.06 액센츄어 Manila 회계팀 17.09~19.06 라자드자산운용 회계팀 20.09~현재 마키나락스 회계팀장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게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내부정보이용방지를 위해서는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항 발생 시 즉시 공시 및 공정공시를 통해 기업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할 것이며, 내부정보이용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IR을 실시하여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것이며 IR을 통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진할 것입니다.

한편, 당사는 2023년 내부정보관리규정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공정한 경쟁과 거래에 대한 윤리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장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사 윤리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

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2023년 5월 대주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으며, 2023년 12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 및 회사의 감사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이 첨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인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3년 5월 대주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으며, 2023년 12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직급 및 직책	성명	겸임업무	회사내경력	내부회계 담당업무
이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 수립
내부회계책임자	윤성호	대표이사	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책임 -내부회계 평가 결과의 최종 승인 및 이사회 보고
감사	김철수	감사	2년 (비상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내부회계관리자	박민수	CFO	5.5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총괄
내부회계평가자	장지선	회계	5년	-회계 부문의 내부회계 운영평가
내부회계평가자	성제후	자금	3년	-자금 부문의 내부회계 운영평가

직급 및 직책	성명	겸임업무	회사내경력	내부회계 담당업무
내부회계평가자	오상명	회계	1년	-회계 부문의 내부회계 운영평가
내부회계평가자	용현주	구매	2년	-구매 부문의 내부회계 운영평가

(출처: 당사 내부자료)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경력	비고
박민수	1974년 1월 12일	02.10~06.09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등 06.09~15.12 신한회계법인 감사본부 14.09~16.04 올릭스(주) CFO 16.05~17.09 (주)로보쓰리 부사장 17.10~23.03 (주)브릭스원 대표이사 20.02~현재 마키나락스 CFO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한국공인회계사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 및 회사의 감사가 보고한 사항과 외부감사인인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사업연도	보고일자	보고내용
2025년도 (제9기)	2026년 2월 10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구성 및 전반적인 운영 내용 - 설계 및 평가현황 - 설계 평가 수행결과 내역 및 개선사항
2024년도 (제8기)	2025년 2월 11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구성 및 전반적인 운영 내용 - 설계 및 평가현황 - 설계 평가 수행결과 내역 및 개선사항
2023년도 (제7기)	2024년 2월 15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구성 및 전반적인 내용 - 설계 및 평가현황 - 설계 평가 수행결과 내역 및 개선사항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의 감사가 보고한 내용]

사업연도	보고일자	보고내용
2025년도 (제9기)	2026년 2월 10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2024년도 (제8기)	2025년 2월 07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2023년도 (제7기)	2024년 2월 16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출처: 당사 내부자료)

[감사인인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

사업연도	종합의견	의견내용	개선계획 또는 결과
2025년도 (제9기)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제5장 부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2024년도 (제8기)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제5장 부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2023년도 (제7기)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인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산업 특화 AI 플랫폼(Runway) 및 맞춤형 AI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빠르게 진화하는 AI 모델 아키텍처(LLM, Agent, 파운데이션 모델 등)와 제조·국방 분야 고객사의 고도화된 성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AI 모델링·최적화 알고리즘, 폐쇄망 MLOps/LLMOps 엔진, 에이전틱 AI 시스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719백만원, 2024년 3,338백만원, 2025년 3,402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수익 대비 비율은 2023년 52.2%, 2024년 40.2%, 2025년 29.7%로 매출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당사의 운영 자본 및 현금흐름에 부담을 주면서 다른 중요한 사업 기회에 자원을 배분하는 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는 기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PoC(Proof of Concept) 단계에서 실제 생산 환경 적용(Production)으로의 전환율이 낮은 것이 업계 공통의 과제입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고객사의 내부 의사결정 지연, 기술 검증 기간의 장기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주 단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 대비 매출 회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연구개발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당사가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달하여 상용화 또는 매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산업 특화 AI 플랫폼(Runway) 및 맞춤형 AI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빠르게 진화하는 AI 모델 아키텍처(LLM, Agent, 파운데이션 모델 등)와 제조·국방 분야 고객사의 고도화된 성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AI 모델링·최적화 알고리즘, 폐쇄망 MLOps/LLMOps 엔진, 에이전틱 AI 시스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연구개발비용을 자산처리하지 않고 전액 비용(판매관리비) 처리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경상연구개발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경상연구개발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제9기)	2024년(제8기)	2023년(제7기)
영업수익	11,459	8,294	5,206
경상연구개발비	3,402	3,338	2,719
영업수익 대비 비율	29.7%	40.2%	52.2%

(출처: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719백만원, 2024년 3,338백만원, 2025년 3,402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수익 대비 비율은 2023년 52.2%, 2024년 40.2%, 2025년 29.7%로 매출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는 Runway 플랫폼 고도화, 강화학습 기반 제어·최적화 기술 개발,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국방 AI 진출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과제 지원금은 연구개발비 전체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향후 정부 R&D 예산 축소, 과제 미확보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당사의 운영 자본 및 현금흐름에 부담을 주면서 다른 중요한 사업 기회에 자원을 배분하는 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는 기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PoC(Proof of Concept)

f Concept) 단계에서 실제 생산 환경 적용(Production)으로의 전환율이 낮은 것이 업계 공통의 과제입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고객사의 내부 의사결정 지연, 기술 검증 기간의 장기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주 단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 대비 매출 회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연구개발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당사가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달하여 상용화 또는 매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1,389,568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7.92%)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594,124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294,400주를 제외한 501,044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2.86%)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AI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1,389,568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7.92%)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된 594,124주와 퇴사 등으로 인해 취소된 수량 294,400주를 제외한 501,044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2.86%)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부여 회차	부여대상	관 계	부여일	주식의 종류	부여방법	부여 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비고
1회	○○○ 등 2명	임직원	2019.03.25	보통주	신주교부	110,720	-	2021.03.25~2026.03.24	250	주2)
2회	○○○ 등 4명	임직원	2019.08.19	보통주	신주교부	128,000	-	2021.08.19~2026.08.18	250	
3회	○○○ 등 2명	임직원	2020.03.26	보통주	신주교부	40,000	-	2022.03.26~2027.03.25	3,125	
4회	○○○ 등 7명	임직원	2020.08.31	보통주	신주교부	116,800	9,900	2022.08.31~2027.03.30	4,062	
5회	○○○ 등 5명	임직원	2021.03.31	보통주	신주교부	72,000	-	2023.03.31~2028.03.30	4,062	
6회	○○○ 등 16명	임직원	2021.08.20	보통주	신주교부	96,000	4,800	2023.08.20~2028.08.19	4,062	
7회	○○○ 등 16명	임직원	2022.03.31	보통주	신주교부	302,048	140,744	2024.03.31~2029.03.30	4,062	
8회	○○○	임직원	2022.04.22	보통주	신주교부	16,000	-	2024.04.22~2029.04.21	4,062	
9회	○○○ 등 81명	임직원	2023.11.30	보통주	신주교부	371,200	232,800	2025.11.30~2030.11.29	13,750	
10회	○○○	임직원	2024.03.28	보통주	신주교부	8,000	8,000	2026.03.28~2031.03.27	13,750	
11회	○○○ 등 28명	임직원	2024.05.02	보통주	신주교부	65,600	41,600	2026.05.02~2031.05.01	13,750	
12회	○○○ 등 6명	임직원	2025.11.07	보통주	신주교부	63,200	63,200	2027.11.07~2032.11.06	13,750	
합계						1,389,568	501,044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 미행사수량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해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잔여 미행사수량 501,044주 중 4차 주식매수선택권 5,700주 및 7차 주식매수선택권 123,544주, 총 129,244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보상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제9기)	2024년 (제8기)	2023년 (제7기)
주식보상비용	643	1,449	1,021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가 영위하는 AI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

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소송 및 분쟁 관련 위험

당사는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이행하였으나, 시험성적서 지연 제출을 사유로 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년 처분 및 제재부가금 194,476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2025년 9월 중 당사, 윤성호 대표이사, 허영신 CBO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은 집행정지 인용되었으나,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부과된 제재부가금 194,476천원을 2025년 10월 31일에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본 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당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사업 실적은 제조 분야 민간 기업과의 특화 SI 공급 계약 및 국방기관과의 특화 SI 공급 계약을 통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의 계약은 본 제재 처분과 무관하며, 국방기관과의 계약 역시 연구개발과제가 아닌 공급 계약의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지원금은 회계 인식 기준상 매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수주 규모 기준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은 2025년 기준 약 16.1% 수준으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당사는 2026년과 2027년 수주 및 매출 추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수익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유지하더라도 2026년 및 2027년 매출 및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 보전적 성격의 정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련 처분에 따라 1년 간 정부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데이터 수집, 반입, 저장, 활용, 백업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내부 보안 절차와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데이터 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고객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당사

창업 초기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미비로 인해 발생한 건입니다. 이후 당사는 내부 연구개발 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협약 변경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건 이후부터 2025년말까지 수행하여 완료된 총 16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AI 바우처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당사는 모두 별도의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완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분쟁건 외 당사는 피소된 소송 건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분쟁 성격에 따라 대규모 소송가액의 지출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피소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원고인 소송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이행하였으나, 시험성적서 지연 제출을 사유로 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년 처분 및 제재부가금 194,476천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2025년 9월 중 당사, 윤성호 대표이사, 허영신 CBO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은 집행정지 인용되었으나,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부과된 제재부가금 194,476천원을 2025년 10월 31일에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 과제의 실제 수행 내용과 성과

해당 과제는 제조 공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의 고장 전조를 탐지하는 AI를 연구·개발하는 과제였습니다. 당사는 관련 AI를 개발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로봇 운영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에는 시험용 로봇을 구입하여 단순 동작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 계획에 따라 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제 수행 중이던 2020년 하반기 중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에 산업용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현대로보틱스로부터 실제 생산라인에서 운용 중인 산업용 로봇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해당 제안이 기존 연구개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제 환경에 근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된 AI는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시범 적용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약 6개 공장, 약 1,400여 대의 산업용 로봇에 적용되어 수평 전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협약 변경 누락으로 인한 평가 문제 발생 경위

다만 위와 같은 연구개발 방식 변경 과정에서, 당사는 연구 수행 방식 변경에 대해 사전에 협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최종 평가 시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외부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대로보틱스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는 현대자동차 국내 및 해외 공장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취득된 데이터로, 로봇 동작 품질 및 생산 제품의 품질 불량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I 모델 성능 평가를 위해 외부기관 시험을 진행하려면 학습 데이터와 함께 모델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대로보틱스 및 데이터의 원천 권리자인 현대자동차는 해당 데이터의 외부기관 제공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당사는 고객 데이터의 외부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부 원칙에 따라 외부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된 방식의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대로보틱스가 자체적으로 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고, 당사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능 평가 방식 및 시험성적서 발급 기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협약 변경 절차를 선행했어야 함에도 내부 절차상 이를 진행하지 못한 채 과제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재평가 및 이의제기 과정에서 해당 경위를 설명하였으나, 평가위원회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결과물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극히 불량'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 대안적 시험성적서 확보 및 추가 입증 노력

현대로보틱스 및 현대자동차 데이터의 외부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사는 연구 개발 결과물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하여 수요기업에 로봇 이상탐지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AI 바우처 사업에 지원하였고, 해당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요기업인 주식회사 HCNC와 협의를 통해 산업용 로봇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인증된 외부 시험기관으로부터 정식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본 과제 처분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재검토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당사는 위 시험성적서를 대안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재검토위원회는 기존 '극히 불량' 처분 자체는 유지하되 일부 제재 수준만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소 제기의 이유

기존 사례 및 법률 자문에 따르면 '극히 불량' 처분은 일반적으로 사업비 오용 등 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 결과 모두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2년 6월 본 과제 최종 평가 당시, 시험성적서 관련 사항으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있었으나 개발 내용, 사업비 사용 내역, 기술임치증, 연구 노트 등 연구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에 실제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공급 계약도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과정 및 결과의 실재성을 고려할 때,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극히 불량' 처분이 내려진 것은 감경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5) 당사 사업에의 영향

현재 본 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당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사업 실적은 제조 분야 민간 기업과의 특화 AI 공급 계약 및 국방 기관과의 특화 AI 공급 계약을 통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의 계약은 본 제재 처분과 무관하며, 국방기관과의 계약 역시 연구개발과제가 아닌 공급 계약의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지원금은 회계 인식 기준상 매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수주 규모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은 2025년 기준 약 16.1% 수준으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당사는 2026년과 2027년 수주 및 매출 추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수익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유지하더라도 2026년 및 2027년 매출 및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 보전적 성격의 정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련 처분에 따라 1년 간 정부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당사의 데이터 관리체계 및 향후 보안 이슈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데이터 수집, 반입, 저장, 활용, 백업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내부 보안 절차와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가 회사로 전달되는 경우 사전에 데이터의 출처, 항목 및 민감도 등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분류하고,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별도의 중요 등급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데이터 반입 시에는 내부 데이터 관리 책임자 및 정보보호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전송 과정에서는 암호화된 파일 전송 방식 및 보안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전달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암호화된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한 물리적 전달 방식도 활용하고 있으며, 모든 데이터 반입 내역은 관리 대장을 통해 기록·관리됩니다.

반입된 데이터는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업무 필요 인원으로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온프레미스 서버 및 클라우드 협업 환경에 대해 다단계 인증(MFA), 접근 권한 통

제, 감사 로그 관리 등의 보안 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 저장 및 주기적인 백업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업 데이터는 별도의 저장 환경에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또는 데이터 보관 필요성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된 절차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완전 삭제하며, 물리적 저장매체 또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대해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폐기 절차를 수행합니다. 필요 시 폐기 이력 및 관련 증빙을 기록·보관하고 있으며,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폐기 검증 절차에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데이터 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고객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당사 창업 초기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미비로 인해 발생한 건입니다. 이후 당사는 내부 연구개발 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협약 변경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건 이후부터 2025년말까지 수행하여 완료된 총 16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AI 바우처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당사는 모두 별도의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완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분쟁건 외 당사는 피소된 소송 건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분쟁 성격에 따라 대규모 소송가액의 지출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피소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감사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1월 매출액 1,004백만원, 영업손실 568백만원, 2026년 2월 매출액 728백만원, 영업손실 1,402백만원, 2026년 3월 매출액 1,303백만원, 영업손실 381백만원, 2026년 4월 매출액 964백만원, 영업손실 619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

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 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

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 명확화

- ①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
- ② 잠정실적이라는 사실 및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 ③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

□ 기재보완·정정·효력재기산 등 세부 운용기준 마련

- ① **(기재 기한)** 최초 제출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일부 미기재 포함)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내용 보완*
* (예) '24.1.2. 최초 제출시 '23.12월 잠정실적 미기재 → 1.23.까지 보완하여 정정신고서 제출
- ② **(기재 추가)**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하여 정정신고서 제출 필요*
* (예) '23.12.22. 최초 제출시 '23.11월까지의 잠정실적 기재 → '24.1.17. 효력발생하는 경우 '23.12월 잠정 실적을 추가한 정정신고서 제출 필요
- ③ **(정정 기한)** 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 수정사항 등 발생시 청약 전일까지 자진 정정 가능
- ④ **(효력재기산)** 잠정실적 기재보완(①~③ 등)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투자자(공시이용자) 가독성 제고

- 투자자가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재무정보 관련 주요내용을 증권신고서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에 간단·명료하게 요약 기재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당사는 2025년 감사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1월 매출액 978백만원, 영업손실 492백만원, 2026년 2월 매출액 726백만원, 영업손실 1,332백만원, 2026년 3월 매출액 1,303백만원, 영업손실 381백만원, 2026년 4월 매출액 964백만원, 영업손실 619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

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2025년 이후 월별 매출 및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감사의견 적정)	2026년 1월 가결산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2026년 2월 가결산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2026년 3월 가결산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2026년 4월 가결산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영업수익	11,459	1,004	728	1,303	964
영업비용	19,501	1,572	2,131	1,682	1,583
영업이익(손실)	(8,041)	(568)	(1,402)	(381)	(619)

(출처: 당사 내부자료)

상기 영업수익과 관련하여, 당사의 2026년도 추정 영업수익은 약 224억원, 총 프로젝트 계약 수는 약 66건이며, 영업수익 중 1분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영업수익은 28억원, 총 프로젝트 계약 수는 약 39건입니다. 2026년 1분기 중 영업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프로젝트 39건 중 29건의 계약이 완료되어 총 26억 원의 영업수익을 인식하였으며, 이외에도 기존 영업수익 추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수주 8건이 추가로 계약되어 약 4억원의 추가 영업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총 30억원의 영업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1분기에 영업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영업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계약 건 중 7건은 1분기 중 수주가 완료되어 2분기부터 영업수익으로 인식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약 25건의 계약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수익은 주로 국내외 제조 대기업 및 국내 국방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화 AI 솔루션 공급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조 대기업 및 국방 분야의 경우 데이터 보안 등의 사유로 클라우드 기반 AI 솔루션보다는 폐쇄망 환경 내 구축·운영 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주로 공급 계약 체결 이후 진행률에 따른 영업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 대기업 및 국방 기관은 통상 연 단위로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따라 신규 계약이 상반기부터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 다수의 계약은 당해 연도 내 공급이 완료되나, 일부 계약은 차년도 이후 검수 완료가 예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해당 고객군의 사업자 선정 및 구매 계약 절차상 사업자 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솔루션 공급은 주로 상반기

중반 이후 개시되어 연말까지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업 환경 하에서 당사는 상반기에 수주한 계약의 상당 부분이 하반기에 진행률에 따른 영업수익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수익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성은 단기적으로 해외 고객을 포함한 고객군 확대를 통해 완화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제조 대기업 및 국방 고객의 AI 솔루션 도입 및 활용 방식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및 2026년 1분기 및 4월말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감사의견 적정)	2026년 1분기 (가결산 기준)	2026년 4월말 (가결산 기준)
회계기준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유동자산]	17,850	14,473	14,645
[비유동자산]	4,231	4,119	4,161
자산총계	22,081	18,592	18,806
[유동부채]	7,242	6,172	7,016
[비유동부채]	391	317	292
부채총계	7,633	6,490	7,308
[자본금]	7,420	7,420	7,420
자본총계	14,448	12,102	11,498
매출액	11,459	3,035	964
영업이익(손실)	(8,041)	(2,351)	(619)
당기순이익(손실)	(13,774)	(2,346)	(598)

주1)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손실)은 지배주주순이익(손실)을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및 4월 누적 기준 주요 재무비율]

(단위: % 회)

구 분	2026년 1분기(연환산)	2026년 4월 누적(연환산)
매출액증가율	5.9	4.7

구 분		2026년 1분기(연환산)	2026년 4월 누적(연환산)
성장성 비율	영업이익증가율	적자	적자
	당기순이익증가율	적자	적자
	총자산증가율	-15.8	-14.8
수익성 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77.5	-74.3
	매출액순이익률	-77.3	-73.8
	총자산순이익률	-46.1	-43.3
	자기자본순이익률	-70.7	-68.3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234.5	208.7
	부채비율	53.6	63.6
	차입금의존도	16.1	16.0

주1)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2026년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및 당기순이익(손실)은 1분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재무비율 산정방법 】

구 분	산 식	설 명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frac{\text{당기말 유동자산}}{\text{당기말 유동부채}} \times 100$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총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frac{\text{당기말 총부채}}{\text{당기말 자기자본}} \times 100$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frac{\text{당기말 차입금 등}}{\text{당기말 총자본}} \times 100$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frac{\text{당기 영업이익}}{\text{당기 매출액}} \times 100$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	$\frac{\text{당기 당기순이익}}{\text{당기 매출액}} \times 100$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	$\frac{\text{당기 당기순이익}}{(\text{기초총자산}+\text{기말총자산})/2} \times 100$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	$\frac{\text{당기 당기순이익}}{(\text{기초자기자본}+\text{기말자기자본})/2} \times 100$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	$\frac{\text{당기매출액}}{\text{전기매출액}} \times 100 - 100$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frac{\text{당기영업이익}}{\text{전기영업이익}} \times 100 - 100$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	$\frac{\text{당기순이익}}{\text{전기순이익}} \times 100 - 100$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	$\frac{\text{당기말총자산}}{\text{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100$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결산 기준 재무자료는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	내용
감사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인된, 2026년 3월말 기준 수주잔고 중 2026년 중 확정적으로 인식될 영업수익은 약 131억원이며, 이는 당사의 2026년도 추정 영업수익 약 224억원의 58.5%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영업수익 중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

식하는 용역매출의 경우 수주총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의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향후 수익으로 인식될 규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말 기준 수주잔고는 146억원으로서, 이는 2025년말 이전에 수주한 건 중 이월된 수주잔고 71억원 및 2026년 1분기 중 신규 수주한 금액 7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말 이전 수주잔고 이월액 71억원 중 2026년 중 수익으로 인식될 금액은 62억원이며, 나머지 9억원은 2027년 이후 수익으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1분기 중 신규 수주한 금액 75억원 중 2026년 중 수익으로 인식될 금액은 69억원이며, 나머지 6억원은 2027년 이후 수익으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즉, 2026년 3월말 기준 수주잔고 146억원 중 2026년 중 131억원이 수익으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말 수주잔고 중 2026년 중 확정적으로 인식될 영업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3월말 수주잔고 중 2026년 중 확정적으로 인식될 영업수익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전기이월/ 신규 수주	2026년 중 수익 인식액	2027년 이후 수익 인식액
2025년 및 이전 수주잔고	7,146	6,232	914
2026년 신규 수주	7,497	6,912	585
합 계	14,643	13,144	1,499

(출처: 당사 내부자료)

상기 영업수익은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적으로 인식될 금액임에 따라, 향후 AI 도입에 따른 성과가 확인되면서 고객사와의 신규 계약 체결에 따른 수주 증가로 인해 추가 영업수익이 발생할 것을 고려할 때, 당사가 추정한 2026년 영업수익 달성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

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30.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635,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6,666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5.86%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등 중 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 이재혁 1인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등 중 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 이재혁 1인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보유 12개월에 자발적 의무보유 24개월로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자발적 의무보유 3년으로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대주주등 중 박민수, 허영신 2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

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30.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635,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6,666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5.86%입니다.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현황]

(단위: 주, %)

성명	관계	보유 주식수	공모전 지분율	공모후 지분율
윤성호	최대주주(대표이사)	1,824,000	12.29%	10.40%
심상우	미등기임원	1,216,000	8.19%	6.93%
임용섭	미등기임원	1,216,000	8.19%	6.93%
박민수	등기임원	194,300	1.31%	1.11%
허영신	등기임원	86,504	0.58%	0.49%
합계		4,536,804	30.57%	25.86%

(출처: 당사 내부자료)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등 중 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 이재혁 1인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우호지분 공동목적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우호지분 공동목적보유 현황]

주주명	관계	공모후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	지분율	확약 주식수	지분율	확약 기간
윤성호	최대주주 (대표이사)	1,824,000	10.40%	1,824,000	10.40%	3년
심상우	미등기임원	1,216,000	6.93%	1,216,000	6.93%	
임용섭	미등기임원	1,216,000	6.93%	1,216,000	6.93%	
이재혁	기타	1,221,016	6.96%	1,221,016	6.96%	
합계		5,477,016	31.22%	5,477,016	31.22%	-

(출처: 당사 내부자료)

또한, 최대주주등 중 박민수, 허영신 2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17,541,640주 중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이재혁) 1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5,477,016주(상장 후 31.22%)를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2,781,698주(상장 후 15.86%)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또는 2개월의 추가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전략적투자자 중 SK텔레콤, 네이버(주), (주)지에스, 한화세미텍 주식회사는 보유한 주식 1,567,080주(상장 후 8.93%)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소액주주 중 김대성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주식 6,000주(상장 후 0.03%)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의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주)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260,869주(공모 후 1.49%)를 과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66,666주(공모 후 0.38%)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우리사주조합 349,300주(공모 후 1.99%)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

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6,755,207주(38.51%)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17,541,640주 중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이재혁) 1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5,477,016주(상장 후 31.22%)를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로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기존주주 중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를 제외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2,781,698주(상장 후 15.86%)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또는 2개월의 추가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전략적투자자 중 SK텔레콤, 네이버(주), (주)지에스, 한화세미텍 주식회사는 보유한 주식 1,567,080주(상장 후 8.93%)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6개

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소액주주 중 김대성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주식 6,000주(상장 후 0.03%)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년의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주)는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내에 취득한 260,869주(공모 후 1.49%)를 피리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13조제5항 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66,666주**(공모 후 **0.38%**)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우리사주조합 349,300주(공모 후 1.99%)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한 "조합원의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해당되어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청약 주식수에 따라 배정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 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단위: 주)

구분	주주명	회사와의 관계	공모전 보유주식		공모 후						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매각 제한 사유
					보유주식		매각제한물량		유통가능물량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등	윤성호	최대주주(본인)	1,824,000	12.29%	1,824,000	10.40%	1,824,000	10.40%	-	-	3년	주1)
	심상우	미등기임원	1,216,000	8.19%	1,216,000	6.93%	1,216,000	6.93%	-	-	3년	주1)
	임용섭	미등기임원	1,216,000	8.19%	1,216,000	6.93%	1,216,000	6.93%	-	-	3년	주1)
	박민수	등기임원(CFO)	194,300	1.31%	194,300	1.11%	194,300	1.11%	-	-	1년	주2)
	허영신	등기임원(CBO)	86,504	0.58%	86,504	0.49%	86,504	0.49%	-	-	1년	주2)
	소계	-	4,536,804	30.57%	4,536,804	25.86%	4,536,804	25.86%	-	-	-	-
5% 이상 소유주주	이재혁	기타	1,221,016	8.23%	1,221,016	6.96%	1,221,016	6.96%	-	-	3년	주1)
	소계	-	1,221,016	8.23%	1,221,016	6.96%	1,221,016	6.96%	-	-	-	-
1% 이상 소유주주	포지티브 에이아이 벤처투자조합 제1호	벤처금융	443,592	2.99%	443,592	2.53%	-	-	443,592	2.53%	-	-
	포지티브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제2호	벤처금융	326,086	2.20%	326,086	1.86%	326,086	1.86%	-	-	2개월	주3)
	에이벤처스 GROWTH K 제2호 투자조합	벤처금융	260,231	1.75%	260,231	1.48%	260,231	1.48%	-	-	2개월	주3)
	피투와이조합1호	기타	256,000	1.73%	256,000	1.46%	-	-	256,000	1.46%	-	-
	에이치비청년미래투자조합	벤처금융	217,405	1.46%	217,405	1.24%	217,405	1.24%	-	-	2개월	주3)
	비엔케이 스토리지B 부산 지역혁신펀드	벤처금융	217,391	1.46%	217,391	1.24%	217,391	1.24%	-	-	2개월	주3)
	얼머스 2024 세컨더리 투자조합	벤처금융	217,390	1.46%	217,390	1.24%	217,390	1.24%	-	-	2개월	주3)
	에이벤처스 밸런스 S 투자조합	벤처금융	213,161	1.44%	213,161	1.22%	213,161	1.22%	-	-	2개월	주3)
	대성 따뜻한 임팩트 투자조합	벤처금융	178,535	1.20%	178,535	1.02%	-	-	178,535	1.02%	-	-
	2019 HB일자리기술금융투자조합	벤처금융	179,264	1.21%	179,264	1.02%	-	-	179,264	1.02%	-	-
	뉴웨이브신기술투자조합제1호	벤처금융	176,000	1.19%	176,000	1.00%	-	-	176,000	1.00%	-	-
	코벤트한빛패트라신기술투자조합	벤처금융	576,000	3.88%	576,000	3.28%	384,000	2.19%	192,000	1.09%	1개월, 3개월	주5)
	한국산업은행(벤처투자2실)	전문투자자	713,080	4.81%	713,080	4.07%	-	-	713,080	4.07%	-	-
	미래에셋증권	전문투자자	260,869	1.76%	260,869	1.49%	260,869	1.49%	-	-	6개월	주6)
	신한투자증권(주)	전문투자자	196,688	1.33%	196,688	1.12%	-	-	196,688	1.12%	-	-

구분	주주명	회사와의 관계	공모전 보유주식		공모 후						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매각 제한 사유		
					보유주식		매각제한수량		유통가능수량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SK텔레콤	기타	576,000	3.88%	576,000	3.28%	576,000	3.28%	-	-	6개월	주7)		
	네이버(주)	기타	640,000	4.31%	640,000	3.65%	640,000	3.65%	-	-	6개월	주7)		
	APPLIED VENTURES INNOVATION FUND I, L.P.	기타	528,688	3.56%	528,688	3.01%	-	-	528,688	3.01%	-	-		
	LG CNS Fund I LLC	기타	441,376	2.97%	441,376	2.52%	-	-	441,376	2.52%	-	-		
	코너스톤 822 제2호 신기술조합	벤처금융	421,376	2.84%	421,376	2.40%	280,917	1.60%	140,459	0.80%	1개월, 3개월	주5)		
	(주)지에스	기타	174,040	1.17%	174,040	0.99%	174,040	0.99%	-	-	6개월	주7)		
	한화세미텍 주식회사	기타	174,040	1.17%	174,040	0.99%	174,040	0.99%	-	-	6개월	주7)		
	소계	-	7,387,212	49.78%	7,387,212	42.11%	3,941,530	22.47%	3,445,682	19.64%	-	-		
소액주주	HB 청년창업 투자조합	벤처금융	57,621	0.39%	57,621	0.33%	-	-	57,621	0.33%	-	-		
	에스앤에스 2023 펀더멘탈 투자조합	벤처금융	76,827	0.52%	76,827	0.44%	-	-	76,827	0.44%	-	-		
	웰컴더블 세컨더리투자조합 제1호	벤처금융	31,595	0.21%	31,595	0.18%	-	-	31,595	0.18%	-	-		
	팔콘제이파트너스 주식회사	기타	13,221	0.09%	13,221	0.08%	-	-	13,221	0.08%	-	-		
	대성 블라썸 일자리 투자조합	벤처금융	138,845	0.94%	138,845	0.79%	-	-	138,845	0.79%	-	-		
	케이디비 대성+HGI 그린 임팩트 투자조합	벤처금융	126,620	0.85%	126,620	0.72%	-	-	126,620	0.72%	-	-		
	기술혁신전문 에너지 해외진출펀드	벤처금융	108,695	0.73%	108,695	0.62%	108,695	0.62%	-	-	2개월	주3)		
	신한에이치비헬니스1호투자조합	벤처금융	108,695	0.73%	108,695	0.62%	108,695	0.62%	-	-	2개월	주3)		
	포스코 CVC 스케일업 펀드 1호	벤처금융	108,695	0.73%	108,695	0.62%	108,695	0.62%	-	-	2개월	주3)		
	엑스퀘어드 빅스트 벤처펀드 제3호	벤처금융	83,966	0.57%	83,966	0.48%	83,966	0.48%	-	-	2개월	주3)		
	엑스퀘어드-푸른 그린펀드	벤처금융	83,966	0.57%	83,966	0.48%	83,966	0.48%	-	-	2개월	주3)		
	엑스퀘어드 빅스트 벤처펀드 제2호	벤처금융	49,460	0.33%	49,460	0.28%	49,460	0.28%	-	-	2개월	주3)		
	신한투자증권(주)(엔라이튼자산운용-신한은행)	기타	50,000	0.34%	50,000	0.29%	-	-	50,000	0.29%	-	-		
	삼성증권	전문투자자	121,640	0.82%	121,640	0.69%	121,640	0.69%	-	-	1개월	주4)		
	APPLIED VENTURES INNOVATION FUND II, L.P.	기타	49,776	0.34%	49,776	0.28%	-	-	49,776	0.28%	-	-		
	김대성	소액주주	6,000	0.04%	33,000	0.19%	6,000	0.03%	27,000	0.15%	1년	주8)		
	기타 소액주주	소액주주	479,320	3.23%	452,320	2.58%	-	-	452,320	2.58%	-	-		
		소계	-	1,694,942	11.42%	1,694,942	9.66%	671,117	3.83%	1,023,825	5.84%	-	-	
공모주주 및 상장주선인	공모주주	신주모집	-	-	2,285,700	13.03%	-	-	2,285,700	13.03%	-	-		
	우리사주조합	신주모집	-	-	349,300	1.99%	349,300	1.99%	-	-	1년	주9)		
	미래에셋증권(의무인수)	의무인수분	-	-	66,666	0.38%	66,666	0.38%	-	-	3개월	주10)		
	소계	-	-	-	2,701,666	15.40%	415,966	2.37%	2,285,700	13.03%	-	-		
합계			-	-	14,839,974	100.00%	17,541,640	100.00%	10,786,433	61.49%	6,755,207	38.51%	-	-

주1)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이재혁) 1인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인 5,477,016주(상장 후 31.22%)를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에 따라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 이재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른 의무보유 2년이며, 추가 1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설정으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주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1개월 추가로 상장 이후 총 2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주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주5) 코벤트한빛페트라신기술투자조합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192,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192,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3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코너스톤 822 제2호 신기술조합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140,459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1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140,458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3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주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의무보유기간은 과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총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주7)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제7호(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에 따라 상장 이후 총 6개월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 주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입니다.
- 주9)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349,3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보유 예약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상장 이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단위: 주)

구분	주식수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	6,755,207	38.51%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	7,209,306	41.10%
상장후 2개월 뒤 유통가능	9,204,447	52.47%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	9,603,571	54.75%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	11,428,520	65.15%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	12,064,624	68.78%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	17,541,640	100.00%

주1)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6,755,207주(38.51%)**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상장 이전에는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666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

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수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수량으로서 공모수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수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수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6,666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을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바.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법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가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바,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

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4월 28일(화) ~ 2026년 5월 6일(수)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5월 11일(월) ~ 12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4월 28일(화) ~ 2026년 5월 6일(수)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05월 11일(월) ~ 12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666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주)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미래에셋증권(주)	보통주	66,666주	15,000원	상장 후 3개월

주1)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금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6,666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263,5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263,500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주관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263,5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

-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

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10%인 263,5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여대상자	미래에셋증권(주)
행사가능주식수	263,500주
행사가격	확정공모가액
행사가능기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따라서 대표주관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상장주선인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는 2025년 10월 31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 보통주 260,869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9%)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주)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는 2025년 10월 31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 보통주 260,869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9%)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주식 취득의 상세내역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내역]

(단위: 원, 주, %)

주주명	주식의 종류	취득방식	취득일	취득주식수 (지분율)	주당 취득가액	취득금액	비고
-----	-----------	------	-----	----------------	------------	------	----

미래에셋증권(주)	보통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2025.10.31	260,869 (1.76)	11,500	2,999,993,500	주1)
합계	보통주	-	-	260,869 (1.76)	11,500	2,999,993,500	-

-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260,869주에 대하여 괴리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합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취득금액과 공모가격이 30% 이상 괴리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보유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확정공모가격이 15,000원으로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 주3)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76% 공모 후 기준 약 1.49%입니다.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가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보통주와 관련하여 당사와 별도의 특약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격 대비 공모가격 괴리율]

인수인 명	주식의 종류	확정공모가격	취득일	주당 취득가격 주1)	괴리율	비고
미래에셋증권(주)	보통주	15,000원	2025.10.31	11,500원	30.43%	-

- 주1) 평균 취득가격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2) **확정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확정공모가격**-취득가격/취득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2) 상기 취득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가 공모전 취득한 당사 주식은 없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주)는 보유지분 260,869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9%)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주)의 지분율은 1.76%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후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 따라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미래에셋증권(주)는 보유지분 260,869주(상장예정주식수의 1.49%)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괴리율에 따라 **6개월** 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주)는 260,869주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최소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이므로 관련 규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증권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
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6.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 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수업무 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
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자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주)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이자 전문투자자 주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예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

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을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인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

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 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을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윤성호는 보통주 1,82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0.39%)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윤성호는 보통주 1,824,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0.39%)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가 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7,541,640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501,044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2.86%)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부여 회차	부여대상	관 계	부여일	주식의 종류	부여방법	부여 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비고
1회	○○○ 등 2명	임직원	2019.03.25	보통주	신주교부	110,720	-	2021.03.25~2026.03.24	250	주2)
2회	○○○ 등 4명	임직원	2019.08.19	보통주	신주교부	128,000	-	2021.08.19~2026.08.18	250	
3회	○○○ 등 2명	임직원	2020.03.26	보통주	신주교부	40,000	-	2022.03.26~2027.03.25	3,125	
4회	○○○ 등 7명	임직원	2020.08.31	보통주	신주교부	116,800	9,900	2022.08.31~2027.03.30	4,062	
5회	○○○ 등 5명	임직원	2021.03.31	보통주	신주교부	72,000	-	2023.03.31~2028.03.30	4,062	
6회	○○○ 등 16명	임직원	2021.08.20	보통주	신주교부	96,000	4,800	2023.08.20~2028.08.19	4,062	
7회	○○○ 등 16명	임직원	2022.03.31	보통주	신주교부	302,048	140,744	2024.03.31~2029.03.30	4,062	
8회	○○○	임직원	2022.04.22	보통주	신주교부	16,000	-	2024.04.22~2029.04.21	4,062	
9회	○○○ 등 81명	임직원	2023.11.30	보통주	신주교부	371,200	232,800	2025.11.30~2030.11.29	13,750	
10회	○○○	임직원	2024.03.28	보통주	신주교부	8,000	8,000	2026.03.28~2031.03.27	13,750	
11회	○○○ 등 28명	임직원	2024.05.02	보통주	신주교부	65,600	41,600	2026.05.02~2031.05.01	13,750	
12회	○○○ 등 6명	임직원	2025.11.07	보통주	신주교부	63,200	63,200	2027.11.07~2032.11.06	13,750	
합계						1,389,568	501,044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 미행사수량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해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잔여 미행사수량 501,044주 중 4차 주식매수선택권 5,700주 및 7차 주식매수선택권 123,544주, 총 129,244주는 임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7,554,024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501,044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2.86%)로 완전회식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8,042,684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예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예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수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인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인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해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1. 일괄청약방식 (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 (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 (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

(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

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

(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

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 수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정사항]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

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 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

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

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실권 발생 위험

본 건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3.26%(349,300주)가 우선배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합의 청약이 해당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진행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3.26%(349,300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동 배정된 주식은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되고, 의무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최종 배정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청약수량에 따라 확정되며, 일부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탁주식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향후 청약 시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이 발생하여 미청약분이 발생할 경우, 본 건 공모의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게 동 실권물량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청약 경쟁률 보다 실질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청약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5년 11월 1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분산요건] (다음 중 택1)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

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

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 ㈜마키나락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02. 27)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신청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 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신청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신청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

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 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

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5년 11월 1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2월 27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

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당사 자체 결산에 따른 최근 분기 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별도 기준 월별 잠정 영업수익 및 영업손익을 공시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말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5년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

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 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 명확화

- ①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
- ② 잠정실적이라는 사실 및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 ③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

□ 기재보완·정정·효력 재기산 등 세부 운용기준 마련

- ① **(기재 기한)** 최초 제출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일부 미기재 포함)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내용 보완*
 * (예) '24.1.2. 최초 제출시 '23.12월 잠정실적 미기재 → 123까지 보완하여 정정신고서 제출
- ② **(기재 추가)**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하여 정정신고서 제출 필요*
 * (예) '23.12.22. 최초 제출시 '23.11월까지의 잠정실적 기재 → '24.1.17. 효력발생하는 경우 '23.12월 잠정 실적을 추가한 정정신고서 제출 필요
- ③ **(정정 기한)** 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 수정사항 등 발생시 청약 전일까지 자진 정정 가능
- ④ **(효력재기산)** 잠정실적 기재보완(①~③ 등)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4.01))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말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5년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말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더.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상 추정 매출액은 변동 가능성

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머.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

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당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주의와 자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동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 절차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실적 기준의 PER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해 있으며, 비교기업 선정에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엑셈**,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4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에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비교기업의 PER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ER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구분	한계
PER 가치평가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실적 기준의 PER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

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해 있으며,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엑셈,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4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6,392백만원(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성과수수료 및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처.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 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무포털(<https://rule.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위험

본 공모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 평가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 변화 등 다양한 변

수로 인해 최종 공모가격이 실제 기업가치를 완벽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작성 기준일 현재의 시장 전망과 당사의 영업환경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수치는 시장 추세와 당사의 내부 데이터에 따라 추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변화 등 불확실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장 규모와 당사의 실적은 전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경쟁 심화 등의 외부 요인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전망 수치가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이하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시장의 규모나 회사의 실적 등은 전망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전망의 내용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추정 및 업계 내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퍼.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되고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세계 각국의 영토/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미래에셋증권(주)"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주)마키나락스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 "(주)마키나락스"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주)마키나락스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주)마키나락스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주)마키나락스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주)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가 투자자에게 투자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	상대가치법		
평가모형	PER		
적용 재무수치	추정치		
적용산식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	구 분	수 치	참고사항
	①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10,436백만원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 유사기업 PER	40.5배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 주식수	18,255,368주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	23,143원	① x ② ÷ ③
	④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35.2%~46.0%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		15,000원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2026년~2030년)의 순이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8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주)마키나락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12,500원 ~ 15,000원
확정공모가액	15,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마키나락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

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마키나락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1주당 1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주)마키나락스의 향후 2026년~2030년 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절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

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게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 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금번 공모를 위한 (주)마키나락스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을 대상으로 PER

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마키나락스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 사유]

적용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적합성
PER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 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마키나락스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 사유]

제외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PBR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 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EV/EBITDA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절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8년 추정 주당순이익의 2025년말 현가를 기준으로 PER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당순이익 추정을 위한 여러 가정 및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위험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에 대해 불확실성과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

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사기업의 선정

(1) 유사기업 선정 요약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동사의 업종, 사업, 재무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엑셈,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등 총 4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비교가능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규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 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어 모집단에 속한 유사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기업 선정 기준 요약]

구분	선정기준	세부 검토기준	선정회사
1차	모집단선정	① (J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② 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③ 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14개사 (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6개사 (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12개사 - 총 162개사
2차	사업 유사성	① AI 기반으로 개발자가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도구와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판매 사업을 영위 ② IT 인프라를 AI로 분석하여 운영 자동화, 최적화, 효율화하는 AIOps, MLOps 사업을 영위 ③ AI가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 과기부 K-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의 정예팀에 포함된 기업 ④ 동사가 집중하는 제조/국방 분야를 제외한 특정 산업(금융, 의료 등)에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제외	- 20개사
3차	재무 비교가능성	① 분석기준일 현재 DART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최근 4개분기(2025년 1분기, 2025년 3분기, 2025년 3분기, 2025년 4분기) 실적이 공시되었을 것 ② 결산월이 12월말로 동일할 것 ③ 2024년 온기 및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순이익 흑자 시현했을 것	- 6개사
4차	일반 유사성	①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기업 ②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 관리종목, 대규모 합병 등이 없는 기업 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일 것 ④ Multiple Outlier(최대, 최소) 제외	- 총 4개사 (엑셈,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총 4개사)

(2) 유사기업 선정 세부내역

(가) 모집단 선정 - 업종 유사성

동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에 해당합니다. 유사회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산업분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래 유사 산업분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

상기 기준으로 분류된 1차 유사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 업종유사성(국내 모집단 선정)]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업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J63991)	(주)케이티씨에스 등 14개 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	(주)누리플렉스 등 36개 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유엔젤(주) 등 112개 기업

(출처: NiceBizline)

(나) 2차 - 사업 유사성

동사는 폐쇄망 등 특수한 환경에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Runway는 AI 모델의 개발, 배포, 운영 등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산업 특화 AI 플랫폼으로서 2025년 기준 매출액은 4,135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AI 컨설팅 사업은 특정 고객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 기준 매출액은 7,325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6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버티컬 AI(Vertical AI)'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범용 AI가 모든 산업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공지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국방처럼 정확성·신뢰성·보안성이 절대적인 분야에서는 AI의 정교한 모델링과 더불어, 이를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동사는 이러한 산업 현장의 현실과 필요성에 따라, 단순히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AI를 산업 현장에 '작동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는 기업입니다. 이를 위해 동사는 두 가지 핵심 축인 '도메인 특화 모델링 기술', '도메인 특화 엔지니어링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내재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토대를 통해 동사는 제조와 국방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AI의 상용화'를 실현해 왔으며, 이는 단순한 개념검

중이 아니라, 실제 생산 라인과 방위 시스템 등 현장의 제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AI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 기술은 단순히 최신 AI 모델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불완전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가공 및 활용하고, 실제 작업 맥락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범용성을 지향하는 일반 LLM, 상용 시뮬레이터, 오픈소스 모델과 달리, 산업 특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데이터, 모델링 기술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은 단순히 물리·화학 지식 기반의 모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이나 법칙을 통해 사전적으로 현상을 모두 규명하려는 시도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동작을 세밀히 관찰하고 데이터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산업용 AI 시뮬레이터 개발로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 제어를 비롯한 다양한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적 제어 값을 탐색하거나 다양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왓이프 시뮬레이션(What-if Simulation)을 위해서는 빠른 계산 속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기존 상용 시뮬레이터는 주로 물리 방정식 기반 계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리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속도와 정확성 모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국방과 같은 산업 환경에서는 범용 AI가 보유하지 못한 설비·공정 등의 도메인 지식을 반영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추가 사전학습을 하거나 미세조정 하는 수준을 넘어선 태스크 특화 AI 설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동사는 목적 함수와 보상 함수 설계, 전문가 피드백 반영, 에이전트 자율성 조절, 저데이터 환경에서의 모델 구축 등 근본적인 수준에서 모델을 설계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산업 특화 AI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은 대부분 외부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로 기업 내부망에서 운영되며, 엄격한 보안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을 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이터 반입·반출, 소프트웨어 배포, 접근 권한 관리 등에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도메인 특화 엔지니어링 기술은 다음 세 가지 세부 기술을 통해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상호 결합되어, AI 프로젝트가 일회성 실험이 아니라 기업의 '상시적인 운영체계'로 정착되도록 돕습니다.

- AI 인프라 구성 기술: 다양한 연산 자원과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폐쇄망 환경에서도 효율적 운영
- AI 배포 및 운영 기술: MLOps/LLMOps 기반으로 모델의 학습, 배포, 재학습, 모니터링을 자동화
- 보안 프로세스 체계 구축 및 자동화 기술: 소프트웨어 반입 · 검증 · 내부 공유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

동사의 위 핵심기술을 통해 구현한 동사의 Runway는 AI 모델의 개발, 배포, 운영 등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머신러닝운영(MLOps, Machine Learning Operations) 기능에서 시작하여 데이터운영(DataOps, Data Operations), 대규모언어모델운영(LLM Ops, Large Language Model Operations), 에이전트 운영(AgentOps, Agent Operations)까지 시장 수요와 기술 발전에 따라 그 기능범위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산업특화 AI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준 중 4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회사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차 - 사업 유사성]

선정기준	세부 검토기준
사업 유사성	① AI 기반으로 개발자가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도구와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판매 사업을 영위 ② IT 인프라를 AI로 분석하여 운영 자동화, 최적화, 효율화하는 AIOps, MLOps 사업을 영위 ③ AI가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 과기부 K-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의 정예팀에 포함된 기업

선정기준	세부 검토기준
	④ 동사가 집중하는 제조/국방 분야를 제외한 특정 산업(금융, 의료 등)에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제외

1차 국내 유사기업 162개 중 사업 유사성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회사는 아래 20개사입니다.

기업명	주요제품	결과	세부 검토기준			비고
			AI 기반으로 개발자가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도구와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판매 사업을 영위	IT 인프라를 AI로 분석하여 운영 자동화, 최적화, 효율화하는 AIOps, MLOps 사업을 영위	AI가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 과기부 K-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의 정예팀에 포함된 기업	
KTcs	B2B 매출 31.1% 컨택서비스사업수익 23.3% KT고객서비스수익 22.3% 유통 사업수익 16.7% 우선 번호안내 수익 1.4% 114 번호안내 수익 1.1% 기타 사업수익 4.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NCE평가정보	개인신용정보사업 61.03% 기업정보사업 16.70% 자산관리사업 12.73% 기타 9.54%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THE E&M	개인방송플랫폼 외 50.01% MCN/매니지먼트 33.03% 연예인 매니지먼트 외 16.9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에프앤가이드	금융정보서비스 57.88% INDEX 26.94% FUND 5.22% 기타 9.95%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iMBC	용역(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디지털 뉴스 운영대행 및 해외배송대행 등) 45.43% 콘텐츠 40.98% 광고 12.08% 제휴 수수료 1.39% 프로모션 0.1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KG모빌리언스	전자결제 87.34% 교육 5.96% IT 2.48% 이러닝 4.2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이크레더블	전자신용인증서 외 67.1% 기술평가 서비스 25.6% 기업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4.3% 전자상거래 중계 및 구매금융지원 등 3.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리파인	전월세보증금 대출 서비스 90.6% 담보대출 서비스 4.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4.4% 기타 수수료 0.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쿠팡	데이터 서비스 48.57% 페이먼트 서비스 51.43%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KT밀리의서재	전자책 구독 등 98.9% 종이책 출판 등 1.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핑거스토리	온라인 콘텐츠매출 99.82% 기타 0.18%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아이지넷	보험수입수수료 97.9% 플랫폼(보덕) 1.2% 솔루션(B2B) 0.9%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미트박스	상품매출 68.07% 중개매출 25.85% 기타 2.3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미스터블루	만화, 웹툰 47.52% 게임 26.99% 웹소설 22.09% 만화 출판 1.81% 소설 출판 1.59%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누리플렉스	지능형검침인프라(AMI)솔루션 52.82%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 EMS 24.21% 바코드 및 RFID 시스템 17.95% 기타 5.0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안랩	보안솔루션, 보안 관제서비스, 보안 컨설팅 등 93.7% 외부상품 등 6.3%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인피니트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료영상 소프트웨어 등) 10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라운시큐어	통합접근관리 솔루션 9.6% PC보안 솔루션 5.7% 모바일 보안 25.4% 유미쿼터스PKI 1.4% 취약점분석, 보안컨설팅 11.8% IDaaS 인증 15.7% 블록체인서비스 25.6% NFT&Digital Badge 0.4% 기타 4.5%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한국전자인증	공동인증서비스 62.46% 글로벌인증서비스 17.22% 인증솔루션 및 기타 제품 20.3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한컴위드	금 및 금 관련 상품, 주얼리 97.58% PKI인증, 간편인증 등 인증서비스 1.41% 임대 매출 0.85% 기타 0.0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이니텍	ITO(시스템운영관리) 용역 47.79% 금융 ASP 14.27% 인증 및 암호화, 통합보안관리 및 보안장비 제품 14.23% SI(인터넷 뱅킹 솔루션 등) 용역 3.30% 임대수익 1.5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아이크래프트	네트워크 및 솔루션 장비판매 83.3% 인터넷핵심망, 유지보수 16.6% 기타 0.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아톤	핀테크 보안 솔루션 26.63% 핀테크 플랫폼 15.88% 스마트 금융 2.77% 티머니솔루션 1.45% 연결 51.53%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디지털	디지털트윈 SW · 솔루션 34.73% 콘텐츠 SW · 솔루션 26.75% 메타버스 SW · 솔루션 20.90% 영상보안/보안 SW · 솔루션 8.93% 디지털방송 솔루션 7.35% 기타 솔루션 0.88%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유라클	모바일플랫폼 46.61% 운영/유지보수 25.32% 모바일 기기 유통 22.42% S플랫폼 4.31% 기타 1.34%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유비벨록스	환경생활가전 53.75% 블랙박스/지도플랫폼 29.59% 스마트카드 외 16.72% 모바일 외 2.48%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플랜티넷	유해 콘텐츠 차단 61.9% 미디어콘텐츠 제공 및 유통 22.7% 중소기업창업투자 15.4%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이노시물레이션	Virtual Training(가상훈련) 83.21% Virtual Testing(스마트모빌리티 시뮬레이터) 16.79%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보안관제, 컨설팅, 스마트시스템(유지보수 등) 94.24% 보안솔루션					

싸이버원	제품 5.11% 보안솔루션, 스마트시스템 상품 0.65%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네오리진	게임사업 94.84% 스포츠드라마 5.1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샌즈랩	시스템 통합(SI) 80.69%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19.3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모니터랩	제품 (AIWAF, AISVA AISWG 등) 43.24% Cloud Security Service 34.65% Maintenance Service (유지보수서비스) 13.31% Managed Service (매니지드서비스) 7.83% 부동산임대 0.97%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SOOP	플랫폼 72.3% 광고 및 콘텐츠제작 26.2% 기타 1.5%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비트플래닛	유지보수(시스템 통합, IT 인프라 구축 등) 67.65% 개발용역 22.00% , RPD 프린터 외 9.53% 임대료/상표권 등 0.8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파라텍시스템더리움	용역/서비스(유지보수 등) 29.60% DB암호화 및 비정형 파일 암호화 23.94% , DB접근제어 및 DB권한결재 23.13% 클라우드 DB보안 22.26% 기타 1.0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휴네시온	제품(네트워크 보안솔루션) 68.36% 용역(네트워크 보안솔루션) 31.48% 상품(네트워크 보안솔루션) 0.17%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아이티아이즈	용역(Finance core solution, AI · Bigdata solution) 85.1% 상품(SW/HW, solution, 기타) 9.7% 클라우드매출_MSP, 클라우드매출_ Cloud Platform 5.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인스피언	컨설팅 사업 49.93% 보안솔루션 사업 34.32% 서비스 사업 13.85% , 기타 1.9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에스에스알	취약점 진단 솔루션 65.44% 용역(기술 컨설팅) 20.72% 웹해킹 방지 솔루션 7.04% 용역(관리 컨설팅) 6.8%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엑스게이트	HW/SW 60.2% 임대/보안관제 26.7% 유지관리 13.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아티스트컴퍼니	매니지먼트 서비스 76% DSP/DMP 서비스 및 데이터 판매 18% 콘텐츠 제작 및 배급수익 5% 기타 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노타	NetsPresso Solution 92.30%, NetsPresso Platform 7.70%	O	해당	미해당	해당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플랫폼 NetsPresso 제공 / K-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업스테이지 컨소시엄) 참여
소프트캠프	문서DRM 49.30% 유지보수 34.96% 클라우드서비스 2.95% 영역DRM 2.19% 국방 0.96% SHIELDX 0.77% 기타 8.8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아이티센피엔에스	보안솔루션 상품 44.37% 디지털금융 서비스 및 컨설팅 45.63% 유지보수 6.67% 제품 3.33%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에스지에이솔루션즈	금융수익 35.22% 임베디드 OS(Microsoft 등) 유통 28.06% 보안솔루션 21.09% 유지보수 15.63%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에스투더블유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52.6% 기관용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44.4% 기타 3.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산돌	통신판매 77% 용역매출 21% 제품 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케이사인	SecureDB 49.27% 기타 18.84% Access 10.93% PK 2.6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드림시큐리티	렌탈부문 85.04% 국방부문 5.60% 보안솔루션 5.36% 개인정보보호서비스 3.52% 운영 0.48%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엑셀	DB성능관리 49.35% DB보안관리 21.21% APM 13.42% AI 빅데이터플랫폼 9.84% 통합 IT 성능 모니터링 플랫폼 1.57% 지능형 IT 성능 모니터링 플랫폼 0.62% 클라우드 모니터링 플랫폼 0.08%	O	해당	해당	미해당	IT 인프라 분석 AIOps 플랫폼 XAIOps 및 MLOps 플랫폼 Woodpecker 제공
유엔젤	지능망, 메세징 등 22.77% 해외사업 및 기타 38.52% B2B, B2C service 27.54% ASP 11.18%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텔코웨어	무선데이터 75.4% 음성핵심망 23.3% 기타(요소가, 임대료 등) 1.3%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현대오토에버	ITO부문 40.96% SI부문 37.84% 차량용 SW 부문 21.2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이스트소프트	AI, S/W 사업(온디바이스 및 피지컬 AI, AI검색, 에이전트 AI, AI Tools제품군, AIYac제품군 등) 47.7% 게임 26.2% 금융 13.9% 커머스 7.8% 포털 4.4%	O	미해당	미해당	해당	K-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LG AI 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MDS테크	임베디드 시스템 SW 33.7% 임베디드 SW 개발솔루션 21.1% 산업 자동화 솔루션 17.5% 기타 27.7%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유비케어	의료정보 플랫폼 99.4% 기타 서비스 용역관련 0.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브리지텍	콜센터 솔루션 68.56% 유지보수 24.87% 클라우드 콜센터 4.27% IP기반 유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 2.3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갤럭시아머니트리	전자결제사업 75.4% O2O사업 15.9% 기타사업 8.7%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아이스크림미디어	교육출판 52.25% 커머스 38.90% 연수사업 6.62% 기타 2.2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코나아이	KONA카드, 콤비카드, 통신카드 62.0% 플랫폼(선불결제) 20.4% COB, 스마트카드외 10.0% S/W개발 7.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한국정보인증	인증서 49.95% 전자서명 19.24% 인증보안(OTP) 17.10% 솔루션 3.33% 기타 10.28%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세종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등 판매 45% PLM(제품수명관리) 외 32% 여행알선수입 외 24%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셀바스에이아이	의료기기 20.48% 기타 의료기기 18.44% 심장충격기 16.22% 보조공학기기 14.03% AI DT 14.01% 의료진단기기 11.65% HCI 5.17%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한글과컴퓨터	문서기반 서비스 및 SW(설치형, 클라우드 SaaS, SDK 등) 63.4% 소방 개인안전장비 26.9% 기타 7.5% 금융 2.1%	O	미해당	미해당	해당	K-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LG AI 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지어소프트	유통 및 이커머스 49.00% IT서비스 44.46% 광고사업부 6.54%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다날	커머스사업부문(유무선 결제시스템 등) 87.11% 디지털콘텐츠 제작/유통 8.13% 커피 프랜차이즈 4.7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영림원소프트랩	On-premise ERP 구축을 위한 License 및 컨설팅, 개발 60.3% 유지관리서비스 32.2% Cloud 기반 구독형 ERP(SaaS) 6.7%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티사이언티픽	보안 및 네트워크 84.70% 모바일커머스(SI등) 5.42% 모바일커머스 9.88%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비큐AI	데이터 전처리 기술 플랫폼 90% 용역 1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다산디엠씨	자동차부품 기타 85.36% HIM 사업부 5.15% Automotive Solution 사업부 4.38% IOT 사업부 1.85, 기타 3.2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이씨에스텔레콤	시스템 통합 및 글로벌컨설팅, IP/AI 컨택센터 솔루션 44.82% 콜센터 솔루션 및 인프라구축 등 41.63% 영상회의 솔루션, 통합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등 13.55%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알티캐스트	공사매출 88.11% SW Quality Insight 7.75% MW Solution 4.14%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오상자이엘	PLM Solution 54.89% 시스템용역 33.19% 시스템통합 7.20% 포장재,생물농약 4.7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웹케시	경리나라 34.66% 인하우스 35.65% 브랜치 29.69%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시큐브	솔루션 51.2% 서비스 48.8%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수산아이앤티	보안솔루션 67.7% 공유단말접속관리서비스 29.6% 기타 2.8%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엠로	시스템 구축/컨설팅 64.9% 기술지원 19.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9.4% 클라우드 사용료(공급망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AI 소프트웨어) 6.7%	O	미해당	해당	미해당	구매/물류 공급망 인프라 최적화 AI 솔루션 제공
한쌍	정보보호제품 94.68% 상품 3.91% 정보보호용역 0.81% 임대수익 0.6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엔텔스	운영지원시스템 43.75% 서비스제공플랫폼 22.44% 비즈니스지원시스템 25.82% 시스템통합 8.0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엑스큐어	스마트 카드 84.52% IC카드 발급시스템 개발 외 13.86% 상품 1.54% 기타 0.03% AED 캐비닛 0.0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파수	유지관리 40.2% 데이터보안 39.2% 애플리케이션보안 17.7% 정보보호컨설팅 2.9%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브레인즈컴퍼니	솔루션(IT인프라 자원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등) 53.6% 유지보수 39.4% 상품 6.9%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토마토시스템	솔루션 진행 매출 47.65% 용역 수입 42.50% 제품 8.97% 기타 0.88%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바이브컴퍼니	AI Solver(AI 기반 문제해결 솔루션) 48.72% 썬트렌드(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43.29% AI Assistant 5.32% 기타 2.67%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이루온	스마트 카드 발급/발송시스템, 백업아카이브 시스템 등 63.2% 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36.8%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코난테크놀로지	Text AI 91.1% Vision AI 8.90%	O	해당	미해당	미해당	자체 LLM 및 검색/분석 엔진 구축 도구를 제공(Konan LLM)
핑거	금융 플랫폼 구축 76.21% 핀테크 서비스 수수료 3.34% 솔루션 판매 0.80% 기타(컨설팅 외) 8.54%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와이즈넷	인공지능(AI) 검색 33.97%, 제품유지서비스 20.21%, 인공지능(AI) 챗봇 16.82%, 에이전트 14.79%, 광고서비스 10.14%, 빅데이터 2.01%, 챗봇서비스 1.70%	O	해당	미해당	미해당	기업용 AI 에이전트 구축 플랫폼을 제공하여 범용적 AI 서비스 환경 지원(WISE iRAG / WISE Assist)
유비온	에듀테크 70.15% 교육서비스 29.85%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인지소프트	금융 SW솔루션, IT서비스 10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케이쓰리아이	XR사업 52.5% 디지털트윈 및 기타 47.5%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미디어젠	차량 음성 시스템 개발 36.1%, 차량용 음성 솔루션 판매 10.0%, AI 솔루션 판매 및 개발 4.0%, 기타 49.8%	O	미해당	미해당	해당	K-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NC AI 컨소시엄) 참여
비트컴퓨터	의료정보시스템 81.61% IT 교육사업 6.53% 임대사업 등 7.26% 디지털헬스케어 4.6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사이냅소프트	디지털 문서 솔루션 82.9% 디지털 문서 AI 17.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이지케어텍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61.6%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판매 32.3% 클라우드 6.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솔트룩스	지능형 검색,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통합분석 플랫폼 49.92%, Big Data Suite 22.82%, AI Suite 11.31%, 기타 15.96%	O	해당	미해당	미해당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및 통합 AI 개발 환경 제공(LUXIA)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앱 10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인스웨이브	금융 단말 솔루션 59.39% UI/UX 개발 플랫폼 35.20% 서버 개발 플랫폼 3.70% 기타 1.7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네이بل	기타 66.6% 유무선 융합 통신 18.7% AI-IP 통신 보안 14.7%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슈어소프트테크	SW시험검증 솔루션 67.27%, 빅데이터/AI 32.66%, 기타 0.07%	O	미해당	해당	미해당	AI 기반 자동화 테스트/검증 솔루션 제공
한솔인티큐브	제품(컨택센터/메시징 등) 10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이지스	3차원 GIS 및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용역 80.1% 호텔 및 임대수입 19.9%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현대이지웰	복지사업 96.1% 기타 3.9%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오브젠	프로페셔널서비스 55.33% 제품 라이선스비 28.51% 제품 운영비 7.79% 제품 기술비 8.37%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위세아이텍	빅데이터 (분석과 품질) 89.47% AI 8.37% 기타 2.1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엔에이치엔엑스	음원유통 54.86% 디지털 음원서비스/SNS 운영 45.14%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제품(영상기록장치, HUD, 내비게이션 외) 81.40% 상품 17.95% 기타 0.64%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링크제니시스	용역(개발 SI/CI) 49.22% 제품(Xcom/XGem) 36.94% 기타(계측기 렌탈) 10.85% 기타 2.5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플래티어	이커머스 구축 운영 컨설팅 63.9% 라이선스 개발용역 5.3% AI CX 제품 8.6% 디지털 전환 구축 운영 컨설팅 12.9% 라이선스 9.4%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이노루스	SW프로페셔널서비스 매출 49.0% SW라이선스 매출 31.5% SW기 술료 매출 19.5%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지니언스	네트워크보안(제품) 80.69% 네트워크보안(용역) 19.3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폴라리스오피스	자동차 공조부품 사업 28.5% 합성사 및 화학사업 32.0% API 사업 1 7.3% F&C 및 A융합 등 사업 14.1%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 8.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팅크웨어	환경생활가전 66.5% 블랙박스 29.9% 모바일서비스 3.1% 내비게 이션 0.5%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네오위즈홀딩스	게임산업 87.4% 광고, 투자 및 용역 11.5% 임대사업 1.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토탈소프트뱅크	Marine Terminal 용역 73.9% Shipping 용역 22.5% E-learning 2.4% Port Community 1.3% 기타 0.8%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케이지이니시스	전자상거래 및 유통 66.9% 요식업 25.4% 미디어 및 방송 4.8% 교 육사업 2.2% 금융업 0.8% 부동산임대업 1.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아이퀘스트	디포커스(IT컨설팅) 58% 아이퀘스트 4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비아이매트릭스	제품(AI, BI, SCM 솔루션) 40.1%, 서비스 46.6%, 유지보수 13. 3%	O	해당	미해당	미해당	로우코드 AI 개발 플랫폼 AUD Platf orm 제공
엠아이큐브솔루션	MES(스마트팩토리 솔루션) 42.3%, Smart Equipment 17.6% 기타(Smart Digital Twin 등) 21.8%, EES 14.0%, AI 3.1%	O	미해당	해당	미해당	제조 AI 분석 플랫폼 Smart Factory Suite 기반 공정 최적화 솔루션 제 공
답노이드	산업AI(보안AI, 머신비전AI) 94.1% 의료AI 5.9%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뉴엔씨	Quetta_Enterprise 36.17% Quetta_Data 35.71% Quetta_Service 12. 84% Insight Report 10.33% 기타 4.95%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LSE티라유텍	MES 및 자동화 솔루션 등 63.6%, CAD SW총판 등 27.0%, 기 타 IT 서비스 7.5%, 기타 1.8%	O	미해당	해당	미해당	생산 계획 및 운영 인프라 자동화 솔루션 제공으로 제조 현장 효율화 수행
포시에스	전자문서부문 51.09%, 리포트부문 29.86%, eformsign부문 12.44% 기타부문 6.6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유디웍스	설비공정 모니터링 솔루션 30.4%, 자동화설비 고장 검증 및 분 석 솔루션 29.5%, 공정데이터 품질 예측 솔루션 17.1%, 기타 5 .9%, 용역 17.0%	O	미해당	해당	미해당	공장 OT 데이터 기반의 예지보전 및 산업용 AIOps 사업 영위
FSN	브랜드 76.89% 마케팅 14.76% 플랫폼 12.74% 기타 0.3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스피어	우주항공사업 특수합금 등 공급 98.84% 디지털헬스케어 기술플랫 폼 및 건강기능식품 등 1.1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코어라인소프트	라이선스 88.61% 용역 10.91% 기타 0.48%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심플랫폼	산업용 AIoT 플랫폼 100%	O	해당	해당	미해당	산업 현장 IoT 데이터 분석 및 설비 최적화 플랫폼 환경 제공
핸디소프트	소프트웨어 사업 87.4% Cloud HANDY One 등 12.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알서포트	원격지원 등 93.74% 기타 6.2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트윈	AI 14% 에너지 사업 54% Rule 3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라운피플	클라우드 등 제품 93.68% AI 머신비전 솔루션 5.32% AI카메라모듈 검사 솔루션 1.0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원티드랩	채용AI 73.04% AX사업 21.27% 기타 5.69%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비트맥스	IT서비스(디지털 트윈 등) 91.4% 게임콘텐츠 7.2% AR개발플랫폼 0.7% 디지털트윈 플랫폼 0.5% 산업용 AR솔루션 0.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뱅크웨어글로벌	SWSI 49.24% AMS 27.42% SaaS 10.33% MA 8.94% License 4.0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이노덱	영상인식 68.04% 데이터플랫폼 11.71% ITS 5.1% 기타 15.15%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시선AI	AI얼굴인증 솔루션 55% AI얼굴인식 시스템 21% AI객체인식 솔루션 7% AI 로봇 솔루션 9%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씨이랩	AI Infra 57.20%, Digital twin 30.75%, Vision AI 12.05%	O	해당	미해당	미해당	GPU 인프라 최적화 및 MLOps 플랫폼 Uyuni 제공
신테카바이오	AI 신약개발 플랫폼 89% 데이터센터 서비스 5% 소프트웨어공급개발 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아크릴	AI 구축 및 운영 솔루션 46.10% 정보보호금수익 27.83% 용역 19.53% 의료솔루션 6.54%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핀텔	교통솔루션 67% 보안솔루션 31% 용역 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뉴로핏	Neurophet AQUA 18.3% Neurophet AQUA AD 16.9% Neurophet SCALE PET 25.8% Imaging CRO 서비스 34.6% 기타 4.4%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나무기술	상품(서버, 스토리지 장비류) 33.6%, 제품매출 1.4%, 용역매출 28.3%, 기타매출 34.0%	O	해당	미해당	미해당	클라우드 네이티브 PaaS 플랫폼 콕테일 클라우드(KoCocktail Cloud) 제공
알체라	안면인식 52.2% Data 27.1% 기타 19.3% 이상상황 감지 1.4%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버넥트	상품 31.64% 라이선스(산업용 XR 솔루션) 18.81% 솔루션 46.62% 기타 2.9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오픈놀	플랫폼매출 13.39% 교육컨설팅 매출 14.58% 기타매출 2.5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9.70% 디지털사이니지 및 산업용 디스플레이 생산 59.8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E8	온톨로지 기반 AI 디지털 트윈 플랫폼 37.0% 시뮬레이션/해석/플랫폼개발/구축 용역 43.0% 서비스 20.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크라우드웍스	AI사업 17.8%, Data 사업 73.7%, Academy 사업 3.5%, 기타 5.0%	O	미해당	미해당	해당	K-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모티프 컨소시엄) 참여
클로봇	서비스(제조, 안내, 순찰, 이송, 물류, 방역/청소 등) 47.13% 상품 매출 50.72% 솔루션 0.97% 기타 1.17%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디어유	DearU bubble 98.69% 기타 1.31%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오픈엠티테크놀로지	라이선스 67.91% 유지보수 25.51% 기타 6.18% 로열티 0.4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루닛	Cancer Screening(소프트웨어) 86.18% Cancer Screening(기타) 6.70% Oncology(용역) 6.73% Oncology(기타) 0.39%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비투엔	데이터컨설팅 28.10% 빅데이터 컨설팅 16.62% IT서비스 42.12% 상품 10.51% 제품 1.69%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모코엠시스	연계솔루션 77.33% APM솔루션 12.95% 보안솔루션 9.7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아우토크립트	CryptoDev (IVS) 64.18% CryptoComm (V2X) 35.82%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웨이버스	공간정보SI 23.0% 공간정보 SM 26.8% 공간정보 플랫폼 17.7% GIS 15.8% 인프라 16.4%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SKAI	시스템통합구축 서비스, IT 장비 납품 등 54.30% 솔루션(그래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 등) 45.70%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마음AI	AI SYSTEM 구축 97.01% AI API 1.96% 기타 1.03%	O	해당	미해당	미해당	AI API 플랫폼 MAAL(마음AI 플랫폼) 기반 음성·언어·비전 AI 제공
제이엘케이	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 84% 기타 1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모아데이터	AI이상탐지 80.25% 디지털헬스케어 13.30% 디지털 펫 헬스케어 6.45%	O	미해당	해당	미해당	ICT 인프라 AIOps 플랫폼 페타온(Fetaon) 제공
지란지교시큐리티	SpamSniper(APT) 31.33% MobileKeeper 17.40% MailScreen 16.65% , OfficeHard 9.60% Docuone 9.61% JVAULT 3.62% 기타 4.56%	X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뷰노	진단솔루션 4.9% 예측 예측 솔루션 72.1% 서버 등 4.9% 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 18.1%	X	미해당	미해당	해당	K-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업스테이지 컨소시엄) 참여, 의료 분야 버티컬 AI(세부검토기준 4)로 제외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다) 3차 - 재무 유사성

동사의 최근 3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은 2023년 5,206백만원, 2024년 8,293백만원, 2025년 11,459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각 년도 영업이익(손실)은 2023년 (-)11,158백만원, 2024년 (-)10,897백만원, 2025년 (-)8,041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동사 가치평가를 위하여 흑자 시현이 예상되는 2028년의 당기순이익 현가를 기준으로 유사기업의 PER을 적용하였으므로, 재무적 유사성을 갖춘 비교기업을 선별하였습니다. 2차 비교대상 회사에 속한 20개사 중, ① 분석기준일 현재 DART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최근 4개분기(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5년 3분기, 2025년 4분기) 실적이 공시되었을 것, ② 결산월이 12월말로 동일할 것, ③ 2024년 온기 및 2025년 온기 영업이익, 순이익 흑자 시현한 기업을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3차 유사기업으로 총 6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각 기업별 선정여부 및 근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3차 - 재무 유사성]

선정기준	세부 검토기준
재무 유사성	① 분석기준일 현재 DART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최근 4개분기(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5년 3분기, 2025년 4분기) 실적이 공시되었을 것 ② 결산월이 12월말로 동일할 것 ③ 2024년 온기 및 2025년 온기 영업이익, 순이익 흑자 시현했을 것

(단위: 백만원)

연번	기업명	결산월	2025년 영업이익	2025년 당기순이익	2024년 영업이익	2024년 당기순이익	조건①	조건②	조건③	선정 여부
1	노타	12월	(15,279)	(16,630)	(12,019)	(24,852)	○	○	X	X
2	엑센	12월	3,652	6,606	8,834	9,062	○	○	○	○
3	이스트소프트	12월	(18,954)	(17,728)	(13,456)	(11,651)	○	○	X	X
4	한글과컴퓨터	12월	36,397	34,377	40,423	13,879	○	○	○	○
5	엠로	12월	910	2,929	8,606	18,609	○	○	○	○
6	코난테크놀로지	12월	(9,865)	(9,685)	(14,106)	(13,604)	○	○	X	X
7	와이즈넷	12월	114	1,753	1,703	3,051	○	○	○	○
8	미디어젠	12월	(2,232)	(2,715)	(4,674)	(4,177)	○	○	X	X
9	솔트룩스	12월	(8,042)	(10,850)	(6,632)	(4,762)	○	○	X	X
10	슈어소프트테크	12월	12,600	8,583	7,891	10,806	○	○	○	○
11	비아이매트릭스	12월	866	2,394	2,027	3,683	○	○	○	○
12	엠아이큐브솔루션	12월	886	1,631	(1,070)	(143)	○	○	X	X
13	LS티라유텍	12월	(4,293)	(8,319)	(7,912)	(2,169)	○	○	X	X
14	유디앤틱	12월	(3,647)	(3,502)	(2,010)	(5,202)	○	○	X	X
15	심플렛폼	12월	(2,665)	(2,530)	(143)	(8,022)	○	○	X	X
16	씨이랩	12월	(3,225)	(3,119)	(5,285)	(5,187)	○	○	X	X
17	나우기술	12월	2,251	(2,810)	(2,227)	(5,311)	○	○	X	X
18	클라우드웍스	12월	(13,366)	(21,198)	(11,726)	(8,822)	○	○	X	X
19	마음씨	12월	(6,376)	(7,636)	(7,118)	(8,676)	○	○	X	X
20	모아데이터	12월	(5,933)	(19,743)	(1,330)	(3,382)	○	○	X	X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라) 4차 - 일반 유사성 (최종 유사기업 선정)

3차 - 재무 유사성 단계에서 선정된 6개 회사 중, 일반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유사기업 4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사기업 선정 기준]

아래 일반 유사성을 충족하는 상장사를 선정
①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기업
②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 관리종목, 대규모 합병 등이 없는 기업
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일 것
④ Multiple Outlier(최대, 최소) 제외

[4차 유사기업 선정]

회사명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기업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정지, 관리종목, 대규모 합병 등이 없는 기업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일 것	Multiple Outlier (최대, 최소) 제외	선정여부
엑셈	○ (상장일: 2014-11-07)	○	○ (적정)	○ (20.3배)	○
한글과컴퓨터	○ (상장일: 1996-09-24)	○	○ (적정)	X (13.7배)	X
엠로	○ (상장일: 2021-08-13)	○	○ (적정)	X (111.0배)	X
와이즈넷	○ (상장일: 2025-01-24)	○	○ (적정)	○ (74.7배)	○
슈어소프트테크	○ (상장일: 2023-04-28)	○	○ (적정)	○ (42.9배)	○
비아이매트릭스	○ (상장일: 2023-11-09)	○	○ (적정)	○ (24.0배)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 PER 산정시 유사회사의 기준주가는 평가기준일(2026년 4월 3일)기준 최근 1개월 증가의 산술평균, 1주일 증가의 산술평균, 평가기준일 증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PER 산출시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종 유사기업 선정결과]

최종 유사기업
엑셈,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3) 유사기업 선정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4개사를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 간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지배주주)당기준이익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종 유사기업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및 2024년 각사 사업보고서 참고)

(가) 엑셈

엑셈은 IT 시스템 성능 관리 솔루션 개발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컨설팅, 솔루션 공급,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까지 IT 시스템 성능 관리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기술과 서비스를 자체 역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설립 이후 DBMS 성능 관리,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APM), 통합 IT 성능 모니터링, AIOps, 빅데이터 및 AI 플랫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엑셈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아래 표와 같으며, IT 성능 관리 부문과 AI·빅데이터 플랫폼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부문		제품명	제품설명
IT 성능 관리	DB 성능관리	Max Gauge	DB 성능관리 솔루션
	APM (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InterMax	전구간(End-to-End)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솔루션
	통합 IT 성능 모니터링(Full-stack Observability)	exemONE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올인원(AI-in-one)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지능형 IT 성능 모니터링(AIOps)	XAIOps	AI 기반 IT 운영 지능화 솔루션
AI·빅데이터 플랫폼(3AIP)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	EBIGs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관리를 위한하둡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AI 모델 개발 및 시각화 플랫폼(MLOps)	Woodpecker	AI 모델 개발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MLOps 기반셀프서비스 AI 분석 환경 플랫폼
	생성형 LLM 및 AI 에이전트 플랫폼(LLMOps)	eXemble	생성형 AI 서비스(맞춤형 LLM 모델 및 AI 에이전트)의개발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에이전트 AI 플랫폼

엑셈은 MaxGauge, InterMax, exemONE, XAIOps 등 IT 성능 관리 솔루션을 통해 IT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전반의 성능 모니터링과 운영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EBIGs, Woodpecker, eXemble 등 AI·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수집·저장·처리·분석부터 생성형 AI 서비스 구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솔루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엑셈은 IT 시스템 성능 관리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 수집·처리 및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및 AI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하여, AIOps 및 MLOps 기반의 AI 모델 개발·운영과 생성형 AI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운영 최적화 및 장애 예측을 지원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AI

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이라는 점에서 마키나락스의 사업과 유사합니다.

(나) 와이즈넷

와이즈넷은 2000년 5월 설립된 국내 최고 수준의 자연어처리기술을 보유한 AI 에이전트 전문 기업입니다. 회사 설립 이후 기업용 검색엔진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사업을 거쳐 인공지능 챗봇(Chatbot) 사업을 통해 국내 6,000여개 이상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며 국내 시장 1위를 선점해왔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RAG 솔루션 및 도메인별 내재화된 특화 LLM을 개발하며 폭발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생성형AI 및 AI 에이전트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와이즈넷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빠른 매출 확보 전략으로 AI 에이전트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플랫폼이란 산업 특화형 LLM과 RAG 등 AI 기술이 집약되어 고객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선도적인 RAG 솔루션 개발 및 출시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위한 교두보로 이를 응용해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넷은 B2B 및 B2G 시장을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RAG, 검색 소프트웨어, 챗봇 등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색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 기반 지식 솔루션은 와이즈넷의 주요사업으로, 다수의 장기 고객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사 솔루션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사는 전체의 81%에 달합니다.

와이즈넷은 전체 매출의 약 60%를 공공부문에서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와이즈넷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공 시장에서 생성형 AI 및 AI 에이전트 관련 사업의 발주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와이즈넷은 해당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시장 기회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넷의 주요 제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사업부문	제품명	제품설명
-----	------	-----	------

AI 에이전트(AI Agent)		WISE Agent Sphere(AI 에이전트 플랫폼)	고객이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제작하고, 다른 AI 에이전트를 조합해 고객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플랫폼입니다. 산업 특화형 LLM과 RAG기술 등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운영환경에 맞춘 AI 에이전트 구축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WISE iRAG(RAG 솔루션)	WISE iRAG는 기업 내부 데이터를 검색해 LLM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자사 기술력으로 개발한 검색 엔진과 형태소 분석기를 바탕으로 검색 후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포맷과 복잡한 구조의 어떤 문서도 처리할 수 있는 Document AI 기술과 키워드 검색과 벡터검색을 각각 수행해 최적의 답변을 생성하는 하이브리드 검색 기술, 에이전트 구축을 위한 RAGOps를 지원하여 최적의 Search 에이전트를 지원하는 RAG 솔루션입니다.
		WISE LLOA(LLM 솔루션)	WISE LLOA는 AI 에이전트 구축에 최적화된 도메인 맞춤형 모델을 제공합니다. 문서작성, QA시스템 자동화까지 다양한 업무 시나리오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Search Formula-1 V7 Vector Edition(인공지능 기반 벡터 검색 솔루션)	자체 개발한 자연어 처리, 질의어 분석 등을 적용한 벡터 검색 솔루션으로, 기존의 키워드 검색방식에서 문장 질의 의도를 이해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할 수 있는 벡터 검색 솔루션입니다. 검색 의도에 따라서 키워드검색과 벡터 검색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챗봇	WISE iChat(인공지능 기반 하이브리드 챗봇 솔루션)	국내 최대 챗봇 구축 사례를 보유한 당사의 자연어처리기술, 머신러닝, 텍스트마이닝 등 복합적으로 융합된 챗봇 솔루션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정확한 사용자 의도 분석과 iChat 고유의 다섯 가지 대화 방식 처리, 멀티턴 대화, 질의응답 지식 특화 도구, 웹훅 방식 기능 확장 등 하이브리드 방식의 챗봇 대화 처리 기술이 특징인 솔루션입니다.
		Search Formula-1 V7(인공지능 기반 검색 솔루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자연어 처리, 질의어 분석, 형태소 분석 등의 기술을 적용한 초대형 빅데이터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검색 솔루션입니다. 고객의 환경과 요구사항에 따라 검색 결과 세부 조정이 가능해 고객 맞춤형 검색과 답변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검색(Search)	WISE iDesk(인공지능 기반지능형 콘텐츠 큐레이팅 솔루션)	문서 작성자 의도를 자연어처리 기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파악해 문서 작성시 연관 콘텐츠 및 문서 추천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콘텐츠 큐레이팅 솔루션 입니다. 신규 데이터에 대해서 별도의 지식 구축 필요 없이 기계 학습이 가능한 특징점을 가진 솔루션 입니다.
		WISE TEA(텍스트 마이닝 솔루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하여 자연어 처리 기술과 문서 처리기술을 적용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 및 가공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한 솔루션입니다. 주제를 마이닝하고 사용자와 정보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검색엔진과 연동해 의사결정을 위한 검색 환경을 제공합니다.
빅데이터		WISE BIC Analyzer(빅데이터 의미분석 솔루션)	온라인 문서, SNS, 일반 문서 등 다양한 비·정형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감성분석, 트렌드분석, 이슈 키워드 분석 등의 의미분석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입니다.
		WISE TextMiner(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솔루션)	기계학습 기반 언어분석 기술을 통해 텍스트 안에 숨겨진 의미있는 가치를 발굴해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가치를 추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솔루션입니다. 자체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해 탁월한 의미 분석을 제공합니다.
		WISE Classifier(데이터 자동분류 솔루션)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중요 키워드를 구분 및 분석해주는 과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로 문서를 자동 분류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서비스	챗봇서비스(Cloud)	WISE Answermy(챗봇 서비스)	인공지능 챗봇기술을 기반으로 엔트리/시나리오 기반 챗봇과 RAG/LLM이 적용된 챗봇을 모두 지원하는 SaaS형 챗봇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광고서비스(AD)	AD plus(네트워크 배너 광고 서비스)	유저의 관심사 및 행태 분석을 통해 트렌디하고 타겟팅된 상품과 높은 정확도를 갖춘 배너 광고 상품입니다. 당사는 검색광고마케터 1급 자격을 보유한 기업의 공식 대행사로써 온라인 광고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넷은 단순 챗봇 서비스가 아닌, 기업이 자체 AI 에이전트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도구(플랫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마키나락스의 사업과 유사합니다.

(다) 슈어소프트테크

슈어소프트테크는 고신뢰 고위험 소프트웨어, 즉 Mission Critical Software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개발 및 공급과 3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자동화 검증 플랫폼 회사입니다.

고신뢰 고위험 소프트웨어는 기능안전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개발 과정(V-Process)에 따라 정의된 검증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슈어소프트테크는 필수 검증 활동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과 20여년간 축적된 3자 검증 서비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 기술로 빠른 고객 서비스 대응의 차별성을 가지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시험검증 자동화 솔루션을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license and maintenance), 기간단위 구독 방식(subscription)으로 자동차, 국방, 원자력 및 에너지, 철도/항공/조선/로봇 분야의 국내 선두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고위험 고신뢰 소프트웨어 특성상 개발자와 별도의 3자 검증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사 솔루션을 활용한 검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는 슈어소프트테크 사업 성장의 핵심 영역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중심축이 된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체제 전환은 슈어소프트테크의 소프트웨어 시험검증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자동차 제어기 시험검증 사업을 수행하며 자동차 제어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었으며,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자동차 소프트웨어

에 특화된 시험검증 솔루션을 개발하는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차량의 제어기 일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며 자동차 소프트웨어 종합 엔지니어링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의 주요 제품은 고신뢰 고위험(Mission Critical) 산업 내 사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험검증(V&V)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의 주요 제품 구분과 특징 및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	특징 및 용도
코드검증솔루션	CODESCROLL - Controller Tester - 화이트박스 시험검증 원천 기술 적용- 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의 구조 및 특성분석 및 테스트를 위한 코드 및 데이터 자동 생성- 코드 커버리지 측정, 테스트 추적성 지원, 실제 임베디드 타겟 환경 시험 지원
	CODESCROLL - STATIC - 소스코드의 국제 표준 규격 및 기능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칙 준수 여부 확인- 소프트웨어의 기능안전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표준 규칙 내장- 코딩 규칙 기반 소스코드 정적 분석 자동 수행
	QUALITYSCROLL - COVER - 테스트 정도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시험검증 자동화 솔루션- 테스트 수행 커버리지 제공 및 프로그램 형상 관리 기능- C/C++, JAVA, C#, JSP, JavaScript 등 다양한 개발 언어 지원 및 웹 테스트 지원
	QUALITYSCROLL - VPES - 국방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따라 전 단계에 안전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보고서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험검증 자동화- 개발 및 시험 현황 체크 / 문서 검증과 산출물 생성
	QUALITYSCROLL - V-SPIICE - 자동차 분야 국제 산업 표준인 A-SPIICE의 표준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제공- 요구사항부터 테스트케이스까지 단계별 산출물을 관리하는 자동화 솔루션
	코드 검증서비스 - 소스 코드 대상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확보를 위한 시험검증 서비스로 구현된 소스 코드가 운영되기 전에 모두 테스트 되었는지 확인- 주로 자동차, 국방, 항공, 철도 분야 기능안전 표준에서는 정적 시험검증 3종, 동적 시험검증 2가지에 대한 수행을 명시하며 코드 검증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항목
시스템검증솔루션	Fault Injection Tester(FIT) - 일반적인 기능시험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안전 기능 검증 자동화 솔루션- 위험 시나리오(hazard)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기능 구축- FIT를 활용한 결함 주입으로 강제 시나리오 재현 및 시험
	PROV -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상태에서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등 자원 사용량 측정 및 반응속도, 태스크 스케줄링, 인터럽트 대응 등 성능 요소 실시간 측정 지원- 제어기와 실시간 통신 측정으로 측정 데이터를 수집 및 검증하는 자동화 솔루션
	AESOP - 차량 제어기의 롬데이터 정적 검사 자동화 솔루션- 롬 데이터 변경점 비교 및 특이값 검출을 통한 데이터 정합성 검증 툴
	AUTORACT - 제어기 통신 사양 평가를 위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입력으로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및 수행하는 자동화 검증 솔루션
	시스템 검증서비스 (HILS) - 시스템 시험 검증의 시간적, 비용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동차 기능 안전 표준 ISO26262에서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 과정에서 활용- 검증 대상 제어기와 Plant, HIL Simulator로 구성되며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및 수행
	시스템 검증서비스 (EILS) - 실제 차량에 적용되는 ECU를 모사하여 시험 검증하는 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제어 알고리즘 포팅 및 수행을 통해 실제 차량에서 제어로직의 성능, ECU의 신호 특성 및 네트워크 이상 등 문제점 파악- 실제 차량 테스트 환경을 실내에서 가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반복 테스트 가능
	원자력시스템검 - 원자력 국제표준과 NRC 가이드 표준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전 주기 동안 발생하는

	증	시험검증 및 문서 산출물 검증- 원자력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계적 시험을 통해 이상 유무 확인
모델검증솔루션	Model Verifier	- Simulink/Stateflow 및 Targetlink로 개발된 모델에 대해 동적 검증 기능을 제공-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인 모델링 단계에서 기능 안전 국제 표준(ISO26262) 및 고객사 별 규칙 준수 여부와 품질 지표를 검증- 테스트 케이스 무결성 검사, 일괄 변경 기능 등의 회귀 시험을 위한 편의 기능 제공
	Model Inspector	- MathWorks 사의 Simulink/Stateflow 및 Targetlink로 개발된 모델에 대해 정적 분석 및 검증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 업계 최다 표준 모델링 규칙을 지원 및 파라미터 편집 지원- ISO 26262, DO331, IEC61508, IEC62304 및 EN 50128 표준에서 권장하는 모델 품질 지표를 포함한 21 개의 모델 품질 지표 지원
	Model Verification 서비스	- 자동차 분야 ASPICE 및 ISO26262 표준 기반 검증 계획 수립 및 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기반 검증 수행 및 결과값 제공- 설계시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과 Model간의 정합성 확인, 소스코드 구조적 완전성 확인, 자동 생성된 소스코드와의 일치성 확인 등
미래기술검증솔루션	VSTA	- 커넥티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 차량 외부 커넥티비티 테스트 및 내부 네트워크 연동 사양 테스트 자동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차량 AVN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스크립트 자동생성 및 인공지능을 사용한 몽키테스트(무작위 테스트) 기능 제공
	DCAT	- 실차를 이용한 주행 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시나리오 검증을 수행하는 자동화 솔루션- 대량의 차량 주행 데이터로부터 자율 주행 기능 결함 시험검증
	SIMVA	- 제어기 가상화 기반 분석 및 시험 검증을 위한 제품으로 개발 중인 제품
	AUTOSIM	- 가상 주행 환경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하기 위한 제품으로 개발 중인 제품
	ARCHON Z	- 커넥티드 차량의 보안성 시험검증을 위한 솔루션으로 개발 중인 제품
빅데이터/AI 솔루션	IRIS	- 대용량 고성능 빅데이터 관리- 차량, 통신,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기계 학습, 딥 러닝 등 AI 구축 및 서비스 창출
	BEYMONS Cloud	- 다양한 계측장비 및 센터 데이터 취합 후 Cloud에 저장 관리- 실시간 Visualization을 위한 Dashboard 제공- 불량 검출, 이상 탐지 등 데이터 기반 분석 서비스 제공
	VERIFAI-M	- 적대적 데이터를 생성하여 모델 강건성 검증- 뉴런 Coverage 측정으로 모델 불확실성 평가- 모델의 동작에 대한 해석 제공

슈어소프트테크는 원자력, 국방, 자동차 등 Mission-Critical 산업 IT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AI로 분석하고 검증 자동화하는 기업으로 산업 특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의 사업 방향과 유사합니다.

(라) 비아이매트릭스

비아이매트릭스는 기업용 Intelligence Solution 전문 기업으로 기업의 AI분야를 비롯하여 BI 및 CI 분야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회사 설립부터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BI분야 전문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대 초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

가에 따라 Big Data 처리 및 고급 인공지능 모델링을 통한 첨단 분석 예측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전문가용 데이터 마이닝 Big Data엔진과 고급 AI 분석 모델링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현황]

품 목	생산(판매) 개 시 일	주요상표	제 품 설 명
AI 솔루션	2023년09월	G-MATRIX	생성형 AI와 Low Code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추출을 위한 쿼리나 업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코딩을 몰라도 기업의 데이터를 쉽게 파악하고 분석가능자연어로 질문하면 DB 데이터 조회, 데이터 분석, 시각화까지 모두 가능
BI 솔루션	2005년 04월	AUD플랫폼	업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5가지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Low-code 통합 UI 개발 플랫폼 i-MATRIX, i-AUD, SW로봇, G-MATRIX 모듈 포함
	2016년09월	i-STREAM	BI 솔루션 및 빅데이터 엔진과 연계하여 데이터 전처리에서 마이닝, 예측, 분석 및 시각화까지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AI 솔루션 R분석, Machine Learning 및 딥러닝이 가능하면서 직관적 UI 기반으로 사용이 편리한 사용자 중심 분석 AI 도구
SCM 솔루션	2010년05월	M4PLAN	BI솔루션과 AI 엔진을 연계하여 수요 공급계획, 최적화, 시뮬레이션 및 S&OP까지 모두 가능한 최적의 통합 SCM 패키지 코딩이 필요 없는 I/O 데이터 처리, 다양한 예측모델링과 Deep learning 기반 최적화 엔진, AI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갖춘 강력한 기능의 AI기반 SCM 제품

비아이매트릭스는 자체 개발한 BI 솔루션을 기반으로 기업 고객에게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AI와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비아이매트릭스의 BI솔루션은 데이터 분석 및 리코딩 과정에서 코딩을 최소화하는 로우코드에 강점이 있어, SQL이나 복잡한 함수 없이도 기업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대시보드를 생성하게 해줍니다. 마키나락스의 MLOps 플랫폼 Runway 역시 복잡한 코딩을 최소화하고 산업 현장에 특화된 AI를 개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4) 유사기업 기준 주가

기준 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응을 배제하기 위하여 2026년 4월 3일을 분석기준일로 분석기준일(2026년 4월 3일) 증가, 최근 1주일(2026년 3월 30일 ~ 2026년 4월 3일) 평균 증가, 최근 1개월(2026년 3월 4일 ~ 2026년 4월 3일) 평균 증가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엑셈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2026-04-03	1,762	9,900	6,840	7,780
2026-04-02	1,775	9,840	6,700	7,900
2026-04-01	1,814	10,050	7,140	8,250
2026-03-31	1,770	9,810	6,520	7,890
2026-03-30	1,818	10,080	6,820	8,090
2026-03-27	1,842	10,090	7,130	8,200
2026-03-26	1,869	10,200	6,900	8,200
2026-03-25	1,881	9,980	7,350	8,330
2026-03-24	1,900	10,050	7,250	8,290
2026-03-23	1,888	9,750	6,980	8,240
2026-03-20	1,938	10,570	7,580	8,550
2026-03-19	1,939	10,680	7,260	8,490
2026-03-18	1,902	11,020	7,560	8,440
2026-03-17	1,913	10,910	7,320	8,540
2026-03-16	1,920	11,060	7,230	8,510
2026-03-13	2,020	12,260	7,260	8,470
2026-03-12	1,832	9,640	7,250	8,390
2026-03-11	1,801	9,680	7,080	8,280
2026-03-10	1,791	9,570	7,260	8,020
2026-03-09	1,758	9,340	6,920	8,010
2026-03-06	1,825	9,990	7,360	8,370
2026-03-05	1,836	10,010	7,100	8,220
2026-03-04	1,601	9,130	6,300	7,700
최근 1개월 평균(A)	1,843	10,157	7,092	8,224
최근 1주일 평균(B)	1,788	9,936	6,804	7,982
직전일 증가(C)	1,762	9,900	6,840	7,780
기준 주가 (Min[(A), (B), (C)])	1,762	9,900	6,804	7,780

(출처: 한국거래소, Quantivise)

(5)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경쟁업체(해외) 비교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팔란티어			C3 ai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설립일	2003.05.06			2009.01.08		
매출액 (매출원가율)	1,906 (21.5%)	2,225 (19.4%)	2,866 (19.7%)	267 (32.2%)	311 (42.4%)	389 (39.3%)
영업이익 (이익률)	(161) (-8.4%)	120 (5.4%)	310 (10.8%)	(290) (-108.6%)	(318) (-102.3%)	(324) (-83.3%)
당기순이익 (이익률)	(374) (-19.6%)	210 9.4%	462 16.1%	(269) (-100.7%)	(280) (-90.0%)	(289) (-74.3%)
총자산	3,461	4,522	6,341	1,103	1,038	1,026
총부채	819	961	1,246	173	165	188
자기자본	2,642	3,561	5,095	930	873	838
상장여부 (상장일)	상장 (2020.09.30)			상장 (2020.12.09)		
주요제품 (매출비중)	Palantir Gotham, Palantir Foundry, Palantir Apollo			C3 AI Platform, C3 AI Inventory Optimization 등		
	Government 54.8%, Commercial 45.2%			Subscription 84.3%, Professional services 15.7%		

(출처: 각 사 공시자료)

[주요 경쟁업체(국내) 비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베슬에이아이			래블업			에이프리카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설립일	2020.04.27			2015.04.21			2011.03.08		
매출액 (매출원가율)	1,361 (0.0%)	3,337 (0.0%)	2,395 (0.0%)	2,508 (0.0%)	6,797 (0.0%)	5,190 (0.0%)	5,047 (0.0%)	5,633 (0.0%)	4,725 (0.0%)
영업이익 (이익률)	(459) (-33.7%)	(269) (-8.1%)	(3,772) (-157.5%)	365 (14.6%)	3,170 (46.6%)	24 (0.5%)	-3,404 (-67.4%)	66 (1.2%)	-822 (-17.4%)
당기순이익 (이익률)	54 (4.0%)	115 (3.5%)	(9,504) (-396.9%)	850 (33.9%)	3,212 (47.3%)	1,174 (22.6%)	-3,410 (-67.6%)	195 (3.5%)	-855 (-18.1%)
총자산	600	1,230	12,621	10,628	18,114	18,292	2,343	4,261	4,290
총부채	344	859	1,048	245	1,026	6,928	4,831	1,962	2,810

구분	베슬에이아이			래블업			에이프리카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자기자본	256	371	11,573	10,383	17,088	11,364	-2,488	2,299	1,480
상장여부 (상장일)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			-			-		
주요제품 (매출비중)	VESSL AI Platform			Backend.AI			MLOps Platform Cheetah		
	(공식 자료 없음)			(공식 자료 없음)			(공식 자료 없음)		

(출처: 각 사 공시자료)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으로 해외 기업인 팔란티어(Palantir Technologies Inc.), C3 ai(C3.ai, Inc.), 데이터이쿠(Dataiku) 및 국내 기업인 베슬에이아이, 래블업, 에이프리카를 기재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한 비교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해외 및 국내 경쟁기업들을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해외 경쟁기업인 팔란티어, C3 ai, 데이터이쿠(Dataiku)를 비교기업에서 제외한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해외 증권시장과 국내 증권시장 간의 국가적, 시장 참여자적 특성 차이 및 상장 여부입니다. 팔란티어와 C3 ai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어 있어, 동사가 상장하고자 하는 국내 증권 시장과는 국가적, 시장 참여자적 특성이 근본적으로 상이합니다. 또한, 주요 경쟁사인 데이터이쿠(Dataiku)의 경우 현재 비상장 상태이므로 증권시장 내 형성된 객관적인 시가총액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상장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Multiple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이쿠의 경우 해외 비상장회사로서 공시자료가 없어 관련 재무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바 있으며,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확인 결과 관련 재무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핵심 기술 아키텍처 및 타겟하는 산업 계층(Layer)의 구조적 차이입니다. 해외 유사회사의 경우 동사와 같이 기업 대상 AI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동사와 달리 주로 클라우드 기반의 범용 솔루션을 지향하거나 전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상위 레벨(Planning/Decision Layer)의 데이터 통합에 집중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동사의 주력 시장인 제조·국방 분야의 완전 폐쇄망(Air-gapped) 환경을

지원하면서, 실제 생산 라인의 복잡한 OT(운영기술)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동하여 설비를 직접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제어 및 실행 레벨(Control/Execution Layer)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업 규모 및 재무 현황의 현격한 괴리입니다. 팔란티어와 C3 ai는 연간 매출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여 이미 글로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메가캡/미드캡(Mega/Mid-cap) 거대 기술기업입니다. 글로벌 영업망을 갖춘 거대 기업과 코스닥 벤처기업의 재무 지표(수익성, 성장성 등)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며 투자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쟁기업인 베슬에이아이, 래블업, 에이프리카를 비교기업에서 제외한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해당 국내 경쟁기업들이 모두 비상장사이므로 상기 해외 유사기업 중 데이터이쿠와 마찬가지로 증권시장 내 형성된 객관적인 시가총액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인 기업가치(Multiple)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상장 기업들은 상장사와 달리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분기 및 반기마다 공시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공모가 산정에 필요한 최신 재무 데이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장사 수준으로 담보하기 어려워, 정량적인 통계 비교군으로 편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 유사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기 사유들로 인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으로 제출한 6개사를 유사회사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히, 상장사인 Palantir, C3.ai의 구체적인 비교회사 미선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팔란티어(Palantir Technologies)는 전사 데이터의 수집, 통합, 정제, 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여 고객 조직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기업입니다. 동사는 공급망, 재무, 인사 등 다양한 부서의 데이터를 연결해 통합된 뷰를 제공하고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상위 레벨(Planning/Decision Layer)' 중심의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 폐쇄망 환경을 지원하는 동사와 기술적 교집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팔란티어는 고객사 전반의 운영 체계를 디지털 트윈 형태로 구조화하는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는 반면, 동사는 개별 공정이나 설비의 예지보전, 제어 최적화, 스케줄링 자동화 등 실제 제조 현장(Control/Execution Layer)의 구체적인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하는 모듈형 AI 프로젝트 및 플랫폼 사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팔란티어는 거시적인 전사 데이터 통합에 주력하는 메가캡(Mega-cap) 기업으로, 동사와는 사업 구조 및 평가 논리가 상이하여 직접적인 유사기업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C3 ai(C3.ai, Inc.)는 기업들이 AI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설계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며, 산업별 특화 애플리케이션과 파트너 생태계 활용을 통한 턴키 솔루션에 강점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C3 ai는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AI 모델 개발 환경과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적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C3 ai는 주로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기반의 배포를 지향하고 있어, 현장의 복잡한 OT 시스템 연동과 완전 폐쇄망 환경 지원이 필수적인 제조·국방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입니다. 또한, 이미 글로벌 범용 플랫폼 시장에서 상업화 궤도에 올라 안정적인 매출 볼륨을 확보한 기업으로, 폐쇄망 환경 특화 기술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동사와는 성장 방향성이 상이하여 유사기업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마키나락스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장기업 중에서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이들 회사와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PER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업가치를 산술평균하였습니다.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PER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

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률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출 방법

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5년말 기준 직전 12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재화하여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희석화가능주식수(상장일로부터 1년 이내 행사가능 주식매수선택권,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주식수:

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

발행회사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희석가능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③ 한계점

- 향후 수년간의 미래 주당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의 2028년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 리스크를 감안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및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고객사와의 공동연구 진행 여부, 연구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기술의 경쟁 현황, 정부 정책 변화 등 실적 외의 요

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 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 당기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을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비교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유사기업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2025년말 기준 직전 12개월 기준의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수치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2025년말 직전 12개월 기준 비교기업 PER 산출]

구분	엑셈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적용 당기순이익(A) 주1)	6,606백만원	1,753백만원	8,583백만원	2,394백만원
적용주식수(B) 주2)	76,228,877주	13,230,953주	54,069,074주	7,391,940주
주당순이익 (C=A/B)	87원	132원	159원	324원
기준주가 (D)	1,762원	9,900원	6,804원	7,780원

구분	엑셈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PER (E=D/C)	20.3배	74.7배	42.9배	24.0배
평균	40.5배			

주1) 적용 당기순이익은 2025년말 직전 12개월 기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재

주2) 적용 주식수는 평가기준일(2026년 4월 3일) 상장주식 총수와 희석가능주식수를 반영하였습니다. 희석가능주식수로는 엑셈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한 4,766,569주, 와이즈넷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한 134,417주, 슈어소프트테크가 전환사채로 인한 610,575주, 비아이매트릭스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한 185,000주가 존재합니다.

[적용주식수 산출 내역]

(단위: 주)

구분	상장주식수	희석가능주식수	합계
엑셈	71,462,308	4,766,569	76,228,877
와이즈넷	13,096,536	134,417	13,230,953
슈어소프트테크	53,458,499	610,575	54,069,074
비아이매트릭스	7,206,940	185,000	7,391,940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3) 기준주가의 경우 평가기준일(2026년 4월 3일)의 Min[20거래일 평균종가, 5거래일 평균종가, 기준일 종가]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마키나락스의 평가가치]

구 분	산출 내역	비 고
2028년 추정 순이익(주1)	15,871백만원	
연환인율(주2)	15%	
2028년 추정 순이익의 2025년말 현재가치	10,436백만원	
적용 당기순이익	10,436백만원	A
적용주식수	18,255,368주	B
적용 주당순이익	572원	C = A / B
적용 PER	40.5배	D
주당 평가가액	23,143원	E = C * D

주1)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현재까지 축적한 사업적 자산을 바탕으로 동사의 주력 제품인 Runway 중심 사업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수익인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동사와 같이 기술에 기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폐쇄망 등 환경에 특화된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 사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동사의 사업은 AI 모델의 개발, 배포, 운영 등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산업 특화 AI 플랫폼 Runway 제품 사업, 그리고 고객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AI 컨설팅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용 AI 시장 내 선두 사업자로 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품 중심 사업 모델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제품 중심으로 사업 모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축을 고객에게 제품이 인도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Time-To-Value를 단축하는 것으로 보고, 모든 특화 AI 솔루션 개발 및 공급을 Runway를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Runway 사용량을 늘리고, 동시에 Runway 제품 발전에 따라 버티컬 AI 솔루션 납기를 단축함으로써 더 많은 Use Case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Runway 제품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Runway 제품 수주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 라이선스 계약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솔루션 제공을 확대하며, 국방 무기체계 사업 등 대규모 AI 운영체계 공급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고객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 신규사업으로서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Runway와 결합하여 SaaS 기반의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과 주요 제조 분야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Runway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 및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형을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제품 고도화와 고객 기반 확장, 연간 라이선스 매출 비중의 확대와 신규 사업 추진 등 동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성장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사는 2026년 말까지 구축 환경 및 비용 최적화, 데이터 통합 및 엔지니어링 표준화, 자산 중심의 운영 효율화, AI 활용의 보편화라는 관점에서 Runway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Runway 제품을 고객사뿐만 아니라 동사 내부적으로도 활용함으로써 고객사 납기를 단축하고, 이를 통해 Use Case를 더 많이 확보하여 다시 Runway 제품 고도화에 반영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사의 Runway 제품은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간의 로드맵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므로, 제품 고도화의 핵심적인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동사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 고객들도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으나 고객사별로 산업 특화 AI 플랫폼 도입의 의지나 활용 능력,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기에, 동사가 목표로 하는 수준으로 전체적인 고객 기반이 확장되고 연간 라이선스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신규 사업인 SaaS 형태의 솔루션 출시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사업의 경우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가망 영역을 발굴하고, 개발된 서비스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시장이 개화하고 상용화되기까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장기적으로 제품 매출의 비중을 약 80%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사의 향후 실적 추정을 근거로 볼 때 2028년이 되면 제품 매출의 비중이 약 77%로 동사가 목표로 하는 제품 매출의 비중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8년 추정당기순이익에 15.0%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금번 동사의 평가에는 연 할인율 15.0%가 적용되었으며, 할인기간은 3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각각 기술성장기업 평균 할인율(21%)보다는 다소 낮은 할인율이며, 기술성장기업 평균 할인연도(2

.7년)보다 먼 미래의 실적을 할인한 것입니다.

동사의 경우 기술 축적에 따른 기술 축적에 따른 사업 구조 개선과 특화 AI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입지 강화를 통해 이미 유의미한 실적 성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5,206백만원, 2024년 8,294백만원, 2025년 11,459백만원으로 뚜렷한 고성장세를 시현 중이며, 영업손실을 또한 2023년 -214.33%에서 2025년 -71.42%로 빠르게 개선되며 적자폭이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동사의 핵심 AI 플랫폼인 'Runway' 기반의 제품 매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7.7% 성장하여 전체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객 확대에 따라 축적되는 운영 데이터와 피드백은 제품 고도화로 직결되며, 향후 Runway 중심의 제품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 폭발적인 사업 확장성과 수익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또한 동사는 삼성, 현대, LG 등 국내 유수의 제조 기업에서 나아가 2025년부터는 국방 분야로 확장하여 높은 수주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으로 이월된 2025년까지의 수주잔고 약 104억과 2026년 중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신규로 수주한 수주내역을 바탕으로 이미 직전 사업연도(2025년) 매출 규모인 약 110억원의 매출 수준은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적 불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동사의 미래 사업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반적인 기술성장기업 대비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기술성장기업 평균(21%보다 다소 낮은 현재가치 할인율(15.0%)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28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는 지속적인 Runway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 가시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술성장기업 평균(2.7년) 대비 더 먼 미래(3년)의 성장된 추정 실적을 할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및 유사기업의 2026년 4월 3일 기준 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가(년)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20%	3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2029	25%	2.25~4.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테라뷰 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비츠로빅스텍	2025-11-21	2027	20%	2.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2028	15%	2.5~3.5
노타	2025-11-03	2028~2029	15%	3.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3.75
프로티나	2025-07-29	2027~2028	20%	2.75~3.75
뉴로핏	2025-07-25	2027~2028	20%	2.5~3.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이윤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나우로보틱스	2025-05-08	2027	15%	2.75
로킷헬스케어	2025-05-12	2027	20%	3
쎬크	2025-04-28	2026	20%	2
심플랫폼	2025-03-21	2026	15%	2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	-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2026	25%	1.25~2
와이즈넷	2025-01-24	2026	15%	2.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2027	20%	1.25~3.25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2027	20%	3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2028	15%	3~4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토모큐브	2024-11-07	2027	15%	3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셀비온	2024-10-16	2026~2027	25%	2.5~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2027	20%	2.75~3.7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하스	2024-07-03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2027	20%	2.75~3.75
한중엔시에스	2024-06-24	2024~2025	20%	0.75~1.75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2026	20%	2.75
라메디텍	2024-06-17	2026	18%	2.5
아이씨티케이	2024-05-17	2026	19%	2.75
민테크	2024-05-03	2025	35%	2
디앤디파마텍	2024-05-02	2026	2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2027	25%	4
엔젤로보틱스	2024-03-26	2026	15%	3
삼현	2024-03-21	2025	15%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2025	20%	2
코셈	2024-02-23	2025	20%	2.25
케이웨더	2024-02-22	2025	20%	2
이에이트	2024-02-23	2025	20%	2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2024~2025	25%	1.5~2.5
에이텀	2023-12-01	2025~2026	20%	3
그린리소스	2023-11-24	2024~2025	20%	1.5~2.5
큐로셀	2023-11-09	2026	20%	3.5
컨텍	2023-11-09	2025	18%	2.5
쏘닉스	2023-11-07	2024~2025	20%	1.5~2.5
퀄리타스반도체	2023-10-27	2024~2025	20%	2.5~3.5
아이엠티	2023-10-10	2025	25%	2.5
시큐레터	2023-08-24	2025	20%	2.5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2025	25%	2.5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2025	20%	2.75
파두	2023-08-07	2024~2025	20%	1.75~2.75

시지트로닉스	2023-08-03	2025	20%	2.75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2025	25%	2.5
버넥트	2023-07-26	2025	20%	2.5
센서뷰	2023-07-19	2025	25%	2.75
와이랩	2023-07-20	2025	20%	2.75
이노시물레이션	2023-07-06	2025	25%	2.75
오픈놀	2023-06-30	2025	20%	3
프로데옴텍	2023-06-16	2024~2025	15%	3.25~4.25
큐라티스	2023-06-15	2025	45%	3
씨유박스	2023-05-19	2025	20%	3
모니터랩	2023-05-19	2024~2025	25%	1.75~2.75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2025	20%	3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2024~2025	30%	2~3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2024	25%	2
제이오	2023-02-16	2024	30%	2
샌즈랩	2023-02-15	2025	20%	3
오브젠	2023-01-30	2024	25%	2
티이엠씨	2023-01-19	2022	-	-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2023	25%	1
인벤티지랩	2022-11-22	2025	15%	3.5
엔젯	2022-11-18	2023~2024	25%	1.25~2.25
뉴로메카	2022-11-04	2025	15%	3.5
플라즈맵	2022-10-21	2024~2025	25%	2.5~3.5
핀텔	2022-10-20	2024	25%	2.5
샤페론	2022-10-19	2025	30%	3.5
에스비비테크	2022-10-17	2024	25%	2.5
선바이오	2022-10-05	2023~2025	20%	1.5~3.5
아이씨에이치	2022-07-29	2022	20%	0.5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2024	30%	2.5
루닛	2022-07-21	2025	20%	3.75
영창케미칼	2022-07-14	2023	20%	1.75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2024	20%	2.75
넥스트칩	2022-07-01	2024	30%	3
보로노이	2022-06-24	2024	25%	3
레이저셀	2022-06-24	2022~2024	20%	0.5~2.5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2024	20%	3

모아데이터	2022-03-10	2024	15%	3
노을	2022-03-03	2024~2025	15%	3.25~4.25
풍원정밀	2022-02-28	2022~2023	30%	1~2
퓨런티어	2022-02-23	2022~2024	20%	1~3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2023	15%	1.15
이지트로닉스	2022-02-04	2023	20%	2
스코넥엔터테인먼트	2022-02-04	2024	25%	3
애드바이오텍	2022-01-24	2022~2023	30%	1~2
평균	-	-	21%	2.7

주3) 비교기업의 분석일 현재 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금번 동사의 주당평가가액 산정 시에는 주주에게 직접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함에 따라,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보다는 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가 이론상 더욱 적합한 지표입니다. 통상 자기자본비용은 타인자본비용(Cost of Debt) 대비 높음에 따라 전체 WACC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이는 주주들이 채권자 대비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비교기업의 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

(단위: %)

회사명	자기자본비용(Cost of Equity)
엑셈	20.3%
와이즈넷	27.3%
슈어소프트테크	27.0%
비아이매트릭스	23.3%
평균	24.5%

(출처: Bloomberg(2026.04.03))

주4)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위: 주)

구분	주식수(주)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4,839,974	보통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437,844	상장일로부터 1년 내 행사가능수량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635,000	신주모집 주식수
신주인수권	263,500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79,050	Min(공모주식의 3.0%, 10억원)
합계	18,255,368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 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마키나락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마키나락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	내용	비고
주당 평가가액	23,143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35.2%~46.0%	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	12,500원~15,0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	15,000원	주2)

주1)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	상장일	할인율 (하단)	할인율 (상단)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41.70%	27.13%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6%

이지스	2025-12-11	28.37%	17.36%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테라뷰 홀딩스	2025-12-09	41.99%	33.70%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그린광학	2025-11-17	34.00%	24.57%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노타	2025-11-03	35.45%	22.71%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프로티나	2025-07-29	43.99%	28.72%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35%	21.59%
뉴엔에이아이	2025-07-04	35.92%	26.06%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97%	29.06%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인투셀	2025-05-23	45.41%	25.76%
이문온시아	2025-05-19	43.41%	32.09%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로킵헬스케어	2025-05-12	39.72%	28.76%
쎌크	2025-04-28	33.71%	23.52%
심플랫폼	2025-03-21	32.26%	21.84%
오름테라퓨틱	2025-02-14	72.22%	65.27%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67%	38.49%
와이즈넷	2025-01-24	34.53%	29.08%
파인메딕스	2024-12-26	39.53%	32.81%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52.92%	45.43%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9	32.83%	24.44%
온코크로스	2024-12-18	30.35%	15.18%

쓰리빌리언	2024-11-14	38.48%	11.14%
토모큐브	2024-11-07	30.46%	14.51%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35.04%	24.74%
에어레인	2024-11-08	40.15%	30.80%
클로봇	2024-10-28	35.51%	25.22%
웨이비스	2024-10-25	27.81%	17.97%
씨메스	2024-10-24	29.76%	15.71%
루미르	2024-10-21	36.70%	21.36%
셀비온	2024-10-16	51.10%	40.34%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35.91%	25.45%
이엔셀	2024-08-23	31.96%	23.4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42.56%	30.60%
케이쓰리아이	2024-08-20	37.78%	22.8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39.30%	27.92%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34.65%	23.90%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37.75%	24.41%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39.13%	24.41%
하스	2024-07-03	33.79%	11.7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36.97%	25.03%
에이치브이엠	2024-06-28	35.82%	17.1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45.44%	34.53%
한중엔시에스	2024-06-24	42.64%	32.60%
씨어스테크놀로지	2024-06-19	30.70%	7.60%
라메디텍	2024-06-17	26.75%	10.54%
아이씨티케이	2024-05-17	30.95%	15.02%
민테크	2024-05-03	33.95%	13.63%
디앤디파마텍	2024-05-02	49.49%	40.31%
아이엠비디엑스	2024-04-03	41.49%	24.77%
엔젤로보틱스	2024-03-26	38.99%	16.81%
삼현	2024-03-21	30.28%	12.85%
케이엔알시스템	2024-03-07	43.85%	31.37%
코셈	2024-02-23	28.55%	16.65%

케이웨더	2024-02-22	28.89%	14.07%
이에이트	2024-02-23	40.65%	24.28%
와이바이오로직스	2023-12-05	47.48%	35.81%
에이텀	2023-12-01	42.56%	25.08%
그린리소스	2023-11-24	37.30%	20.21%
큐로셀	2023-11-09	29.88%	21.18%
컨텍	2023-11-09	31.58%	24.16%
쏘닉스	2023-11-07	46.10%	24.54%
켈리타스반도체	2023-10-27	34.25%	24.13%
아이엠티	2023-10-10	47.53%	40.04%
시큐레터	2023-08-24	35.72%	25.94%
스마트레이더시스템	2023-08-22	50.73%	42.24%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023-08-10	44.77%	32.02%
파두	2023-08-07	36.44%	24.21%
시지트로닉스	2023-08-03	46.51%	40.57%
파로스아이바이오	2023-07-27	56.73%	44.37%
버벡트	2023-07-26	33.94%	21.88%
센서뷰	2023-07-19	48.99%	36.68%
와이랩	2023-07-20	33.14%	23.59%
이노시물레이션	2023-07-06	39.22%	29.87%
오픈놀	2023-06-30	29.41%	13.37%
프로테옴텍	2023-06-16	30.74%	15.35%
큐라티스	2023-06-15	53.13%	42.32%
씨유박스	2023-05-19	50.94%	33.82%
모니터랩	2023-05-19	46.86%	30.57%
마이크로투나노	2023-04-26	31.37%	21.20%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19%	41.18%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4%	26.17%
제이오	2023-02-16	52.75%	38.57%
샌즈랩	2023-02-15	30.49%	14.14%
오브젠	2023-01-30	41.64%	22.19%
티이엠씨	2023-01-19	32.38%	19.70%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43.71%	30.42%
인벤티지랩	2022-11-22	33.22%	8.62%
엔젯	2022-11-18	37.02%	20.23%
뉴로메카	2022-11-04	42.09%	30.10%
플라즈맵	2022-10-21	43.95%	31.49%
핀텔	2022-10-20	33.41%	20.98%
샤페론	2022-10-19	47.96%	35.27%
에스비비테크	2022-10-17	45.32%	32.86%
선바이오	2022-10-05	34.88%	25.58%
아이씨에이치	2022-07-29	30.23%	9.70%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48.07%	40.28%
루닛	2022-07-21	44.37%	38.05%
영창케미칼	2022-07-14	40.30%	25.97%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37.59%	25.70%
넥스트칩	2022-07-01	42.38%	32.48%
보로노이	2022-06-24	44.80%	36.52%
레이저셀	2022-06-24	27.68%	15.62%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42.89%	34.23%
모아데이터	2022-03-10	27.90%	15.88%
노을	2022-03-03	36.16%	16.51%
풍원정밀	2022-02-28	32.92%	22.76%
퓨런티어	2022-02-23	37.00%	24.28%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36.84%	20.36%
이지트로닉스	2022-02-04	43.07%	34.08%
스코빅엔터테인먼트	2022-02-04	45.82%	27.76%
애드바이오텍	2022-01-24	43.90%	35.89%
평균		39.22%	26.35%

주) SPAC상장, SPAC합병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동사의 할인율은 기술성장기업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사의 경우 최근 3년 간 지속적인 매출 성장 및 적자폭 완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향후 제품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제고가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 나아가 국방 분야

로 수주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 기 확보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2026년 초 기준으로 전년도 수준의 매출 규모 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상장 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금번 정정 시에는 기술성장기업 평균 대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5,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은 (주)마키나락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5.2%~46.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500원 ~ 15,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 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등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주당 1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은 (주)마키나락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동사가 제시한 아래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에 기재한 동사의 기술성(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연구개발인력의 수준,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시장성(시장의 규모 및 성장잠재력), 성장성(기업 성장 전략, 사업의 확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

서 및 항목별 추정 근거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기존 핵심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강화 및 계약 확대, 신규 산업군으로의 성공적인 확장, 정부정책 로드맵상 예산 증액으로 인한 프로젝트 예상 발주 일정 및 완료 일정의 순연, 그리고 동사의 원가 절감 방안 시행에 따른 원가절감 기대효과 등의 가정 하에 산출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업용 AI 시장 환경 변화, 고객사의 기술 도입 지연, 경쟁 기술의 출현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매출 추정에 활용된 원가절감 목표 절감율, 영업단계에 따른 수주 성공률 등의 수치는 객관적 자료와 동사의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으나, 내부 사업계획에 기반한 주관적 판단이 일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사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매출' 또는 '매출액'은 동사의 감사 보고서상 영업수익을 의미하며, 매출원가 계정과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추정 손익계산서

[2025년~2030년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영업수익	22,493	37,381	58,675	82,235	106,651
영업비용	24,750	32,484	42,791	50,795	57,622
영업이익	(2,257)	4,897	15,884	31,440	49,029
영업외수익	348	356	369	378	383
영업외비용	288	324	382	456	506
법인세차감전손익	(2,197)	4,929	15,871	31,362	48,906
법인세비용	-	-	-	-	-
당기순이익	(2,197)	4,929	15,871	31,362	48,906

주1)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가) 매출액

동사는 폐쇄망 등 특수한 환경에서 산업 특화 AI(Vertical AI)의 개발과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Runway는 AI 모델의 개발, 배포, 운영 등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산업 특화 AI 플랫폼이며, AI 컨설팅 사업은 특정 고객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사의 AI 플랫폼 Runway는 기본적으로 연 단위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판매되며, 도입 고객사의 사정에 따라 활성 사용자 수, GPU 노드 등 활용 규모,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추가 개발, 다년간 사용을 위한 영구라이선스 형태로의 일괄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됩니다. 이러한 구독형 라이선스 기반의 매출 구조는 반복 수익(Recurring Revenue) 기반을 형성하며, 고객의 AI 체계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기반 강화에 기여합니다.

Runway의 직접 판매는 라이선스 매출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 강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Runway는 내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의 핵심 엔진으로 작동합니다.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사의 AI 엔지니어들이 특화 AI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에 Runway를 활용함으로써 과거 수 주(Weeks)가 소요되던 작업을 하루 이내로 단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동사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의 개발 주기(Time-to-Value)를 단축하고 더 많은 고객 사용 사례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사는 제조·국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Vertical Industries)의 미충족 요구(Unmet Needs)를 빠르게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확대하는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강력한 제품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를 빠르게 만들어 더 많은 고객을 유입시키는 미국 팔란티어(Palantir)의 사례를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동사의 핵심 기술과 제품인 Runway는 폐쇄망 등 특수한 환경에서 산업 특화 AI의 개발과 운영체계를 구축하게 해주는 핵심 기반(Enabler)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특화 AI 솔루션은 기업 내부 업무 환경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Runway 역시 폐쇄망 환경의 자체 데이터센터, 내부 서버, 온프레미스 서버와 클라우드(Cloud) 환경을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환경에 설치되어 공급됩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라 제조 및 국방 분야의 특화 AI 솔루션의 적용 범위는 점차 확장될 가능성이 큼

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나 피지컬AI(Physical AI)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개별 설비 단위에 AI가 적용되어 각각의 설비가 지능화되는 미래상이 그려져 왔습니다. 국방 분야 역시 전투기, 함정, 전차 등 개별 무기 체계에 AI가 적용된 지능화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설비 및 무기 체계 등은 네트워크로부터 단절된 독립된 엣지(Edge) 환경으로, 이는 현재 동사가 Runway를 공급하고 있는 폐쇄망 환경과 유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 주력제품인 Runway는 이미 외부 네트워크가 단절된 PC급 서버에서 운용 가능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사는 2025년 삼성전자 온디바이스 AI 모델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을 본격화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업 로드맵 상 3단계 후반부에는 엣지에서 활용 가능한 AI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용 로봇, 개별 생산 장비 및 무기 체계 등에 적용 가능한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새로운 단계(Phase)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또한, Runway는 내부 연구 및 개발 생산성 향상의 핵심 엔진으로도 작동합니다.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의 AI 엔지니어들이 특화 AI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에 Runway를 활용함으로써 과거 수 주(Weeks)가 소요되던 작업을 하루 이내로 단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산업 특화 AI 솔루션의 개발 주기(Time-to-Value)를 단축하고 더 많은 고객 사용 사례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제조·국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Vertical Industries)의 미충족 요구(Unmet Needs)를 빠르게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확대하는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Runway의 직접 매출 창출과 내부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중적 역할은 제품매출(Runway 라이선스)과 용역매출(AI 컨설팅) 양 측면에서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매출 추정에 있어 Runway 제품 비중이 2025년 36.9%에서 2030년 76.1%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주요 근거입니다.

[전달방식에 따른 판매방식 구분]

구분	① AI 운영체계(Runway) 공급	② AI 컨설팅과 AI 운영체계(Runway)를 동시에 공급	③ AI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설명	- 특정 태스크 수행을 위한 AI 모델 개발 및 운영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화 AI 체계 공급	- 특정 태스크 수행을 위해 학습된 특화 AI 모델과 이를 배포 및 운영하기 위한 특화 AI 체계를 제공	- 특정 태스크 수행을 위해 학습된 특화 AI 모델 제공
결과물 형식	- Runway 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 Runway 혹은 특정 모듈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시스템 - Runway에서 구동 가능한 AI 학습 파이프라인	- 실행가능한 파일 형태
고객 수요/특성	- 자체 AI 개발 역량 및 조직을 보유한 고객 - AI 개발, 적용 및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효율화를 고민하는 고객 - 폐쇄망 등의 고유한 요건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이 어려운 고객	- 자체 AI 개발 역량이 부족한 고객 - 개념검증을 넘어 시범적용 혹은 실제 활용을 원하는 고객 - 그러나 AI를 배포 및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부재한 고객	- 자체 AI 개발 역량이 부족한 고객 - 레퍼런스가 없는 새로운 분야에 AI를 적용하고자 하는 고객 - AI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ROI 확인을 위해 작게 시작(Small Start)하고 싶은 고객
시장/사업 여건 및 전망	- 발현될 수준에 도달한 기업 및 조직이 많지 않음 - AI 활용 확대에 따라 기업 및 조직의 AI 관련 핵심 수요가 될 것으로 전망	- 증가 추세 - 실질적인 가치 창출 및 확인 용이하여 B2B 혹은 특화 AI 활용 확대, 시장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 - 활용 확대에 따라 비중 증가 전망	- 현재 가장 많음 - LLM 등 신기술 등장으로 AI로 대응가능한 문제 커버리지 확대될수록 수요도 증가 예상 - AI보급 확대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꾸준한 수요 예상
대응을 위한 필요 자원	- Runway(AI 플랫폼)	- 당사 엔지니어 - Runway(AI 플랫폼)	- 당사 AI엔지니어
주요 과금 방식	- 라이선스 - 유지보수 비용	- 일회성 비용 + 라이선스 - 유지보수 비용	- 일회성 비용
당사 사업화 관점에서의 의의 (추진 이유)	- 기술 집약 - 제품 중심 사업모델 강화 - 수익성 개선	- 실적용 통해 고객 핵심 프로세스에 병합, 고객 락인(Lock-in) - 적용 범위 확장에 따른 사업 기회 확보 - 제품 및 제품 내 기능 요건 검증	- 고객 확보(신규 고객 침투 및 기존 고객 락인) - 신 기술 탐색, 산업 특화 AI 솔루션 커버리지 확대 - 제품 기반으로 다양한 특화 AI 솔루션 직접 개발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요건 발굴

(출처: 동사 내부자료)

① AI 운영체계(Runway) 공급

AI 운영체계(Runway) 공급은 소프트웨어 제품 형태의 AI 운영체계의 공급은 AI 모델 개발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주요한 대상 고객입니다. AI 운영체계의 계약방식은 1) 구독형 라이선스 계약, 2) 연간 라이선스계약, 3) 영구 라이선스계약 형태로 나뉘

집니다. 영구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는 이용 증가에 따라 추가 구매를 진행하거나 버전 업그레이드를 위해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

② AI 컨설팅과 AI 운영체계(Runway)를 동시에 공급

AI 컨설팅과 AI 플랫폼 Runway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판매 방식은 AI 모델이 실제 적용이 확정되어 해당AI 모델의 안정적인 운영과 배포, 재학습을 통한 AI 모델 성능 유지를 위한 AI 플랫폼Runway를 같이 공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주로 AI 개발 및 운영체계를 갖추기 힘든 중견 중소기업으로의 확장을 용이하게 하는 판매방식입니다.

③ AI 컨설팅 서비스 제공

AI 컨설팅은 특정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로 AI 도입 초기의 기업들이 AI 모델의 실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당사의 버티컬 AI 솔루션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매출액 추정 시 상기의 ①에 해당하는 매출유형은 Runway 제품매출, ③에 해당하는 매출유형은 AI 컨설팅 용역매출, ②에 해당하는 매출유형은 제품매출과 용역매출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추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매출액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매출액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Runway 제품매출	11,008	23,110	41,364	61,236	81,180
AI 컨설팅 용역매출	11,485	14,272	17,311	20,999	25,471
합 계	22,493	37,382	58,675	82,235	106,651

당사의 매출액 추정치는 개별 계약의 특성, 사업 진행 단계, 산업의 성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026년 및 2027년의 매출 추정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및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산정하였

으며, 이는 단순 예측이 아닌 실질적인 수주 내역과 과거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추정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과 2027년 매출액은 사업 진행 단계별로 상이한 수주 확률을 적용하였으며, 각 단계별 확률은 동사 내부적으로 확립한 각 프로젝트별 단계에 대한 기준표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부터는 각 사업군별로 관련 산업의 공신력 있는 시장조사기관이 제시한 성장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동사는 영업 기회를 기반으로 기존의 거래처와 가망 거래처와 계약금액 추정치를 S급부터 D급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 추정 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매출만을 반영하기 위해 D급은 제외하고 C급까지만을 대상으로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중립적 시나리오 상 C급의 경우 수주확률을 "0%"로 가정하였습니다. 동사는 영업조직과 현재의 영업상황을 파악하여 매출 계약별 등급을 산정하였으며, 매출 추정 시 프로젝트 별로 적용한 수주확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등급 별 기준 및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수주확률]

구분	내용	수주확률
계약완료	- 계약완료	95%
S급	- 계약서 날인단계 - 계약예정 및 계약확정에 해당	95%
A급	- 경쟁자 없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상태 - 계약서 Draft 단계	70%
B급	- 1~3개 정도의 경쟁업체 존재 - 동사가 기술력 또는 가격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자체 판단되는 경우 - 단독으로 고객과 협상중이나 고객사의 니즈(Needs)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당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되더라도 엔지니어 리소스 제약으로 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50%
C급	- 3개 이상의 경쟁업체 존재 - 동사가 경쟁업체 중 상위 2개 업체 내에 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러한 수주확률에 대한 정합성 측면에서, 과거 유사 사업의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계약 건이 실제 매출액으로 인식된 비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치와

비교하였습니다.

동사는 2024년부터 수주확률에 따른 영업기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4년과 2025년의 수주 성공확률은 하기의 표와 같습니다.

[동사 최근 사업연도 계약 성사 확률 검토 결과]

(단위: 회, 건, %)

연도	구분	S급	A급	B급	C급
2025년	영업기회	76	37	69	45
	계약성공	75	28	36	12
	성공확률	98.68%	75.68%	52.17%	26.67%
2024년	영업기회	43	17	56	79
	계약성공	42	9	19	13
	성공확률	97.67%	52.94%	33.93%	16.46%
합계	영업기회	120	54	125	124
	계약성공	118	37	55	25
	성공확률	97.67%	68.66%	44.07%	20.21%

주1) 성공확률 = 계약 성공 건수 / 영업기회 횟수

동사는 2024년 이후 영업기회들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초 도입시점에는 등급에 대한 경험율이 부족하여 등급간의 계약 성사율이 동사의 예상과는 다른 경우가 존재합니다. 2025년에는 영업기회들의 계약성사율의 경우 영업부서의 예측 정확도가 경험의 누적으로 인해 높아졌습니다. 또한, S급의 경우는 계약완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고객사의 급격한 변심으로 인한 계약 지연 또는 계약 미성사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건씩 발생하였습니다.

상기의 표로 분석해보면 S급의 경우는 95% 이상의 확률로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A급의 경우는 경험의 누적에 따라 계약성사율이 2024년 52.94%에서 2025년 75.68%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B급의 경우도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33.93%, 52.17%로 계약성사율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사 영업부서(BD)의 예측율이 2025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약성사

율을 판단할 때 상기 표에 따른 등급별 계약 성사율은 추세상 또는 경험율의 누적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보수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즉, 상기의 수주확률에 대한 정합성 측면에서, 과거 유사 사업의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계약 건이 실제 매출액으로 인식된 비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치와 비교한 결과, 당사의 수주확률 증가추세로 확인하였을 때 합리적인 추정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2026년과 2027년의 매출 추정을 위해 동사 내부의 CRM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2026년 126건의 신규 영업파이프라인과 2026년 이전 계약완료되어 진행되고 있는 26건의 계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 매출 추정을 위해 2027년 이전의 계약의 연속성과 기존 고객으로부터의 추가 발주 계획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동사는 계약성사확률이 낮은 D급은 매출추정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장기 매출 추정에 불확실성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C급의 경우는 수주확률을 0%로 함으로써 매출 추정치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사는 S급에 대해서는 95%의 확률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과거 2개년의 평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A급과 B급에 대해서는 2024년과 2025년의 편차가 큰 것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2025년의 성공확률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각각 70%와 50%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최근의 정보가 더 목적적합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2개년 평균을 사용하는 것보다 최근 실적에 가중치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C급의 경우도 성공확률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나 해당 등급의 영업기회들의 편차가 확률로 평가하기에는 변동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보수적으로 매출 예상액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동사의 2026년과 2027년 등급별 매출건수 예상]

(단위: 건, %)

구분	S급	A급	B급	C급	계
2026년	46	13	10	19	88
비중	52.27%	14.77%	11.36%	21.60%	100.00%

구분	S급	A급	B급	C급	계
2027년	11	34	27	1	73
비중	15.07%	46.58%	36.99%	1.36%	100.00%

주1) 비중 = 등급건수/총건수

[동사의 2026년과 2027년 등급별 매출액 예상]

(단위: 백만원, %)

구분	S급	A급	B급	C급	계
2026년	11,203	9,334	10,632	6,222	37,391
비중	29.97%	24.96%	28.43%	16.64%	100.00%
수주확률	95%	70%	50%	0%	-
매출액예상	10,643	6,534	5,316	-	22,493
2027년	2,033	30,801	27,778	2,500	63,112
비중	3.22%	48.80%	44.01%	3.97%	100.00%
수주확률	95%	70%	50%	0%	-
매출액예상	1,931	21,561	13,889	-	37,381

주1) 비중 = 등급금액/총금액

동사의 2026년 총 152건의 영업기회 또는 이연 계약 중에서 D급 64건을 제외한 88건을 매출 추정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계약완료/S급 46건, A급 13건, B급 10건, C급 19건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동사의 2027년 총 73건의 영업기회 또는 이연 계약을 매출 추정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계약완료/S급 11건, A급 34건, B급 27건, C급 1건으로 구성됩니다.

동사의 2026년 대비 2027년에 계약완료/S급 비중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A급과 B급의 구성이 높아지는 것은 추정하는 시점이 2026년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먼 미래인 2027년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고객 관계로 연장계약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도 2027년의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A급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수주확률을 고려하기 전 2027년 A급과 B급의 매출액 합계가 92.91%에 이릅니다. 이는 2026년 대비 확정적 매출액

에 대한 시간적 위험요소를 감안하여 동사가 2027년 매출액에 대해 보수적으로 추정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사는 구체적인 개별 계약 관리가 가능한 2026년과 2027년에 대해서는 개별 고객 및 계약의 진행 상황을 직접 반영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반면, 개별 계약의 가시성이 낮아지는 2028년 이후의 중장기 매출액에 대해서는 목표 시장의 예상 연평균성장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동사는 2028년 이후의 중장기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과거 실제 성장률 적용, 개별 계약 진행 상황 직접 추정, 시장 점유율 추정, 유사기업 성장률 벤치마킹 등의 방법론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동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화 인공지능(Vertical AI) 및 폐쇄망 특화 Enterprise AI 플랫폼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단계에 있으며, 동사 또한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방법론은 적용 과정에서 추정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출 추정의 합리성을 제약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각 방법론의 적용 방식과 한계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8년 이후 매출액 추정 적용 방식 검토 내역]

구분	적용 방식	한계점	채택 여부
목표 시장 예상 연평균성장률(CAGR) 적용	각 사업부별 목표 시장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준용하여 2028년 이후 추정치에 적용하는 방식	시장 예측 보고서는 조사기관의 방법론과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아직 초기 단계인 산업 특화 인공지능(Vertical AI) 및 Enterprise AI 플랫폼 시장 등과 같은 신규 시장은 예측의 불확실성이 더욱 큼. 또한, 보고서가 예측하는 장기 연평균성장률을 특정 미래 구간(2028년~2030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제 해당 구간의 성장률과 다를 수 있어 성장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며, 거시적인 시장 전체의 성장률이 개별 기업인 당사의 실제 성장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별 고객 및 계약의 진행 상황 직접 추정	잠재 고객과의 계약 파이프라인, 기존 고객의 예상 확장 계약 규모 등을 개별적으로 예측하여 합산하는 방식	동사의 사업 구조상 고객과의 계약은 기술 검토, PoC 및 고객별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쳐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되는 매출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계약의 경우 적용 범위 및 구축 범위에 따라 계약 규모 및 기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계약의 성사 시점, 적용 범위 및 매출 인식 시기가 변동될 수 있어, 개별 계약의 가시성이 제한되는 2028년 이후 중장기 매출액에 대해 개별 계약 진행 상황을 직접	-

		반영하여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과거 동사 실제 매출액 성장률(CAGR) 적용	동사가 과거 3개년(2023년~2025년) 동안 기록한 매출액 성장률(CAGR)을 2028년 이후 추정치에 직접 적용하는 방식	동사의 과거 실제 매출액 성장률(CAGR)은 매출 기반이 작았던 초기 단계에서 소수의 초기 계약을 통해 나타난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률이 회사의 규모가 성장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매출액이 비합리적으로 과대추정될 한계가 존재합니다.	-
전체 시장 규모 및 점유율 추정	각 사업부 전방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TAM: Total Addressable Market) 데이터를 확보하고, 각 시장에서 동사가 미래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 시장 점유율을 가정하여 매출액을 추정	동사가 목표 시장으로 설정한 산업 특화 인공지능(Vertical AI) 및 Enterprise AI 플랫폼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단계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명확하고 세분화된 TAM 및 시장 점유율 관련 통계 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 규모 및 점유율 등 주요 가정의 추정 과정에서 동사의 판단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추정의 불확실성이 내재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유사기업 성장률 벤치마크	동사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진 국내외 상장사들의 성장기(상장 후 3~5년 차) 당시의 실제 매출 성장률을 벤치마킹하여 적용하는 방법	동사와 동일한 사업 모델과 성장 단계를 가진 상장사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동사와 사업 영역이 일부 겹치더라도, 핵심 기술, 목표 시장, 경쟁 환경 등이 상이하여 다른 기업의 성장률을 동사에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

상기와 같은 방법론들의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는 구체적인 개별 계약 관리가 가능한 2026년 및 2027년에 대해서는 개별 고객 및 계약의 진행 상황을 직접 반영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개별 계약의 가시성이 낮아지는 2028년 이후의 중장기 매출 추정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목표 시장의 예상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성과 보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의 과거 실제 매출 성장률 등 자체 데이터는 초기 성장 단계의 특성상 소수 초기 계약 및 프로젝트별 수주 시점, 매출 인식 시기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수치로서, 이를 2028년 이후의 중장기 추정에 직접 적용할 경우 비현실적인 과대추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개별 계약 직접 추정 방식은 동사 사업 구조상 기술검증(PoC), 벤치마크, 공동개발 등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는 특성으로 인해 2028년 이후에는 개별 계약의 가시성이 낮아지는 한계가 존재하며, 시장점유율 추정 방식 역시 산업 특화 AI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세분화된 TAM 데이터 및 공식적인 시장점유율 통계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주관적 판단이나 불확실성이 높은 개별 가정을 최대한 배

제하고, 산업 전반의 성장 추세를 반영하는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8년 이후의 중장기 매출액에 대해서는 목표 시장의 예상 연평균성장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력 제품인 Runway를 기반으로 산업 특화 AI의 개발·배포·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의 AI 도입 확대 및 활용 범위 확장에 따라 플랫폼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및 국방 등 당사가 목표로 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폐쇄망 및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AI 도입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당사의 사업 기회 또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AI 컨설팅 및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확보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유사 산업 및 고객군으로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성공적인 레퍼런스는 후속 계약 및 추가 사업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의 매출은 시장 성장과 일정 부분 연동되는 특성을 가지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목표 시장 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장 예측 보고서는 조사기관의 방법론과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초기 단계의 산업 특화 AI 시장은 예측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장기 연평균성장률을 특정 미래 구간에 적용하는 경우 실제 성장 경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전체의 성장률이 개별 기업인 당사의 실제 성장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1) 2026년 및 2027년 매출 추정

2025년 계약이 완료되어 2026년 또는 2027년에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실제 업무수행이나 제품 설치 완료가 계약보다 약 1개월 정도는 일정이 늦어져 일부 매출 인식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95%를 적용하였으며, 기존 거래처에서 특별한 당사의 실수나 고객사의 변동이 없으면 계속 연장되어 온 계약의 경우는 A급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제품과 용역의 매출 비율은 2026년과 2027년은 각 영업기회에 따라 구분되었습니다. 당사의 Runway 제품 비중의 향후 증가를 고려하여 2026년은 제품과 용역을 6:4의 비율로, 2027년은 8:2의 비율로 산정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기존 Runway 라이선스 고객의 계약 갱신율은 94%로, Runway 제품매출의 안정성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국방과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는 최초 발주부터 장기계획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2027년부터 신규 확장하는 추가계약의 경우는 2026년 사업계획 중 국방과 정부기관 계약 중심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산업별 및 고객별 매출 추정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산업별 및 고객별 매출 추정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산업분야	고객사	주요 프로젝트	매출유형	2026년 신규 여부	2026년				2027년				비고
					계약금액	매출인식 대상액	수주확률	추정 매출액	계약금액	매출인식 대상액	수주확률	매출금액	
국방	****연구소	국방인공지능 무기체계용 MLSecOps 환경구축	용역매출	-	356	197	95%	187	-	-	-	-	2025년 계약으로 26년에 일부 매출인식
	****연구소	국방인공지능 무기체계용 MLSecOps 환경구축 2단계	제품매출	-	2,000	2,000	70%	1,400	-	-	-	-	-
	****연구소	국방인공지능 무기체계용 MLSecOps 환경구축 3단계	제품매출	-	-	-	-	-	4,000	4,000	70%	2,800	-
	****연구소	국방인공지능 무기체계용 MLSecOps 환경구축(1~2단계 유지보수)	제품매출	-	-	-	-	-	1,000	333	70%	233	2027년부터 3년간의 유지보수계약임
	****연구소	무기체계형 AI Agent 구축사업	용역매출	-	-	-	-	-	2,000	2,000	70%	1,400	-
	****연구소	AI프로젝트) AI Agent 구축 및 데이터통합 인터페이스 사업	용역매출	○	1,600	1,200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연구소	AI프로젝트)생성형AI 서비스 구축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개발(2차)	용역매출	-	-	-	-	-	3,000	3,000	70%	2,100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Runway) 방산혁신기업100 전용지원과제 사업	용역+제품	-	3,300	725	95%	689	3,300	985	95%	936	2025년말에 확정된 3년(26~28년) 국방과제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Runway) AI C2 기반 멀티모달 경계플랫폼(국방AI혁신랩)	용역+제품	-	5,000	1,042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Runway) AI C2 기반 멀티모달 경계플랫폼(국방AI혁신랩)	용역+제품	-	-	-	-	-	5,000	2,500	50%	1,250	2027년부터 2년간 과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Runway) 국방AI 혁신랩사업	용역+제품	-	-	-	-	-	3,000	1,250	50%	625	2027년부터 3년간 과제
	국방부	Runway) IITP 국방CT연구센터 구축 사업 제안	제품매출	-	10,825	4,500	70%	3,150	10,825	3,217	70%	2,252	구축비용 2026년 45억/2027년 25억, 4년간 운영유지SW(38.25억)
	국방부	Runway) 국방지능형플랫폼 성능개량 사업	제품매출	○	7,000	3,042	50%	1,521	7,000	2,916	50%	1,458	총사업비 210억(HW:70억, SW:30억, 용역 :110억) - 3개년 과제(매년 70억)
	국방부	Runway) IITP 국방CT연구센터 구축 사업 추가	제품매출	-	-	-	-	-	2,500	2,500	70%	1,750	-
	방위사업청	Runway) ATCIS AI 플랫폼구축(신속시범사업)	용역+제품	○	4,000	334	50%	167	4,000	1,334	50%	667	2026년부터 3개년 과제

산업분야	고객사	주요 프로젝트	매출유형	2026년 신규 여부	2026년				2027년				비고
					계약금액	매출인식 대상액	수주확률	추정 매출액	계약금액	매출인식 대상액	수주확률	매출금액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Runway) AI 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2작전사) (1차 사업)	용역+제품	-	3,000	250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Runway) AI 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2작전사) (1차 사업)	용역+제품	-	3,000	250	0%	-	3,000	1,500	50%	750	-
	육군본부	Runway) AI 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	용역+제품	○	3,000	292	50%	146	3,000	1,500	50%	750	2026년 하반기부터 2년 과제
	한화시스템	Runway) AKJCCS 성능개량 사업 내 MLOps 도입	용역+제품	-	790	175	95%	166	790	600	95%	570	2025년 수주확정, 2026년과 27년에 공급예정
	합동참모본부	Runway) 생성형AI 적용 KJCCS 정보검색 및 운영 실증	용역+제품	-	1,218	281	95%	267	-	-	-	-	2025년 계약으로 2026년에 일부 매출인식
	합동참모본부	Runway) 생성형AI 적용 KJCCS 정보검색 및 운영 실증-1차	용역+제품	-	-	-	-	-	3,000	2,700	70%	1,890	-
	소계	-	-	-	42,089	14,288	-	7,693	19,431	30,335	-	19,431	-
반도체/ 디스플레이	뉴파워플라즈마	Runway) 산업AI 실증_MLOps 기반 플라즈마 설비 운영 AI Agent 구축	용역+제품	-	412	372	95%	353	-	-	-	-	2025년 계약으로 26년에 일부 매출인식
	뉴파워플라즈마	Runway) 런웨이 구축 라이선스 다년 계약으로 전환	제품매출	○	280	-	95%	-	-	-	-	-	2025년 납품 완료, 2025년 매출인식
	뉴파워플라즈마	Runway) 산업AI 실증_MLOps 기반 플라즈마 설비 운영 AI Agent 구축 (2차)	용역+제품	-	-	-	-	-	370	370	70%	259	-
	두산테스나	AI프로젝트) 장비 유지보수 가이드 챗봇 본과제	용역매출	○	200	200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삼성디스플레이	AI 프로젝트) PLC 분석 및 생성	용역+제품	-	550	550	70%	385	-	-	-	-	-
	삼성전기	마키나락스 Runway license 임차 계약서	제품매출	-	95	95	95%	90	95	95	95%	90	2024년 계약(5년간 계약)
	삼성전자	**** 향 On device AI 모델 개발 및 모델 개발 관리 플랫폼 개발	용역매출	-	1,000	-	95%	-	-	-	-	-	2025년 계약, 2025년 매출전액인식
	삼성전자	FDC Spec Score 체계 구축(1차)	용역매출	-	748	736	95%	699	-	-	-	-	2025년 계약으로 2026년에 일부 매출인식
	삼성전자	**** 향 On device AI 모델 개발 및 모델 개발 관리 플랫폼 개발(2차)	용역매출	-	1,000	917	95%	871	1,000	83	95%	79	2026년 계약, 2개년(2026년,2027년) 매출인식
	삼성전자	반도체 FAB 내 HVAC 설비 자동 제어 본과제(1차)	용역매출	-	900	900	50%	450	-	-	-	-	-
	삼성전자	FDC Spec Score 체계 구축(2차)	용역매출	-	900	90	70%	63	900	811	70%	568	2026년 계약, 2개년(2026년,2027년) 매출인식
	삼성전자	반도체 FAB 내 HVAC 설비 자동 제어 본과제	용역매출	-	-	-	-	-	1,800	1,800	70%	1,260	-
	삼성전자	**** 향 On device AI 모델 개발 및 모델 개발 관리 플랫폼 개발(3차)	용역매출	-	-	-	-	-	2,000	1,833	70%	1,283	2027년 계약, 2개년(2027년,2028년) 매출인식
	삼성전자	FDC Spec Score 체계 구축(3차)	용역매출	-	-	-	-	-	900	90	70%	63	2027년 계약, 2개년(2027년,2028년) 매출인식
	서플러스글로벌	Runway) 산업AI 실증_MLOps 기반 부품인식 솔루션 구축	용역+제품	-	170	160	95%	152	-	-	-	-	2025년 계약으로 2026년에 일부 매출인식
	서플러스글로벌	Runway) 산업AI 실증_MLOps 기반 부품인식 솔루션 구축-2차	용역+제품	-	-	-	-	-	150	150	70%	105	-
	와이씨	Runway) 산업AI 실증_MLOps 기반 검사장비 운영 AI Agent 구축	용역+제품	-	370	334	95%	317	-	-	-	-	2025년 계약으로 2026년에 일부 매출인식
	와이씨	Runway) 산업AI 실증_MLOps 기반 검사장비 운영 AI Agent 구축-2차	용역+제품	-	-	-	-	-	370	370	70%	259	-
	주성엔지니어링	Runway) 산업AI 실증_MLOps 기반 LLM 구축	용역+제품	-	370	371	95%	352	-	-	-	-	-
	주성엔지니어링	Runway) 산업AI 실증_MLOps 기반 LLM 구축 - 2차	용역+제품	-	-	-	-	-	370	370	70%	259	2027년계약, 2개년(2027년,2028년) 매출인식
	한솔아이원스	AI프로젝트) 스케줄링 최적화 AI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용역+제품	-	300	300	0%	-	300	104	50%	52	사업진행속도를 감안 2026년보다 2027년 계약확률 높음
	한솔아이원스	AI프로젝트) 건적대응 자동화 AI 솔루션 고도화 (phase2)	용역매출	○	180	180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한솔아이원스	AI프로젝트) 스케줄링 최적화 AI 솔루션 개발 및 공급(확장)	용역+제품	-	-	-	-	-	500	500	50%	250	-
	소계	-	-	-	7,475	5,205	-	3,732	8,755	6,576	-	4,527	-

산업분야	고객사	주요 프로젝트	매출유형	2026년 신규 여부	2026년				2027년				비고
					계약금액	매출인식 대상액	수주확률	추정 매출액	계약금액	매출인식 대상액	수주확률	매출금액	
중공업/ 조선	VNTG (세아베스틸)	시프로젝트) 세아베스틸 항 이상탐지 및 장비관리 지원 체계 구축	용역매출	○	300	300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삼성중공업	시프로젝트) 용접 심트래킹 후속 Classification 개발	용역매출	-	110	111	95%	105	-	-	-	-	-
	장금상선	선석 및 용선 스케줄링 최적화 PoC	용역매출	○	360	314	95%	298	-	-	-	-	2025년 계약으로 2026년에 일부 매출인식
	장금상선	선석 및 용선 스케줄링 최적화 본과제 1차	용역매출	○	200	100	0%	-	200	100	50%	50	사업진행속도를 감안 2026년보다 2027년 계약확 률 높음
	장금상선	선석 및 용선 스케줄링 최적화 본과제 2차	용역매출	-	-	-	-	-	1,000	916	50%	458	2027년 계약, 2개년(2027년,2028년) 매출인식
	한국조선해양	시프로젝트) 조선소 용접 협동로봇 이상탐지	용역매출	-	234	221	95%	210	-	-	-	-	2025년 계약으로 2026년에 일부 매출인식
	한국조선해양	시프로젝트) 조선소 용접 협동로봇 이상탐지	용역매출	-	-	-	-	-	600	600	50%	300	-
	현대중공업	시프로젝트) LNG 탱크 용접검사 자동화(H/W+S/W)	용역매출	○	750	750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현대중공업	시프로젝트) IPP 발전 건적문서 분석 및 주요 보고서 자동 생성 Agent 개발	용역매출	○	350	350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효성중공업	시프로젝트) 변압기 3D 도면 검토 자동화+구매 건적 자동화	용역매출	-	795	795	95%	755	-	-	-	-	-
에너지/ 화학	효성중공업	시프로젝트) 변압기 3D 도면 검토 자동화+구매 건적 자동화(2차)	용역매출	-	-	-	-	-	500	500	50%	250	-
	소계	-	-	-	3,099	2,941	-	1,368	2,300	2,116	-	1,058	-
	DI(Nordex)	시프로젝트) 풍력발전기 GTS 업무 지원 LLM서비스 개발 (Nordex 向)	용역매출	-	435	120	95%	114	-	-	-	-	2025년 계약으로 2026년에 일부 매출인식
	DI(Nordex)	시프로젝트) TSP Phase 2	용역매출	○	550	321	70%	225	550	229	70%	160	2026년 계약, 2개년(2026년,2027년) 매출인식
	DI(Nordex)	시프로젝트) 풍력발전기 GTS 업무 지원 LLM서비스 개발 (Nordex 向)(2차)	용역매출	-	-	-	-	-	1,200	1200	50%	600	-
	GS칼텍스	시프로젝트) 부식예측 모델 개발	용역매출	○	450	450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SK온(엔텔스)	AXIS/ATIS Crack 비전검사 모델 운영고도화(조지아)	용역매출	○	300	275	95%	261	300	25	95%	24	2026년 계약, 2개년(2026년,2027년) 매출인식
	SK온(엔텔스)	AXIS/ATIS Crack 비전검사 모델 운영고도화-헝가리(OH2)	용역매출	○	300	275	95%	261	300	25	95%	24	2026년 계약, 2개년(2026년,2027년) 매출인식
	SK온(엔텔스)	AXIS/ATIS Crack 비전검사 모델 유지보수-헝가리(BM)	용역매출	○	180	165	95%	157	180	15	95%	14	2026년 계약, 2개년(2026년,2027년) 매출인식
	SK온(엔텔스)	AXIS/ATIS Crack 비전검사 모델 유지보수(중국)	용역매출	○	178	163	95%	155	178	15	95%	14	2026년 계약, 2개년(2026년,2027년) 매출인식
	SK온(엔텔스)	AXIS/ATIS Crack 비전검사 모델 유지보수(중국)-확장	용역매출	○	227	132	50%	66	227	96	50%	48	2026년 계약, 2개년(2026년,2027년) 매출인식
	SK온(엔텔스)	시프로젝트) AXIS,ATIS 유지보수 및 확장	용역매출	-	-	-	-	-	500	500	50%	250	-
	SK온(엔텔스)	시프로젝트) ATIS Crack 비전검사 모델 개발_중국 (AI/DT 向)	용역+제품	-	-	-	-	-	500	500	70%	350	-
	SK온(엔텔스)	시프로젝트) AXIS Crack 비전검사 모델 개발_중국 (AI/DT 向)	용역+제품	-	-	-	-	-	500	500	70%	350	-
	SK온(엔텔스)	AXIS/ATIS Crack 비전검사 모델 유지보수	용역+제품	-	-	-	-	-	720	720	70%	504	-
	두산에너지빌리티	시프로젝트) 원자력 도면 검토	용역+제품	-	120	100	0%	-	500	500	50%	250	사업진행속도를 감안 2026년보다 2027년 계약확 률 높음
	두산에너지빌리티	시 프로젝트) ASME 2차	용역매출	-	300	300	95%	285	300	300	70%	210	매년 용역계약 연장
	두산에너지빌리티	시 프로젝트) Diet 2차	용역매출	-	300	300	95%	285	300	300	70%	210	매년 용역계약 연장
	두산에너지빌리티	시 프로젝트) 이중도면 2차	용역매출	-	300	300	95%	285	300	300	70%	210	매년 용역계약 연장

산업분야	고객사	주요 프로젝트	매출유형	2026년 신규 여부	2026년				2027년				비고
					계약금액	매출인식 대상액	수주확률	추정 매출액	계약금액	매출인식 대상액	수주확률	매출금액	
	두산에너지빌리티	AI 프로젝트) 용접검사 2차	용역매출	-	300	300	95%	285	300	300	70%	210	매년 용역계약 연장
	두산에너지빌리티	AI 프로젝트) 풍력 후속	용역매출	-	300	300	95%	285	300	300	70%	210	-
	두산에너지빌리티	AI 프로젝트) 도면검토(원자력)	용역매출	-	130	130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Runway) 두산그룹 AI 플랫폼 납품(1차)	제품매출	-	-	-	-	-	1,200	1200	70%	840	-
	부산정관에너지	태양광 발전량 예측 서비스 운영 전국단위 확대	제품매출	-	117	87	95%	83	-	-	-	-	2025년 계약으로 2026년에 일부 매출인식
	엔텔스	BOSK TN AXIS	용역매출	-	233	28	95%	27	-	-	-	-	2025년 계약으로 2026년에 일부 매출인식
	소계	-	-	-	4,720	3,746	-	2,774	8,355	7,025	-	4,478	-
자동차	SL	AI프로젝트) AX실증산단-R&D과제(중기부)	용역+제품	○	3,000	2,250	50%	1,125	3,000	750	50%	375	2026년 계약, 2개년(2026년,2027년) 매출인식
	덴스코리아	AI프로젝트) AX전환 로드맵에 따른 본과제 1건, PoC 2건	용역매출	○	550	550	70%	385	-	-	-	-	-
	한국타이어	플랫폼) GPU 및 운영 플랫폼	제품매출	○	390	-	95%	-	-	-	-	-	2025년 계약, 2025년 매출전액인식
	한국타이어	AI프로젝트) 생성형 AI를 이용한 타이어 디자인패턴 생성	용역매출	-	546	546	95%	519	-	-	-	-	-
	한국타이어	AI프로젝트) T-스테이션 챗봇 개발 후속 시내용+모바일 App개발	용역매출	-	150	150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한국타이어	AI프로젝트) 생성형 AI를 이용한 타이어 디자인패턴 생성 2차	용역매출	-	-	-	-	-	700	700	50%	350	-
	현대모비스	AI프로젝트) 설비제어 후속 확장	용역매출	○	160	160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현대오도에버	울산EV 로봇PHM시스템용 RPMS 개발	용역매출	-	196	78	95%	74	-	-	-	-	2024년 계약으로 2026년 일부 매출인식
	소계	-	-	-	4,992	3,734	-	2,103	3,700	1,450	-	725	-
정부/ R&D	IITP	R&D) AI 에이전트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통제 및 선제적 억제 기술 개발	용역+제품	○	1,500	334	50%	167	1,500	500	50%	250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과제임
	KOSMO	AI프로젝트) KAMP 2단계 ISMP	용역매출	○	120	120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강원후평산단	메이머스트 (강원후평산단)	제품매출	-	100	100	95%	95	-	-	-	-	2025년 수주 후 2026년 공급예정
	경남창원산단	한국오픈솔루션 (경남창원산단)	제품매출	-	200	200	95%	190	-	-	-	-	2025년 수주 후 2026년 공급예정
	대한상공회의소	AI프로젝트) KGS 플랫폼, 챗봇 유지보수(연간 운영 계약)	용역매출	-	50	38	95%	36	50	37	70%	26	2025년 계약으로 2026년에 일부 매출인식(매년 갱신)
	대한상공회의소	AI프로젝트) KGS 플랫폼, 챗봇 유지보수(연간 운영 계약)	용역매출	-	-	-	0%	-	50	13	70%	9	2027년 계약, 2개년(2027년,2028년) 매출인식
	부산시	Runway) 스마트 양식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제품매출	○	230	231	95%	219	-	-	-	-	-
	부산시	Project) 스마트 양식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용역매출	○	305	169	95%	161	305	136	95%	129	2026년 계약, 2개년(2026년,2027년) 매출인식
	산기평	Runway) 반도체 설비 LLMOps 기반 설비운영 AI Agent 구축	용역+제품	-	350	351	95%	333	-	-	-	-	-
	산기평	Runway) 반도체 설비 LLMOps 기반 설비운영 AI Agent 구축	용역+제품	○	350	351	95%	333	-	-	-	-	-
	산기평	Runway) 반도체 설비 LLMOps 기반 설비운영 AI Agent 구축 추가개발	용역+제품	-	-	-	-	-	500	500	50%	250	-
	산업부	Manufacturing-70	용역+제품	-	-	-	-	-	5,000	0%	0%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산업부(한국산단공)	R&D)열공정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및 Application 개발	용역+제품	○	10,000	2,500	50%	1,250	10,000	3334	50%	1,667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개년 과제
	산자부	Runway) 반도체 설비 LLMOps 기반 설비운영 AI Agent 구축 _2nd	용역+제품	○	1,000	750	50%	375	1,000	250	50%	125	2026년 계약, 2개년(2026년,2027년) 매출인식

산업분야	고객사	주요 프로젝트	매출유형	2026년 신규 여부	2026년				2027년				비고
					계약금액	매출인식 대상액	수주확률	추정 매출액	계약금액	매출인식 대상액	수주확률	매출금액	
	산자부	Runway) 반도체 설비 LLMOps 기반 설비운영 AI Agent 구축 _2nd	용역+제품	-	-	-	-	-	500	500	50%	250	-
	중소기업벤처부	AI 프로젝트) KSOMO(AX 24 후속)	용역매출	-	120	90	0%	-	120	28	50%	14	사업진행속도를 감안 2026년보다 2027년 계약확 률 높음
	중소벤처기업연수원	AI프로젝트) 제조 AI 교육센터 구축건(LLM+비전+에지보전)	용역매출	○	900	900	70%	630	-	-	-	-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Runway) 국방AI교육센터 MLOps 플랫폼 구축	제품매출	○	100	100	70%	70	-	-	-	-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Runway) 국방AI 교육센터 MLOPS 구축사업	제품매출	○	-	-	-	-	1,000	1000	70%	700	-
	소계	-	-	-	15,325	6,234	-	3,857	20,025	6,298	-	3,420	-
기타	ASM	AI프로젝트) 신규 App.개발	용역매출	○	200	200	70%	140	-	-	-	-	-
	CJ올리브네트웍스	카히스토리 사진정보 AI플랫폼 유지보수(1차)	제품매출	-	147	49	95%	47	-	-	-	-	2024년 계약 후 2026년 일부 매출 인식
	CJ올리브네트웍스	카히스토리 사진정보 AI플랫폼 유지보수(2차)	제품매출	-	147	49	95%	47	147	49	95%	47	2026년부터 3개년 계약
	YES24	YES24 SFC 물류 AI 시스템 구축 위한 AI 모델 개발	용역매출	-	700	359	95%	341	-	-	-	-	2025년 계약으로 2026년에 일부 매출인식
	YES24	YES24 SFC 물류 AI 시스템 구축 위한 AI 모델 운영 추가개발	용역매출	-	-	-	-	-	500	500	70%	350	-
	동원시스템즈	AI프로젝트) 동원시스템즈 설비 예지보전, QR 리딩 비전 솔루션	용역매출	-	150	151	95%	143	-	-	-	-	2025년말 계약완료
	두산로보틱스	AI프로젝트) 품질 클레임 분석 PoC 후속 본과제 개발	용역매출	○	130	130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디비아이엔씨	Runway 노드 라이선스 유지보수(1차)	제품매출	-	16	5	95%	5	-	-	-	-	2024년부터 3개년 계약
	디비아이엔씨	Runway 노드 라이선스 유지보수(2차)	제품매출	-	16	5	95%	5	16	5	95%	5	2026년부터 3개년 계약
	메이머스트	Runway) Mlops Platform 구축 관련 Co selling 확대	제품매출	-	-	-	-	-	3,000	3000	50%	1,500	-
	이삭엔지니어링	AI플랫폼 런웨이 라이트	제품매출	-	20	20	70%	14	100	100	70%	70	-
	일본법인	미츠비씨 사업확대 등(혼다, 요코가와 등 확대 포함)	용역매출	-	-	-	-	-	1,600	1600	50%	800	-
	하이비전	AI프로젝트) 주요 도서 기반 보고서 생성 자동화 Agent 개발	용역매출	○	220	220	0%	-	-	-	-	-	C급으로 분류(수주확률 0%로 가정)
	한국수자원공사	Runway) 기존사업 고도화(물산업혁신차)_샌드박스 고도화	제품매출	-	50	50	70%	35	100	100	50%	50	-
	한국수자원공사	Runway) 유지보수 계약(1차)	제품매출	-	30	24	70%	17	30	4	70%	3	2025년 계약(2년계약) 2026년, 2027년 일부 매출 인식
	한국수자원공사	Runway) 유지보수 계약(2차)	제품매출	-	-	-	-	-	30	24	70%	17	2027년 계약(2년계약)
	한국수자원공사	Runway) 디지털실증랩 기능 개선(주사업자 : 메이아이)	제품매출	○	28	27	95%	26	-	-	-	-	-
	한국수자원공사	Runway) 기존사업 고도화(물산업혁신차)_샌드박스 고도화(3차)	제품매출	-	-	-	-	-	500	500	50%	250	-
	한국크레딧뷰로	Runway) AI 플랫폼 도입	제품매출	○	570	570	95%	-	-	-	-	-	2025년 납품 완료, 2025년 매출인식
	한국크레딧뷰로	AI 프로젝트) Runway 구축용역	용역매출	-	88	81	95%	77	-	-	-	-	2025년 계약으로 2026년에 일부 매출인식
	한국크레딧뷰로	Runway) AI 플랫폼 구축(2차)	제품매출	○	1,000	100	50%	50	1,000	900	70%	630	사업진행속도를 감안 2026년보다 2027년 계약확 률 높음
	한스콤정보통신	Runway license	제품매출	-	28	29	70%	20	28	29	70%	20	-
	소계	-	-	-	3,540	2,069	-	967	7,051	6,811	-	3,742	-
합계		-	-	-	81,241	38,217	-	22,493	105,601	60,611	-	37,381	-

(출처: 당사 자체추정)

- 주1) 상기 표는 Base 시나리오 기준이며, C급(수주확률 0%) 및 D급은 제외되었습니다.
- 주2)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 기준이며, 추정매출은 수주확률 및 당해연도 수익인식분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주3) 용역+제품 혼합 프로젝트의 매출은 제품:용역 = 6:4 비율로 Runway/시컨설팅에 각각 배분됩니다.
- 주4)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23년 MLSecops 시험발주를 시작으로 2025년 18.18억 MLSecops계약하였으며 이후 국방 AI 강화로 인한 지속적인 MLSecops 구매 및 유지보수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5) 국방부의 IITP 국방ICT연구센터 구축사업은 국방 주요거점마다 AI 인프라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점별로 지속적인 AI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6) 합동참모본부의 「생성형AI 적용 KJOCS 정보검색 및 운영 실증」 사업은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육,해,공군의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향후 국방관련 생성형AI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7) 뉴파워플라즈마,서플러스글로벌,와이씨,주성엔지니어링은 산자부의 산업AI 실증과제로서 MLOps 기반 각종 장비 운영 AI Agent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로 중견기업들의 AI Agent 적용 및 MLOps 기반으로 산업 전반에 AI 운영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8) 삼성전자의 경우 ****프로젝트를 2024년 수주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후 FDC체계구축과 HVAC 설치 자동제어 등의 추가과제를 계속 해서 수주했거나 협의중에 있습니다.
- 주9) 효성중공업의 변압기3D 도면검토 자동화 관련 프로젝트는 동사의 도면검토Agent인 DrawX를 기반으로 신규 산업영역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10) SK온 「AXIS/ATIS Crack 비전검사 모델 운영고도화」의 경우는 전세계의 SK온 공장들에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배터리 데이터의 복잡성과 고도의 보안의 필요성 때문에 동사와 지속적으로 모델운영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4~5개의 공장에서 지속적인 고도화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11)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25년부터 두산그룹과의 전사적인 AI 협력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매년 15억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12) 한국타이어의 경우 생성형AI를 이용한 타이어 디자인패턴 생성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 주13) 부산시의 스마트양식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동사의 Runway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시작으로 향후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센터 구축에 Runway제품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14) YES24는 SFC 물류 AI 시스템 구축 위한 AI 모델 개발과 운영체계를 동사와 계약하였습니다. 이는 동사가 제조업에서뿐 아니라 물류,유통의 산업분야로 확장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15) 일본 현지법인은 2025년 설립되어 설립해에 혼다PoC, 후지코시 챗봇, 아오야마 건축서자동추출 PoC 등 몇 건의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본 현지의 보수적인 영업환경으로 인해 빠른 확장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나 설립이후 미쓰비시상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영업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행한 PoC의 결과가 좋아 본과제로의 확장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주16) 대외비 성격의 내용은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동사의 2026년 매출추정액 22,493백만원 중 기존거래처에서의 매출액은 14,306백만원(63.6%)이며 신규 확장 매출은 8,187백만원(36.4%)입니다. 2026년 기존 및 신규거래처 매출유형 구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존 및 신규거래처 매출유형 구분]

(단위: 백만원)

거래처분류	매출분류	주요 고객사	매출액	비고
기존거래처	제품및서비스매출	삼성전기, ADD, 국방부 등	5,197	-
	용역매출	삼성전자, 두산에너지빌리티	6,095	-
	복합(제품+용역)매출	합동참모본부, 산자부AX사업 등	3,013	제품,용역비중(6:4)
	계		14,305	-
	제품및서비스매출	부산시, 한국크레딧뷰로 등	1,886	-
	용역매출	엔텔스, 덴소코리아, DI 등	2,739	-

거래처분류	매출분류	주요 고객사	매출액	비고
신규거래처	복합(제품+용역)매출	IITP, SL, 산자부 등	3,563	제품,용역비중(6:4)
	계		8,188	-
합계	제품및서비스매출	삼성전기, 부산시 등	7,083	-
	용역매출	삼성전자, 엔텔스 등	8,834	-
	복합(제품+용역)매출	합동참모본부, 산자부 등	6,576	-
	계		22,493	-

2025년 매출실적(11,459백만원) 대비 기존거래처에서의 매출은 24.8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고객사의 AI 적용 범위 확장과 Runway 라이선스 갱신에 의한 자연 성장분입니다. 또한, 신규 확장매출 8,188백만원은 주로 국방분야에서의 동사의 영업기회 증대와 정부 R&D과제(열공정 파운데이션 모델, AX실증산단 등) 매출로 구성됩니다. 신규 확장매출의 경우 기존의 거래처에서 새로운 추가 확장기회가 발생하거나 국방분야의 성장처럼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를 시작으로 합동참모본부로 이어지고 이후 육해공 3군으로 확장되는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인된, 2026년 3월말 기준 수주잔고 중 2026년 중 확정적으로 인식될 영업수익은 약 131억원이며, 이는 당사의 2026년도 추정 영업수익 약 224억원의 58.5%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영업수익 중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용역매출의 경우 수주총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의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향후 수익으로 인식될 규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말 기준 수주잔고는 146억원으로서, 이는 2025년말 이전에 수주한 건 중 이월된 수주잔고 71억원 및 2026년 1분기 중 신규 수주한 금액 7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말 이전 수주잔고 이월액 71억원 중 2026년 중 수익으로 인식될 금액은 62억원이며, 나머지 9억원은 2027년 이후 수익으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1분기 중 신규 수주한 금액 75억원 중 2026년 중 수익으로 인식될 금액은 69억원이며, 나머지 6억원은 2027년 이후 수익으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즉, 2026년 3월말 기준 수주잔고 146억원 중 2026년 중 131억원이 수익으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말 수주잔고 중 2026년 중 확정적으로 인식될 영업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3월말 수주잔고 중 2026년 중 확정적으로 인식될 영업수익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전기이월/ 신규 수주	2026년 중 수익 인식액	2027년 이후 수익 인식액
2025년 및 이전 수주잔고	7,146	6,232	914
2026년 신규 수주	7,497	6,912	585
합 계	14,643	13,144	1,499

(출처: 당사 내부자료)

상기 영업수익은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적으로 인식될 금액임에 따라, 향후 AI 도입에 따른 성과가 확인되면서 고객사와의 신규 계약 체결에 따른 수주 증가로 인해 추가 영업수익이 발생할 것을 고려할 때, 당사가 추정한 2026년 영업수익 달성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2027년 매출추정액 37,381백만원 중 일본법인에서의 매출액은 800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동사는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제조업 고객을 중심으로 PoC 수행을 기반으로 한 후속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법인 추정 매출액은 나치-후시코시, 요코가와 전기, 혼다, 아오야마 등 일본 제조업 고객의 AI 기반 공정 자동화, 지식검색 고도화 및 예지보전 프로젝트와 미쓰비시 상사와의 협업을 통한 Physical AI 관련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고객사 및 주요 프로젝트별 일본법인 매출 추정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사 및 주요 프로젝트별 일본법인 매출 추정 상세]

(단위: 백만원)

고객사	주요 프로젝트	매출유형	2027년			
			계약금액	매출인식 대상액	수주확률	매출금액
나치-후시코시	생성형 AI 기반의 지식검색 고도화	용역매출	100	100	50%	50
나치-후시코시	AI기반 협동로봇 예지보전	용역매출	100	100	50%	50
요코가와 전기	DCS 테스트 자동화 AI Agent	용역매출	200	200	50%	100

혼다	AI기반 절삭공정 자동화	용역매출	200	200	50%	100
아오야마	DrawX(마키나락스 도면 검토 AI)	용역+제품	100	100	50%	50
미쓰비시 상사	Physical AI(AI기반 설비제어) 협업	용역매출	700	700	50%	350
미쓰비스 상사	관계사(아지노모토) AI PoC	용역매출	200	200	50%	100
합 계			1,600	1,600	50%	800

(출처: 동사 내부자료)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수주 완료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한 계약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 최근 사업연도(2026년) 신규수주]

(단위: 백만원)

산업분야	고객사	주요 프로젝트	매출유형	계약금액	비고
기타	한국수자원공사	Runway) 디지털실증랩 기능 개선(주사업자 : 메이아이)	용역매출	25	-
기타	이연F&C	AI프로젝트) 수요예측 값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API 연동개발	용역매출	2	-
반도체	뉴파워플라즈마	Runway) 런웨이 구독 라이선스 다년 계약으로 전환	제품매출	280	-
기타	산기평	Runway) 반도체 설비 LLMOps 기반 설비운영 AI Agent 구축	용역매출	350	-
에너지	두산에너지빌리티	AI프로젝트) PoC 후속 본과제(1. MDL 생성, 2. ASME 고도화, 3. DI ET고도화, 4. 비전 확장, 5. 풍력 확장)	용역매출	1,000	-
중공업	효성중공업	AI프로젝트)도면 기반 견적원가+절대원가 자동화	용역매출	795	-
중공업	삼성중공업	AI프로젝트) 용접 심트래킹 후속 Classification 개발	용역매출	90	-
기타	부산시	Runway) 스마트 양식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제품매출	535	-
전기전자	일본법인	AI프로젝트) DCS 테스트 자동화(Yokogawa Electric 향)	용역매출	45	-
기타	SMPMC	AI프로젝트) 하남 스타필드 빙축열 제어최적화	용역매출	294	신규
자동차	현대자동차	AI프로젝트) RPMS 확대 적용_전주공장	용역매출	80	신규
기타	중기부	R&D)AAS Assist 포털 구축 + 실증 사업	정부과제	235	신규
2차전지	SK온	AI프로젝트) AXIS 배후검사 미국 조지아 BA	용역매출	300	-
2차전지	SK온	AI프로젝트) AXIS 배후검사 헝가리 OH2	용역매출	300	-
2차전지	SK온	AI프로젝트) AXIS 배후검사 헝가리 BM	용역매출	180	-
2차전지	SK온	AI프로젝트) 배후검사 중국 OJ	용역매출	178	-
국방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Runway) 국방AI교육센터 MLOps 플랫폼 구축	제품매출	100	-
전기전자	삼성전기	Runway) 런웨이 구독 라이선스 계약	제품매출	95	-
에너지	DI	AI프로젝트) GTS Phase 2 기획 컨설팅	용역매출	40	-
에너지	DI	AI프로젝트) GTS M3-M4 ('26년 3월 ~ '26년 8월)	용역매출	400	-
국방	국방과학연구소	AI프로젝트) 국방 무기체계용 AI 참모 Agent 개발환경 구축	용역매출	1500	-
반도체	세메스	AI프로젝트) 데이터 파싱 및 메뉴얼 VectorDB 구축	용역매출	400	신규
반도체	삼성디스플레이	Runway) 런웨이 기반 VisionOps 구축	제품매출	270	신규
계				7,494	-

2) 2028년~2030년 매출 추정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매출증가율은 'MLOp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7 [MarketsAndMarkets(2022)]'상의 미국을 제외한 AI Platform 성장률(32.6%)과 AI Consulting(Service) 성장률(33.2%)을 고려하였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성장률 산정 내역]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	예상 시장규모		예상성장률	비고
		2026(E)	2027(E)		
AI Platform	아시아태평양 지역	640.0	857.1	33.9%	-
	기타지역	1,500.8	1,969.3	31.2%	(주1)
	평균			32.6%	-
AI Consulting	아시아태평양 지역	224.9	302.7	34.6%	-
	기타지역	527.3	696.5	31.9%	(주1)
	평균			33.2%	-

(출처: MLOp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7 [MarketsAndMarkets(2022)])

주1) 전체 시장규모에서 북미지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제외한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예상 시장규모입니다.

다만, Runway 제품매출의 2027년 추정 매출성장률은 109.9% 수준임에 따라 이후 3개년동안 매출성장률이 선형으로 하락하여 2030년에 32.6%로 수렴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AI 컨설팅 용역매출의 경우 매출 성장에 따른 인력 증가 효과로 인한 Capa 제약을 고려하여 시장성장률보다 10% 이상 낮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21.3%의 성장률을 가정하였습니다.

[2028년~2030년 매출 증가율 가정]

구분	매출증가율 가정
	사업계획 기반 추정 매출에서 산정한 2027년의 매출 성장률에서 2030년 성장률(32.6%)까지 수렴하는 형태로 3가지 시나리오 모두 구성하였으며 Best case에서 Worst case로 갈수록 2028년과 202

구분	매출증가율 가정
Runway 제품매출	9년의 성장률이 더 높은 감소폭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Best case의 경우 선형으로 매년 같은 비율로 감소하여 2030년에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Base case의 경우 선형에서 1.2배 수준으로 급속히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Worst case의 경우는 2배수준으로 더 급속히 감소하여 2029년부터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였는데, 이는 Runway 제품매출의 성장률이 급속하게 하락할수록 사업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AI 컨설팅 용역매출	Best case에서는 제품(Runway)의 경우와 동일한 수렴방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Base case와 Worst case의 경우는 글로벌 평균성장률(33.2%)보다 10%이상 하락한 21.3%~22.8%로 동일한 증가율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용역(AI Consulting)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 제품과 다르게 인력의 증가를 동반하게 됨으로 용역 매출성장률을 낮게 가정함으로써 인력의 Utilization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동사의 인력계획은 3가지 시나리오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제품(Runway)기반의 매출확대가 부족한 용역(AI Consulting)의 성장은 수행인력의 부족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제품(Runway)의 매출비중에 맞추어 성장률을 수정하였습니다.

각 연도 별 추정 매출 증가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적용 추정 매출증가율]

구분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Runway 제품매출	166.2%	109.9%	79.0%	48.0%	32.6%
AI 컨설팅 용역매출(주2)	62.2%	24.3%	21.3%	21.3%	21.3%
제품매출 비중	48.9%	61.8%	70.5%	74.5%	76.1%

동사는 Runway 제품매출의 과거 높은 성장률을 감안하되, 향후 장기적으로는 시장 평균성장률에 수렴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한편, 성장률의 수렴에 대한 가정 적용 시 매년 성장률이 선형으로 감소하지 않고,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선형을 가정한 성장률 감소폭 대비 20%만큼 추가로 가속하여 장기 평균성장률에 수렴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만약, 2027년 109.9%에서 2030년 32.6%로 성장률이 선형으로 감소할

경우를 가정한 연도 별 Runway 제품매출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구분	2027(F)	2028(F)	2029(F)	2030(F)
Runway 성장률	109.9%	84.1%	58.4%	32.6%
증감	-	25.8%	25.7%	25.8%

다만, 상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사는 선형에서 20% 가속하여 매년 $25.8\% \times 1.2 = 30.9\%$ 만큼 감소하여 2030년에는 32.6%로 수렴하고, 2028년과 2029년에 Runway 성장률이 20% 추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

구분	2027(F)	2028(F)	2029(F)	2030(F)
Runway 성장률	109.9%	79.0%	48.0%	32.6%
증감		30.9%	31.0%	15.4%

AI 컨설팅 용역매출 성장률의 경우, 장기적인 시장성장률도 중요하나 동사의 인력계획에 따른 인원 투입량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8년 이후 성장률 적용 시 글로벌 장기평균성장률 대비 11.9% 낮은 수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참고]

상기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사의 사업계획은 여러 가정과 예측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과는 추정치와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7년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이 지연되거나 달성되지 못할 경우, 동사의 재무 안정성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사의 미래 추정손익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에서는 사업계획 추정에 있어 수주단계에 대한 확률을 달리 적용하여 보수적, 중립적,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으며, 각 시나리오의 경우 수주단계에 따른 확률을 상이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각 시나리오별로 적용한 단계별 수주 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등급 별 기준 및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수주확률]

구분	보수적(Worst)	중립적(Base)	낙관적(Best)
계약완료	92%	95%	100%
S급	92%	95%	100%
A급	67%	70%	80%
B급	47%	50%	60%
C급	-	-	40%
D급	-	-	-

보수적, 중립적, 낙관적 시나리오의 가정의 실현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 매출액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적(Worst) 시나리오

[보수적(Worst) 시나리오 기준 매출액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Runway 제품매출	8,684	20,284	33,720	44,702	59,262
AI 컨설팅 용역매출	9,839	12,767	15,678	19,252	23,642
합 계	18,523	33,051	49,398	63,954	82,904

2) 중립적(Base) 시나리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매출액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Runway 제품매출	11,008	23,110	41,364	61,236	81,180
AI 컨설팅 용역매출	11,485	14,272	17,311	20,999	25,471
합 계	22,493	37,382	58,675	82,235	106,651

3) 낙관적(Best) 시나리오

[낙관적(Best) 시나리오 기준 매출액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Runway 제품매출	13,129	27,379	50,163	79,204	105,001
AI 컨설팅 용역매출	15,604	16,662	19,261	23,965	31,933
합 계	28,733	44,041	69,424	103,169	136,934

(나) 영업비용

동사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타영업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영업비용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인건비	15,360	19,067	24,563	28,722	31,513
소모품비	1,908	4,683	7,906	9,729	11,152
지급수수료	3,907	4,747	5,719	6,890	8,300
기타영업비용	3,575	3,987	4,604	5,454	6,657
합 계	24,750	32,484	42,792	50,795	57,622

1) 인건비 추정 근거

인건비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인건비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급여	8,654	10,772	13,877	16,227	17,804
퇴직급여	1,074	1,337	1,723	2,014	2,210
세금과공과	582	725	934	1,092	1,198
보험료	718	893	1,151	1,346	1,476
경상연구개발비	4,289	5,339	6,878	8,043	8,824
주식보상비용	43	-	-	-	-
합 계	15,360	19,066	24,563	28,722	31,512

동사는 임직원을 총 5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등급별로 표준급여를 산정하고 있으며, 인원계획은 매년 매출계획에 따라 필요인원을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인력계획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인력계획 추정 내역]

(단위: 명)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임직원수	133	160	204	234	250

총급여(급여 및 경상연구개발비)는 상기 인력계획에 근거하여 각 직급 별 평균급여를 바탕으로 추정하였으며, 매년 3.5%의 급여 상승률만큼 인당 평균급여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동사의 직급 별 평균 연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직급 별 평균급여 현황]

(단위: 원)

구분	직급	2025년 평균급여
팀원	L1	55,000,000
팀원	L2	85,000,000
팀장	L3	115,000,000
팀장	L4	145,000,000
C-Level	L5	175,000,000

한편, 추정된 총급여 중 급여 및 경상연구개발비 금액은 2024년 기준 총급여 대비 손

익계산서 상 급여 및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급여의 1/12만큼 발생함에 따라, 급여 대비 비율(8.3%)을 적용하였으며, 보험료 및 세금과공과는 4대보험 요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습니다.

[보험료 및 세금과공과 4대보험 요율 적용 내역]

구 분	계정과목	요율(%)
국민연금	세금과공과	4.50%
건강보험	보험료	3.55%
장기요양	보험료	12.81%
고용보험	보험료	0.90%
산재보험	보험료	0.64%

주식보상비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 총보상원가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 소모품비 추정 근거

소모품비는 제품매출의 하드웨어(HW) 공급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모품비와 일반 소모품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소모품비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하드웨어 소모품비	1,625	4,333	7,445	9,185	10,553
일반 소모품비	283	351	460	544	599
합계	1,908	4,684	7,905	9,729	11,152

제품매출의 하드웨어(HW) 공급과 관련하여, 2025년부터 당사는 대규모의 시스템 공급을 하면서 Runway License 매출을 극대화하는 제품판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정책이 향후 지속될 것임을 고려하여, 2026년과 2027년 매출 추정에서 하드웨어 공급이 필수적으로 추가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30%를 하드웨어 비용(소모품비)로 가정하였습니다.

[2026년 및 2027년 하드웨어 소모품비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계약금액	5,417	14,442
하드웨어 적용비율	30%	30%
하드웨어 소모품비	1,625	4,333

일반적으로 동사의 계약 중 하드웨어 매출이 수반되는 하드웨어 매출 비중은 약 20% 초반 정도로 파악됩니다. 다만 국방 분야의 경우 초기 침투 전략으로써 하드웨어 매출의 비중이 높으며, 이를 고려하여 30% 수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6년 하드웨어 매출을 수반하는 거래처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등 총 5개의 거래처에서 6개의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모두 군 관련 업체로서, 사업계획 또는 입찰공고가 발표될 때 대부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의 비중이 개략적으로 표시되어 공고됩니다. 2025년 대표적인 하드웨어 매출을 포함하는 Runway 매출처인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1,818백만원 계약총액에서 하드웨어 금액은 489백만원으로 26.9%의 비중이었습니다. 향후 계약이 기대되는 군 관련 거래처의 경우 대부분 국방과학연구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드웨어 비중을 산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는 산정한 30% 수준은 적절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7년 하드웨어 매출을 수반하는 거래처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총 9개의 거래처에서 12개의 계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의 경우 역시 2026년과 마찬가지로 군관련 거래처가 전부임에 따라, 2027년도 2026년과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하드웨어 매출과 관련하여, 통상 10% 이하 수준으로 마진이 발생하고 있으나, 보수적으로 마진율을 "0"으로 가정하여 소모품비와 하드웨어 매출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중 제품(Runway) 매출액 대비 예상되는 하드웨어 매출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18% 수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후 2028년은 동일하게 18%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8년 이후 Runway 제품의 완성도 증가로 인해 AI OS(AI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로서 시장에서 포지셔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온프레미스나 엣지디바이스의 설치 중심에서 SaaS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확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Runway 제품매출에서 하드웨어를 포함한 매출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2029년 및 2030년은 전체 제품매출액의 15%, 13%를 가정하였습니다.

[2028년 ~ 2030년 하드웨어 소모품비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제품매출	41,364	61,236	81,180
하드웨어 적용비율	18%	15%	13%
하드웨어 소모품비	7,445	9,185	10,553

일반 소모품비는 2025년 인당 소모품비가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3%만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인력계획에 따른 인원수에 인당 소모품비를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일반 소모품비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인원수(단위: 명)	133	160	204	234	250
인당 소모품비(단위: 원)	2,127,386	2,191,207	2,256,943	2,324,652	2,394,391
일반 소모품비	283	351	460	544	599

3) 지급수수료 추정 근거

[지급수수료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수수료비용	2,529	3,035	3,642	4,370	5,244
외주용역비	1,378	1,713	2,077	2,520	3,057
합계	3,907	4,748	5,719	6,890	8,301

지급수수료는 수수료비용과 외주용역비의 합산으로 구성됩니다. 수수료비용은 컨설팅비 등의 수수료로서, 2025년 실제 금액에서 매년 20%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동사의 향후 해외 진출 등과 관련하여 외적으로 동사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매출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컨설팅비와 같은 지급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율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Worst 기준 30%부터 Best 기준 10%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동사의 지급수수료는 2023년과 2024년 상장 준비를 위한 법률, 회계, 특허 등의 컨설팅으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각각 45%, 82%의 증가하여 비정상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2025년에 수익성 강화 기조에 따라 매출과 연계되지 않는 컨설팅 등의 감소로 인해 매출 증가와 외주용역비의 추가 발생에도 불구하고 8%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동사는 2024년까지는 용역의 외주비율이 거의 없었으나 2025년부터 용역의 증가와 수익성 강화 기조에 따라, 핵심기술이 아닌 경우 외주를 활용함에 따라 용역 매출액의 12% 정도 규모에 대해서는 외주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지급수수료 증가율이 8% 수준임에 따라 향후 수수료비용의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외주용역비의 경우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외주를 의뢰하지 않는 동사의 방침에 따라 용역매출액의 12%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외주용역비는 매년 용역매출액의 12%로 동일하게 추정하였습니다.

4) 기타영업비용 추정 근거

[기타영업비용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복리후생비	426	530	699	830	918
여비교통비	321	398	523	617	679
접대비	235	282	339	406	488
통신비	107	110	113	117	120
전력비	12	14	19	22	25
감가상각비	818	949	1,160	1,345	1,073
사용권자산상각비	757	620	436	560	1,556
지급임차료	12	14	19	22	25
운반비	3	3	3	3	3
교육훈련비	9	11	14	17	18
도서인쇄비	28	35	46	54	59
건물관리비	158	190	242	278	297
광고선전비	588	706	847	1,017	1,220
협회비	15	16	16	17	17
무형자산상각비	88	109	129	149	159
합계	3,577	3,987	4,605	5,454	6,657

임직원수에 연동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지급임차료,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이며, 해당 비용은 인력계획에 근거하여 1인당 비용을 명목임금상승률(3.5%)과 물가상승률(3%)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는 유·무형자산의 취득가액 및 상각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 호 리스 회계처리 적용으로 임차건물 등 대상 리스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용권자산(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 스케줄에 따라 상각비를 추정하였습니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는 과거 3개년(2023년에서 2025년까지)의 증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변동되어 적당한 할인율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및 2025년의 증가율은 각각 20%, 71%, 8%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은 신규 영역의 영업 목적의 접대비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2025년부터는 안정적인 8% 증가세를 이루고 있으며 접대비 사용에 대한 동사 규정 적용이 엄격해짐에 따라 2025년부터는 증가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접대비는 2026년부터 매년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보수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3년부터 국내영업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참여함에 따라 2023년의 광고선전비 증가율은 263%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은 동사가 최초로 「ATTENTION」이라는 동사 주최의 플래그십 AI 컨퍼런스 개최를 시작으로 이후 매년 이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적 효과와 AI 산업 선도에 대한 동사의 이미지 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의 영향으로 2024년 증가율은 67% 였으며, 이후 2025년부터는 기존의 마케팅 활동을 수익성 강화 기조에 맞게 불필요한 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과거 경험율상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재편하면서 증가율이 (-)23%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동사는 수익성 강화 기조에 맞춰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계속적으로 선별하여 참여할 예정임으로 2023년이나 2024년 같은 수준의 광고선전비 증가는 향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광고선전비가 2025년과 같이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나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비용의 급속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20%의 증가율을 가정하였습니다.

[참고]

상기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영업비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사의 사업계획은 여러 가정과 예측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과는 추정치와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7년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이 지연되거나 달성되지 못할 경우, 동사의 재무 안정성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사의 미래 추정손익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사업계획 추정에 있어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영업비용 항목에 대해서도 보수적, 중립적, 낙관적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로 비용 증가율에 대한 가정을 상이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인력계획의 경우 매출 성장을 위한 최소 필요 수준의 수행 인력이 존재하고, 제품 영업 확대에 따라 용역매출 대비 제품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나리오별 매출 변동에 대응하여 인력 규모를 차등적으로 가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각 시나리오별로 적용한 주요 영업비용 증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나리오별 주요 영업비용 증가율]

구분	보수적(Worst)	중립적(Base)	낙관적(Best)
명목임금상승율	5.0%	3.5%	2.0%
소비자물가상승율	4.0%	3.0%	2.0%
지급수수료 등 증가율	30.0%	20.0%	10.0%

보수적, 중립적, 낙관적 시나리오별 주요 가정을 적용한 영업비용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적(Worst) 시나리오

[보수적(Worst) 시나리오 기준 영업비용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인건비	15,582	19,623	25,646	30,424	33,863
소모품비	1,699	4,067	6,548	7,276	8,338
지급수수료	3,878	5,038	6,444	8,246	10,560
기타영업비용	3,665	4,198	4,995	6,094	7,635
합 계	24,824	32,927	43,633	52,041	60,396

2) 중립적(Base) 시나리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영업비용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인건비	15,360	19,067	24,563	28,722	31,513
소모품비	1,908	4,683	7,906	9,729	11,152
지급수수료	3,907	4,747	5,719	6,890	8,300
기타영업비용	3,575	3,987	4,604	5,454	6,657
합 계	24,750	32,484	42,792	50,795	57,622

3) 낙관적(Best) 시나리오

[낙관적(Best) 시나리오 기준 영업비용 상세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E) (제10기)	2027년(E) (제11기)	2028년(E) (제12기)	2029년(E) (제13기)	2030년(E) (제14기)
인건비	15,138	18,518	23,510	27,093	29,294
소모품비	2,595	5,301	9,472	12,399	14,215
지급수수료	4,123	4,477	5,033	5,858	7,088
기타영업비용	3,486	3,790	4,264	4,937	5,925
합 계	25,342	32,086	42,280	50,287	56,522

(다) 영업외손익

영업외손익은 이자수익, 이자비용, 외환관련손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영업외손익 비용은 일회성 비용 성격의 계정이 주로 구성되어 있어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은 예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리스 회계처리에 따라 인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2025년 이자수익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리스 회계처리에 따라 인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리스 스케줄에 따라 향후에 인식될 금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자비용은 차입금 관련 이자비용 및 리스 회계처리에 따라 인식하는 이자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은 2025년 이자비용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리스 회계처리에 따라 인식하는 이자비용은 리스 스케줄에 따라 향후에 인식될 금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라) 법인세 비용

법인세비용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무조정, 이연법인세, 각종 공제, 감면 등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동사는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 누

적으로 인하여 2025년말 기준 약 14,884백만원의 이연법인세자산(회계 상 실현가능성이 낮아 미인식)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발생할 추가 결손금 및 2027년 이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금액 등을 고려시 결손금 공제로 인해 2030년까지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바. 기상장기업과의 비교 참고정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발행회사인 (주)마키나락스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엑셈,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총 4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주 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동사	엑셈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회계기준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별도
[유동자산]	17,850	96,311	58,817	78,461	38,679
[비유동자산]	4,231	62,692	15,212	100,573	9,674
자산총계	22,081	159,003	74,028	179,034	48,353
[유동부채]	7,242	17,347	5,286	45,946	11,139
[비유동부채]	391	661	1,033	11,160	5,214
부채총계	7,633	18,008	6,319	57,106	16,353
[자본금]	7,420	7,196	6,548	5,430	3,603

구 분	동사	엑셈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자본총계	14,448	140,995	67,710	121,927	32,000
매출액	11,459	47,763	34,730	93,938	31,448
영업이익(손실)	(8,041)	3,652	114	12,600	866
당기순이익(손실)	(13,774)	6,606	1,753	8,583	2,394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동사 및 유사기업 2024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동사	엑셈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회계기준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별도
[유동자산]	19,416	73,161	49,672	70,558	39,755
[비유동자산]	5,978	74,223	8,292	91,807	8,921
자산총계	25,394	147,384	57,964	162,365	48,676
[유동부채]	21,756	13,873	6,019	42,689	7,560
[비유동부채]	959	1,683	591	13,589	10,458
부채총계	22,714	15,556	6,610	56,278	18,017
[자본금]	6,547	7,196	6,069	5,346	3,603
자본총계	2,680	131,828	51,354	106,087	30,658
매출액	8,294	49,412	34,921	88,803	30,866
영업이익	-10,897	6,589	1,703	7,891	2,027
당기순이익	-6,073	9,062	3,051	10,806	3,683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주요 재무비율]

(단위: % 회)

구 분		동사	엑셈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성장성 비율	매출액증가율	84.2	-3.3	-0.5	5.8	1.9
	영업이익증가율	적자	-44.6	-93.3	59.7	-57.3
	당기순이익증가율	적자	-27.1	-42.5	-20.6	-35.0
	총자산증가율	-13.0	7.9	27.7	10.3	-0.7
활동성 비율	총자산회전율	0.6	0.3	0.5	0.6	0.6
	재고자산 회전율	-	-	-	-	-

구 분		동사	엑셀	와이즈넷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매출채권 회전을	5.6	5.9	10.6	5.0	3.5
수익성 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70.2	7.6	0.3	13.4	2.8
	매출액순이익률	-120.2	13.8	5.0	9.1	7.6
	총자산순이익률	-77.4	4.3	2.7	5.0	4.9
	자기자본순이익률	-214.5	4.8	2.9	7.5	7.6
	유동비율	246.5	555.2	1112.7	170.8	347.2
안정성 비율	부채비율	52.8	12.8	9.3	46.8	51.1
	차입금의존도	13.6	0.0	0.0	14.6	10.3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재무비율 산정방법 】

구 분	산 식	설 명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frac{\text{당기말 유동자산}}{\text{당기말 유동부채}} \times 100$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총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frac{\text{당기말 총부채}}{\text{당기말 자기자본}} \times 100$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frac{\text{당기말 차입금 등}}{\text{당기말 총자산}} \times 100$	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frac{\text{당기 영업이익}}{\text{당기 매출액}} \times 100$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	$\frac{\text{당기 당기순이익}}{\text{당기 매출액}} \times 100$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	$\frac{\text{당기 당기순이익}}{(\text{기초총자산} + \text{기말총자산})/2} \times 100$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	$\frac{\text{당기 당기순이익}}{(\text{기초자기자본} + \text{기말자기자본})/2} \times 100$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성장성 비율]		
	당기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

매출액 증가율	$\frac{\text{당기매출액}}{\text{전기매출액}} \times 100 - 100$	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는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frac{\text{당기영업이익}}{\text{전기영업이익}} \times 100 - 100$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	$\frac{\text{당기순이익}}{\text{전기순이익}} \times 100 - 100$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	$\frac{\text{당기말총자산}}{\text{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100$	기업에 투자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	$\frac{\text{당기 매출액}}{(\text{기초총자산}+\text{기말총자산})/2}$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	$\frac{\text{당기 매출액}}{(\text{기초재고자산}+\text{기말재고자산})/2}$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	$\frac{\text{당기 매출액}}{(\text{기초매출채권}+\text{기말매출채권})/2}$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2. 평가기관

구 분	증권회사(분석기관)	
	회사명	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주)	00111722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주)마키나락스의 기명식 보통주 2,635,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개년 및 당해사업연도 결산서, 감사/검토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

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 분	일 시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2025년 08월 06일
기업실사	2025년 08월 06일 ~ 2026년 03월 24일
상장예비심사 신청	2025년 11월 17일
상장예비심사 승인	2026년 02월 27일
증권신고서 제출	2026년 03월 25일

다.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주)마키나락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회사명	소속	직책	성명	담당업무	실사기간	경력
미래에셋증권(주)	IPO본부	본부장	김진태	IPO 총괄	2025년 08월 06일 ~ 2026년 03월 24일	기업금융경력 25년
	IPO1팀	팀장	하주선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총괄	2025년 08월 06일 ~ 2026년 03월 24일	기업금융경력 19년
		부장	원성연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책임	2025년 08월 06일 ~ 2026년 03월 24일	기업금융경력 9년
		과장	성명기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2025년 08월 06일 ~ 2026년 03월 24일	기업금융경력 4년
		대리	김지원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2025년 08월 06일 ~ 2026년 03월 24일	기업금융경력 2년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	직책	성명	담당업무
-	대표이사	윤성호	CEO
-	미등기임원	심상우	CTO

-	미등기임원	임용섭	CAIO
-	사내이사	허영신	CBO
-	사내이사	박민수	CFO
F&A팀	부장	장지선	회계/자금 총괄
F&A팀	매니저	오상명	회계
F&A팀	매니저	성제후	자금
F&A팀	매니저	용현주	총무

(3) 기업실사 항목

항 목	세부 확인사항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투자위험요소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자금의 사용목적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 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경영능력 및 투명성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 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

항 목	세부 확인사항
	보되었는지 여부 가.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다.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회사의 개요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3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사업의 내용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체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 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장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장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재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총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항 목	세부 확인사항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감사인인 감사의견 등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을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을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같음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총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이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채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의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	내용	조치 사항
1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	- 최대주주등은 3년에 대해서 의무보유등록 완료 및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 국거래소에 제출 완료
2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 최대주주등(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이재혁) 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 - 상장된 날 이후부터 3년 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하기 로 상호 약정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최대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 윤성호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 확보
3	3개사와의 거래에 대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을 확약	- 과거 A사, B사, C사 간 거래 관련하여, 기재된 거래 외 현재까지 별도로 체결된 계약, 부속합 의, 구두약정, 지급보증, 특수조건부 약정 기타 법률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일체의 합의가 존 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 상장 이후 마키나락스에 불리한 조건으로 상기 3개사와 거래를 체결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 을 확약

1)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

동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1항에 따라 일부 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의무보유확약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현황]

(단위: 주)

회사와의 관계	주주명	주식의 종류	보유주식		매각제한 물량		유통가능 물량		규정 상 의무보유 기간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총 의무보유 기간 합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윤성호	보통주	1,824,000	12.29%	1,824,000	12.29%	-	-	1년	2년	3년
최대주주등	심상우	보통주	1,216,000	8.19%	1,216,000	8.19%	-	-	1년	2년	3년
최대주주등	임용섭	보통주	1,216,000	8.19%	1,216,000	8.19%	-	-	1년	2년	3년
2대주주	이재혁	보통주	1,221,016	8.23%	1,221,016	8.23%	-	-	-	3년	3년

주1) 지분율은 공모 전 발행주식총수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전량을 2026년 3월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입고하였으며, 동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매가 제한됩니다.

최대주주등 중 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2년 연장 확약 및 2대주주 이재혁 1인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3년

연장 확약은 상장 이후 최대주주 지분의 단기간 내 매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시장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을 감소시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을 통한 경영안정성 강화

동사의 최대주주등 중 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 이재혁 1인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의무보유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최대주주 우호 지분 의무보유 및 공동목적보유 현황]

주주명	관계	공모후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	지분율	확약 주식수	지분율	확약 기간
윤성호	최대주주 (대표이사)	1,824,000	10.39%	1,824,000	10.39%	3년
심상우	미등기임원	1,216,000	6.93%	1,216,000	6.93%	
임용섭	미등기임원	1,216,000	6.93%	1,216,000	6.93%	
이재혁	기타	1,221,016	6.96%	1,221,016	6.96%	
합계		5,477,016	31.20%	5,477,016	31.20%	-

(출처: 동사 내부자료)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3개사와의 거래에 대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을 확약

동사는 한국거래소 요청에 따라 동사와 A사, B사, C사 간의 과거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기재된 거래 외 현재까지 별도로 체결된 계약, 부속합의, 구두약정, 지급보증, 특수조건부 약정 기타 법률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일체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사는 향후 상장이 완료된 이후, 동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상기 3개사와 거래를 체결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조건은 관련 법령, 상장규정 및 일반 상관행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래를 체결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본 약속 사항을 위반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거래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동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나)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동사의 금번 공모의 경우 주관회사 내부위원회 개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사내규정 중 심사일반규정 "[별표1]위원회, 운영위원회 승인 금융투자의 건" 내용에 의거하여 IPO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공모금액 3,000억원 초과 달의 경우 투자심사운영위원회의 승인 금융 투자의 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공모의 경우 공모금액이 3,000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주) 내부적으로 투자심사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액인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IPO본부장의 승인 및 법무담당, 준법지원담당, 기업금융심사담당, 준법감시담당, 리스크관리담당의 협조를 통해 금번 공모의 지분증권 관련 총액인수를 검토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개정된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우 금번 공모와 같이 수요예측을 통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 공모가격의 결정(공모희망가격의 범위 산정 및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을 포함)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모가격의 결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동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 상황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동사가 속해 있는 Enterprise AI Platform 시장은 2025년 들어 보안 위협 심화와 기술 융합 가속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전환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 Ernst & Young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Enterprise AI Platform 전체 시장이 연평균 34.7%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보안과 성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조업과 국방 등 주요 목표 산업에서 Hybrid 및 On-premise 솔루션의 성장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보안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폐쇄망 특화 AI 플랫폼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가) 동사 관련 시장 정의

동사는 주력 제품인 Runway를 기반으로 제조 및 국방을 포함한 국내외 산업 영역(Vertical Industries)의 기업과 기관 고객에게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버티컬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동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속성에 따라 구분되며, 사업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제공되는 솔루션은 ① 예지보전·예측·최적화 관련 현장 문제 해결형 AI 솔루션, ② 생성형 AI를 활용한 특정 목적의 AI Agent, ③ 버티컬 AI 솔루션을 직접 개발·배포·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구분됩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사의 총 잠재 시장(Total Addressable Market, TAM), 서비스 가능 시장(Service Addressable Market, SAM), 서비스 확보 시장(Service Obtainable Market, SOM)은 아래 표와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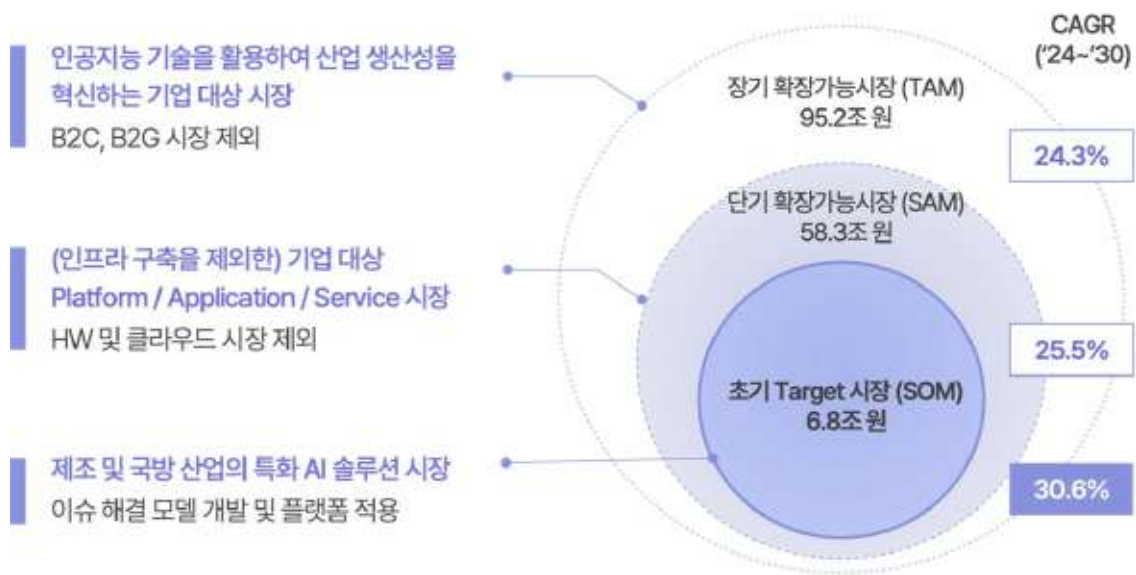
[동사 관련 시장의 정의]

구분	설명
동사 총 잠재 시장 (TAM)	Enterprise AI 시장 - 시장 조사기관의 시장 분류를 고려하여 이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시장 - Enterprise AI 시장을 기술과 산업으로 세분하며 산업에 따라서는 제조, 금융, 공공, 국방 등으로 구성 - 장기 확장 가능 시장
동사 서비스 가능 시장 (SAM)	Platform/Application/Service 시장 - Enterprise AI 시장 내 기술항목에 따른 세분류로 구분되는 시장 - HW 시장과 Cloud 시장(SW_Infrastructure)을 제외한 시장으로 Service 시장의 경우 구분이 불명확하고 솔루션을 통해 대체 가능한 시장이므로 포함 - 단기 확장 가능 시장
동사 서비스 확보 가능 시장 (SOM)	제조 및 국방 분야 특화 AI 솔루션 시장 - Enterprise AI시장 내 Platform / Application / Service 시장 내 세부 시장을 산업 분류에 따라 구분 시 제조 및 국방(국방) 분야 시장 - 국방 AI 분야는 폐쇄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기 Target 시장 관점에서는 글로벌이 아닌 국방 분야로 한정 - 초기 Target 시장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동사 내부자료)

글로벌 AI 시장 분석 결과를 상기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동사의 총 잠재시장(TAM)은 2024년 현재 글로벌 기준 약 95.2조원 시장이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4% 성장이 예상됩니다. 서비스 가능 시장(SAM)은 2024년 현재 글로벌 기준 약 58.3조원 규모이며 2030년까지 연평균 26% 성장이 전망되며, 서비스 확보 가능 시장(SOM)은 2024년 현재 글로벌 기준 약 6.8조원 시장 규모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30.6%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 관련 시장 현황 및 전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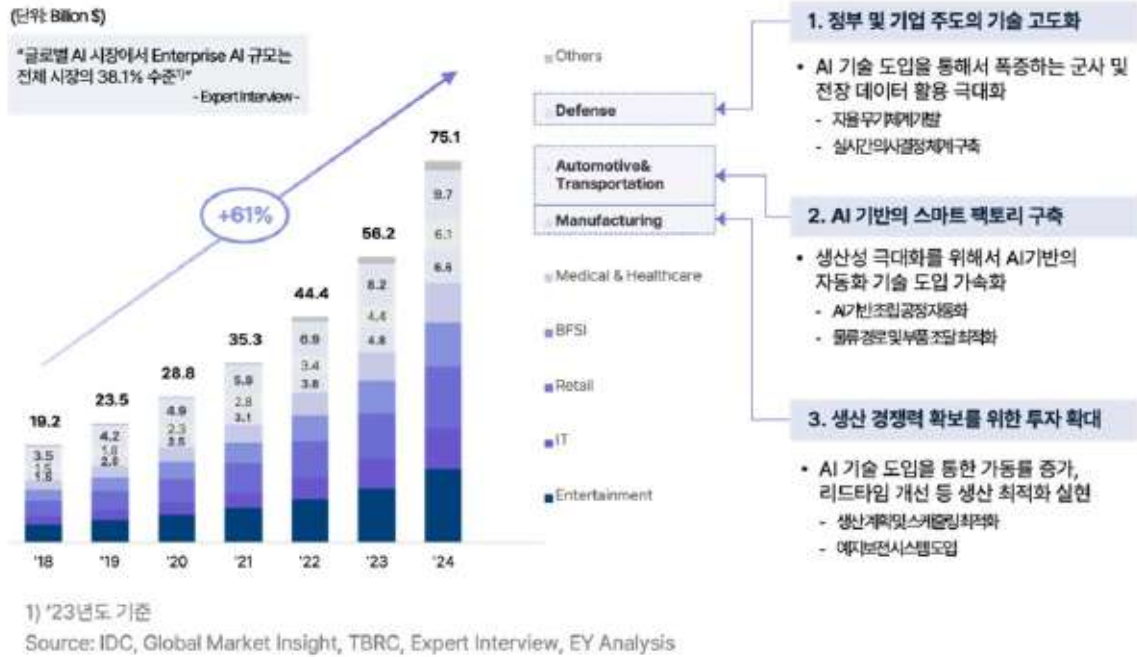
동사 관련 시장 현황 및 전망 요약

(나) 동사 관련 시장 현황 및 전망

1) Enterprise AI 시장 현황 및 전망

글로벌 Enterprise AI 시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연평균 24% 성장하여 2024년 말 현재 약 95조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산업별로 볼 때 방위 산업, 자동차 산업 및 제조 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운영 효율성 개선 니즈로 인해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nterprise AI 시장(by industry)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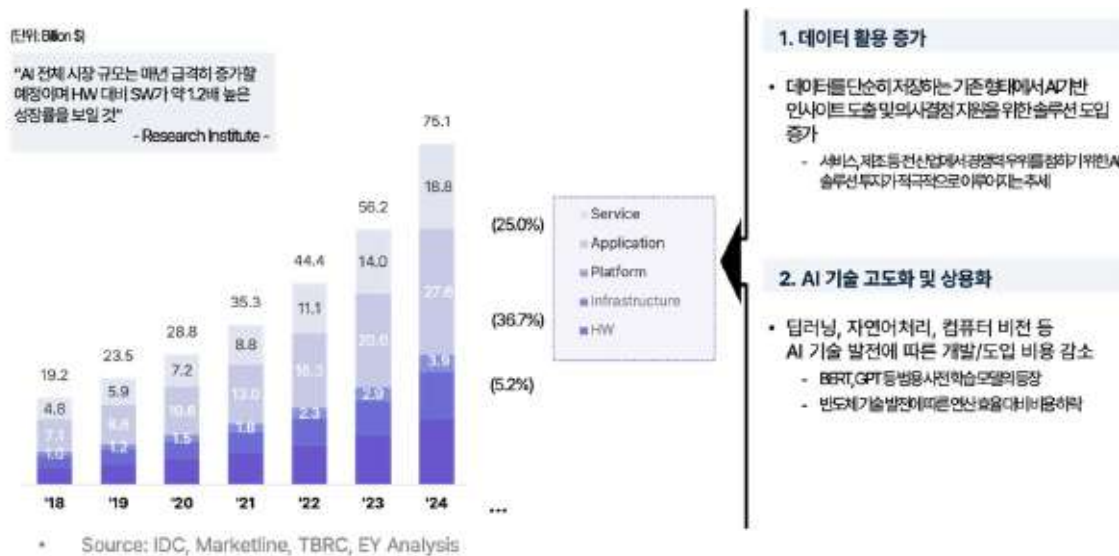


enterprise ai 시장(by industry) 분석 결과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기술 항목별로 보면, 하드웨어(Hardware, 이하 HW)와 인프라(Infrastructure)를 제외한 Service, Application, Platform 등 소프트웨어(Software, 이하 SW)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체의 약 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도입 비용이 감소하며, HW대비 SW가 향후 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nterprise AI 시장(by Item)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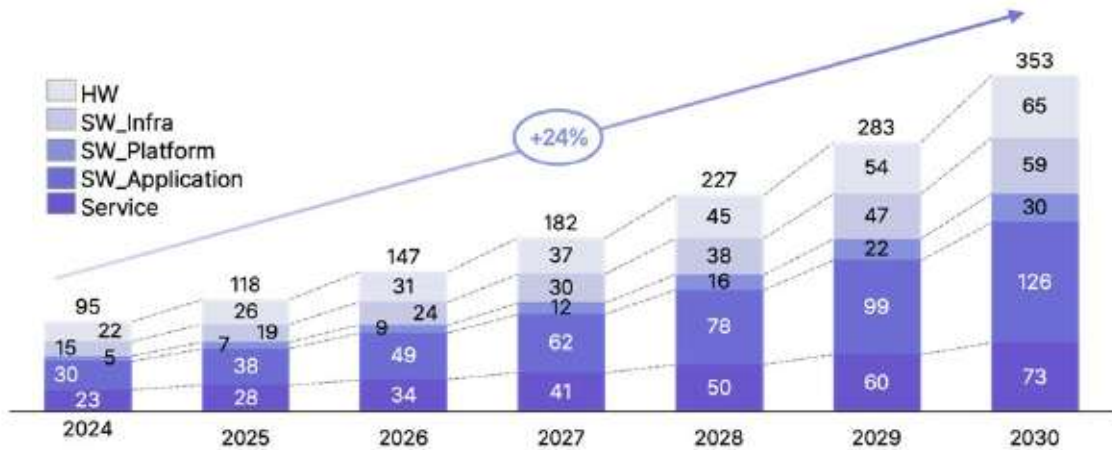
enterprise ai 시장(by item) 분석 결과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글로벌 Enterprise AI 시장은 향후에도 24%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2030년 약 35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항목 기준으로 볼 때 시장 성숙에 따라 Application 시장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Platform 시장이 연평균 34% 수준으로 가장 빠르게 확장하여 현재 5조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약 30조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nterprise AI 시장 전망]

(단위: 조원)



enterprise ai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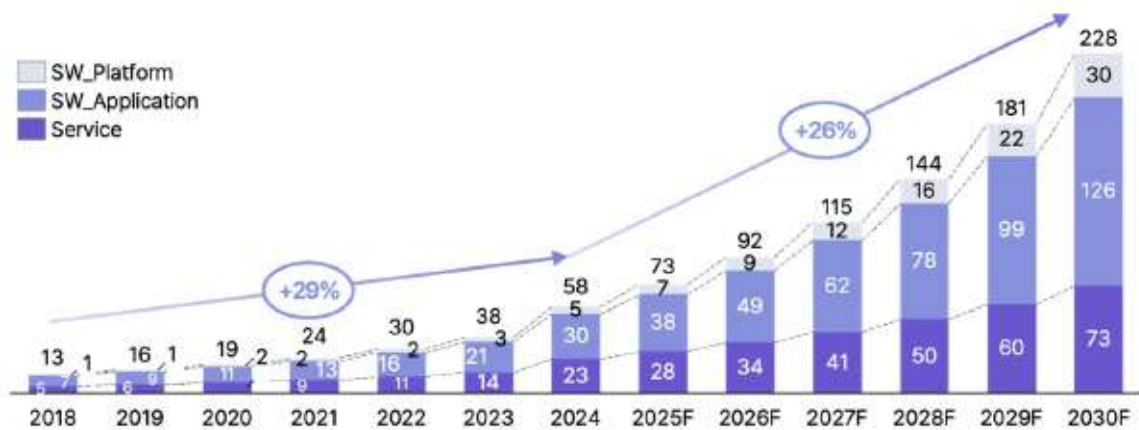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2) Platform/Application/Service 시장 현황 및 전망

Enterprise AI 시장에서 단기간 내 확장 가능한 Platform, Application 및 Service 시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연평균 29% 성장하여 2024년말 기준 약 58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평균 26% 성장하여 2030년 228조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연평균 성장세는 Platform 시장이 34%, Application 시장 27%, Service 시장 21%로 전망됩니다. 이는 시장 발전에 따라 모든 세부 시장이 함께 성장하기는 하나, 기술 발전에 따라 Platform과 Application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Service를 통해 제공되던 수요들이 점진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nterprise AI 시장 내 Platform 및 Application 시장 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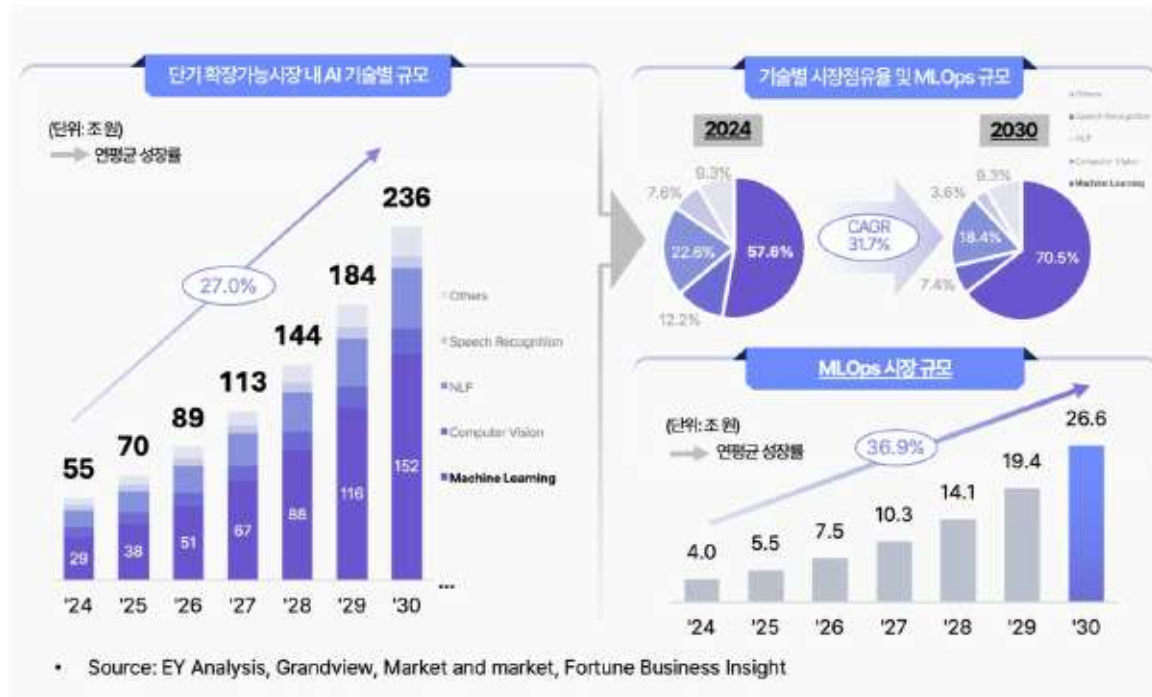


enterprise ai 시장 내 platform 및 application 시장 전망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Platform, Application, Service 시장을 구성하는 세부 AI기술 관점에서는 광범위한 Machine Learning 기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이러한 Machine Learning 기술에 기반하여 개발 및 활용되는 모델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MLOps(Machine Learning Operations)에 대한 수요는 연평균 3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 확장가능시장(Platform/Application /Service) 내 AI 기술별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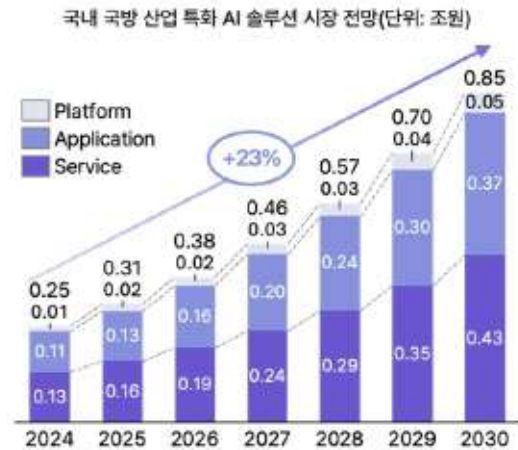
단기 확장가능시장 내 ai 기술별 상세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3) 제조 및 국방 분야 특화 AI 솔루션 시장 현황 및 전망

Enterprise AI 시장 내 Platform, Application 및 Service 시장을 세분류하여 동사가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사업 영역에 해당되는 글로벌 제조 산업 분야와 국내 국방 분야로 구분할 경우 각 시장의 규모는 2024년 현재 약 6.5조원, 0.3조원 규모로 이를 합산한 동사의 초기 Target 시장의 규모는 6.8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초기 목표 시장 성장 전망]



초기 목표 시장 성장 전망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AI 관련 Platform 시장, Application 시장, Service 시장은 모두 동사의 버티컬 AI 솔루션으로 획득 가능한 시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Service 시장의 경우 동사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직접 경쟁하고자 하는 세부 시장은 아니나, 동사 주력 제품 AI 플랫폼 Runway를 활용해 버티컬 AI 솔루션을 직접 개발/공급하는 과정에서 제품 기반으로 Time-to-Market을 감축할 경우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궁극적 지향점이 기업 및 조직에 Runway를 기반으로 한 고유의 AI개발, 배포 및 운영 체계를 공급하여 고객들이 직접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임을 고려할 때 동사의 버티컬 AI 솔루션으로 대체될 수 있는 시장이므로 초기 Target 시장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방 분야의 경우 높은 보안 요구와 특수성으로 인해 자국 기술을 정책적으로 우선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국내 시장만을 초기 공략 가능한 Target 시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상술한 기준에 따라, 동사의 초기 Target 시장 혹은 서비스 확보 가능 시장(SOM, Serviceable Obtainable Market)은 현재 약 6.8조원 규모에서 연평균 약 30% 성장하여 2030년에는 3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동사 관련 시장 성장 요인

1)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Driver)

① AI/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비약적 발전

AI 기술이 연구실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성숙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 기반 컴퓨터 비전 기술은 숙련된 검사원을 능가하여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결함까지 99% 이상의 정확도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화학습은 수백 개의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화학 공정에서 최적의 조합을 스스로 도출함으로써 수율을 극대화하는 등,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최적화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전한 생성형 AI는 제조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면 해석, PLC 코드 분석, 공정 매뉴얼 자동화와 같은 영역에서 기존의 분석형 AI로는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조 현장의 지식 노동 영역에서도 AI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② 빅데이터 및 IoT 센서의 보편화

스마트 팩토리와 DT(Digital Transformation)의 확산으로 제조 현장은 거대한 데이터 생산 기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단일 생산 라인에서도 수천 개의 센서가 초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하루에 테라바이트(TB) 규모의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졌던 이러한 데이터가 이제는 AI 학습의 핵심 연료로 사용되면서, 설비의 미세한 이상을 조기에 포착하고 공정 내 비효율을 제거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③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의 대중화

과거 AI 도입은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GPU의 급속한 발전과 Cloud 플랫폼의 확산으로 AI 접근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중소 제조기업도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 도입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GPU 뿐만 아니라 NPU, ASIC 등 AI 전용 칩의 발전이 산업용 AI 확산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기존의 대형 데이터센터 중심 AI 학습 방식을 넘어, 개별 공정 장비나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고성능 AI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나 보안상의 제약으로 Cloud 사용이 어려운 제조 및 국방 환경에서는 On-Device AI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별 설비나 로봇에 직접 AI를 탑재함으로써 지연 없는 실시간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네트워크 불안정성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의 자율 제조 및 자율 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2) 경제/비즈니스적 요인(Business Driver)

①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대한 근본적 요구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비용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AI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동차 부품 기업은 AI 로봇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15% 향상시키고, 기존 인력을 고부가가치 업무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이처럼 AI는 24시간 무중단 가동과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를 통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② 글로벌 경쟁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은 이제 국경 없는 경쟁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제품 출시 속도(Time-to-Market) 단축과 동시에 고객 맞춤형 생산(Mass Customization)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품질은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AI 비전 검사 기술은 반도체 웨이퍼의 미세 결함이나 자동차 도장 불량 등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실시간으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생산 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리콜이나 브랜드 훼손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예방하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 능력 강화

팬데믹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상 데이터와 소셜 트렌드 등 외부 요인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기존 예측 모델 대비 20~30%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과잉 재고와 품질을 동시에 방지하고,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정책 및 환경적 요인(Policy & Environmental Driver)

① 정부 주도의 AI 경쟁 심화

세계 각국 정부는 제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한국의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각국은 보조금, 세제 혜택, 데이터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혁신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슈퍼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투자, 국가 전략기금 조성 등을 통해 대규모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3대 AI 강국 도약'을 국가 핵심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AI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2조 원), 첨단 GPU 확보(1.46조 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2,000억 원), AX 실증산단 구축사업(1,400억 원) 등 대규모 AI 인프라 및 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업종별 대표 제조기업, AI 기업, 부품·소재 기업이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 AX 얼라이언스 운영방안']



‘ 제조 ax 얼라이언스’ 운영방안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 AI 예산을 올해(5,651억원) 대비 두배 이상 확대된 1조1,34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M.AX 얼라이언스 내 주요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예산과 전략을 본격 투입하는 가운데, 동사는 M.AX 얼라이언스에 AI 전문기업으로 참여하여 산업 특화 AI 역량을 기반으로 협업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동사는 2025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업스테이지 컨소시엄), 산업통상자원부의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산업단지 AX 카라반' 등 국가 전략사업의 핵심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성호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가 AI 전략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과 산업 현장 간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GENIAC 프로젝트, ABCI 3.0 슈퍼컴 인프라 구축, 대규모 AI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AI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동사는 제조 및 국방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일본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특화 AI 인프라 구축 방향과 맞물려, 동사가 아시아 제조업 전반의 AI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AI 지원 정책]

국가	설명
대한민국	'20~'25 AI 바우처 사업, 중소·중견기업 AI 확산을 위해 총 약 3,100억 원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24 전 국민 AI 일상 사용 예산안 발표, 총 9,090억 원 투입 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와 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정부, 산업은행) '25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얼라이언스 출범, 국내 1천개 이상 산학연 참여해 100조 원 부가가치 창출 목표(산업통상자원부) '25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2조 원 규모의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첨단 GPU를 대폭 확충해 산·학·연에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첨단 GPU 1만장 확보를 위한 1.46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5,5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모태펀드의 AI·딥테크 분야 투자 확대(중소벤처기업부) '25 산업AI 개발 확산, 445개 과제에 4,787억 원 투자 계획(산업통상자원부) '25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WBL, World Best LLM) 프로젝트, 약 2,000억 원 투자해 GPU·데이터셋·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스마트그린산단 10곳에 2028년까지 1,400억 원 지원(산업통상자원부) '25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AI 솔루션 도입 비용 50% 지원(산업통상자원부) '25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350억 원 규모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AI 활용·확산 프로그램 지원(중소벤처기업부) '25 산업단지 AX 카라반 출범, AI·로봇 기업이 산업단지 4500여개 기업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상담 추진(산업통상자원부)
일본	'24 역대 최대 규모의 AI예산 편성, 반도체 산업과 연계하여 2030년까지 약 10조엔 편성 계획 '24 AI 개발자용 슈퍼컴 환경 보조, KDDI·Sakura Internet 등 5개사 대상 최대 725억 엔 보조 '24 GENIAC 프로젝트, 일본 내생성AI 개발력 강화 위해 대규모 언어모델 중심 계산자원 지원 포함된 프로젝트 개시 '24 일본 AI 슈퍼컴퓨터 ABCI 3.0 인프라 구축 위해 360억엔 투자 '25 총리 직속 'AI전략본부' 내각부에 설치해 국가 AI정책 총괄 및 추진'
	'24 '국가인공지능연구자원' NAIRR 프로그램(파일럿) 시작, 공공 연구자 및

국가	설명
미국	교육자 대상 AI 연구 자원접근성 확대 '25 정부 예산 제출 지침에 '신뢰할 수 있는 AI R&D' 우선 고려 발표, FY2025 예산안 구성 시 AI R&D 및 안전/책임성 있는 AI 개발이 우선됨 '25 '국가인공지능연구자원' NAIRR-OC 설립 예산 \$35 million, 파일럿을 지속가능한 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운영센터 설립 지원 '25 America's AI Action Plan 발표, AI 인프라 확충 · 데이터센터 현대화 · 반도체 생산 확대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 연방 예산 반영 '25 Stargate 프로젝트 추진, OpenAI · Oracle · SoftBank 등 참여,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 약 5,000억 달러 규모로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구축 계획 '25 국방부 AI 계약 체결, DoD가 Google, xAI 등 주요 기업과 수억 달러 규모 계약 맺고 국방 AI 워크플로우 적용 추진
중국	'24 상하이 전략 산업 펀드 발표, AI · 집적회로 · 바이오 산업 중심, 총 1,000억 위안규모 펀드 조성 '24~'25 컴퓨팅 파워 바우처 프로그램, 베이징 · 상하이 · 청두 등에서 중소 기업 대상 데이터센터 자원 보조, 상하이의 경우 총 6억 위안 규모, 최대 80%비용 보조 '24 국가 전략기술로 가장 먼저 AI 지정, AI를 포함한 7대 첨단 기술을 2035년까지 완성할 목표 기술로 지정 '24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확대, 국가전략기술 7대 핵심 분야에 약 5조 원 규모 R&D 예산 투입 '25 중국 AI 자본 지출 확대, 연간 약 840~980억 달러 예상, 이 중 정부 주도 약 560억 달러, 민간 약 240억 달러 투 '25 국가 AI 산업 투자기금 설립, 약 82억 달러 규모 펀드 신설, AI 생태계 전반 지원 목적 '25 국가 벤처캐피탈 유도기금(National Venture Capital Guidance Fund) 조성, 총 1조 위안 규모로 하드테크 · 반도체 · AI 분야 투자 유도
영국	'23 Science & Technology Framework 발표, 2030년까지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R&D 및 인재양성 강화에 £370 million 신규 정부 자금 투입 '23~'24 AI 칩 · GPU 확보 투자, 정부가 AI 반도체 · 칩 조달 위해 £100 million 투입 '25 공공부문 AI 도입 확대, 정부 AI 계약 누적 규모 £573 million 기록, 행정 · 공공서비스에 AI 적용 확산
독일	'18 국가 AI 전략(Nationale KI-Strategie) 발표, 2025년까지 30억 유로 투자 계획, 연구 · 산업 적용 · 윤리적 기준 수립 3대 목표 '23 독일 AI 연구 지원 확대, 정부가 향후 2년간 10억 유로를 AI 연구에 투입, 기존 대비 2배 이상 규모로 증액.

②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및 기술격차 해소 필요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현장은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제조 공정은 오랜 기간 숙련자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왔으나, 이들의 은퇴로 인해 기술 공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은 전문가의 경험을 데이터 기반의 지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인력난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한정된 인력으로도 생산성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가) 경쟁형태

1) AI Platform (AI 플랫폼 및 운영체제)

AI 플랫폼 및 운영체제 계층은 산업 현장에서 AI 모델의 개발, 배포, 그리고 운영 전 과정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계층의 주요 플레이어는 크게 글로벌 범용 플랫폼과 산업 특화(버티컬) 플랫폼으로 구분됩니다. 글로벌 범용 플랫폼에는 Palantir, C3.ai, DataRobot, Domino Data Lab, AWS SageMaker, Azure ML, GCP Vertex AI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높은 확장성과 범용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 특화 플랫폼으로는 동사의 Runway, Siemens MindSphere, GE Predix, Uptake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제조, 국방 등 특정 산업의 보안 요건과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계층의 경쟁 구도는 Cloud 중심과 On-premise · 폐쇄망 중심으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AWS와 Azure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클라우드 생태계를 기반으로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보안과 데이터 주권이 중요한 제조 및 국방 분야에서는 On-premise와 폐쇄망 환경에 최적화된 동사와 Palantir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범용적 접근과 수직적(Vertical) 접근 간의 차이도 경쟁 구도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합니다. DataRobot이나 Domino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무기로 삼고 있으나, Palantir Foundry와 동사의 Runway는 특정 산업 도메인에 최적화된 기

능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결국 고객이 요구하는 핵심은 빠른 투자 대비 효과와 운영 안정성이며, 시장 경쟁의 본질은 Time-to-Value를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2) Domain-Specific AI Applications (버티컬 AI 솔루션)

버티컬 AI 솔루션 계층은 특정 공정, 설비, 혹은 문제에 직접 특화된 AI 응용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이 계층의 주요 플레이어는 세부 영역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품질 검사 분야에서는 Landing AI, Covision Quality, Viso Suite, Instrumental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LG CNS와 솔트룩스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KLA, Applied Materials, ASML, OptimalPlus(현 NI 산하) 등이 장비 및 공정 데이터 분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로봇틱스 제어 최적화 분야에서는 Symbio Robotics, Realtime Robotics, 그리고 일본의 Preferred Networks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지보전 및 공정 최적화 분야에서는 Uptake, SparkCognition, Augury, GE Digital, Siemens Industrial AI 등이 대표적인 사업자로 꼽힙니다.

이 계층의 경쟁 구도는 전문화와 범용화라는 두 축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Landing AI와 Symbio Robotics와 같은 스타트업은 특정 과제에 집중하여 빠른 혁신과 높은 전문성을 무기로 삼고 있는 반면, Siemens나 GE Digital과 같은 대형 기업은 포괄적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KLA와 Applied Materials 등 주요 반도체 장비사는 동사 장비에 AI를 내장함으로써 독립형 솔루션 업체의 입지를 위협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조 기업은 단순한 AI 성능보다 핵심 성과지표(KPI)와 직결된 실질적 효과(예: 수율 향상, OEE 개선 등)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솔루션 제공업체는 기술적 혁신과 함께 현장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단일 솔루션만으로는 시장 확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확장성과 운영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 경쟁업체 현황

Enterprise AI Platform 시장은 플랫폼 라이선스, 프로젝트 기반 서비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각 경쟁업체들의 전체 매출 중 Enterprise AI Platform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쟁업체들이 해당 사업 부문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있어 세분화된 시장점유율 산출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의 한계는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글로벌 Enterprise AI 시장은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EY에 따르면 2024년 약 95조원에서 2030년 약 35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방대한 시장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산업별, 지역별, 고객 규모별로 세분화된 니치 영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특화된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Enterprise AI Platform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와 더불어 보안 위협 심화에 따른 폐쇄망 AI 솔루션 수요 확대에 의해 국내외 주요 경쟁업체들의 시장 포지셔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베슬에이아이, 래블업, 에이프리카 등이 Cloud 기반의 범용 접근법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제조 및 국방 등 폐쇄망 환경에서의 호환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Palantir가 일부 폐쇄망 환경을 지원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C3.ai, Dataiku 등 대부분의 기업은 범용성 중심 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도메인 특화형 폐쇄망 솔루션 영역에서는 제한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Multi-Agent AI 시스템의 표준화와 Physical AI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 Cloud 중심 사업자들의 폐쇄망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별 특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1) 국내 주요 경쟁사 현황

국내 Enterprise AI Platform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은 AI 프로젝트 단계에서 솔루션을 거쳐, 최종적으로 범용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의 'AI로 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등 대규모 AI 인프라

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AI 시장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NC AI, LG AI연구원 등 주요 기업들은 국가대표 AI 정예팀으로 선정되어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발된 모델의 효율적 배포를 위해 AI 모델 경량화 기술을 보유한 동사와 같은 전문 기업이 기술성 평가 A등급을 획득하고, 2025년 하반기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등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을 견인할 Enterprise AI Platform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경쟁사 현황 비교]

구분	베슬에이아이	래블업	에이프리카
비즈니스 모델	클라우드 기반 제품 공급	클라우드 기반 제품 공급	제품 기반 통합 서비스
제품 포트폴리오	Vessi AI: AI 통합 개발/운영 플랫폼	Backend.AI: AI 인프라 운영 플랫폼 Forklift: 컨테이너 이미지 제작 도구 Reservoir: 독립 패키지 저장소	Cheetah: AI 통합 개발/운영 플랫폼 Gazelle RAG: LLM 기반 검색증강 솔루션
핵심 차별화	GPU 비용 최적화 글로벌 클라우드 연계	오픈소스 생태계 GPU 가상화	통합 솔루션 공공/중소기업 접근성
배포 유형	클라우드 기반(SaaS)	하이브리드 (온프레미스/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온프레미스/클라우드)
타겟 시장	대기업 + 학교	대기업 + 공공기관	공공기관 + 중소기업

(출처: 동사 분석, 각 사 홈페이지 및 IR 자료(2024))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프로젝트 단계에서 솔루션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I(System Integration) 업무에 의존하지 않고, 공통화된 요소를 기반으로 범용 솔루션 및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슬에이아이, 래블업, 에이프리카 등 다수의 Enterprise AI Platform 경쟁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특정 산업군의 복잡하고 세밀한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국방, 에너지 등과 같이 폐쇄망 환경이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AI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다양한 산업 현장 환경에 맞춰 도메인 특화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입니다. 둘째는, 다수의 AI 모델을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배포·운영할 수 있는 범용성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경쟁사들은 Cloud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OT(운영기술, Operational Technology) 시스템과의 긴밀한 연동이 필수적인 폐쇄망 환경에서는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배포까지 전 과정에서 근본적인 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주요 경쟁사 현황

글로벌 Enterprise AI Platform 경쟁사들은 국내 기업에 비해 더욱 방대한 솔루션 포트폴리오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과 문제 영역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Cloud 기반의 범용 AI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나, 폐쇄망 환경과 같은 특수한 산업 요건을 고려한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통합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Palantir는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와 폐쇄망 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있으며, 시장 내에서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경쟁사 현황 비교]

구분	팔란티어	C3 ai	데이터이쿠
비즈니스 모델	제품 기반 통합 서비스	제품 라이선스 공급	제품 라이선스 공급
제품 포트폴리오	파운드리(Foundry): 데이터 통합	AI 플랫폼: AI 통합 개발/운영 플랫폼	AI 플랫폼: AI 통합 개발/운영 플랫폼
	AIP: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AI Apps: 업종 특화 애플리케이션	
	고담(Gotham): 공공 데이터 통합	-	
핵심 차별화	최고 수준 보안 인증	산업별 특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사이언스 민주화
	정부 시장 독점적 지위	파트너 생태계 활용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완전 폐쇄망 환경 지원	턴키 솔루션 제공	데이터 거버넌스

구분	팔란티어	C3 ai	데이터이쿠
배포 유형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온프레미스/클라우드)	(온프레미스/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제한적)
타겟 시장	대기업/정부기관 특화	중대형 기업	중대형 기업

(출처: 동사 및 각사 홈페이지 및 IR 자료(2024))

(다) 주력 제품의 경쟁 상황

Runway는 급변하는 Enterprise AI Platform 시장에서 폐쇄망 환경 특화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안 위협이 심화되고 데이터 주권 요구사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폐쇄망 환경에서의 AI 개발·운영 역량은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경쟁사간 가격 비교

주요 경쟁사들의 가격 정책은 타겟 시장과 배포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사들은 종량제(사용량 기반 과금) 또는 혼합형(기본 라이선스 + 종량제) 모델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폐쇄망 지원과 산업 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경쟁사들은 업종 특화형과 범용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프리미엄 가격 정책과 계층형 가격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AI 플랫폼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가격 투명성이 제한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내 경쟁사들은 서로 다른 가격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순수 GPU 사용량 기반 과금 모델부터 플랫폼 기본 라이선스와 사용량 기반 비용을 결합한 혼합형 모델까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모별 총비용 구조 분석 결과, 중소규모(약 10 GPUs) 환경에서는 Vessl AI가 가격 경쟁력을 보이는 반면, 중대형 규모(50~100 GPUs)로 확장될수록 플랫폼 라이선스 기반 모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경쟁사 3개사와의 비교 결과, 평균 판매가격은 경쟁사별 최대 약 20% 이내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폐쇄망 환경 지원, 산업 도메인 특화 솔루션, 보안 컴플라이언스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기능적 우위를 고려할 때 시장 내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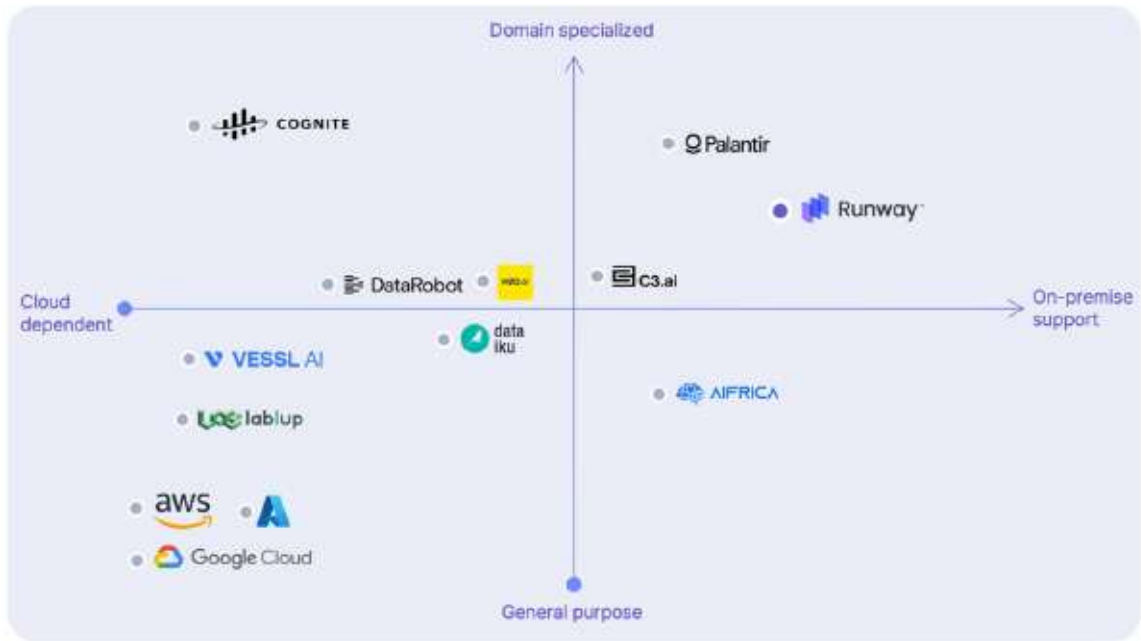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플랫폼 시장은 업종 특화형과 범용형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Palantir와 같은 업종 특화형 플랫폼은 정부, 국방, 제조 등 특정 도메인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고부가가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프리미엄 가격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C3 AI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소비 기반 과금으로 전환하는 혼합형 모델을 적용하여, 고객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유연한 비용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경쟁사 중 Dataiku는 사용자 기반 라이선스와 플랫폼 기본료를 결합한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가격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규모별 평균 판매가격은 4.75억원으로 동사 대비 약 83% 높은 수준의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Runway는 글로벌 경쟁사 제품 대비 월등히 경쟁력 있는 가격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경쟁사간 성능 비교

Enterprise AI Platform 시장은 기능 복잡도와 사용 편의성을 축으로 하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들은 타겟 고객층과 배포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nterprise AI Platform 제품군 특징 별 Quadrant 차트]



enterprise ai platform 제품군 특징 별 quadrant 차트

(출처: 동사 내부자료)

첫 번째는 정부·국방 시장에 특화된 고보안 플랫폼으로, 폐쇄망 환경 지원과 높은 수준의 보안 인증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군입니다. 이 제품군의 대표 기업은 Palantir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으로, 코드 없는 머신러닝(ML)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제품군입니다. 대표 기업은 Dataiku입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 MLOps 전문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내 유연한 생태계 연계성과 경쟁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품군입니다. 대표 기업은 AWS(Amazon Web Services)입니다.

[제품군 분류에 따른 대표 기업 및 제품]

제품군 분류 기준	대표 기업/제품	기타 주요 기업/제품
제품군 1 - 정부/국방 특화 고보안 플랫폼 - 완전 폐쇄망 환경 지원 - 최고 수준 보안 인증 보유	Palantir Foundry	C3 ai Suite
제품군 2 - 데이터 사이언스 보급 확대 - GUI 기반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Dataiku 플랫폼	DataRobot, H2O.ai

제품군 분류 기준	대표 기업/제품	기타 주요 기업/제품
- 코드 없는 ML 개발 환경		
제품군 3 - Cloud 기반 MLOps 플랫폼 - 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 경쟁적 가격	AWS Sagemaker	VESSL AI 플랫폼, 래블업 Backend.AI

(출처: 동사 내부자료)

동사는 상기 분류 중 제품군 1에 해당하는 정부·국방 특화 고보안 플랫폼 영역에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CB인사이트가 발표한 2023년 「AI 100(세계 100대 AI 기업)」 리포트에서 동사는 '재료 및 제조(Materials & Manufacturing)' 분야 내 제조업 단독 기업으로, 동시에 국내 본사를 둔 유일한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폐쇄망 환경에서 운영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동사의 AI 플랫폼이 기술적 우수성과 높은 수준의 보안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음을 글로벌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동사가 제품군 1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지셔닝 전략과 기술적 차별화 역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검증 사례로 평가됩니다.

3) 경쟁구도의 변화 방향

Enterprise AI Platform 시장 내 경쟁 환경은 Cloud 기반의 확장성을 강점으로 하는 Dataiku, AWS 등 범용 플랫폼과, 제조·국방과 같이 데이터 주권과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서 On-premise 및 폐쇄망 지원을 통해 차별화하는 동사의 Runway, Palantir 등 산업 특화 플랫폼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최근 ① 보안 중심 폐쇄망 시장의 확대, ② 도메인 특화 AI의 적용 및 확산 가속화, ③ Time-to-Value 중심의 통합 플랫폼 경쟁 심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가치 실현 시간(Time-to-Value)'의 단축이 시장 경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척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AI로 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AI 기술이 제조·국방 등 핵심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시장은 기존의 Cloud 중심 구조에서 On-premise 및 폐쇄망 환경을 포괄하는 Hybrid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 산업에서는 개별 솔루션을 넘어 다수의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려는 플랫폼 구축 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는 보안을 핵심으로 하는 연구소 및 부대 단위의 AI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과 데이터 주권이 중요한 산업 현장의 요구가 폐쇄망 기반 솔루션을 필수 요건으로 만들고 있으며, On-premise 환경 지원 역량은 시장 내 결정적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LLM 모델 기반 생성형 AI의 엔터프라이즈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범용 모델에서 산업별 특화 솔루션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와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이 결합되면서, 도메인 특화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Multi-Agent 시스템은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RAG는 기업 내부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활용하여 맥락에 맞는 응답을 생성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전반에서 생성형 AI의 적용 패턴을 표준화시키며, 기업의 지식 활용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 기술력

(1) 기술의 완성도

동사의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 기술과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기술은 이미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술 모두 TRL 9로 평가됩니다.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은 특정 기술의 성숙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종 기술 간 성숙도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본래 NASA에서 항공·우주 및 국방 분야 R&D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 정의되었으나, 동사의 제품 개발 단계 평가에는 소프트웨어(SW) 기술 특성을 반영한 조정된 TRL 정의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소프트웨어용 TRL]

TRL 단계 정의		단계별 세부 설명	동사 수준
		- 기술이 최종 형태로 완성되며, 실제 적	- 도메인 특화 인공

TRL 단계 정의		단계별 세부 설명	동사 수준
TRL 9	실제 현장에서 SW 완제품의 사용 적합성 증명 단계	용 환경에서 운영 되는 단계 - S/W의 모든 기능과 성능, 사용 가능성을 사용자의 관점 및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며, 기술개발사업의 목표가 대부분 달성됨	지능 모델링 기술 -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기술
TRL 8	제한된 실제 현장에서 SW 완제품의 사용가능성 증명	- 개발된 S/W가 실제 사용현장에서 목적을 달성하는지 시험하고 검증하는 단계로 사실상의 기술개발 종료 단계 - S/W의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 가능한지를 점검하며,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도출하고 이를 수정 - 베타테스트가 이 단계에 해당됨	-
TRL 7	실제 환경과 조건에서 통합된 S/W 프로토타입 모델 적용 및 사용 가능성 증명	- 최종 S/W의 설계가 거의 완성되는 단계 - 완전히 통합된 S/W 프로토타입의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됨 - 실제 환경에서 S/W의 알고리즘이 모두 수행 가능한 단계	-
TRL 6	SW 프로토타입 모델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개발 기술이 실제 환경에서 구현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단계 -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S/W 프로토타입 모델의 테스트를 완료 - 개별 모듈을 구성하는 기능 요소들이 통합 작동됨을 시험하고 적합한 신뢰도를 갖추었는지를 수요자 또는 고객의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 - 해당 S/W에 대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짐	-
TRL 5	테스트 과정의 일부로 일부 데이터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기능 및 모듈의 통합 가능성 검증	- 거의 모든 측면에서 최종 환경과 유사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S/W의 성능을 시험하는 단계 - 핵심적인 기능 및 모듈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S/W가 의도된 목적을 충족하는지 시험하고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개발된 기술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통합 성능 측면에서 향상시킴	-
	테스트 과정의 일부로 일부 데이터	-제한적으로 핵심적인 기능 또는 모듈에 대한 체계 구성이 완료된 상태	

TRL 단계 정의		단계별 세부 설명	동사 수준
TRL 4	이터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기능 및 모듈 실험	- 최종 운영 시스템/환경/데이터 등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실험실 환경에서 개발된 기술 또는 모듈의 테스트 결과를 분석	-
TRL 3	분석적 연구를 통해 개념/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 및 연구실 환경의 알고리즘 단계	-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단계 - 개념 증명 또는 가능성 확인을 위해 S/W 시스템의 구조 및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연구실에서 알고리즘을 수행 - 기술의 개념 및 문헌 연구 수준을 넘어 관련 개념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	-
TRL 2	기술적 응용 개념 또는 아이디어 형성	- 순수 아이디어에서 응용연구가 진행되는 단계 -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S/W기술을 새로운 제품/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의하고 제안함	-
TRL 1	기본적인 과학원리 관찰 및 파악 (순수 이론 단계)	- 가장 낮은 기술개발단계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응용연구개발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단계 - 신규 S/W 기술의 개념 정립이 수행되는 단계	-

(출처: 동사 내부자료)

(2) 기술의 경쟁우위도

(가) 지적재산권 소유 내역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국 특허 29건과 국내 특허 55건을 포함하여 총 8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1건, PCT 7건과 국내 11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특허가 출원 중에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미국 3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 및 출원 현황]

특허등록			특허출원			합계
해외	국내	계	해외 (PCT 포함)	국내	계	
29	55	84	8	11	19	103

(출처: 동사 내부자료)

[특허 등록 및 출원 현황 상세]

번호	내용	특허(출원)번호	권리자(비중)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적용제 품	출원국
1	어노말리 디텍션	10-194002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8-07-11	2019-01-14	2038-07-11	Runway	대한민국
2	어노말리 디텍션	10-210197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9-04-30	2020-04-10	2039-04-30	-	대한민국
3	강화학습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제어 방법 및 장치	10-223427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0-10-29	2021-03-25	2040-10-29	-	대한민국
4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상치 검출 (NOVELTY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10-226188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7-27	2021-06-01	2040-04-08	-	대한민국
5	입력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최적의 어노말리 감지 모델 결정 방법	10-226745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2-24	2021-06-15	2040-02-24	-	대한민국
6	비정상 데이터 생성 방법	10-228767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2-24	2021-08-03	2040-02-24	-	대한민국
7	피쳐 셋 정보에 기초한 전이 학습 방법	10-229270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7-02	2021-08-17	2040-07-02	-	대한민국
8	학습 데이터 관리 방법	10-229580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9-06-07	2021-08-25	2039-06-07	-	대한민국
9	입력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최적의 어노말리 감지 모델 결정 방법	10-237248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5-03	2022-03-04	2040-02-24	-	대한민국
10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방법	10-242007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11-18	2022-07-07	2041-11-18	-	대한민국
11	반도체 소자의 배치를 평가하는 방법	10-243048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04	2022-08-03	2042-02-04	-	대한민국
12	금지 영역 정보를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를 배치하는 방법	10-243048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14	2022-08-03	2042-02-14	-	대한민국
13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방법	10-243048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17	2022-08-03	2042-02-17	-	대한민국
14	비정상 데이터 검출 방법 및 장치	10-243818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6-14	2022-08-25	2041-06-14	-	대한민국
15	반도체 설계를 위한 신경망 모델 학습 방법	10-244062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18	2022-09-01	2042-02-18	-	대한민국
16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0-244257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3-08	2022-09-06	2042-03-08	Runway	대한민국
17	패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패널의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및 시스템	10-245013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4-06	2022-09-28	2040-04-06	-	대한민국
18	패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패널의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및 시스템	10-245013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12-10	2022-09-28	2040-04-06	-	대한민국

번호	내용	특허(출원)번호	권리자(비중)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적용제 품	출원국
19	다이내믹 모델 기반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10-246156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1-06-17	2022-10-27	2041-06-17	-	대한민국
20	환경 인자 조절 장치 및 그 훈련 방법	10-247292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4-24	2022-11-28	2040-04-24	-	대한민국
21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방법	10-247485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11-18	2022-12-01	2041-11-18	-	대한민국
22	오토 인코더 모델의 선택 및 최적화 방법	10-247921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22	2022-12-15	2042-02-22	-	대한민국
23	수집이 필요한 정보의 영역을 예측하는 방법	10-248953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11-14	2023-01-12	2042-11-14	-	대한민국
24	모델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10-253164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2-24	2023-05-08	2040-05-29	Runway	대한민국
25	자연된 보상에 기초하여 공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10-253164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11-14	2023-05-08	2042-11-14	-	대한민국
26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	10-254970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3-14	2023-06-27	2040-02-24	-	대한민국
27	오토 인코더 모델의 데이터 선택 및 비정상 스코어 산출 방법	10-256219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04	2023-07-27	2042-02-04	-	대한민국
28	작업 수행 로봇의 작업 경로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	10-256641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3-08-08	2043-01-30	-	대한민국
29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조절 방법	10-257077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2-02	2023-08-22	2043-02-02	-	대한민국
30	인공지능 기반 제어 시뮬레이션 방법	10-257364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11-14	2023-08-29	2042-11-14	-	대한민국
31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10-257387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3-08-29	2043-01-30	-	대한민국
32	어노말리 데이터 생성 방법	10-258358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2-24	2023-09-22	2040-02-24	-	대한민국
33	로봇 공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방법	10-259049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3-10-12	2043-01-30	-	대한민국
34	핀 방향 최적화를 통한 집적 회로 설계 방법	10-259606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5	2023-10-26	2043-01-25	-	대한민국
35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에 작업 지점들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	10-259662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3-10-27	2043-01-30	-	대한민국
36	반도체 소자의 배치를 평가하기 위해 2중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방법	10-259732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5	2023-10-30	2043-01-25	-	대한민국
37	매크로 셀들을 그룹화하는 것에 기초하여 반도체를 설계하는 방법	10-259721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6	2023-10-30	2043-01-26	-	대한민국
38	매크로 소자로부터의 거리 정보를 고려하여 반도체 소자를 배치하는 방법	10-259781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5	2023-10-31	2043-01-25	-	대한민국
39	반도체 설계와 관련하여 데드 스페이스를 제거하는 방법	10-260225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5	2023-11-09	2043-01-25	-	대한민국
40	원격지 실행을 통한 개발 환경 제공 방법	10-260259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2-15	2023-11-10	2043-02-15	Runway	대한민국
41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에 작업 지점들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	10-261409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6-22	2023-12-11	2043-01-30	-	대한민국
42	이상탐지 모델 재학습 여부 및 학습 구간 적절성 판단 로직	10-261696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7-13	2023-12-19	2043-07-13	-	대한민국
43	로봇의 유효 작업 지점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10-262610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4-01-12	2043-01-30	-	대한민국
44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	10-262610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7-24	2024-01-12	2043-07-24	Runway	대한민국
45	산업용 로봇의 작업 경로 생성 방법	10-262902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4-01-19	2043-01-30	-	대한민국
46	강화 학습 기반의 스케줄링 방법	10-262902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7-21	2024-01-19	2043-07-21	-	대한민국
47	작업 수행 로봇의 작업 경로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	10-263824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6-20	2024-02-14	2043-01-30	-	대한민국
48	작업 수행 로봇의 작업 경로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	10-266016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6-20	2024-04-19	2043-01-30	-	대한민국

번호	내용	특허(출원)번호	권리자(비중)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적용제 품	출원국
49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10-267187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04-26	2024-05-29	2041-06-17	-	대한민국
50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10-267696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8-21	2024-06-17	2043-08-21	Runway	대한민국
51	장비의 이상 원인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 방법	10-268702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7-13	2024-07-17	2043-07-13	-	대한민국
52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방법	10-268898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9-27	2024-07-23	2043-09-27	Runway	대한민국
53	기계 학습 모델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0-271020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12-06	2024-09-23	2043-12-06	Runway	대한민국
54	이상 탐지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10-287778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3-04	2025-10-23	2045-03-04	-	대한민국
55	도면 감도를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	10-2025-012985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9-11	2026-03-04	2045.09.11	-	대한민국
56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0-2022-011277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9-06	-	-	-	대한민국
57	보상 페널티에 기초한 강화학습 방법	10-2023-014418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10-25	-	-	-	대한민국
58	장비의 이상 탐지를 위한 인공 신경망 모델의 업데이트 방법	10-2024-017225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11-27	-	-	Runway	대한민국
59	인공 신경망 모델 기반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브레이크 패드 설계 방법	10-2024-017369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11-28	-	-	-	대한민국
60	기계 학습 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지속 배포 방법	10-2025-002669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2-28	-	-	Runway	대한민국
61	기계 학습 플랫폼의 지속적 학습 방법	10-2025-002732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3-04	-	-	Runway	대한민국
62	기계 학습 플랫폼의 지속적 통합 수행 방법	10-2025-002801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3-05	-	-	Runway	대한민국
63	기계 학습 플랫폼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0-2025-002947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3-07	-	-	Runway	대한민국
64	작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	10-2025-013007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9-11	-	-	Runway	대한민국
66	도면 작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10-2025-012984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9-11	-	-	Runway	대한민국
66	신경망 모델을 활용하여 도면 감도를 수행하는 방법	10-2025-012989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9-11	-	-	Runway	대한민국
67	어노말리 디텍션	10,803,38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8-09-17	2020-10-13	2038-09-17	Runway	미국
68	어노말리 디텍션	11,120,33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9-10	2021-09-14	2038-09-17	-	미국
69	환경 인자 조절 장치 및 그 훈련 방법	11,156,96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4-22	2021-10-26	2041-02-05	-	미국
70	모델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11,226,89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2-23	2022-01-18	2041-02-23	Runway	미국
71	NOVELTY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11,301,75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3-05	2022-04-12	2040-10-15	-	미국
72	입력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최적의 어노말리 감지 모델 결정 방법	11,308,36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10-28	2022-04-19	2040-12-01	-	미국
73	어노말리 디텍션	11,537,90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9-12-23	2022-12-27	2040-12-12	-	미국
74	학습 데이터 관리 방법	11,562,16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3-27	2023-01-24	2040-06-11	-	미국
75	비정상 데이터 생성 방법	11,625,57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10-28	2023-04-11	2040-10-28	-	미국
76	모델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11,636,02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12-08	2023-04-25	2041-02-23	-	미국
77	강화학습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제어 방법 및 장치	11,645,72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1-10-28	2023-05-09	2041-10-28	-	미국
78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방법	11,657,20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13	2023-05-23	2043-01-13	-	미국
79	금지 영역 정보를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를 배치하는 방법	11,663,39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13	2023-05-30	2043-01-13	-	미국
80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방법	11,734,48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11-14	2023-08-22	2042-11-14	-	미국

번호	내용	특허(출원)번호	권리자(비중)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적용제 품	출원국
81	입력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최적의 어노말리 감지 모델 결정 방법	11,769,06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3-11	2023-09-26	2040-10-28	-	미국
82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방법	11,790,13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11-14	2023-10-17	2042-11-14	-	미국
83	환경 인자 조절 장치 및 그 훈련 방법	11,797,85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9-16	2023-10-24	2041-05-31	-	미국
84	비정상 데이터 검출 방법 및 장치	11,803,17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2-07	2023-10-31	2042-06-09	-	미국
85	NOVELTY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11,816,57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3-03	2023-11-14	2040-03-05	-	미국
86	반도체 소자의 배치를 평가하는 방법	11,854,91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09	2023-12-26	2043-01-09	-	미국
87	SYSTEMS AND METHODS FOR DETECTING	11,948,29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7-01	2024-04-02	2041-03-25	-	미국
88	반도체 소자의 배치를 평가하기 위해 2중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방법	12,008,29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01-23	2024-06-11	2044-01-23	-	미국
89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12,049,01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01-27	2024-07-30	2044-01-27	-	미국
90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에 작업 지점들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	12,093,83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01-27	2024-09-17	2044-01-27	-	미국
91	자연된 보상에 기초하여 공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12,188,67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10-23	2025-01-07	2043-10-23	-	미국
92	수집이 필요한 정보의 영역을 예측하는 방법	12,198,03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10-06	2025-01-14	2043-10-06	-	미국
93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2,254,29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2-27	2025-03-18	2043-02-27	Runway	미국
94	인공지능 기반 제어 시뮬레이션 방법	12,373,70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11-10	2025-07-29	2043-11-10	-	미국
95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18/020,68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02-10	-	-	-	미국
96	다이내믹 모델 기반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18/020,83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02-10	2026-01-13	2042-10-21	-	미국
97	어노말리 디텍션	PCT/KR2019/00793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9-07-01	-	-	-	PCT
98	NOVELTY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PCT/KR2020/00473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4-08	-	-	-	PCT
99	환경 인자 조절 장치 및 그 훈련 방법	PCT/KR2021/00151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2-05	-	-	-	PCT
100	비정상 데이터 검출 방법 및 장치	PCT/KR2022/00811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6-09	-	-	-	PCT
101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PCT/KR2022/00819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06-10	-	-	-	PCT
102	다이내믹 모델 기반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PCT/KR2022/00819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06-10	-	-	-	PCT
103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PCT/KR2023/00014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04	-	-	Runway	PCT

(출처: 동사 내부자료)

동사의 IP 현황은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기업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P 경쟁력 검증 및 전략 수립을 위해 '파이특허법인'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특허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개별 특허에 대한 권리 분석을 실시하고, 침해 발생 시 대응 방안까지 고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핵심기술 및 세부기술과의 연관성, ③ 주요 프로젝트 및 제품, ④ 산업 및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태깅을 통해 기술과 특허의 사업적 연계성을 검토하고, 비즈니스적 임팩트를 반영한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⑤ 또한 BCG(Boston Consulting Group)의 산업 분류를 기반으로 AI 기술요소를 결합한 특허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글로벌 IT 기업 및 국내 주요 AI 기업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 방향, 특허 출원 추이, 사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사의 기술 경쟁력과 전략적 우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BCG의 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산업별 구분과 AI 기술요소를 결합한 특허 매트릭스를 구축하여 기업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의 특허 출원 경향성을 파악하고, 시장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며, 동사의 특허 출원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특허 분석 결과, 동사는 기업 규모와 시장 내 지위를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AI 분야에서 비교 대상 기업 대비 정량적으로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 출원을 통해 미국 주요 기업과 비교하더라도 대등한 수준의 특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사는 외부 전문기관(파이특허법률사무소)을 통해 “AI 기반 설계 및 최적화” 기술 영역에 대한 국내 특허 문헌 총 1,602건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및 설계·최적화 관련 키워드와 IPC 분류를 결합한 검색식을 적용하고, 중복 제거 및 노이즈 필터링을 거쳐 유효 데이터 627건을 기준으로 출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당사는 (주)삼성전자, 한화오션(주), 부산대학교, KAIST 등 20개 기업 및 기관 중 동 기술 분야에서 14개의 특허 건수로 (주)삼성전자 다음으로 상위권의 특허 출원 건수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

10

10



10

10

10

10

10

(나) 보유 기술의 경쟁력

동사는 제조, 국방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플랫폼 Runway를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Runway는 폐쇄망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AI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기존 경쟁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안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플랫폼의 경쟁력은 폐쇄망 인프라 지원, 자원 효율화, 보안 프로세스 통합, 데이터 처리 및 저장, RAG 기반 정보 검색, 외부 시스템 연결 및 배포, AI 자산 재활용, 사용자 경험 등 여러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폐쇄망 환경에서 외부 클라우드를 활용하지 못하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동사는 내부 전용 인프라와 다양한 컴퓨팅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전용 저장소, 소프트웨어 반입 및 검증 자동화, 멀티 클러스터와 HPC 환경 통합, 동적 자원 스케줄링 등을 지원하며, 폐쇄망에서도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AI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플랫폼은 체계적인 접근 권한 관리와 감사 로그 기록, 다단계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외부 아티팩트 반입, 배포 과정에서 취약점 탐지, 악성코드 검사, 의존성 확인 등을 수행하며,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내부 위협을 최소화합니다.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는 비정형 문서와 다양한 산업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ayout Detection, 전처리, 표준화된 데이터셋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Dataflow Builder와 Annotation Studio를 활용하면 비전문가도 쉽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으며, 버전 관리와 공동 작업 환경을 통해 협업 효율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RAG 기반 정보 검색 기술을 통해 방대한 산업 문서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한국어 및 도메인 특화 토큰라이저와 계층적 필터링, 질문 재구성 기능 등이 통합되어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를 분석하고, 도메인 지식에 기반한 최적의 답변을 제공합니다.

동사의 Runway 플랫폼은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모델 배포 기능도 제공합니다. Windows, Linux, On-device 환경 모두 지원하며, 표준 API를 통해 산업 현장의 다양한 시스템과 통합됩니다. 모델 경량화 기술을 적용해 폐쇄망이나 엣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면서 운영 효율을 높였습니다. AI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내부에서 개발된 모델, 데이터 파이프라인, 분석 도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카탈로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 개발 시간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JupyterLab, VSCode, LLaMA 등 친숙한 도구를 활용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unway는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초급 사용자는 시각적 워크플로우와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고, 고급 사용자는 API, SDK, 인터랙티브 개발 환경을 통해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사용자가 AI 개발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동사는 폐쇄망 환경 전용 인프라, 보안 통합, 데이터 처리 자동화, RAG 기반 검색, 외부 시스템 배포, AI 자산 재활용, 사용자 경험 최적화 등 다방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독자적 기술로 평가됩니다.

(3) 연구인력 수준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CTO 산하 4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28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6년 이상 연구소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도]



연구인력개발조직도(26.03.31)

(자료: 동사 내부자료)

[연구개발부문 조직 현황]

조직명		역할
FDE 본부	FD Agent팀	AI 에이전트 기반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자율 운영 및 자동화 기술 구현
	FD 모델최적화팀	AI 모델 경량화· 양자화 및 최적화 기술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AI 추론 기술 개발
	FD 프론티어팀	산업 제조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 기반 모델링 및 최적화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AI 솔루션 개발
	FD Vision팀	산업 현장의 이미지·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상탐지 및 생성형 비전 기술 개발
PD본부	애플리케이션팀	AI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 기능을 개발하여 핵심 서비스 로직과 기능 구현
	플랫폼팀	AI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설계, 구축 및 안정적 서비스 환경 제공
	FE팀	AI 애플리케이션의 프론트엔드 기능을 개발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접근성 구현
	QA팀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및 테스트를 수행하여 제품의 안정성과 완성도 확보
	UX팀	사용자 중심의 UX/UI 설계를 통해 AI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성과 인터페이스 개선

(자료: 동사 내부자료)

동사의 연구개발 관련 경영진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명확하게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영진은 타사 겸직이 없어 업무 집중도 저해 요인이 없으며, 각자 10년 내외의 관련 경험과 전문 역량을 보유하여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관련 경영진 구성]

구분		업무	이름	근속연수	관계
대표	CEO(Chief Executive Officer)	대표	윤성호	7.2년	최대주주
연구개발	CTO(Chief Technical Officer)	기술총괄	심상우	7.2년	창업자
	CAIO(Chief AI Officer)	연구총괄	임용섭	7.2년	창업자

(출처: 동사 내부자료)

[연구개발 관련 경영진 경험 및 역량 요약]

이름	경험 및 경력
윤성호 CEO	- 현) 동사 대표 겸 창업자 - 현) 국가AI전략위원회 위원(국방 분과) - 전) SK텔레콤 ICT기술원 데이터 사이언스팀 매니저 - 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엔지니어 -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물리학 박사 - 일리노이대학교 물리학과 / 수학과 학사
심상우 CTO	- 현) 동사 CTO 겸 창업자 - 전) 삼성전자 VD사업부 빅데이터랩 - 전) WORLDQUANT LLC 퀀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 전)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퀀트 분석가 - 하버드대학교 이론화학 박사 / 통계학 석사 - 서울대학교 화학과 학사 / 석사
임용섭 CAIO	- 현) 동사 CAIO 겸 창업자 - 전) SK텔레콤 ICT기술원 데이터 사이언스팀 - 전) 서울대학교 컴퓨터 연구소 - 카이스트 전산학과 박사

(출처: 동사 내부자료)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동사는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 및 엔지니어링(Domain-Specialized AI Modeling & Engineering)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국방 등 주요 목표 고객의 공통된 Pain Point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주력 제품 Runway로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 경쟁사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보안과 성능의 양립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되며, Runway의 경쟁우위도는 ① 폐쇄망 지원 인프라 및 자원 효율화, ② 보안 프로세스 통합, ③ 데이터 처리 및 저장, ④ RAG 파이프라인

프라인 최적화, ⑤ 외부 시스템 연결 및 배포, ⑥ AI Asset 재활용 환경, ⑦ 사용자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폐쇄망 지원 인프라 및 자원 효율화

폐쇄망 환경에서는 외부 Cloud 자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내부 인프라만으로 모든 AI 워크로드를 처리해야 하는 근본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5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된 폐쇄망 환경 전용 개발 및 운영 체계 구축 기술을 기반으로 이러한 제약을 기술적 혁신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쟁우위로 전환한 폐쇄망 특화 인프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Runway의 AI 인프라 구성 기술을 중심으로 한 폐쇄망 자급형 인프라 구축과 다중 컴퓨팅 자원 통합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구현됩니다. 외부 시스템 의존성 없이 완전한 독립 운영 생태계를 구성하고, 분산된 이기종 컴퓨팅 환경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전체 인프라의 활용률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폐쇄망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 역량은 공개망 환경에서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On-premise/Cloud 간 Hybrid 연계를 통해 유연한 인프라 확장과 워크로드 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모든 네트워크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 보안 프로세스 통합

폐쇄망 환경에서 AI 개발 및 운영을 수행할 때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보안성과 개발 생산성의 양립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모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5. 기술의 경쟁우위도]에서 설명된 보안 프로세스 체계 구축 및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보안 프로세스 통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라이브러리 반입부터 코드 배포까지 전 과정에서 자동화된 보안 검증 절차를 적용하고, 세분화된 권한 제어 및 모든 활동 로그 기록을 포함하는 감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동시에, Cloud 네이티브 아키텍처 기반의 개발자 친화적 환경을 유지하여 경쟁 제품 대비 높은 AI 개발 생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산업 현장에서는 전체 기업 데이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형 데이터가 설비 매뉴얼, 기술 도면, 품질 검사 리포트 등의 형태로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텍스트, 이미지, 표, 도면이 혼재된 복합 문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솔루션만으로는 정확한 정보 추출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지속적인 변화(제품 교체, 설비 점검, 운전 조건 변경 등)로 인해 데이터 패턴이 지속적으로 변동되며, 이는 AI 모델의 성능 확보와 유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와 함께 복잡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과정은 전문 인력 의존도와 개발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당사는 데이터 처리·분석 및 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제약을 해결하는 차별화된 데이터 처리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① Layout Detection 기술을 활용한 비정형 데이터 요소 식별, ② 맥락별·특징별 정규화를 통한 고도화된 전처리, ③ 표준화된 데이터셋 관리 체계를 통해 구현됩니다. 특히, Dataflow Builder와 Annotation Studio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비전문가도 복잡한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우를 손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데이터셋 관리 체계를 통해 프로젝트 간 재사용성을 극대화하고, 조직 전체의 데이터 자산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 RAG 파이프라인 최적화

산업 현장에서는 방대한 양의 기술 문서와 매뉴얼이 축적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AI 시스템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검색과 생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는 외부 지식을 검색하여 생성 모델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파인튜닝과 달리 기업 내부 데이터의 최신성과 특수성을 직접 반영할 수 있어 정확성과 추적성이 중요한 기업 환경에서 최적의 접근 방식입니다. 당사는 RAG 파이프라인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도메인 특화 토크나이저, 메타 필터링, 도메인 지

식 기반 질문 재구성 및 실시간 추적 기술을 통합하여 산업 환경에 특화된 차별적인 RAG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5) 외부 시스템 연결 및 배포

개발된 AI 모델을 산업 현장의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이기종 운영체제 환경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AI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JDBC/ODBC 등 데이터베이스 연동 표준 프로토콜과 표준화된 API를 활용하여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Windows와 Linux가 혼재된 환경에서도 k8s 기반 다중 OS 환경 배포를 지원합니다. 또한 On-device 환경을 위한 Static Graph 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AI 모델을 경량화하여, 제한된 인프라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형태로 모델을 배포·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폐쇄망 환경의 보안적 제약을 유지하면서도 중앙에서 옛지까지 전방위적인 AI 확산 체계를 구현하여, 경쟁 제품 대비 차별화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6) AI Asset 재활용 환경

AI 프로젝트의 성공은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신속한 가치 증명과 리드타임 단축에 의해 좌우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재화한 기술을 기반으로, 재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 구축부터 조직 내 AI 개발 자산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반복적인 개발 작업 최소화를 통한 신규 프로젝트의 신속한 착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합된 Asset 관리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또한, 범용 도구와 산업 특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카탈로그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구성 요소를 표준화하고, 조직 내부에서 개발된 커스텀 솔루션을 메타데이터와 함께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폐쇄망 환경과 같이 외부 리소스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내부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기존 자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용도에 신속히 확산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제공하며, 신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새로 구축할 필요 없이 검증된 구성 요소를 재활용함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마트 사례의 경우, 단일 매장에서 개발된 AI 수요예측 모델을 전국 주

요 매장으로 확산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Asset을 재활용하여 전체 구축 기간을 대폭 단축한 바 있습니다.

7) 사용자 경험

AI 플랫폼의 기술적 우수성이 실제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의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동사는 AI 개발·운영을 위한 주요 기능을 UI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여 도메인 전문가가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API 및 SDK를 통해 AI 전문가가 고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층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AI 도입 장벽을 근본적으로 해소합니다.

이러한 다층형 인터페이스 구조 하에서 AI 개발·운영 프로세스의 주요 사용자 흐름을 단순화하고 복잡한 설정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사용자는 최소한의 절차로 핵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단계별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별 최적화된 환경을 구성하여 주요 경쟁 플랫폼 대비 높은 사용 편의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달성합니다.

다. 성장성

(1) 기업 성장전략

과거	동사는 2017년 설립 이후 제조 및 국방 등 복잡한 산업 현장에서 AI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요 고객사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신뢰성과 적용 역량을 확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 데이터 자산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PoC 중심의 맞춤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산업별 AI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 특화 AI 플랫폼인 Runway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글로벌 제조기업 및 투자사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력과 재무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동사는 단일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제품 및 플랫폼 기반의 반복 가능한 수익 모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unway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AI 솔루션을 표준화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 효율성과 납품 단가를 개선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Runway는 AI 모델의 개발, 배포, 검증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업 특화 AI 엔진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

현재	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내 주요 제조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병행 개발하여, 공장·설비·무기체계 등 엣지(Edge) 환경에서도 AI 모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량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 측면에서는 라이선스 및 구독형(SaaS) 구조를 도입하여 기존의 일회성 프로젝트 매출에서 지속 가능한 반복 수익 구조(MRR)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일본,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향후 당사는 Runway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 특화 AI 시장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검증된 제조 및 국방 AI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일본 시장을 우선 공략하고, 이후 유럽과 중동 시장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해외 진출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이나 합작 모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Agile형 확장 전략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Runway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API 기반 산업용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Edge와 Cloud를 통합한 하이브리드 운영 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와 알고리즘 자산을 활용해 도면 검수 자동화, 로봇 제어 진단, 생산공정 최적화 등 산업별 AI 응용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기술의 산업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AI 솔루션 공급을 넘어 산업 AI 인프라 제공 기업(AI Powerhouse)으로 도약하여, 글로벌 제조 및 국방 AI 시장에서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사업의 확장가능성(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진출 등)

(가) 제품 중심 사업모델로의 전환

동사는 신청일 현재까지 AI 컨설팅, 운영체계 구축 등 다층적 Value-to-Revenue 체계를 통해 고객사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 자산은 제품 완성도 향상과 기능 확장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곧 제품 중심 사업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향후 당사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핵심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제품 매출 비중 확대와 사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 제품 수주 비중 확대

Runway 플랫폼 출시 이후 동사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국방과학연

구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품형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전체 매출의 80%를 제품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AI 운영체계 도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지속적인 매출 흐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는 주요 방산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방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 Time-to-value 단축

Runway 플랫폼 기반의 표준화된 개발 프로세스는 AI 학습, 배포, 재학습 과정을 과거 수주일에서 하루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효율화는 고객의 신속한 성과 창출로 이어지며,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AI 적용 확대와 경쟁우위 확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Runway에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집약하여 AI 개발 및 운영 효율성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3) SaaS 및 On-Device AI 확장

동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Runway의 적용 범위를 SaaS와 On-Device AI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SaaS 분야에서는 Runway를 클라우드 환경(AWS, Azure, Naver Cloud 등)에 탑재하여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서비스형 제품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PLC 코드 분석, 설계도면 검토 등 실질적 수요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3년 내 상용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제조 및 국방 분야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Pilot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On-Device AI 분야에서도, 차량 MCU, 산업용 로봇, AGV, 드론 등 엣지 디바이스 단위에서 AI를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드웨어 호환성, 모델 경량화, 실시간 제어 등 핵심 요소기술을 Runway에 통합함으로써, 네트워크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도 자율적 판단과 예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AI 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 확장은 산업 현장과 국방체계 모두에서 동사의 경쟁력과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글로벌 시장 진출

동사는 국내 제조 및 국방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 신뢰도와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3위의 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동사가 국내 주요 산업군과 함께 구축한 AI 적용 사례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레퍼런스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전략은 단계적 진출과 선택적 집중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선 일본을 최우선 시장으로 설정하고, 유럽과 중동은 기회 기반 접근, 미국은 중장기 목표 시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일본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품질 중심의 산업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 동사의 산업 특화 AI 솔루션이 적합한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도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Vision Creator 등 SI 사업자와 협력하여 시장 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요코가와 전기, 나치-후시코시, 혼다 중앙연구소 등과 PoC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쓰비시상사와의 공동 사업개발 논의를 통해 현지 시장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조 분야 생성형 AI 솔루션을 중심으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법인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일본 내 자립적 사업 구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협력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Device Insight 및 핀란드의 Reddal과 협력하여 AI 기반 산업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Nordex사 및 ASM International과의 PoC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후속 사업 확장과 고객 신뢰 구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단계적 글로벌 진출 전략을 통해 동사는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 경쟁력과 산업별 데이터 자산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특화 AI 플랫폼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여,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제9기)	2024년(제8기)	2023년(제7기)
영업수익	11,459	8,294	5,206
영업수익성장률	38.17%	59.31%	64.18%
영업이익(손실)	(8,041)	(10,897)	(11,158)
영업이익(손실)률	-70.17%	-131.38%	-214.33%
당기순이익(손실)	(13,774)	(6,073)	(18,344)
당기순이익(손실)률	-120.20%	-73.22%	-352.36%

(출처: 동사 내부자료)

동사의 영업수익은 2023년 5,206백만원, 2024년 8,294백만원, 2025년 11,459백만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술 축적에 따른 사업 구조 개선, 특히 AI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시장 내 입지 강화, 제조 분야 실적 기반 국방 분야 진출에 기인합니다.

최근 3년간 동사의 제품 매출은 연평균 57.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전체 매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객 확대에 따라 제품 기능 및 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운영 데이터와 고객 피드백이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품 기능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향후 Runway 기반 제품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프트웨어 제품 중심의 매출 구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업 확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은 2023년 11,158백만원, 2024년 10,897백만원, 2025년 8,041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고도화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 강화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판관비 증가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제조 대기업 및 방산 업체와의 사업협력 확대, 그리고 글로벌 산업 현장의 디지

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Runway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매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규 산업군 진출 및 Runway 제품 고도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와 전문인력 확충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이 상승하여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단위: 백만원, % 회)

구 분	2025년 (제9기)	2024년 (제8기)	2023년 (제7기)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52.83%	-147.41%	863.66%	85.12%
자본의 잠식률(%)	-94.72%	59.07%	849.87%	-
재고자산 회전율(회)	-	-	-	45.66회
매출채권 회전율(회)	2.7회	7.0회	2.9회	6.98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803)	(10,638)	(10,183)	-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	-	-	-	-

(출처: 동사 내부자료)

주1)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참조

동사가 속한 AI 산업은 현재 개화기 단계로,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사는 대규모 R&D 지출과 우선주 부채 평가손실로 인해 2024년까지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25년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자본잠식이 해소되었습니다.

재고자산이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 특성상 재고자산 회전율을 활용한 분석은 불가능하며, 매출채권 회전율은 업종 평균 대비 낮아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지속적인 적자 기록으로 2025년까지 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 경영환경

윤성호 대표이사는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에서 물리학과 수

학을 전공하며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첨단 기술과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연구개발 경험을 쌓았습니다. 졸업 후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사업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반도체 산업 현장의 기술적 문제 해결 경험을 쌓았고, SK텔레콤 ICT 기술원에서는 Manager로 근무하며 Applied Materials사와 협력해 AI 기반 이상탐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주식회사 동사에 합류한 윤성호 대표이사는 기술개발과 경영 총괄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주도하였습니다. 산업 특화 AI(Vertical AI)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리즈 A·B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회사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한국공학한림원 산업미래전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활동하며 산업 전반의 AI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성호 대표이사는 기술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두루 겸비한 경영인으로, 산업 특화 AI 시장에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성명	윤성호(尹性皓, YOON SUNGHO), 대표이사			생년월일	1983.11.16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분야	학위
	1999.03	2002.02	과천고등학교	-	졸업
	2002.09	2005.12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물리학, 수학	학사
	2006.09	2012.06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물리학	박사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명		최종직위
	2012.07	2016.05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사업부		책임연구원
	2016.06	2018.06	SK텔레콤ICT 기술원		Manager
	2018.05	현재	동사		대표이사
가입 단체	- 現) 한국공학한림원 컴퓨팅분과위원회 일반회원(2026~) - 現)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방·안보 분과, 제조TF 위원 (2025~) - 한국공학한림원 산업미래전략위원회 위원 (2024) - 산업부 산업대전환 포럼 新비즈니스 분과 위원 (2022~2023) - NetKAL (Network of Korean American Leaders) Korea II Fellowship (2018.10~현재) - MIT 한국총동문회 - 일리노이대학교 한국총동문회				
	산업 특화 AI(Vertical AI) 기업 마키나락스는 2017년 대표이사(CEO) 윤성호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윤성호 대표는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물리학 박사 취득 후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사업부를 거쳐, SK텔레콤 ICT 기술원에서 근무하며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인 Applied Materials사와 AI 기반 이상탐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산업 특화 AI의 필요성을 체감했습니다. 당시 범용 AI는 이미 미국 빅테크 기업이 주도권을 장악해가고 있었고, 제조 산업은 인력 부족과 자동화 솔루션의 한계에 직면해 생산성 혁신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설립 배경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박사 출신이자 전자·금융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경험을 갖춘 최고기술책임자(CTO) 심상우, SK텔레콤에서 Applied Materials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카이스트(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박사 출신 최고AI책임자(CAIO) 임용섭과 마키나락스를 공동 창업하였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마키나락스는 전략 투자자로부터 이례적인 수준의 투자를 유치하며 업계의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시리즈 A(2020년)와 시리즈 B(2022년) 투자에 제조 계열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동시에 참여한 것은 당시 업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2025년 9월까지 누적 투자액은 총 500억원으로 Applied Materials, GS, LG, SK, 삼성, 포스코, 한화, 현대 등 글로벌 기업은 자본 참여를 넘어, 당사의 고객으로서 사업 모델과 기술 잠재력을 산업 현장에서 함께 검증하고 있습니다. 마키나락스는 글로벌 기업을 투자자로 유치함과 동시에 고객으로 확보하는 락인(Lock-in) 전략으로, 빠르게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를 구축하며 산업 특화 인공지능 개발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AI 파워하우스(AI Powerhouse)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 철학	1) 빠른 실행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탁월한 성과 도출 2) 세계 최고만을 고집하고 이뤄내는 집념과 도전 정신 3) 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와 인류에 기여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의 주요 임직원들은 각 분야에서 장기간 전문 경험을 쌓아 관련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조직(CBO)과 재무조직(CFO) 등 필수 조직 체계가 완비되어 있어, 고객사 요구 사항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인력과 조직적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부	팀	인원수 (명)	주요업무
경영진 (C-level)		5	- CEO (Chief Executive Officer): 대표이사 - CTO (Chief Technology Officer): 제품 개발 및 기술 총괄 - CAIO (Chief AI Officer): AI연구개발 총괄 - CBO (Chief Business Officer): 사업화 부문 총괄 - CFO (Chief Finance Officer): 재무 총괄
CTO/CSO	FDE본부	40	-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만드는 조직 - 구체적인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 - ML Engineer로 구성
	PD본부	18	- Runway 제품의 구성 요소들 및 고객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 데이터 어노테이션, AutoML, Continuous Training, LLM 서빙 등 다양한 MLOps, DataOps, LLMOps 기능을 통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AI 운영 환경을 제공 - 사용자경험(UX)팀, Frontend 엔지니어링팀, Backend 엔지니어링팀, 품질보증(QA)팀으로 구성
	보안/인프라팀	4	- AI/ML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보호 거버넌스 운영 및 정보보안 인증 획득 및 유지관리 - Infrastructure Engineer와 Solution Engineer로 구성
	Cognition팀	3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위한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본부	팀	인원수 (명)	주요업무
	CS팀	-	제품 및 모델 적용 이후 발생하는 운영 이슈에 대응하여 고객이 AI/ML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
사업화본부	Applied AI사업팀	1	예측, 설비이상감지, 최적화 등 전통적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특화 AI솔루션 사업 개발
	AI플랫폼사업팀	7	AI OS Runway 기반의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고객 및 파트너와 함께 플랫폼 사업을 확장
	국방사업팀	4	국방 분야의 AI솔루션 및 AI OS 관련 사업화 추진
	신사업팀	7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Agent 등 신기술을 활용한 특화 AI솔루션 사업 개발
	마케팅팀	5	브랜딩, PR 등 통한 시장 내 당사 포지셔닝 강화 및 특화 솔루션별 마케팅을 통한 영업 기회 발굴
경영지원본부	F&A팀	4	재무 회계 및 총무 업무 담당으로 경영지원 업무 수행
CEO직속	제품전략/기획팀	7	전사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로드맵 수립, 제품 기획, 개발 관리 등 제품 기획 및 관리 전반 업무
	Project Management팀	8	고객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AI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Runway 기반 솔루션 도입 관리
	미래성장전략팀	3	전사 성장전략 수립 및 실행 관리, 전사 손익/실적 KPI 관리, 글로벌 사업 및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
	P&C팀	5	People & Culture 팀. 채용, 퇴직, 근태, 평가, 보상, 교육 등 인사 전반 운영 및 조직문화 관리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스닥협회에서 발간한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정관을 적절히 개정하였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주주총회 운영규정,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주요 사규를 제·개정하여 충실히 운영함에 따라 상장회사로서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제도를 적절히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동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5일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동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시 이해관계자의 의결

권을 제한하는 등 이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에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5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을 제정하여 동 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이사회 승인절차를 수행하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6인의 등기이사 중 2인의 사외이사(장영재, 서용진)를 선임하고 있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한다는 상법상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1인(김철수)이 비상근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2인 및 감사는 관련법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과거 경력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외이사직 및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의 사외이사 2인 및 감사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 및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수인 경우에는 겸직허가서를 사전에 갖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책	성명 (생년월일)	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사외이사	장영재 (74.03.10.)	('97.05) 보스턴대학 우주항공공학 학사 ('99.06) MIT 기계공학 석사 ('01.06)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경영공학 석사 ('07.06) MIT 기계공학, 경영공학 박사 ('07.02~'10.10)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본사 기획실 기획팀장 ('10.11~현재)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부교수 ('19.01~현재) KAIST 디지털 미래기술 연구센터 센터장 ('20.02~현재) 다임리서치(주) 대표 ('24.03~현재) 당사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외이사	서용진 (79.11.03.)	('04.02) 고려대 토목건축공학 ('12.02)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06.09~'09.02) 삼일 회계법인 ('12.03~'15.10) 법무법인 한결 ('13.10~'14.03) 법무법인 태한 ('14.04~현재) 법무법인(유) 강남 ('14.04~현재) 대한법률학원 민법 교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책	성명 (생년월일)	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24.03~현재) 동사 사외이사		
감사	김철수 (70.03.04.)	('95.02)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01.05~'12.04) 검찰청 검사 ('12.05) 주 LA총영사관 법무협력관 ('14.01)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16.01)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17.08~'18.07)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18.09) 변호사 개업 ('18.09)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9.02) 법무법인 문평 대표변호사 ('20.04~현재) 주식회사 핑거 사외이사 ('22.02~현재)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 ('23.12~현재) 동사 감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바. 기타 투자자보호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방안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고 상법상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하고 있는 질적 요건인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 등을 갖추고 있으며, 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상장 준비 과정에서 동사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장 후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인수인의 기업공개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미래에셋증권(주)이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원, %, %p)

상장회사명	소속시장	상장일	공모희망가		공모가	수익률(무상증자, 액면분할 반영) (단위: %)						
			하단	상단		구분	상장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엑스비스	코스닥	2026-03-09	10,100	11,500	11,500	공모주식(A)	300.0	-	-	-	-	-
						시장지수(B)	-4.5	-	-	-	-	-
						시장지수초과(A-B)	304.5	-	-	-	-	-
리브스메드	코스닥	2025-12-24	44,000	55,000	55,000	공모주식(A)	-9.8	13.1	-	-	-	-
						시장지수(B)	-0.5	8.1	-	-	-	-
						시장지수초과(A-B)	-9.3	5.0	-	-	-	-
티앤씨	코스닥	2025-12-15	8,000	9,300	9,300	공모주식(A)	80.3	49.9	-	-	-	-
						시장지수(B)	0.2	0.5	-	-	-	-
						시장지수초과(A-B)	80.2	49.4	-	-	-	-
에임드바이오	코스닥	2025-12-04	9,000	11,000	11,000	공모주식(A)	300.0	397.3	470.9	-	-	-
						시장지수(B)	-0.2	2.7	19.8	-	-	-
						시장지수초과(A-B)	300.2	394.5	451.1	-	-	-
씨앤티엑스	코스닥	2025-11-20	51,000	60,500	60,500	공모주식(A)	117.5	57.9	137.4	-	-	-
						시장지수(B)	2.4	6.6	33.2	-	-	-
						시장지수초과(A-B)	115.2	51.2	104.1	-	-	-
더핑크퐁컴퍼니	코스닥	2025-11-18	32,000	38,000	38,000	공모주식(A)	9.3	-33.8	-41.3	-	-	-
						시장지수(B)	-2.7	1.4	28.6	-	-	-
						시장지수초과(A-B)	12.0	-35.2	-69.9	-	-	-
노타	코스닥	2025-11-03	7,600	9,100	9,100	공모주식(A)	240.7	367.0	359.9	-	-	-
						시장지수(B)	1.6	3.3	22.0	-	-	-
						시장지수초과(A-B)	239.1	363.8	337.9	-	-	-
지투지바이오	코스닥	2025-08-14	48,000	58,000	58,000	공모주식(A)	61.7	243.1	59.0	60.7	-	-
						시장지수(B)	0.14	4.7	12.8	36.9	-	-
						시장지수초과(A-B)	61.6	238.4	46.2	23.7	-	-
뉴로핏	코스닥	2025-07-25	11,400	14,000	14,000	공모주식(A)	45	-24.0	46.4	55.0	-	-
						시장지수(B)	-0.36	-1.5	9.0	19.8	-	-
						시장지수초과(A-B)	45.4	-22.5	37.4	35.2	-	-
인투셀	코스닥	2025-05-23	12,500	17,000	17,000	공모주식(A)	95.3	129.7	68.5	260.6	80.0	-
						시장지수(B)	-0.24	9.4	11.2	24.3	61.7	-
						시장지수초과(A-B)	95.5	120.4	57.3	236.3	18.3	-
달바글로벌	코스피	2025-05-22	54,500	66,300	66,300	공모주식(A)	66.1	160.2	181.3	101.1	158.4	-
						시장지수(B)	-1.22	15.1	20.7	49.7	116.2	-
						시장지수초과(A-B)	67.3	145.1	160.6	51.4	42.1	-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2025-03-14	26,000	31,800	26,000	공모주식(A)	23.1	22.3	57.3	106.5	91.5	116.2
						시장지수(B)	-0.28	-4.6	12.5	32.4	60.7	113.2
						시장지수초과(A-B)	23.4	26.9	44.8	74.1	30.9	2.9
대진첨단소재	코스닥	2025-03-06	10,900	13,000	9,000	공모주식(A)	34.6	54.8	15.6	-28.1	-50.2	-68.6
						시장지수(B)	-1.61	-8	1.2	9.6	24.3	54.6
						시장지수초과(A-B)	36.2	62.8	14.3	-37.7	-74.5	-123.2
위너스	코스닥	2025-02-24	7,500	8,500	8,500	공모주식(A)	300	93.8	78.5	48.8	19.4	27.4
						시장지수(B)	-0.17	-7	-7.6	3.0	10.6	50.4
						시장지수초과(A-B)	300.2	100.8	86	45.8	8.9	-23.0
모티브링크	코스닥	2025-02-20	5,100	6,000	6,000	공모주식(A)	193.5	96.7	64.3	39.8	46.7	41.7
						시장지수(B)	-1.28	-6.8	-8.1	-0.1	12.9	48.3
						시장지수초과(A-B)	194.8	103.5	72.4	39.9	33.8	-6.6
데이원컴퍼니	코스닥	2025-01-24	22,000	26,700	13,000	공모주식(A)	-40	-48.9	-42.7	-53.5	-58.6	-65.5
						시장지수(B)	0.65	6.8	0.3	11.9	21.4	37.3

상장회사명	소속시장	상장일	공모희망가		공모가	수익률(무상증자, 액면분할 반영) (단위: %)						
			하단	상단		구분	상장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장지수초과(A-B)	-40.7	-55.7	-43	-65.3	-80.0	-102.7
미트박스	코스닥	2025-01-23	23,000	28,500	19,000	공모주식(A)	-25.3	-45.3	-23.9	-15.8	-50.3	-56.6
						시장지수(B)	-1.13	5.8	-0.9	11.1	19.1	35.7
						시장지수초과(A-B)	-24.1	-51	-23.1	-26.9	-69.5	-92.3
쓰리에이로직스	코스닥	2024-12-24	15,700	18,200	11,000	공모주식(A)	-17	-42.8	-11.8	-34.4	-31.2	-42.0
						시장지수(B)	0.13	7.3	6	17.9	28.7	34.7
						시장지수초과(A-B)	-17.1	-50.1	-17.9	-52.3	-59.9	-76.7
온코크로스	코스닥	2024-12-18	10,100	12,300	7,300	공모주식(A)	22.7	7.8	57.5	79	34.7	-42.0
						시장지수(B)	0.45	4.4	7.4	12.3	22.8	29.8
						시장지수초과(A-B)	22.3	3.5	50.2	66.8	11.9	-71.8
닷밀	코스닥	2024-11-13	11,000	13,000	13,000	공모주식(A)	-33.8	-54.7	-53.7	-48.2	-79.2	-81.8
						시장지수(B)	-2.94	-2.4	5.5	3	14.6	29.3
						시장지수초과(A-B)	-30.8	-52.3	-59.1	-51.2	-93.8	-111.1
클로봇	코스닥	2024-10-28	9,400	10,900	13,000	공모주식(A)	-22.5	-37.7	-17.7	40.5	46.7	192.3
						시장지수(B)	1.8	-4.5	0.2	-1.1	10.6	24.2
						시장지수초과(A-B)	-24.3	-33.2	-17.9	41.6	36.1	168.1
에이치엔에스하이텍	코스닥	2024-10-25	22,000	26,000	22,000	공모주식(A)	-22.8	-24.3	-22.9	-20.2	-28.1	-36.4
						시장지수(B)	-0.98	-5.1	-0.8	-0.7	9.9	20.2
						시장지수초과(A-B)	-21.8	-19.2	-22.1	-19.6	-37.9	-56.6
전진건설로봇	코스피	2024-08-19	13,800	15,700	16,500	공모주식(A)	24.5	-4.8	83	276.4	213.9	233.9
						시장지수(B)	-0.85	-4.3	-8.4	-1	-3.5	16.8
						시장지수초과(A-B)	25.4	-0.5	91.4	277.3	217.4	217.1
뱅크웨어글로벌	코스닥	2024-08-12	16,000	19,000	16,000	공모주식(A)	-1.6	-55.8	-54.3	-66.8	-72.5	-0.6
						시장지수(B)	1.08	-4.4	-7.1	-2.5	-5.1	5.6
						시장지수초과(A-B)	-2.6	-51.4	-47.2	-64.2	-67.4	-6.2
산일전기	코스피	2024-07-29	24,000	30,000	35,000	공모주식(A)	43.4	12.1	13.4	109.1	59.7	2.3
						시장지수(B)	1.23	-2.5	-4.2	-7.1	-6.1	18.3
						시장지수초과(A-B)	42.2	14.7	17.6	116.3	65.8	-16
이노스페이스	코스닥	2024-07-02	36,400	43,300	43,300	공모주식(A)	-20.4	-55.3	-59.6	-60.5	-59.3	-0.6
						시장지수(B)	-2.04	-8	-10	-18.9	-19.2	-7.7
						시장지수초과(A-B)	-18.4	-47.3	-49.6	-41.6	-40.1	7.1
아이엠비디엑스	코스닥	2024-04-03	7,700	9,900	13,000	공모주식(A)	176.9	17.4	-31.9	29.6	-12.4	-0.3
						시장지수(B)	-1.3	-2.9	-6.2	-14.5	-20.8	-23.3
						시장지수초과(A-B)	178.2	20.3	-25.7	44.1	8.5	23
현대힘스	코스닥	2024-01-26	5,000	6,300	7,300	공모주식(A)	300	120.5	128.5	114.4	34.8	1.7
						시장지수(B)	1.64	5.3	4	-3.2	-11.7	-11.5
						시장지수초과(A-B)	298.4	115.2	124.5	117.6	46.5	13.2
에이에스텍	코스닥	2023-11-28	21,000	25,000	28,000	공모주식(A)	150.4	25	5.7	62.9	-9.5	-0.3
						시장지수(B)	0.76	7	6.6	5	-5.9	-14.3
						시장지수초과(A-B)	149.6	18	-0.8	57.8	-3.6	14
에코프로머티	코스피	2023-11-17	36,200	44,000	36,200	공모주식(A)	58	488.4	448.6	171.5	129.3	1.5
						시장지수(B)	-0.74	3	6.5	9.5	8.4	-2.9
						시장지수초과(A-B)	58.7	485.4	442.2	162	120.9	4.3
큐로셀	코스닥	2023-11-09	29,800	33,500	20,000	공모주식(A)	8.5	23	29	62.8	48.5	0.5
						시장지수(B)	-1	2.4	1.9	7.3	-5.7	-8.3
						시장지수초과(A-B)	9.5	20.6	27.1	55.5	54.2	8.8
						공모주식(A)	50.2	-15.4	1.5	18.3	42.9	0

상장회사명	소속시장	상장일	공모희망가		공모가	수익률(무상증자, 액면분할 반영) (단위: %)						
			하단	상단		구분	상장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신성에스티	코스닥	2023-10-19	22,000	25,000	26,000	시장지수(B)	-3.07	-1.2	4.2	4.1	2.5	-6.9
						시장지수초과(A-B)	53.3	-14.2	-2.6	14.2	40.4	6.9
퓨릿	코스닥	2023-10-18	8,800	10,700	10,700	공모주식(A)	35.1	0.6	10.7	18.1	-13.4	-0.4
						시장지수(B)	-1.4	-2.6	2.4	4.3	0.3	-8.2
						시장지수초과(A-B)	36.5	3.2	8.3	13.8	-13.6	7.8
두산로보틱스	코스피	2023-10-05	21,000	26,000	26,000	공모주식(A)	97.7	72.3	320	209.2	193.1	1.4
						시장지수(B)	-0.09	-1.6	7.2	12.8	19	6.8
						시장지수초과(A-B)	97.8	73.9	312.8	196.4	174.1	-5.4
밀리익서재	코스닥	2023-09-27	20,000	23,000	23,000	공모주식(A)	80.9	-15.7	-27.7	-15.6	-25.2	-0.3
						시장지수(B)	1.59	-9.6	3.9	10.1	1.3	-6.4
						시장지수초과(A-B)	79.3	-6.1	-31.6	-25.6	-26.5	6.1
에이엘티	코스닥	2023-07-27	16,700	20,500	25,000	공모주식(A)	-9.8	-20.6	-30.6	-0.2	-17.4	-0.5
						시장지수(B)	-1.87	-0.1	-16.9	-7	-4.9	-11.4
						시장지수초과(A-B)	-7.9	-20.5	-13.7	6.8	-12.5	10.9
필에너지	코스닥	2023-07-14	26,300	30,000	34,000	공모주식(A)	237.1	51.2	-14.6	-38.4	63.2	-0.4
						시장지수(B)	0.36	1	-7.9	-2.8	-3.7	-4.8
						시장지수초과(A-B)	236.7	50.2	-6.7	-35.6	66.9	4.4
모니터랩	코스닥	2023-05-19	7,500	9,800	9,800	공모주식(A)	44.9	16.9	-27.2	-37.7	-34.1	-0.4
						시장지수(B)	0.7	6.3	5	-4.4	2.7	2.3
						시장지수초과(A-B)	44.2	10.6	-32.2	-33.2	-36.8	-2.6
트루엔	코스닥	2023-05-17	10,000	12,000	12,000	공모주식(A)	43.3	19.3	-12	-15.1	-2.4	-0.1
						시장지수(B)	2.14	8.7	8.5	-2.2	5	4.7
						시장지수초과(A-B)	41.2	10.5	-20.5	-12.9	-7.4	-4.8
에스바이오메딕스	코스닥	2023-05-04	16,000	18,000	18,000	공모주식(A)	4.6	-17.6	-48.7	-56.4	-50.7	1
						시장지수(B)	0.22	3	8.9	-7.2	-3.4	2.7
						시장지수초과(A-B)	4.4	-20.5	-57.6	-49.1	-47.4	-1.6
LB인베스트먼트	코스닥	2023-03-29	4,400	5,100	5,100	공모주식(A)	65.7	10.2	-1	-13.8	-8.7	-0.2
						시장지수(B)	1.25	1.1	3.4	0.9	4	8.6
						시장지수초과(A-B)	64.4	9.1	-4.4	-14.7	-12.7	-8.8
스튜디오미르	코스닥	2023-02-07	15,300	19,500	19,500	공모주식(A)	160	108.7	73.1	46.2	568.6	0.6
						시장지수(B)	1.51	7.1	11	18	8.3	6.6
						시장지수초과(A-B)	158.5	101.6	62.1	28.2	560.3	-6
한주라이트메탈	코스닥	2023-01-19	2,700	3,100	3,100	공모주식(A)	72.3	40.3	92.6	66.5	87.6	0.1
						시장지수(B)	0.16	9	27.7	29.8	10.2	18.4
						시장지수초과(A-B)	72.1	31.3	64.8	36.7	77.4	-18.3
엔젯	코스닥	2022-11-18	12,000	15,200	10,000	공모주식(A)	8.5	9.5	55.1	133	69.7	0.2
						시장지수(B)	-0.76	-2.7	5.2	13.3	19	8.3
						시장지수초과(A-B)	9.3	12.2	49.9	119.7	50.7	-8.2
유비온	코스닥	2022-11-18	1,800	2,000	2,000	공모주식(A)	-12.8	-32	-25.1	-24.1	15	-0.3
						시장지수(B)	-0.76	-2.7	5.2	13.3	19	8.3
						시장지수초과(A-B)	-12	-29.3	-30.3	-37.4	-4	-8.6
티쓰리	코스닥	2022-11-17	1,500	1,700	1,700	공모주식(A)	22.6	4.7	51.8	-0.5	-20.2	-0.2
						시장지수(B)	-0.75	-3.5	4.4	12.3	19.2	7.5
						시장지수초과(A-B)	23.4	8.2	47.4	-12.8	-39.5	-7.7
윤성애프앤씨	코스닥	2022-11-14	53,000	62,000	49,000	공모주식(A)	-17.4	-8.8	7.8	205.1	284.1	1.3
						시장지수(B)	-0.23	-0.3	6.6	12.5	23.3	8.6
						시장지수초과(A-B)	-17.2	-8.5	1.1	192.6	260.8	-7.3

상장회사명	소속시장	상장일	공모희망가		공모가	수익률(무상증자, 액면분할 반영) (단위: %)						
			하단	상단		구분	상장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제이아이테크	코스닥	2022-11-04	13,000	16,000	16,000	공모주식(A)	-25.6	-35.6	-25	8.1	6.1	-0.8
						시장지수(B)	-0.03	5.6	10.5	21.7	32.3	12.7
						시장지수초과(A-B)	-25.6	-41.2	-35.5	-13.7	-26.2	-13.4
큐알티	코스닥	2022-11-02	51,400	62,900	44,000	공모주식(A)	-12.8	-11.1	-70.7	-70	-17	-0.7
						시장지수(B)	-0.38	4.7	9.2	22.2	30	10.4
						시장지수초과(A-B)	-12.5	-15.8	-79.9	-92.2	-47	-11.1
저스텍	코스닥	2022-10-28	9,500	11,500	10,500	공모주식(A)	18.1	-15.5	-12.8	55.1	62	0.1
						시장지수(B)	-1.07	3.3	6.6	21.3	31.5	7.7
						시장지수초과(A-B)	19.2	-18.8	-19.4	33.9	30.5	-7.6
플라즈맵	코스닥	2022-10-21	9,000	11,000	7,000	공모주식(A)	-4.3	0.7	-8.1	-11.4	-15.3	-0.4
						시장지수(B)	-0.88	5.6	5.5	27.7	37.3	13.1
						시장지수초과(A-B)	-3.4	-4.9	-13.7	-39.1	-52.6	-13.5
에스비비테크	코스닥	2022-10-17	10,100	12,400	12,400	공모주식(A)	150.4	88.7	82.3	358.9	220.2	2
						시장지수(B)	0.55	8.7	4.6	34.1	32.4	21
						시장지수초과(A-B)	149.8	80	77.6	324.8	187.7	-19
쏘카	코스피	2022-08-22	34,000	45,000	28,000	공모주식(A)	-6.1	-36.4	-38.4	-23.9	-38.8	-0.5
						시장지수(B)	-1.21	-6.4	-3.5	-3	2.6	0.9
						시장지수초과(A-B)	-4.9	-30	-34.9	-20.9	-41.4	-1.5
구분			상장회사의 수			평균수익률						
유가증권시장			7			시장지수초과	43.8	102	147.3	148.5	111.4	1.1
코스닥시장			39				54.3	10.3	3.7	21.7	37.4	0
합계			46				52.9	24	21.6	31.5	40.8	-2

- 주1) 스팩, 리츠의 경우 수요예측의 결과와 무관하게 공모가가 일정하게 정해지는 특성이 있어 제외하였으며, 공모가 포함되지 않은 스팩합병 상장, REITs, 이 전시장 또한 제외하였습니다.
- 주2) 공모주식 수익률 계산은 수정주가(권리락, 액면분할 등 기준가격 조정으로 주가(기준가)가 조정될 경우, 현재 주가와 공모가 등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 조정 비율을 공모가에 적용하여 소급 계산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아. 회사의 과거 신규 주식 발행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신규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키나락스의 최근 3개년 신규 발행 주식 내역]

(단위: 주, 원)

주식발행일자	발행형태 및 방식	주식종류	총 발행수량	주당발행가액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발행 관련 중요 계약 조건	주요 투자자 및 행사자
					보통주	우선주	합계		
2023.10.27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13,185	151,690	1,179,595	408,435	1,588,030	주1)	포지티브 에이아이 벤처투자 조합 제1호
2023.11.3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2,524	32,500	1,192,119	408,435	1,600,554	-	임직원
2023.11.3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5,000	25,000	1,197,119	408,435	1,605,554	-	임직원
2023.12.01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2,958	151,690	1,197,119	411,393	1,608,512	주1)	APPLIED VENTURES INNOVA TION FUND I, L.P. 외 1곳
2023.12.09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3,615	151,690	1,197,119	415,008	1,612,127	주1)	삼성증권 주식회사
2023.12.11	보통주 전환	상환전환우선주	(3,000)	-	1,197,119	412,008	1,609,127	-	신한금융투자
		보통주	3,000	-	1,200,119	412,008	1,612,127	-	
2023.12.20	무상증자	보통주	8,400,833	-	9,600,952	412,008	10,012,960	-	보통주 주주
		상환전환우선주	2,884,056	-	9,600,952	3,296,064	12,897,016	-	우선주 주주
2024.04.0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44,808	4,062	9,745,760	3,296,064	13,041,824	-	임직원
2024.05.2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43,900	4,062	9,789,660	3,296,064	13,085,724	-	임직원
2024.05.24	보통주 전환	상환전환우선주	(2,477,608)	-	9,789,660	818,456	10,608,116	-	APPLIED VENTURES INNOVA TION FUND I, L.P. 외 12곳
		보통주	2,477,608	-	12,267,268	818,456	13,085,724	-	
2024.05.2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8,000	4,062	12,275,268	818,456	13,093,724	-	임직원
2024.05.28	보통주 전환	상환전환우선주	(818,456)	-	12,275,268	-	12,275,268	-	한국산업은행 외 1곳
		보통주	818,456	-	13,093,724	-	13,093,724	-	
2024.12.06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326,086	9,200	13,093,724	326,086	13,419,810	주1)	포지티브 세컨더리 벤처투자 조합 제2호
2024.12.13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217,392	9,200	13,093,724	543,478	13,637,202	주1)	엑스퀘어드 넥스트 벤처펀드 제2호 외 2곳
2024.12.20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1,195,663	9,200	13,093,724	1,739,141	14,832,865	주1)	신한에이치비웰니스 1호투자

주식발행일자	발행형태 및 방식	주식종류	총 발행수량	주당발행가액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발행 관련 중요 계약 조건	주요 투자자 및 행사자
					보통주	우선주	합계		
									조합 외 7곳
2025.04.29	무상감자	보통주	(288,264)	-	12,805,460	1,739,141	14,544,601	-	임직원
2025.10.30	유상증자	보통주	260,869	11,500	13,066,329	1,739,141	14,805,470	주1)	미래에셋증권
2025.11.0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34,504	4,062	13,100,833	1,739,141	14,839,974	-	임직원
2025.11.11	보통주 전환	상환전환우선주	(869,564)	-	13,100,833	869,577	13,970,410	-	얼머스 2024 세컨더리 투자조합 외 7곳
		보통주	869,564	-	13,970,397	869,577	14,839,974	-	
2025.11.12	보통주 전환	상환전환우선주	(869,577)	-	13,970,397	-	13,970,397	-	포지티브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제2호 외 2곳
		보통주	869,577	-	14,839,974	-	14,839,974	-	

주1)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시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에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회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대상회사 이사 지명권, 주식매수청구 등의 조건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사는 2026년 2월 중 회사의 모든 투자자들, 이해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윤성호와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여 회사가 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각 투자자(주주)가 회사와 체결한 개별 계약서는 모두 종료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동사가 체결한 관련 계약이 상장 후 주주평등 또는 투자자 보호에 있어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분	금 액
총공모금액(1)	39,525,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	999,990,000
발행제비용(3)	2,132,733,498
순수입금[(1)+(2)-(3)]	36,392,276,502

주1) 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	금 액	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주1)	1,620,999,600	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
성과수수료(주2)	405,249,900	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1.0%
등록세(주3)	5,403,332	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	1,080,666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100,000,000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합 계	2,132,763,220	-

주1) 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성과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3)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주4)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5)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26년 05월 08일)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계
-	-	36,392	-	-	-	36,392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364억 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납입 이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공모자금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6년 이후 연구개발자금 및 해외진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우선순위
연구개발활동	7,839	8,279	11,956	28,074	1순위
해외진출	1,121	1,121	6,076	8,318	2순위
합계	8,960	9,400	18,032	36,392	-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금액인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공모자금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2026년부터 연구개발활동 및 해외진출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각 활동의 총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개발비

당사의 연구 개발 목적은 폐쇄망·국방 환경에서의 AI 플랫폼 기술 및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FM) 개발을 선도하고, 산업과 국방 전반을 아우르는 자율형 Compound AI 기반 운영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산업용 AI의 도입이 제한적인 폐쇄망 및 보안 환경에서도 AI의 전 주기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조·국방·에너지 등 핵심 기간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의 단일 모델 중심의 AI 기술을 넘어 복수의 AI가 협력하며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차세대 AI 운영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Runway 플랫폼을 산업과 국방이 공유할 수 있는 통합형 AI 운영체계로 발전시키고, 국내 AI 플랫폼 기술이 글로벌 수준의 안정성·보안성·확장성을 갖춘 폐쇄망 기반 표준 아키텍처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모자금은 폐쇄망 환경에 최적화된 Runway 플랫폼의 기술 고도화, 자체 파운데이

선 모델 개발, 에이전틱 AI 전환, 그리고 산업·국방 통합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에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인프라 시설장치	1,962	841	2,028	4,831
인건비와 운영비	4,785	5,956	7,666	18,407
기타경비	1,092	1,482	2,262	4,836
합계	7,839	8,279	11,956	28,074

(단위 :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파운데이션모델 기반지능형 플랫폼	7,839	1,497	398	9,734
Compound AI 및 산업/국방 통합운영체계개발	-	6,782	2,589	9,371
완전자동화 폐쇄망 플랫폼 개발	-	-	8,969	8,969
합계	7,839	8,279	11,956	28,074

가) 2025년: 폐쇄망 AI 플랫폼 기술 확립

2025년은 폐쇄망, 특히 국방 환경에서의 AI 플랫폼 기술 주도권을 확립하고, 제품 내장형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독자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과 제조·국방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플랫폼에 내장하고, 비정형 데이터 처리 및 도메인별 정규화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산업별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재학습 및 배포 자동화를 포함한 폐쇄망 MLOps/LLMOps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방 환경 내 MLSecOps 실증을 착수하여 AI 모델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보안 자동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폐쇄망 AI 플랫폼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향후 지능형 자율 운영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기반을 완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핵심 투자 항목

- DGX 기반 GPU 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
- 자체 FM 학습 및 튜닝용 인프라 구축

- 비정형 데이터 처리 및 파이프라인 엔지니어 채용
- MLSecOps 초기 실증 환경 구축

나) 2026년: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지능형 플랫폼 전환기

2026년은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Runway 플랫폼을 지능형 에이전틱(Agentic) 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Code Assistant, AI Help Desk 등 제품 내장형 AI 서비스를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상용화하고, 플랫폼 기능 전반을 에이전트 단위로 구조화하여 자연어 기반의 제어 및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HPC 및 Edge 환경을 아우르는 지능형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확보하여, GPU Fractionalization과 자원 스케줄링을 통해 워크로드별 효율적 자원 분할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방 장비용 On-device AI 기술을 고도화하여 드론·센서 등 폐쇄망 장비에서도 실시간 추론과 자율 판단이 가능한 구조를 실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Runway 플랫폼은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지능형 운영체제로 전환되며, 산업·국방 분야를 아우르는 응용 확장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 핵심 투자 항목

-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조직 설립
- GPU Fractionalization 및 오케스트레이션 연구팀 확충
- HPC/Edge 클러스터용 GPU 서버 구축
- LLM 기반 Code Assistant 및 Help Desk 개발
- 국방용 Edge 추론 장비 및 실증환경 구축

다) 2027년: Compound AI 및 산업-국방 통합 운영체제 확립

2027년은 산업과 국방을 통합하는 차세대 AI 운영환경을 확립하는 단계로, 플랫폼의 모든 기능을 AI 에이전트가 접근·제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모니터링, 분석, 최적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형 운영체제를 실현할 것입니다. 철강 및 화학 공정을 대상으로 한 열반응 프로세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상용화하고, 학습 없이 신규 라인이나 장비의 이상을 탐지할 수 있는 Zero-shot 이상탐지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AI 적용의 효율성과 범용성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입니다. 또한 모델과 시뮬레이터를 통합한 Compound AI System을 1차 상용화하여 산업·국방 전반에서 복합 AI 기반의 자율 의사결정 환경을 실증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Runway는 산업과 국방을 아우르는 통합형 AI 운영체계로 진화하며, 완전 자율형 플랫폼으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핵심 투자 항목

- Domain별 Foundation Model 학습용 HPC 자원 확충
- 산업 시뮬레이터 및 Multi-Agent 협업 프레임워크 구축
- 국방 Zero-shot 위협 탐지 실증 (On-device 포함)
- AI 플랫폼 전체 Agent화

라) 2028년 이후: 완전 자동화 폐쇄망 플랫폼으로의 확장

자율형 학습·운영 체계를 고도화하여 데이터 드리프트 감지 후 재학습·배포·평가가 자동으로 수행되는 구조를 완성하고, 산업 전용 대규모 시뮬레이터 및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 특화 Multi-Agent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재료·에너지·화학·전자기 등 복합 도메인을 통합한 초대형 산업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Autonomous Industrial OS 및 자율형 Compound AI Factory로 진화할 것입니다. 국방 영역에서는 AGI 지향형 자율작전 및 위협 대응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Runway를 산업과 국방 전반의 자율형 AI 운영체계이자 폐쇄망 기반 글로벌 표준 아키텍처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2) 해외 진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일본현지법인	1,121	561	3,274	4,956
해외-기타	-	560	2,802	3,362
합계	1,121	1,121	6,076	8,318

당사는 일본 시장을 단순한 기술 수출 대상이 아닌, 보안·데이터 주권 중심의 산업

AI 생태계가 자리한 전략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 최적화된 Runway 플랫폼의 Compound AI 구조적 확장성과 현장 KPI 중심의 Vertical AI 솔루션의 실효성을 결합하여 제조 AI 분야의 시장 점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는 현재 일본 시장에서의 초기 협업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 신뢰도를 확보하며 시장 개척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기술 공급 단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현지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고 거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현지화와 산업별 집중, 브랜드 신뢰 구축, 조직적 확장 기반을 축으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 현지화(Localization) 및 신뢰 구축

일본 시장은 솔루션 도입 이후의 유지보수 및 고객 대응(After-service & Support)이 장기 신뢰 형성의 핵심 요소이므로, 당사는 현지화 된 전담 고객 대응 조직(Local Service & Maintenance Cell)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조직은 고객사 내 운영환경 모니터링, 주기적 성능 점검, 업데이트 대응, 기술 교육을 담당하며, 현장 엔지니어와 본사 AI 전문가 간의 양방향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납품 이후의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고객사 내 AI 활용 확산 및 장기 계약 갱신으로 이어지는 신뢰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고객 대응 조직은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확보한 운영자금을 통해 구성하고 육성해야 하나, 현재 시장 진입 초기이고 이러한 고객 대응 역량이 해외 기업으로 일본 시장 내 초기 고객 확보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연 **6억원**씩 총 **17억원**을 투자하여 고객 대응 조직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직 구성을 통해 강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확보한 신규 고객과 협업 확대를 기반으로 3년차 이후는 일본법인이 자체적인 운영자금으로 해당 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 협업 가능한 일정 규모의 고객 기반을 구축한 후에는 도쿄 혹은 나고야를 중심으로 Co-Creation Lab(공동 실증 랩)을 설립하여 일본 제조기업들과 시스템 통합(SI)기업들이 Runway 기반의 특화 AI솔루션을 직접 검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Co-Creation Lab(공동 실증 랩)을 설립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당사가 가망 고객으로하는 일본 제조기업들에게 AI가 적용되어 현장 문제를 해

결하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AI도입을 위한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당사가 제공하는 AI 운영체제인 런웨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특화 AI솔루션을 개발 및 배포하는 방식을 일본 현지 시스템 통합(SI) 기업들에게 안내하고 교육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을 통해 런웨이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약 **11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2028년 내 Co-Creation Lab(공동 실증 랩)을 구성하고 오픈할 계획입니다.

나) 산업별 Vertical 집중 및 제품화

당사는 일본 시장 진입 전략을 산업별 세분화에 기반해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소부장, 에너지 및 화학 등 산업을 중심으로 각 도메인별 특성에 맞춘 Vertical AI 솔루션 패키지를 제품화하고, 현장 KPI(불량률, OEE, 수율 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Use Case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산업별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제품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SI 프로젝트 중심의 맞춤형 개발 구조를 점차 줄이고, 모듈형 SaaS 및 패키지형 솔루션으로 전환해 재사용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지화된 솔루션 제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필요성과 한국 제조 분야의 AI 도입 수준이 일본 대비 약 3년 정도 선행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2028년까지 본사에서 개발 및 검증된 제품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후 초기 사업 규모 및 시장 내 입지를 확보한 이후에는 일본 법인의 자체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로봇 등 일본 내 AI 적용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사업화할 예정입니다.

다) 브랜드 신뢰 및 생태계 확장

당사는 일본 시장 내에서의 브랜드 신뢰도와 기술 영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CEATEC, Manufacturing World Tokyo 등 주요 산업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Runway 기반의 산업 AI 사례와 Compound AI System 구조를 소개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방식을 통한 시장 내 인지도 제고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ATTENTION과 같은 자체 행사를 추진하고 해당 행사를 통해

일본 주요 고객사와의 협업 사례를 공유하여 산업 특화 AI 회사로서의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Runway SDK와 API 일부를 개방하여 현지 SI 및 스타트업이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규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용 AI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for Industrial AI)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당사는 2026년 AI EXPO 등 일본 내 주요 산업 행사에 참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8년에는 한국에서 개최 중인 행사와 유사한 규모의 'ATTENTION Japan'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오프라인 행사 참여 및 PR 활동을 위해 약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8년에는 자체 행사 개최를 위해 약 **4.7억원**의 비용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라) 조직 강화 및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

당사는 일본 시장을 단기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장기 운영 거점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과 운영체제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내 Cross-functional 팀(BizDev, Tech PM, AE)을 구성해 본사와의 양방향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직접 판매보다는 채널 파트너 중심의 Indirect Sales 구조를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단계의 파트너 네트워크 확보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1단계) 신뢰 파트너 확보 (Anchor Partnership)	일본 내 주요 SI 기업(Mitsubishi Electric Systems, Hitachi Solutions, Fujitsu 등)과 공동 프로젝트 및 기술검증(PoC)을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초기 성공사례를 확보하여 시장 신뢰 기반을 구축
(2단계) 전문 파트너 세분화 (Specialized Channel Tiering)	산업 도메인별(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등)로 특화된 파트너 그룹을 구성해 각 산업에 최적화된 세일즈 및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 당사는 이를 위해 Runway Certified Partner Program을 운영하고, 파트너 기술교육, 솔루션 공동개발, 영업 리드 공유 체계를 마련
(3단계) 유통·리셀러 네트워크 확장 (Scaling Distribution)	일본 내 공장자동화, 장비, 제어 시스템 유통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Runway 기반 솔루션을 장비 패키지 혹은 시스템 번들 형태로 공급. 이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접근을 넘어, 제품 단위의 시장 확산(Distribution-driven Scaling)을 실현

각 단계별 추진계획은 전반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

이나, 사업 확대에 따라 채널 파트너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활동은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Indirect Sales 확대에 있어서는 파트너를 통해 제공되는 AI 솔루션의 품질 및 가치가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Indirect Sales 확대를 위해서는 파트너 대상 기술 교육 및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당사는 파트너 기술 교육,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상품 개발 등 파트너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체계 구축을 위해 2028년까지 약 **1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은 일본 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 확장 계획에 따라, 당사는 현지화 및 신뢰 구축, 브랜드 신뢰 및 생태계 확장, 조직 강화 및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고객전담조직 구축, Co-Creation Lab 설립, 일본 내 행사 참여 및 자체 행사 개최, 파트너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일본 법인의 사업 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투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일본 법인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일본법인 관련 자금 사용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법인 관련 자금 사용 세부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현지화 및 신뢰 구축	고객전담조직 구축	561	561	561	1,683
	Co-Creation Lab	-	-	1,121	1,121
브랜드 신뢰 및 생태계 확장	행사 참여 및 개최	560	-	471	1,031
조직 강화 및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	파트너 지원체계 구축	-	-	1,121	1,121
합 계		1,121	561	3,274	4,956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다.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자금 유입 후 상기에 명시한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전 자금 및 나머지 여유자금의 보유기간에는 제1금융권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금의 집행과 운용을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2	-	-	2	-
합계	2	-	-	2	-

(주1) 기초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세 현황은 'X.상세표.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해연도의 연결대상회사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구분	자회사	사유
신규 연결	-	-
연결 제외	-	-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마키나락스"이며 영문으로는 "MakinaRocks Co., Ltd."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7년 12월 2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구분	내용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3, 12층 (서초동, 신덕빌딩)
전화번호	02-6245-1221
홈페이지 주소	https://www.makinarocks.ai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 (주1)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주2)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됩니다.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번호 : 0010-2026-243057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기 업 명 :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사업자등록번호 : 441-86-01015 법인등록번호 : 110111-6605856
 대표자명 : 윤성호
 주 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3, 12층 (서초동, 신덕빌딩)
 유효기간 : 2026-04-01 ~ 2027-03-31
 용 도 :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세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중소기업확인서_정정

발급번호 제 20251001020021 호

벤처기업확인서

CERTIFICATE OF VENTURE ENTERPRISE



• 기업명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 사업자등록번호	441-86-01015
• 대표자	윤성호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3 (서초동) 12층
• 확인유형	연구개발유형
• 유효기간	2025년 10월 08일 ~ 2028년 10월 07일

위 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이 확인서는 「벤처기업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벤처기업협회」)이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한 확인서입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기간: '20.7.1~'26.6.30)

벤처기업 해당사유 :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또는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당사는 폐쇄망 등 특수한 환경에서 산업 특화 AI(Vertical AI, 버티컬AI)의 개발과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주력 제품인 AI 플랫폼 Runway를 기반으로 고객의 AI 도입 준비도와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당사는 AI 컨설팅, 운영체계 구축 등 다층적 Value-to-Revenue 체계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 자산을 기반으로 AI 플랫폼 Runway 제품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Runway의 적용 범위를 SaaS 및 On-Device AI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SaaS 분야에서는 Runway를 클라우드 환경에 탑재하여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서비스형 제품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On-Device AI 분야에서는 차량 MCU, 산업용 로봇, AGV, 드론 등 엣지 디바이스 단위에서 AI가 독립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하드웨어 호환성, 모델 경량화, 실시간 제어 등 핵심 요소기술을 Runway에 통합함으로써 지능형 AI 체계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II.사업의 내용'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	결산기준일	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2026.02.25	2024.12.31	한국평가데이터	B+	2027.02.24
2025.08.01	2024.12.31	이크레더블	B	2026.07.31

평가일	결산기준일	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2024.08.20	2023.12.31	이크레더블	B-	2025.08.20
2023.12.06	2022.12.31	이크레더블	B-	2024.12.05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지정)현황	주권상장 (또는 등록·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유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술성장기업 코스닥시장 특례상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0조(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주1) 당사는 2026년 2월 27일 코스닥시장 주권 상장에비심사가 승인되었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시	주소
2017.12.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1, 2층(역삼동, 아주빌딩)
2018.03.2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11, 6층 4호 (서초동, 한화생명보험빌딩)
2018.12.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11, 1406호 (서초동, 한화생명보험빌딩)
2019.04.2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11, 1012호 (서초동, 한화생명보험빌딩)
2019.12.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역삼동, 아크플레이스)
2020.10.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17, 12층 (서초동, 블록77)
2021.11.2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3, 12층 (서초동, 신덕빌딩)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내이사 3인(윤성호 대표이사, 박민수 사내이사, 허영신 사내이사), 사외이사 2인(장영재 사외이사, 서용진 사외이사), 감사 1인(김철수 감사), 기타비상무이사 1인(장홍성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7.12.21	설립	사내이사 윤성호 감사 박민수	-	-
2018.03.21	정기주주총회	사내이사 이재혁	-	-
2018.08.27	임시주주총회	기타비상무이사 장홍성	-	-
2020.08.31	임시주주총회	기타비상무이사 김용욱	-	-
2022.04.22	임시주주총회	-	대표이사 윤성호 대표이사 이재혁	-
2023.09.15	임시주주총회	-	기타비상무이사 김용욱	-
2023.12.20	임시주주총회	감사 김철수	-	-
2024.03.28	정기주주총회	사내이사 박민수 사내이사 허영신 사외이사 장영재 사외이사 서용진	-	-
2024.09.27	임시주주총회	-	기타비상무이사 장홍성	-
2025.03.28	정기주주총회	-	대표이사 윤성호	-

- (주1) 감사 박민수는 2020년 3월 3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2020년 4월 8일 사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주2) 대표이사 이재혁은 2023년 12월 20일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2024년 3월 28일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습니다.
- (주3) 기타비상무이사 김용욱은 2025년 2월 2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2025년 2월 27일 사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연월	주요 내용
2017.1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설립
2018.03	MakinaRocks.,Inc (미국) 설립
2020.07	약 120억원 규모 투자 유치
2021.06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Technology Pioneers 기업 선정
2022.04	약 171억원 규모 투자 유치
2022.11	AI 플랫폼 Runway 출시
2023.04	CB Insights 'AI 100' 기업 선정
2025.04	MakinaRocks KK. (일본) 설립
2026.02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원)

종류	구분	제9기 (2025년말)	제8기 (2024년말)	제7기 (2023년말)	제6기 (2022년말)	제5기 (2021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4,839,974	13,093,724	9,600,952	1,179,595	1,157,840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500
	자본금	7,419,987,000	6,546,862,000	4,800,476,000	589,797,500	578,92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1,739,141	3,296,064	395,250	292,418
	액면금액	-	500	500	500	500
	자본금	-	869,570,500	1,648,032,000	197,625,000	146,209,000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계	자본금	7,419,987,000	7,416,432,500	6,448,508,000	787,422,500	725,129,000

(주1) 상기 우선주는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주2) 2025년 중 상환전환우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남아있는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주3) 상기 자본금 변동추이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우선주를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환사채 등 발행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I.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주1)
II.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5,128,238	5,038,205	20,166,443	-
III.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288,264	5,038,205	5,326,469	-
1. 감자	288,264	-	288,264	-
	-	-	-	-
	-	-	-	-
	-	5,038,205	5,038,205	(주2)
IV. 발행주식의 총수 (II-III)	14,839,974	-	14,839,974	-
V. 자기주식수	-	-	-	-
VI. 유통주식수 (IV-V)	14,839,974	-	14,839,974	-
VII.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주1) 당사 정관(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종류주식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2)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당사는 과거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이력이 존재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어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6년 3월 20일이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일부) 변경의 건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8.11.06	임시주주총회	제 9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9.11.08	임시주주총회	제 9조의 3(주식의 종류, 내용) 제 9조의 4(전환우선주식) 제 9조의 5(상환우선주식)	종류주식 발행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2.01.28	임시주주총회	제 2조(목적)	기존 사업과 관련된 목적 사업 추가
2022.04.22	임시주주총회	제 37조(이사의 원수)	소규모회사 관련 상법 규정 반영 및 이사 수 조정
2023.09.15	임시주주총회	전면 변경	상장법인인 표준정관 준용 및 사규 정비
2026. 3. 20.	정기주주총회	제16조(주주명부의 작성·비치)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제34조(이사의 수) 제35조(이사의 선임) 제40조(이사의 의무)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독립이사 용어 등)

다. 사업목적

(1) 사업목적 현황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위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수출입	영위
3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영위
4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영위
5	각호와 관련된 지분투자	영위
6	각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영위
1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영위

(2)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	변경일	사업목적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2022.01.28	-	각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업 및 통신판매업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주요 용어 해설]

용어	설명
에이전트 플로우 (Agent Flow)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에이전트 및 요소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것을 의미함. 기업용 AI에서 복잡한 작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데 적합한 구조임.
에이전틱 AI(Agentic AI)	단순한 응답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실행·피드백까지 수행하는 자율적 AI. LLM에 도구 사용·메모리·계획 능력을 결합해 에이전트처럼 동작함.
무인 운반차(AGV, Automated Guided Vehicle)	센서나 경로 유도 시스템을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무인 운반 차량. 물류·제조 현장에서 자재 운송 자동화에 활용됨.
AI 에셋(AI Asset)	기업이나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 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자산으로 정의한 것. 재사용·확장 가능한 형태로 관리됨.
OLP	Off-Line Programming: 실제 장비를 멈추지 않고 가상 환경에서 로봇 동작 경로를 프로그래밍하는 방식. 산업용 로봇의 생산성 향상과 다운타임 최소화에 기여함.
지속통합/배포/학습 (CI/CD/CT)	Continuous Integration(CI)/Continuous Deployment(CD)/Continuous Training(CT): 코드 변경을 자동으로 통합하고 테스트하여 배포와 학습까지 이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빠른 개발 사이클과 품질 확보를 지원함.
DOMINO	Domain Informed Objective Modeling: 목적/보상함수를 대규모 언어모델 에이전트(LLM Agent)와 인간개입형 (Human-In-The-Loop, HITL) 피드백 기반 모델링 기술.
JDBC	Java Database Connectivity: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SQL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 API.
래더 다이어그램 (Ladder Diagram)	전기 릴레이 회로를 도식화한 것처럼 표현하는 PLC 언어. 직관적이라 전기·제어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활용함.
대규모언어모델운영 (LLMOps)	대규모 언어모델의 특성에 최적화된 전문 (Large Language Model Operations)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외부 톨 연동, 안전장치(가드레일), RAG 파이프라인, 응답 품질 모니터링 등을 통합 관리함. LLM 특유의 환각 현상 억제와 정확도 향

용어	설명
	상, 일관된 응답 품질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별 도메인 특화 요구사항과 지속적인 모델 튜닝 필요성으로 인해 ML Ops의 확장 개념으로 인식됨.
머신러닝 모델 운영(MLOps)	머신러닝 모델의 전체 생애주기(개발-배포-운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Machine Learning Operations)로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학습, 레지스트리 관리, 배포, 모니터링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표준화함.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델 품질을 보장하여 AI 모델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성능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
머신러닝 모델 보안 운영 (MLSecOps)	머신러닝 모델 개발과 운영 과정에 보안을 통합하는 접근법으로, AI 모델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요소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
다단계예측(Multi-step Prediction)	여러 단계에 걸쳐 미래 값을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기법. 시계열 데이터나 공정 예측에서 누적 오차 관리가 중요함.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이미지나 문서에서 글자를 인식해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 스캔 문서 자동화, 번호판 인식 등에 활용됨.
ODBC	Open Database Connectivity: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에 상관없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 API.
온디바이스 AI (On-device AI)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직접 실행하는 기술
온프레미스(On-Premise)	클라우드가 아닌 자체 데이터센터나 서버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방식. 보안과 커스터마이징에 강점이 있음.
파서(Parser)	문법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해석해 구조화하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컴파일러, 데이터 처리, 언어 모델 등에서 활용됨.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산업 현장에서 기계와 공정을 제어하는 전용 컴퓨터. 내구성과 안정성이 뛰어나 자동화 설비에 널리 쓰임.
개념증명(PoC)	Proof of Concept: 기술적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 가능한지 검증하는 단계. 사업화 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행됨.
Query	데이터베이스나 검색 시스템에 정보를 요청하는 질의. SQL 문이나 검색어 입력 형태로 사용됨.
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외부 지식을 불러와 생성 모델과 결합하는 방식. 최신 정보와 사실성을 강화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	Role-Based Access Control: 사용자 권한을 역할 단위로 관리하는 보안 모델. 조직 내 권한 관리 효율성을 높임.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HTTP 기반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 방식
SaaS	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 없이 웹을 통해 제공하는 모델. 사용자 편의성과 확장성이 높음.
의미 기반 다양성 제어 (Semantic Diversity Control)	생성 모델에서 출력의 의미적 다양성을 조절하는 방법. 반복적이거나 편향된 응답을 줄이는 데 활용됨.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SOA)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기능을 독립적 서비스 단위로 분리해 연결하는 시스템 구조. 재사용성과 유연성이 높음.
비전-언어모델(VLM)	Vision Language Model: 시각 정보(이미지·영상)와 언어 정보를 함께 이해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AI 모델. 예를 들어, 이미지를 설명하거나 그림과 질문을 연결하는 작업에 활용됨.
VPC-P	Virtual Private Cloud-Private: 가상 사설 클라우드 중에서도 폐쇄형(Private) 환경을 의미. 보안·규제 요건이 엄격한 산업에서 선호됨.
WBL(World Best LL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별칭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보상(Reward)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기계학습 기법. 자율주행, 게임, 로봇 제어 등에서 활용됨.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 (Domain-Specialized AI Modeling)	마키나락스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제조·국방 등 복잡하고 고도화된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AI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역량임. 이 기술은 크게 데이터 처리·분석, AI 시뮬레이션, 태스크 특화 AI 설계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와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Domain-Specialized AI Engineering)	마키나락스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배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역량임. 특히, 제조 및 국방과 같은 환경에서는 폐쇄망, 이기종 장비, 높은 보안 요구사항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특화된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 기술은 AI 인프라 구성, AI 배포 및 운영, 보안 프로세스 체계의 세 영역으로 구분됨
도메인(Domain)	특정 문제 영역이나 적용 분야를 의미함. 예를 들어 제조, 금융, 의료 등이 각각의 도메인이며, 제조의 하위 항목인 반

용어	설명
	도체, 철강, 자동차가 개별 도메인임.
모바일 AP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 CPU·GPU·AI 가속기 등을 통합해 연산, 그래픽, 통신 등을 처리함.
모션 플래닝 (Motion Planning)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장애물을 피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최적의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함.
모폴로지 연산	영상 처리에서 객체의 형태를 강조하거나 잡음을 제거하는 연산 기법. 침식, 팽창, 열기, 닫기 등이 대표적임.
미충족 요구(Unmet Needs)	현재 제품이나 서비스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용자·시장의 요구. 새로운 혁신이나 사업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버티컬 AI 솔루션	특정 산업(제조, 국방, 금융, 의료 등)에 특화된 인공지능 솔루션. 도메인 지식을 반영해 일반 AI보다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 산업 특화 AI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
벡터 데이터베이스	텍스트·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해 저장·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 생성형 AI와 검색 증강(RAG)에서 핵심 역할을 함.
컴파운드 AI 시스템(Compound AI System)	BAIR(Berkeley AI Research)가 2024년 2월 발표한 “Compound AI System”이라는 블로그를 통해 주목을 받게 된 개념으로 복잡한 태스크를 AI로 자동화 및 지능화하기 위해서는 단일 모델의 확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여러 도구와 모델, 외부 컴포넌트 등 다양한 구성요소를 결합한 시스템 설계가 더 효율적이라 밝힘. 이를 위해서는 모듈화된 구조, 외부 리소스와 결합해 동적으로 확장 가능한 기능이 중요함.
서비스 가능 시장(SAM)	잠재시장(TAM) 중에서 기업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 지역·규제·채널 등의 제한을 반영함.
서비스 확보 가능 시장(SOM)	서비스 가능 시장(SAM) 중에서 기업이 실제로 점유할 수 있는 시장 규모. 경쟁 구도와 자사 역량을 반영한 최종 타깃 시장임.
잠재시장(TAM)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 가장 넓은 범위를 의미하며, 이론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대 시장임.
파이프라인(Pipeline)	데이터 처리, 머신러닝 학습, 소프트웨어 배포 등에서 작업 단계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흐름. 자동화와 병렬화로 효율성을 높임.
폐쇄망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독립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의미함. 보안이 중요한 군사, 방위, 제조, 금융 분야에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됨.

용어	설명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	오피스 영역을 넘어 제조 및 생산 설비를 보유한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생산·품질관리, 수요·공급 관리, 유통·물류와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의미.
멀티 에이전트(Multi-Agent) 시스템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상호 협력·분업하여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시스템. 각 에이전트가 독립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체 목표를 달성하며, 단일 모델 대비 확장성과 유연성이 뛰어나.
SML	Small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모델(LLM) 대비 파라미터 수가 적은 경량 언어모델. 특정 도메인이나 태스크에 특화하여 낮은 연산 비용과 빠른 추론 속도를 제공하며, 엣지 디바이스나 폐쇄망 환경에서의 배포에 적합함.
엣지 AI	Edge AI: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현장의 디바이스(센서, 게이트웨이, 산업용 PC 등)에서 직접 AI 추론을 수행하는 기술. 저지연·데이터 보안·네트워크 비의존성이 요구되는 제조·국방·자율주행 등의 환경에서 활용됨.
AIP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팔란티어(Palantir)가 제공하는 기업용 AI 플랫폼으로,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업의 기존 데이터·시스템과 연동하여 전사 차원의 의사결정 지원·업무 자동화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당사의 Runway 플랫폼과 비교되는 해외 대표 제품임.
싸이써나이즈(Cythonize) 처리	Python 소스코드를 Cython을 이용하여 C 언어 수준의 바이너리로 변환하는 처리 방식. 코드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원본 소스코드의 역분석(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활용됨.
테넌트	Tenant: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여러 고객(조직)이 공유하는 멀티테넌트(Multi-Tenant) 아키텍처에서 각각의 독립된 사용 단위를 의미함. 테넌트별로 데이터·설정·접근 권한이 논리적으로 격리되어 보안과 독립성이 보장됨.

당사는 폐쇄망 등 특수한 환경에서 산업 특화 AI(Vertical AI, 버티컬AI)의 개발과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보유한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Domain-Specialized AI Modeling) 기술과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Domain-Specialized AI Engineering) 기술을 기반으로 Runway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다.

당사의 Runway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 인공지능 개발 및 운영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관리부터 모델 학습-배포-운영-모니터링까지 인공지능 전 생애주기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국방·에너지 등 보안과 망분리가 요구되는 산업에서 필수적인 폐쇄망 환경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On,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지빌리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 ASM, 혼다, 요코가와 등 국내외 선도 제조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제조·국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미충족 요구(Unmet Needs)를 빠르게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확대하는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AI 도입 의지는 있으나 내부 역량이 부족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I 적용 영역 발굴, 모델 개발, Runway 기반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한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도입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 기반 매출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검증된 AI 플랫폼인 Runway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난 7년간 글로벌 선도 제조 기업과 80건 이상의 다양한 특화 AI 솔루션 개발을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AI 기반 PLC(Programable Logic Controller, 자동화된 생산라인 내 장비를 제어하는 일종의 산업용 PC) 코드 분석, 설계도면 분석 등 SaaS 형태로 사업화가 가능한 가망 영역을 발굴하고 시장에 테스트했습니다. 검증된 서비스의 본격적인 사업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발굴로 솔루션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분야의 사업화를 위해 관련 아키텍처와 핵심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시장 성숙도 및 기술 완성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AI 플랫폼 Runway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정의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현행 사업 및 기술 기반을 동시에 고려하여 필수 항목들을 구비해가는 활동을 추진하되, 아직 초기 시장임을 고려하여 시장 및 당사 준비 상황에 따라 점검하며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개요

당사는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특화 AI(Vertical AI)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플랫폼 및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산업 환경에서 AI 모델의 개발, 학습, 배포 및 운영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AI 플랫폼 Runway이며, 이를 기반으로 제조, 에너지, 반도체, 자동차, 국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에게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가치 창출 체계]



기술 기반 가치 창출 체계

출처: 당사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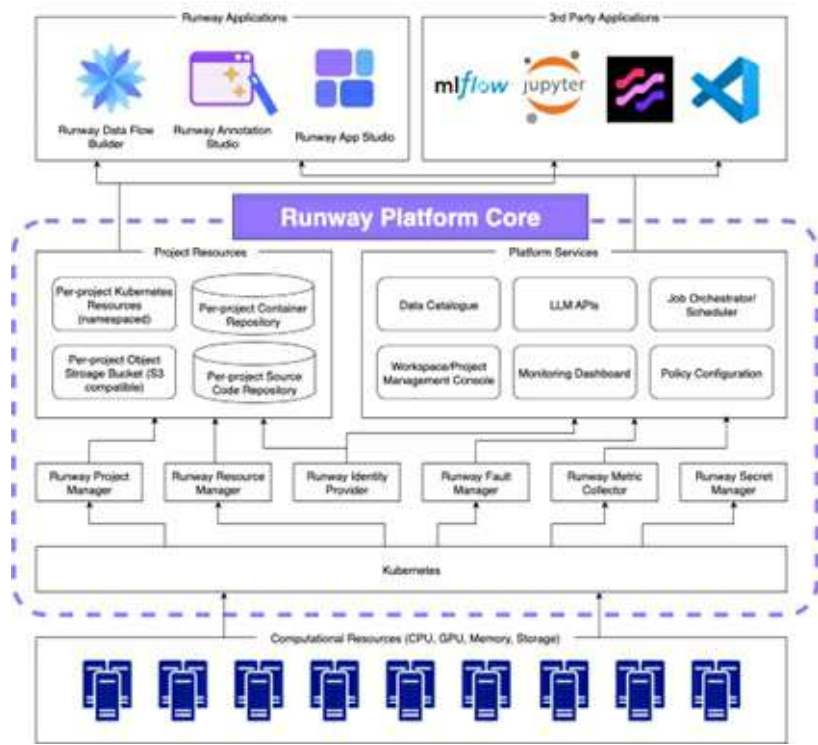
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구성

(1) Runway (AI 플랫폼)

AI 플랫폼 Runway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AI 모델 개발 및 학습, 모델 배포 및 운영 관리, 보안 및 거버넌스 관리 등 AI 운영 전 생애주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폐쇄망 환경, 온프레미스(On-Premise) 인프라

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보안·실시간성·망분리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Runway Platform Core]



runway platform core

출처: 당 사 내부자료

Runway는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기업이 인공지능을 실제 업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데이터 관리부터 AI 모델 학습, 배포, 운영 및 성능 모니터링까지 AI 개발 및 운영 전주기(MLOps 기반)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unway 플랫폼 주요 기능]

구분	세부 기능
데이터 관리	• 데이터 소스 연결 • 데이터 전처리 및 저장

구분	세부 기능
	• 데이터 조회 및 활용
인공지능 개발 · 학습	• 통합 개발 환경 • 실험 관리 및 추적 • 사전 구성된 도구 및 애플리케이션 환경
인공지능 모델 운영	• 모델 배포 • 배포 모델의 모니터링(자원사용량, 서비스, 성능 등) • RAG 지표 모니터링
인프라 구성 · 관리	• 다양한 AI 인프라 환경(폐쇄망 포함) 연동 • HPC 및 특화 연산 환경 연동 • 통합 레지스트리(패키지, 모델 아카이브 등) 관리 • 리소스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거버넌스	• 사용자 관리 • 권한 관리 • 감사 로그 조회 및 관리
애플리케이션 연계	• API 기반 외부 시스템 통합 • SDK 및 개발 지원

출처: 당사 내부자료

Runway는 이러한 기능을 기반으로 기업이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운영 효율성 개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AI 컨설팅

AI 컨설팅 서비스는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하여 기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분석하고, 특정 태스크 수행을 위해 학습된 산업 특화 AI 모델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당사는 고객 산업의 도메인 지식을 반영하여 데이터 분석, 모델 설계, 알고리즘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며, 고객의 실제 업무 환경에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I 컨설팅 서비스는 생산 공정 최적화, 설비 이상 탐지 및 예지보전, 품질 검사 자동화, 수요 예측 및 공급망 최적화, 산업 운영 자동화 등의 영역에서 수행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산업 데이터는 Runway 플랫폼에 반영되어 제품 고도화에

활용됩니다.

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현황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현황]

(단위: 천원, %)

매출유형	품목명	생산(판매) 개시일	제9기		제8기		제7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하드웨어 및 라이선스 판매	Runway	2022.10	4,134,920	36	3,792,490	46	1,663,086	32
용역 제공	AI 컨설팅	2017.12	7,324,556	64	4,501,413	54	3,542,949	68
합계			11,459,476	100	8,293,903	100	5,206,035	100

출처: 당사 내부자료, 연결 재무제표 기준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 매입 현황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 기업으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상 별도의 원재료가 투입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 기업으로, 일반적인 제조업과 같은 형태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생산활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 실적

(단위: 천원)

매출유형	품목		제9기 (2025년도)		제8기 (2024년도)		제7기 (2023년도)		제6기 (2022년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하드웨어 및 라이선스 판매	Runway	수출	-	-	-	-	-	-	-	-
		내수	14	4,134,920	17	3,792,490	10	1,663,086	7	657,492
		소계	14	4,134,920	17	3,792,490	10	1,663,086	7	657,492
용역 제공	AI 컨설팅	수출	4	574,463	-	-	-	-	-	-
		내수	55	6,750,093	32	4,501,413	27	3,542,949	16	2,513,478
		소계	59	7,324,556	32	4,501,413	27	3,542,949	16	2,513,478
합계		수출	4	574,463	-	-	-	-	-	-
		내수	69	10,885,012	49	8,293,903	37	5,206,035	23	3,170,970
		소계	73	11,459,475	49	8,293,903	37	5,206,035	23	3,170,970

출처: 당사 내부자료,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나. 판매조직

당사의 판매조직은 허영신 CBO(Chief Business Officer)가 총괄하고 있으며, 사업화본부 산하에 AI인셉션팀, Runway사업팀, 사업기획팀 및 마케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직은 고객 발굴, 기술영업, 신규 사업 개발, 제품 사업화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I인셉션팀은 고객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솔루션 사업 개발을 담당하며, 고객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AI 기반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당사의 기술 및 제품 역량뿐 아니라 필요 시 외부 기술 및 협력 파트너의 역량을 결합하여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하고 사업 수주를 지원합니다.

Runway사업팀은 당사의 주요 제품인 AI 플랫폼 Runway의 사업화 및 판매를 담당하며, 고객사의 AI 운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영업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업기획팀은 신규 사업 기획 및 전략 수립을 담당하며, 마케팅팀은 시장 홍보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판매경로

당사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직접 영업 방식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산업 특화 AI 솔루션의 특성상 고객의 산업 환경과 문제 정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AI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Runway 플랫폼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경로]

매출유형	품목	구분	판매경로
하드웨어 및 라이선스 판매	Runway	내수	직접 판매
용역 제공	AI 컨설팅	수출 및 내수	직접 판매

출처: 당사 내부자료

라. 판매전략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 사업은 높은 기술 이해도와 운영 역량을 요구하는 전문 시장으로, 고객의 도입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술력에 대한 신뢰 확보와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한 검증이 구매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제조 기반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핵심 고객층으로 확보하고, 국방 및 비제조 산업군으로 고객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인바운드(Inbound) 수요 발굴과 축적된 레퍼런스를 중심으로 한 아웃바운드(Outbound) 확장 전략을 양측으로, 특수시장 공략 및 Runway 플랫폼 중심의 시장 확대전략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영업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인바운드 기반 수요 발굴 및 고객 확보 전략

당사는 잠재 고객이 자발적으로 당사의 기술과 솔루션을 탐색하고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기술 중심의 인바운드 영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내 블로그, AI 프로젝트 적용 사례, 웨비나 등 고관여형 기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산업 AI 관련 핵심 키워드 기반의 검색최적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 사례와 성과 중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제어 최적화, 도면 해석, PLC 코드 분석, 강화학습 기반 생산 효율화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고난도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당사의 기술 전문성과 산업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잠재 고객의 초기 관심을 확보하고 실제 영업 기회로 이어지는 리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바운드 기반 활동을 통해 확보된 주요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 인바운드 및 홈페이지 운영 성과]

항목	수치	비고
총 유입 컨택 수	3,964	이벤트· 전시· 캠페인· 검색등전체유입고객
신규 유입 컨택 수	2,929	전체의약 74%
인바운드 리드 전환 수	425	유입컨택기반리드전환
홈페이지 활성 사용자 수	66,989	방문자증가, SEO강화영향 (YoY +29.7%)
페이지 조회수	240,729	콘텐츠탐색증가 (YoY +39.8%)
페이지당 평균 체류 시간	1분 20초	기술및사례중심구성 (YoY +4.8%)
상위 방문 페이지	/blog,/use-cases,/runway	

출처: 당사 내부자료, 허브스팟(CRM), 구글 애널리틱스(GA) 분석

또한 산업 전시회, 기술 세미나, 컨퍼런스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사 기술 행사 및 컨퍼런스를 통해 산업별 AI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기술 검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잠재 고객 발굴에서 실제 프로젝트 논의 및 사업 수주로 이어지는 초기 영업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아웃바운드 영업 역량 강화

당사는 축적된 산업 레퍼런스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아웃바운드 영업조직의 전문화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국방·공공 등 산업 분야별 전문 조직으로 기존 사업개발 조직을 세분화하고, 솔루션 영업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이메일 캠페인, 콜드콜링 등 선제적인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확보된 산업별 AI 적용 사례와 성과를 기반으로 유사 과제를 보유한 잠재 고객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제안 성공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축적된 산업별 인사이트와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제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3) 특수시장 공략 : 국방 분야

국방 분야는 폐쇄망 환경, 장기적인 획득 절차, 높은 수준의 보안 요건 등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입니다. 당사는 군 출신의 국방 전문 인력을 영입하여 실제 획득 절차와 작전 환경에 대한 이해를 영업 전략에 반영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 100'에 AI 플랫폼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됨으로써 군기관 대상 사업 참여 자격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 기술 관련 협회 활동을 통해 군·산·학·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책 방향 및 기술 수요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제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국방 AI 적용사례', 'MLSecOps 백서' 등 국방 분야 특화 기술 콘텐츠를 발행하여 국방 환경에 적합한 기술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방 M&S 학회, 방위산업대전, 국방산업발전대전 등 주요 행사에 참여하여 운용기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방 분야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방 분야에서의 기술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향후 관련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 Runway 중심의 판매 전략 및 시장 확장

당사는 고객 가치 중심의 판매 전략 고도화, 영업 퍼널(Funnel) 운영 고도화, 파트너 중심의 시장 확산 전략,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 확립을 통해 AI 플랫폼 Runway를 중심으로 시장 확산과 사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객의 KPI 개선 및 운영 효율 향상 등 실질적인 가치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고도화하여 Runway의 활용 가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시

나리오를 제시하고 연구소, IT 개발, 전략 부서 등 고객 조직의 특성과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유입, 데모 요청, 트라이얼 계정 제공, 기술 검토, 도입으로 이어지는 영업 퍼널을 운영하여 잠재 고객이 Runway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Q&A 대응 등 기술 지원 과정을 통해 기술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파트너별 강점을 활용한 신뢰 기반의 장기적인 시장 확장 전략을 추진하여 국내외 주요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동일 그룹 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피드백을 기반으로 제품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Runway의 반복적이고 지속가능한 매출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 주요 매출처

당사의 연도별 매출액의 10%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9기 (2025년도)		제8기 (2024년도)		제7기 (2023년도)		제6기 (2022년도)	
고객사	매출비중	고객사	매출비중	고객사	매출비중	고객사	매출비중
고객1	14%	고객1	12%	고객1	14%	고객1	30%
고객2	11%	고객2	11%	고객2	13%	고객2	11%
고객3	10%	고객3	10%	-	-	고객3	-
고객4	-	고객4	10%	-	-	고객4	-

(주1) 고객사는 매출금액 순서로 각 시기별 고객은 상이합니다.

출처: 당사 내부자료, 연결 재무제표 기준

바. 수주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주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의 고객은 주로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수주상황은 영업기밀에 해당되어 수주잔고 현황으로 간략하게 기재 하였습니다.

(단위: 원)

품목	수량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Runway	4건	1,010,000,000	-	1,010,000,000
AI 컨설팅	31건	8,872,565,500	1,478,611,487	7,393,954,013
Runway/AI컨설팅	12건	9,802,553,455	3,994,197,260	5,808,356,194
합계	47건	19,685,118,955	5,472,808,747	14,212,310,208

출처: 당사 내부자료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재무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주로 당사의 재무부서가 주관하고 있으며, 재무부서는 영업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무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에 근거하여 투자, 자본조달 및 영업과 관련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1) 외환위험

당사는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및 구매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와 EUR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506,920,109	-	394,580,840	-
EUR	301,067,620	-	-	-
합 계	807,987,729	-	394,580,840	-

출처: 당사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환율의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환종	10%상승시	10%하락시
USD	50,692,011	(50,692,011)
EUR	30,106,762	(30,106,762)
합 계	80,798,773	(80,798,773)

출처: 당사 별도 재무제표 기준

외화환산시 적용된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평균환율		기말환율	
	당기	전기	당기말	전기말
USD	1,422.22	1,363.98	1,434.90	1,470.00
EUR	1,607.46	-	1,685.72	-

2) 가격위험

당사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보유지분증권이 없으므로, 보유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합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부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1%상승시	1%하락시
현금및현금성자산	23,481,040	(23,481,0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친 영향	23,481,040	(23,481,040)

출처: 당사 별도 재무제표 기준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

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32의 지급보증 내역을 제외하고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당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중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에 인식된 손상은 다음과 같으며,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은 없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165,460,270	169,507,699
기타수취채권	218,390,604	223,732,795
합 계	383,850,874	393,240,494

출처: 당사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393,240,494	-
손상	-	393,240,494
외화환산	(9,389,620)	-
기말	383,850,874	393,240,494

출처: 당사 별도 재무제표 기준

한편, 당사는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신용공여 개시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의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거래처가 많고 상호 연관성이 없으므로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제한적입니다.

(3) 유동성위험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

시키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분석은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현금흐름	잔존계약 만기	
			1년 이내	1년 초과 5년 이내
기타지급채무(*)	1,806,246,057	1,806,246,057	1,806,246,057	-
리스부채	662,327,242	732,000,000	366,000,000	366,000,000
차입금	3,000,000,000	3,018,918,357	3,018,918,357	-
합 계	5,468,573,299	5,557,164,414	5,191,164,414	366,000,000

(*) 금융부채가 아닌 직원 등 관련 미지급비용 626,813천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당사 별도 재무제표 기준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현금흐름	잔존계약 만기	
			1년 이내	1년 초과 5년 이내
기타지급채무	1,493,275,145	1,493,275,145	1,493,275,145	-
상환전환우선주(*)	7,901,644,018	19,058,463,437	-	19,058,463,437
리스부채	1,529,070,601	1,682,000,000	696,000,000	986,000,000
차입금	3,000,000,000	3,026,717,808	3,026,717,808	-
합 계	13,923,989,764	25,260,456,390	5,215,992,953	20,044,463,437

(*) 재무상태표 상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주부채와 파생상품부채로 분리하여 인식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에 행사 및 지급을 가정하였으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당사 별도 재무제표 기준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주요 계약은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조직은 CTO 산하에서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 개발, AI 플랫폼 Runway의 핵심 기능 개발, 고객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FDE(Forward Deployed Engineering) 본부, Runway 애플리케이션과 고객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본부, CTO 직속으로 Runway의 코어(Core)를 개발하는 플랫폼팀과 내·외부 인프라와 현장 배포를 담당하는 인프라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도]



연구개발 조직도

(2) 연구개발 조직의 역할

조직명		역할
FDE 본부	FD Agent팀	AI 에이전트 기반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자율 운영 및 자동화 기술 구현
	FD 모델최적화팀	AI 모델 경량화·양자화 및 최적화 기술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AI 추론 기술 개발
	FD 프론티어팀	산업 제조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 기반 모델링 및 최적화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AI 솔루션 개발
	FD Vision팀	산업 현장의 이미지·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상탐지 및 생성형 비전 기술 개발
PD본부	애플리케이션팀	AI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 기능을 개발하여 핵심 서비스 로직과 기능 구현
	플랫폼팀	AI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설계, 구축 및 안정적 서비스 환경 제공
	FE팀	AI 애플리케이션의 프론트엔드 기능을 개발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접근성 구현
	QA팀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및 테스트를 수행하여 제품의 안정성과 완성도 확보
	UX팀	사용자 중심의 UX/UI 설계를 통해 AI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성과 인터페이스 개선
CTO/CSO 직속	Cognition팀	산업 특화 AI 솔루션을 위한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CS팀	제품 및 모델 적용 이후 발생하는 운영 이슈에 대응하여 고객이 AI/ML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
	보안/인프라팀	AI/ML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보호 거버넌스 운영 및 정보보안 인증 획득 및 유지관리

(3) 연구개발비용

(단위: 천원)

과목	제9기 (2025년)	제8기 (2024년)	제7기 (2023년)	제6기 (2022년)
연구개발비용	3,402,002	3,337,748	2,718,871	1,660,516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 ÷ 당기매출액 × 100]	29.69%	40.24%	52.23%	52.37%

(주1)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은 연결재무제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4) 연구개발실적

1) 논문 및 기업과제 수행 실적

[논문 및 기업과제 수행 실적]

분류	연구과제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상용화 현황
논문	이상탐지 AI 개발	· 이상탐지를 위한 SOTA 모델 개발 · 산업 장비, 설비를 위한 이상탐지 모델 개발에 활용	산업용 AI 솔루션 개발 자체 활용 중
	제어최적화 AI 개발	· 산업용 로봇의 동작품질을 판단하고 이상을 탐지하는 AI 모델 개발	양산 테스트 준비 중

분류	연구과제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상용화 현황
		• 전기차 공조시스템 효율 증대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 감소	
기업과제	산업용 로봇 이상탐지	• 산업용 로봇의 동작품질을 판단하고 이상을 탐지하는 AI 모델 개발 • 수백대 로봇을 우선순위에 따라 점검하여, 전체적인 정비 효율 증가	국내외 900개 이상의 로봇 확대 적용 중
	파운데이션 모델 모바일칩셋 탑재 기술 개발	• 파운데이션 모델의 모바일 탑재를 위한 경량화 및 양자화 기술 개발 • 스마트폰에 AI 기반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26년 출시 모바일 기기 탑재 예정
	폐기물 발전소 송풍제어 최적화 기술 개발	• 폐기물 소각로 송풍량을 최적 제어하는 에이전트 개발 • 환경규제 준수 하 증기 생산량의 10% 증가 기대	폐기물 소각로 적용 중
	PLC 분석 에이전트 시스템	• PLC 코드를 해석·분석하여 사용자 질의에 대응하는 AI 에이전트 개발 • PLC 코드 분석 및 검증을 위한 외부 의존도 감소	배포 및 사용 중
	배터리 외관검사	• X-ray 이미지 기반의 배터리 외관의 불량 탐지 모델 개발 • 작업자에 따른 숙련도 편차 감소 및 일관된 품질검사 가능	해외 공장 라인 확대 적용 중

(출처: 당사 내부자료)

2) 정부과제 수행 실적

[정부과제 수행 실적]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명	주관부서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관련제품	비고
고복잡도 제조업의 공정 최적화를 위한 AI 플랫폼 개발_1~2차 년도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8-10-01	2020-09-30	500	-	완료
고복잡도 제조업의 공정 최적화를 위한 AI 플랫폼 개발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진흥원	2018-11-01	2019-11-30	190	-	
AI 기반 산업용 로봇팔 고장예지 솔루션 개발_1~2차 년도	중소벤처기업부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9-10-01	2021-09-30	400	-	
AI 칩 설계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심층 강화학습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0-09-01	2020-12-31	100	Runway	
AI 기반 반도체 설계(자동화 시스템 개발 백엔드 플로우 배치_1~2차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05-01	2022-11-30	847	-	
제조 설비의 AI 기반 이상 탐지 모델 개발 및 운영 플랫폼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2-04-01	2022-10-31	294	Runway	
신재생 에너지 예측 AI 모델 고도화/운영 위한MLOps 솔루션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2-04-01	2022-10-31	300	Runway	
딥러닝 기반의 컴프레서 설비 이상 탐지 AI 솔루션	과학기술정보통신부_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2-06-01	2022-11-30	70	-	
냉방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인공지능 축열시스템 제어 모델 개발 및 운영플랫폼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3-04-01	2023-10-31	250	Runway	
강화학습 기반 용광로 제어 최적화 및 에너지 효율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3-04-01	2023-10-31	240	Runway	

연구과제명	주관부서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관련제품	비고
AI 반도체를 이용한 생산 공정 프로세스 최적화 모델 개발 및 MLOps 솔루션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3-05-01	2023-11-30	360	Runway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용한 고효율, 저비용 산업용 로봇 예지보전 솔루션 실증 및 운영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24-05-01	2024-11-30	235	-	
고성능 브레이크 패드 성능 예측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운영 플랫폼 도입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24-05-01	2024-11-30	185	Runway	
항공기 정밀가공부품 공정 예지보전용 데이터셋 구축 및 설비 상태 진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_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4-06-01	2024-11-30	54	-	
산업용 로봇 태스크와 모션 생성을 자동화하는 AI OLP 솔루션_1~3차 년도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진흥원	2023-04-27	2025-12-01	435	-	
클라우드 기반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운영 기술 개발_1~2차 년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4-08-01	2026-02-28	150	-	
제조AI 특화 데이터 생성 에이전트 개발 개념검증	중소벤처기업부_창업진흥원	2025-07-14	2025-12-31	100	-	
글로벌 프런티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대규모 다국어·멀티도메인 데이터(1~2차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_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08-14	2026-06-30	50	-	진행중
AI 플랫폼 기반 함정용 장비 운용 및 관리 챗봇 시작품 제작	방위사업청_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5-10-15	2026-10-14	200	Runway	
K-AIP 기반 지능화 GOP작전지원 체계 개발	방위사업청_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5-12-01	2028-10-31	2310	-	
반도체 전공정 설비 최적화를 위한 AI기반 자율운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산업통상부_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5-12-01	2026-11-30	340	-	
합계				7,610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특허 등록 및 출원 현황]

특허등록			특허출원			합계
해외	국내	계	해외 (PCT 포함)	국내	계	
29	55	84	8	11	19	103

(출처: 당사 내부자료)

[특허 등록 및 출원 현황 상세]

번호	내용	특허(출원)번호	권리자(비중)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적용제 품	출원국
1	어노말리 디텍션	10-194002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8-07-11	2019-01-14	2038-07-11	Runway	대한민국
2	어노말리 디텍션	10-210197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9-04-30	2020-04-10	2039-04-30	-	대한민국
3	강화학습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제어 방법 및 장치	10-223427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0-10-29	2021-03-25	2040-10-29	-	대한민국
4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상치 검출 (NOVELTY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10-226188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7-27	2021-06-01	2040-04-08	-	대한민국
5	입력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최적의 어노말리 감지 모델 결정 방법	10-226745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2-24	2021-06-15	2040-02-24	-	대한민국
6	비정상 데이터 생성 방법	10-228767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2-24	2021-08-03	2040-02-24	-	대한민국
7	피쳐 셋 정보에 기초한 전이 학습 방법	10-229270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7-02	2021-08-17	2040-07-02	-	대한민국
8	학습 데이터 관리 방법	10-229580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9-06-07	2021-08-25	2039-06-07	-	대한민국
9	입력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최적의 어노말리 감지 모델 결정 방법	10-237248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5-03	2022-03-04	2040-02-24	-	대한민국
10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방법	10-242007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11-18	2022-07-07	2041-11-18	-	대한민국
11	반도체 소자의 배치를 평가하는 방법	10-243048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04	2022-08-03	2042-02-04	-	대한민국
12	금지 영역 정보를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를 배치하는 방법	10-243048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14	2022-08-03	2042-02-14	-	대한민국
13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방법	10-243048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17	2022-08-03	2042-02-17	-	대한민국
14	비정상 데이터 검출 방법 및 장치	10-243818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6-14	2022-08-25	2041-06-14	-	대한민국
15	반도체 설계를 위한 신경망 모델 학습 방법	10-244062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18	2022-09-01	2042-02-18	-	대한민국
16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0-244257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3-08	2022-09-06	2042-03-08	Runway	대한민국
17	패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패널의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및 시스템	10-245013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4-06	2022-09-28	2040-04-06	-	대한민국
18	패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패널의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및 시스템	10-245013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12-10	2022-09-28	2040-04-06	-	대한민국

번호	내용	특허(출원)번호	권리자(비중)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적용제 품	출원국
19	다이내믹 모델 기반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10-246156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1-06-17	2022-10-27	2041-06-17	-	대한민국
20	환경 인자 조절 장치 및 그 훈련 방법	10-247292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4-24	2022-11-28	2040-04-24	-	대한민국
21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방법	10-247485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11-18	2022-12-01	2041-11-18	-	대한민국
22	오토 인코더 모델의 선택 및 최적화 방법	10-247921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22	2022-12-15	2042-02-22	-	대한민국
23	수집이 필요한 정보의 영역을 예측하는 방법	10-248953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11-14	2023-01-12	2042-11-14	-	대한민국
24	모델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10-253164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2-24	2023-05-08	2040-05-29	Runway	대한민국
25	자연된 보상에 기초하여 공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10-253164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11-14	2023-05-08	2042-11-14	-	대한민국
26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	10-254970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3-14	2023-06-27	2040-02-24	-	대한민국
27	오토 인코더 모델의 데이터 선택 및 비정상 스코어 산출 방법	10-256219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2-04	2023-07-27	2042-02-04	-	대한민국
28	작업 수행 로봇의 작업 경로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	10-256641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3-08-08	2043-01-30	-	대한민국
29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조절 방법	10-257077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2-02	2023-08-22	2043-02-02	-	대한민국
30	인공지능 기반 제어 시뮬레이션 방법	10-257364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11-14	2023-08-29	2042-11-14	-	대한민국
31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10-257387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3-08-29	2043-01-30	-	대한민국
32	어노말리 데이터 생성 방법	10-258358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2-24	2023-09-22	2040-02-24	-	대한민국
33	로봇 공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방법	10-259049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3-10-12	2043-01-30	-	대한민국
34	핀 방향 최적화를 통한 집적 회로 설계 방법	10-259606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5	2023-10-26	2043-01-25	-	대한민국
35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에 작업 지점들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	10-259662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3-10-27	2043-01-30	-	대한민국
36	반도체 소자의 배치를 평가하기 위해 2중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방법	10-259732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5	2023-10-30	2043-01-25	-	대한민국
37	매크로 셀들을 그룹화하는 것에 기초하여 반도체를 설계하는 방법	10-259721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6	2023-10-30	2043-01-26	-	대한민국
38	매크로 소자로부터의 거리 정보를 고려하여 반도체 소자를 배치하는 방법	10-259781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5	2023-10-31	2043-01-25	-	대한민국
39	반도체 설계와 관련하여 데드 스페이스를 제거하는 방법	10-260225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25	2023-11-09	2043-01-25	-	대한민국
40	원격지 실행을 통한 개발 환경 제공 방법	10-260259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2-15	2023-11-10	2043-02-15	Runway	대한민국
41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에 작업 지점들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	10-261409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6-22	2023-12-11	2043-01-30	-	대한민국
42	이상탐지 모델 재학습 여부 및 학습 구간 적절성 판단 로직	10-261696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7-13	2023-12-19	2043-07-13	-	대한민국
43	로봇의 유효 작업 지점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10-262610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4-01-12	2043-01-30	-	대한민국
44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	10-262610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7-24	2024-01-12	2043-07-24	Runway	대한민국
45	산업용 로봇의 작업 경로 생성 방법	10-262902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30	2024-01-19	2043-01-30	-	대한민국
46	강화 학습 기반의 스케줄링 방법	10-262902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7-21	2024-01-19	2043-07-21	-	대한민국
47	작업 수행 로봇의 작업 경로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	10-263824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6-20	2024-02-14	2043-01-30	-	대한민국
48	작업 수행 로봇의 작업 경로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	10-266016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6-20	2024-04-19	2043-01-30	-	대한민국

번호	내용	특허(출원)번호	권리자(비중)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적용제 품	출원국
49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10-267187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04-26	2024-05-29	2041-06-17	-	대한민국
50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10-267696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8-21	2024-06-17	2043-08-21	Runway	대한민국
51	장비의 이상 원인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 방법	10-268702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7-13	2024-07-17	2043-07-13	-	대한민국
52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방법	10-268898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9-27	2024-07-23	2043-09-27	Runway	대한민국
53	기계 학습 모델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0-271020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12-06	2024-09-23	2043-12-06	Runway	대한민국
54	이상 탐지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10-287778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3-04	2025-10-23	2045-03-04	-	대한민국
55	도면 감도를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	10-2025-012985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9-11	2026-03-04	2045.09.11	-	대한민국
56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0-2022-011277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9-06	-	-	-	대한민국
57	보상 페널티에 기초한 강화학습 방법	10-2023-014418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10-25	-	-	-	대한민국
58	장비의 이상 탐지를 위한 인공 신경망 모델의 업데이트 방법	10-2024-017225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11-27	-	-	Runway	대한민국
59	인공 신경망 모델 기반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브레이크 패드 설계 방법	10-2024-017369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11-28	-	-	-	대한민국
60	기계 학습 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지속 배포 방법	10-2025-002669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2-28	-	-	Runway	대한민국
61	기계 학습 플랫폼의 지속적 학습 방법	10-2025-002732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3-04	-	-	Runway	대한민국
62	기계 학습 플랫폼의 지속적 통합 수행 방법	10-2025-002801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3-05	-	-	Runway	대한민국
63	기계 학습 플랫폼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0-2025-002947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3-07	-	-	Runway	대한민국
64	작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	10-2025-013007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9-11	-	-	Runway	대한민국
66	도면 작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10-2025-012984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9-11	-	-	Runway	대한민국
66	신경망 모델을 활용하여 도면 감도를 수행하는 방법	10-2025-012989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5-09-11	-	-	Runway	대한민국
67	어노말리 디텍션	10,803,38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8-09-17	2020-10-13	2038-09-17	Runway	미국
68	어노말리 디텍션	11,120,33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9-10	2021-09-14	2038-09-17	-	미국
69	환경 인자 조절 장치 및 그 훈련 방법	11,156,96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4-22	2021-10-26	2041-02-05	-	미국
70	모델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11,226,89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2-23	2022-01-18	2041-02-23	Runway	미국
71	NOVELTY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11,301,75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3-05	2022-04-12	2040-10-15	-	미국
72	입력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최적의 어노말리 감지 모델 결정 방법	11,308,36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10-28	2022-04-19	2040-12-01	-	미국
73	어노말리 디텍션	11,537,90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9-12-23	2022-12-27	2040-12-12	-	미국
74	학습 데이터 관리 방법	11,562,16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3-27	2023-01-24	2040-06-11	-	미국
75	비정상 데이터 생성 방법	11,625,57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10-28	2023-04-11	2040-10-28	-	미국
76	모델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11,636,02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12-08	2023-04-25	2041-02-23	-	미국
77	강화학습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제어 방법 및 장치	11,645,72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1-10-28	2023-05-09	2041-10-28	-	미국
78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방법	11,657,20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13	2023-05-23	2043-01-13	-	미국
79	금지 영역 정보를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를 배치하는 방법	11,663,39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13	2023-05-30	2043-01-13	-	미국
80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방법	11,734,48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11-14	2023-08-22	2042-11-14	-	미국

번호	내용	특허(출원)번호	권리자(비중)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적용제 품	출원국
81	입력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최적의 어노말리 감지 모델 결정 방법	11,769,060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3-11	2023-09-26	2040-10-28	-	미국
82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 방법	11,790,13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11-14	2023-10-17	2042-11-14	-	미국
83	환경 인자 조절 장치 및 그 훈련 방법	11,797,85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9-16	2023-10-24	2041-05-31	-	미국
84	비정상 데이터 검출 방법 및 장치	11,803,17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2-07	2023-10-31	2042-06-09	-	미국
85	NOVELTY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11,816,578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3-03	2023-11-14	2040-03-05	-	미국
86	반도체 소자의 배치를 평가하는 방법	11,854,916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09	2023-12-26	2043-01-09	-	미국
87	SYSTEMS AND METHODS FOR DETECTING	11,948,29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7-01	2024-04-02	2041-03-25	-	미국
88	반도체 소자의 배치를 평가하기 위해 2중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방법	12,008,29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01-23	2024-06-11	2044-01-23	-	미국
89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12,049,013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01-27	2024-07-30	2044-01-27	-	미국
90	복수의 작업 수행 로봇들에 작업 지점들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	12,093,83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4-01-27	2024-09-17	2044-01-27	-	미국
91	자연된 보상에 기초하여 공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12,188,67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10-23	2025-01-07	2043-10-23	-	미국
92	수집이 필요한 정보의 영역을 예측하는 방법	12,198,03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10-06	2025-01-14	2043-10-06	-	미국
93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12,254,29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2-27	2025-03-18	2043-02-27	Runway	미국
94	인공지능 기반 제어 시뮬레이션 방법	12,373,70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11-10	2025-07-29	2043-11-10	-	미국
95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18/020,68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02-10	-	-	-	미국
96	다이내믹 모델 기반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18/020,83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3-02-10	2026-01-13	2042-10-21	-	미국
97	어노말리 디텍션	PCT/KR2019/007939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19-07-01	-	-	-	PCT
98	NOVELTY DETECTION US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PCT/KR2020/00473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0-04-08	-	-	-	PCT
99	환경 인자 조절 장치 및 그 훈련 방법	PCT/KR2021/001512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1-02-05	-	-	-	PCT
100	비정상 데이터 검출 방법 및 장치	PCT/KR2022/008111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2-06-09	-	-	-	PCT
101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PCT/KR2022/008195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06-10	-	-	-	PCT
102	다이내믹 모델 기반 최적 제어 수행 방법 및 장치	PCT/KR2022/00819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50%) 한온시스템 주식회사(50%)	2022-06-10	-	-	-	PCT
103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PCT/KR2023/000144	주식회사 마키나락스(100%)	2023-01-04	-	-	Runway	PCT

(출처: 당사 내부자료)

[상표 등록 및 출원 현황]

상표등록			상표출원			합계
해외	국내	계	해외	국내	계	
3	15	18	0	0	0	18

(출처: 당사 내부자료)

[상표 등록 및 출원 현황 상세]

번호	등록여부	출원/ 등록번호	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국
1	등록	40-1558046	MakinaRocks 상표권1	2019-03-07	2019-12-27	대한민국
2	등록	40-1567974	MakinaRocks 상표권2	2019-03-07	2020-01-28	대한민국
3	등록	40-1809627	MakinaRocks 상표권3	2020-09-16	2021-12-10	대한민국
4	등록	40-1809628	MakinaRocks 상표권4	2020-09-16	2021-12-10	대한민국
5	등록	40-1939988	 상표권5	2020-09-03	2022-11-28	대한민국
6	등록	40-1939987	 상표권6	2020-09-03	2022-11-28	대한민국
7	등록	40-1939986	 상표권7	2020-09-03	2022-11-28	대한민국
8	등록	40-1939985	 상표권8	2020-09-03	2022-11-28	대한민국
9	등록	40-2030868	MakinaRocks Link	2021-11-01	2023-06-02	대한민국

번호	등록여부	출원/ 등록번호	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국
10	등록	40-2030869	MakinaRocks Link	2021-11-01	2023-06-02	대한민국
11	등록	40-2039916	MakinaRocks Runway	2021-11-01	2023-06-20	대한민국
12	등록	40-2039917	MakinaRocks Runway	2021-11-01	2023-06-20	대한민국
13	등록	40-2058983	MRX	2023-03-21	2023-07-27	대한민국
14	등록	40-2058984	MRX	2023-03-21	2023-07-27	대한민국
15	등록	40-2089682	MRX	2023-03-21	2023-09-27	대한민국
16	등록	6,868,645	 상표권9	2020-10-19	2022-10-11	미국
17	등록	7,445,531	MakinaRocks Runway	2021-11-04	2024-07-16	미국
18	등록	7,665,999	MakinaRocks Link	2021-11-04	2025-01-28	미국

(출처: 당사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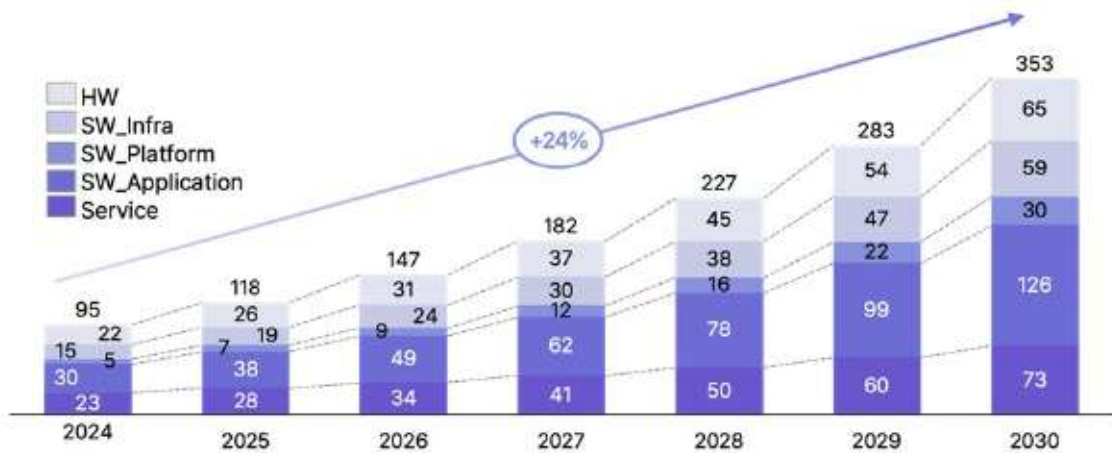
나. 산업의 현황 및 전망

(1) 인공지능(AI) 시장

당사가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전방시장은 Enterprise AI 시장 내 "Platform Application Service" 세그먼트입니다. EY가 발간한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에 따르면, 글로벌 Enterprise AI 시장은 향후에도 24%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2030년 약 35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항목 기준으로 볼 때 시장 성숙에 따라 Application 시장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Platform 시장이 연평균 34% 수준으로 가장 빠르게 확장하여 현재 5조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약 30조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nterprise AI 시장 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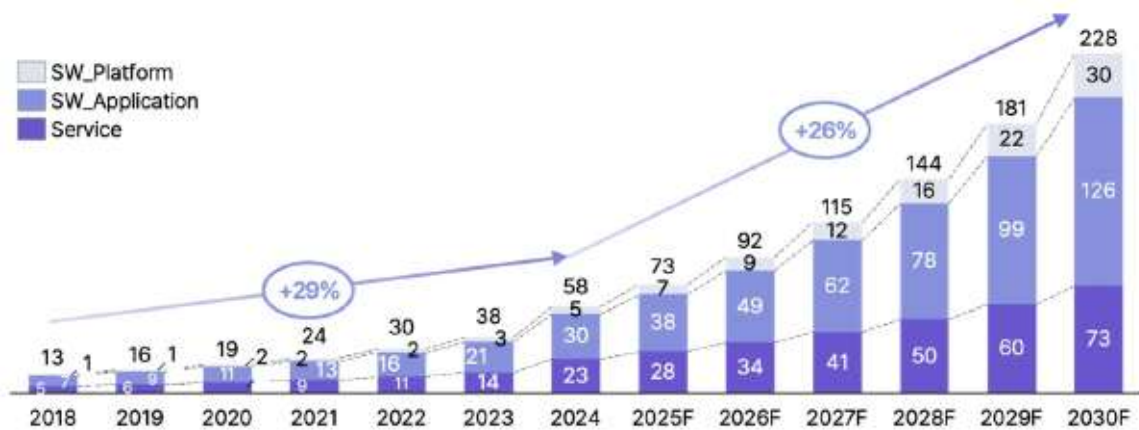
enterprise ai 시장 전망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Enterprise AI 시장에서 당사가 단기간 내 확장 가능한 Platform, Application 및 Service 시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연평균 29% 성장하여 2024년말 기준 약 58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연평균 26% 성장하여 2030년 228조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연평균 성장세는 Platform 시장이 34%, Application 시장 27%, Service 시장 21%로 전망되며, 이는 시장 발전에 따라 모든 세부 시장이 함께 성장하기는 하나, 기술 발전에 따라 Platform과 Application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Service를 통해 제공되던 수요들이 점진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nterprise AI 시장 내 Platform 및 Application 시장 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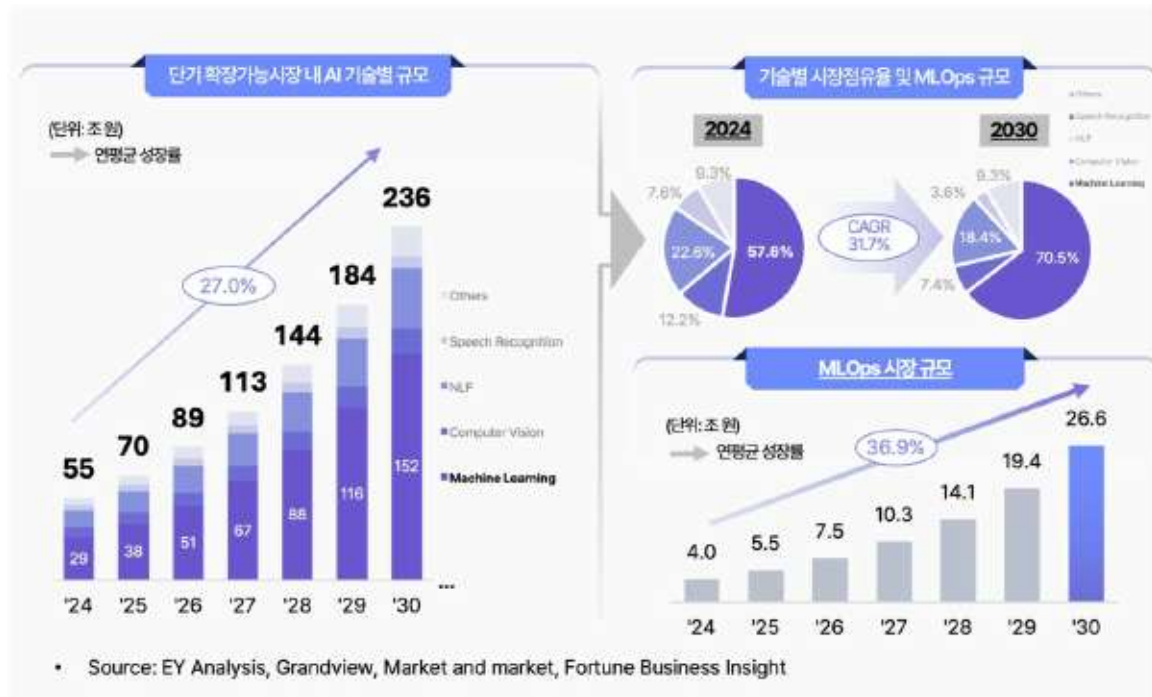


enterprise ai 시장 내 platform 및 application 시장 전망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Platform, Application, Service 시장을 구성하는 세부 AI기술 관점에서는 광범위한 Machine Learning 기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이러한 Machine Learning 기술에 기반하여 개발 및 활용되는 모델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MLOps(Machine Learning Operations)에 대한 수요는 연평균 3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 확장가능시장 내 AI 기술별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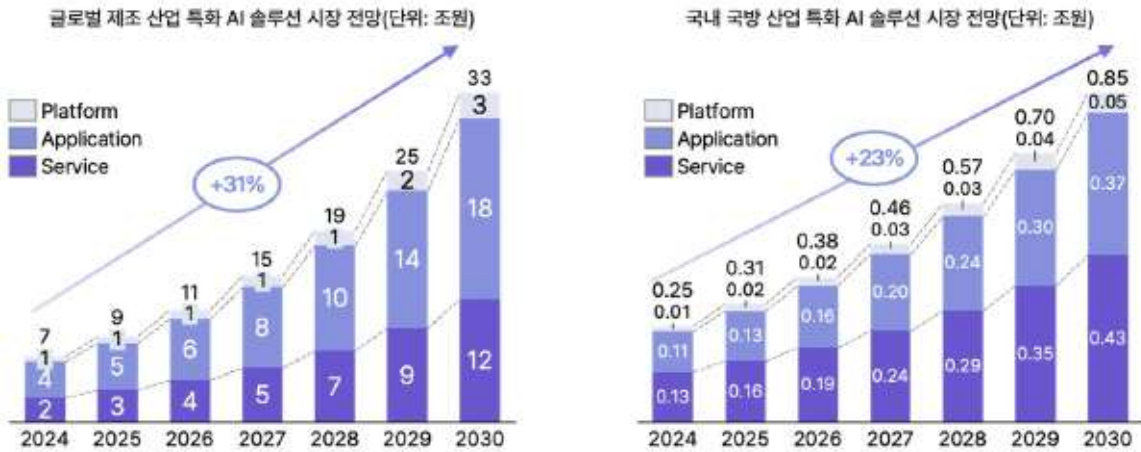
단기 확장가능시장 내 ai 기술별 상세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Enterprise AI 시장 내 Platform, Application 및 Service 시장을 세분류하여 당사가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사업 영역에 해당되는 글로벌 제조 산업 분야와 국내 국방 분야로 구분할 경우 각 시장의 규모는 2024년 현재 약 6.5조원, 0.3조원 규모로 이를 합산한 당사의 초기 Target 시장의 규모는 6.8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초기 목표 시장 성장 전망]

(단위: 조원)



초기 목표 시장 성장 전망

(출처: EY, AI 시장 분석 Update(2025.09))

다. 경쟁현황

(1) 경쟁형태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Enterprise AI Platform) 시장은 2025년 들어 보안 위협 심화와 기술 융합 가속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전환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 EY(Ernst & Young)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전체 시장이 연평균 34.7%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보안과 성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조업과 국방 등 주요 목표 산업에서 하이브리드 및 온프레미스 솔루션의 성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클라우드 기반 범용형 플랫폼과 폐쇄망 특화형 플랫폼으로 양분되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범용형은 데이터이쿠(Dataiku), AWS와 같이 확장성과 범용성을 무기로 대규모 시장을 공략하는 반면, 폐쇄망 특화형은 제조·국방처럼 데이터 주권과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서 온프레미스·폐쇄망 지원으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Runway와 팔란티어 등이 후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장 변화는 보안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폐쇄망 특화 AI 플랫폼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 진입장벽

당사는 제조업과 국방 분야라는 구조적으로 진입이 어려운 시장에서 8년간 축적한 기술력, 81건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 다층적 보안 체계, 그리고 84개 주요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강력한 진입장벽을 구축했습니다. 제조와 국방 영역은 특성상 데이터 접근이 제한적이며, 산업 특화 AI는 실제 현장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으면 개발을 시작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당사는 산업 AI 초기부터 선도 제조 산업 기업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여 이러한 장벽을 선제적으로 극복했으며, 현재는 질적·양적으로 풍부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진입장벽 위에서, 당사는 장기간의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한 기술 보호, 다층적 보안 체계, 비밀유지계약을 통한 협력 정보 보호라는 요소들이 결합된 형태로 후발 주자가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경쟁우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 기술 경쟁력

당사는 도메인 특화 인공지능 모델링 및 엔지니어링(Domain-Specialized AI Modeling & Engineering)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국방 등 주요 목표 고객의 공통된 페인 포인트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주력 제품 Runway로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클라우드 중심으로 설계된 후 온프레미스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구성하고 있어, 외부 클라우드 자원 없이 완전 독립 운영이 필요한 폐쇄망 환경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입니다. 반면 당사는 처음부터 폐쇄망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아키텍처를 통해 보안성과 개발 생산성이라는 모순적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접근은 두 가지 기술 축으로 구현됩니다. 첫째, 외부 의존성 없이 완전한 독립 운영 생태계를 구축하는 폐쇄망 특화 인프라 및 보안 기술, 둘째, 산업 현장의 비정형 데이터와 도메인 전문가 특성에 최적화된 범용 AI 플랫폼 기술입니다.

마. 그 밖에 투자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 재무정보

(단위: 원)

구분	제9기 (2025년 말)	제8기 (2024년 말)	제7기 (2023년 말)
회계처리 기준	K-IFRS	K-IFRS	K-IFRS
감사인 (감사의견)	삼정회계법인 적정	삼정회계법인 적정	삼정회계법인 적정
[유동자산]	17,849,946,732	19,415,599,363	10,682,886,205
· 현금및현금성자산	4,571,691,660	2,015,913,611	2,290,716,115
· 단기금융상품	5,299,997,200	13,303,297,200	5,800,000,000
· 매출채권	4,244,659,324	1,191,019,350	1,766,104,002
· 기타수취채권	3,455,629,320	2,555,233,032	710,694,670
· 기타유동자산	229,899,798	336,466,580	55,664,398
· 당기법인세자산	48,069,430	13,669,590	59,707,020
[비유동자산]	4,231,364,979	5,978,346,484	3,998,762,200
· 장기금융상품	6,900,000	-	-
· 유형자산	2,258,998,154	3,655,467,771	2,862,645,193
· 무형자산	653,332,426	868,133,992	707,918,677
· 기타비유동수취채권	1,312,134,399	1,361,887,565	428,198,330
· 기타비유동자산	-	92,857,156	-
자산총계	22,081,311,711	25,393,945,847	14,681,648,405
[유동부채]	7,242,150,447	21,755,673,875	49,165,431,814
[비유동부채]	391,306,880	958,705,473	1,513,442,967
부채총계	7,633,457,327	22,714,379,348	50,678,874,781
[자본금]	7,419,987,000	6,546,862,000	4,800,476,000

구분	제9기 (2025년말)	제8기 (2024년말)	제7기 (2023년말)
[자본잉여금]	69,405,704,222	45,223,457,189	2,736,068,181
[기타자본구성요소]	2,930,582,231	2,443,488,408	1,927,040,729
[결손금]	(65,308,419,069)	(51,534,241,098)	(45,460,811,286)
[비지배지분]	-	-	-
자본총계	14,447,854,384	2,679,566,499	(35,997,226,376)
구분	2025.01.01~ 2025.12.31	2024.01.01~ 2024.12.31	2023.01.01~ 2023.12.31
영업수익	11,459,475,112	8,293,903,006	5,206,034,260
영업손실	(8,041,122,211)	(10,896,927,952)	(11,158,026,268)
법인세차감전순손실	(13,774,177,971)	(6,073,429,812)	(18,343,924,341)
당기순손실	(13,774,177,971)	(6,073,429,812)	(18,343,924,34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3,774,177,971)	(6,073,429,812)	(18,343,924,341)
-비지배지분	-	-	-
기본주당손실	(1,052)	(530)	(1,941)
희석주당손실	(1,052)	(530)	(1,941)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3	2	2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단위: 원)

구분	제9기 (2025년말)	제8기 (2024년말)	제7기 (2023년말)
회계처리 기준	K-IFRS	K-IFRS	K-IFRS
감사인 (감사의견)	삼정회계법인 적정	삼정회계법인 적정	삼정회계법인 적정
[유동자산]	17,472,003,180	19,378,877,411	10,206,075,717
· 현금및현금성자산	4,348,104,032	1,979,610,609	1,887,571,550
· 단기금융상품	5,299,997,200	13,303,297,200	5,800,000,000

구분	제9기 (2025년말)	제8기 (2024년말)	제7기 (2023년말)
• 매출채권	4,181,067,565	1,191,019,350	1,708,482,470
• 기타수취채권	3,383,851,072	2,555,233,032	710,694,670
• 기타유동자산	210,913,881	336,047,630	39,620,007
• 당기법인세자산	48,069,430	13,669,590	59,707,020
[비유동자산]	4,628,573,234	5,965,527,702	6,089,071,186
• 장기금융상품	6,900,000	-	-
• 종속기업투자	427,284,000	-	2,097,203,431
• 유형자산	2,247,499,379	3,642,648,989	2,855,750,748
• 무형자산	653,332,426	868,133,992	707,918,677
• 기타비유동수취채권	1,293,557,429	1,361,887,565	428,198,330
• 기타비유동자산	-	92,857,156	-
자산총계	22,100,576,414	25,344,405,113	16,295,146,903
[유동부채]	7,049,350,182	21,755,673,875	49,155,975,690
[비유동부채]	391,306,880	958,705,473	1,513,442,967
부채총계	7,440,657,062	22,714,379,348	50,669,418,657
[자본금]	7,419,987,000	6,546,862,000	4,800,476,000
[자본잉여금]	69,405,704,222	45,223,457,189	2,736,068,181
[기타자본구성요소]	2,884,849,831	2,399,036,039	1,885,539,382
[결손금]	(65,050,621,701)	(51,539,329,463)	(43,796,355,317)
자본총계	14,659,919,352	2,630,025,765	(34,374,271,754)
구분	2025.01.01~ 2025.12.31	2024.01.01~ 2024.12.31	2023.01.01~ 2023.12.31
영업수익	11,216,548,267	8,293,903,006	4,912,723,460
영업손실	(7,776,185,024)	(10,249,184,816)	(10,102,602,492)
법인세차감전순손실	(13,511,292,238)	(7,742,974,146)	(17,292,509,871)
당기순손실	(13,511,292,238)	(7,742,974,146)	(17,292,509,871)
기본주당손실	(1,032)	(676)	(1,830)
희석주당손실	(1,032)	(676)	(1,830)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9 기 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8 기 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7 기 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마키나락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9기 (2025년말)	제8기 (2024년말)	제7기 (2023년말)
자 산				
I. 유동자산		17,849,946,732	19,415,599,363	10,682,886,205
현금및현금성자산	5,6,7	4,571,691,660	2,015,913,611	2,290,716,115
단기금융상품	6,8	5,299,997,200	13,303,297,200	5,800,000,000
매출채권	5,6,9,23	4,244,659,324	1,191,019,350	1,766,104,002
기타수취채권	5,6,10,23	3,455,629,320	2,555,233,032	710,694,670
기타유동자산	11	229,899,798	336,466,580	55,664,398
당기법인세자산	28	48,069,430	13,669,590	59,707,020
II. 비유동자산		4,231,364,979	5,978,346,484	3,998,762,200
장기금융상품	6	6,900,000	-	-
유형자산	12,13	2,258,998,154	3,655,467,771	2,862,645,193
무형자산	14,31	653,332,426	868,133,992	707,918,677
기타비유동수취채권	5,6,10,23	1,312,134,399	1,361,887,565	428,198,330
기타비유동자산	11	-	92,857,156	-
자 산 총 계		22,081,311,711	25,393,945,847	14,681,648,405
부 채				
I. 유동부채		7,242,150,447	21,755,673,875	49,165,431,814
기타지급채무	5,6,15,25	2,621,423,864	1,493,275,145	775,162,246
단기차입금	5,6,17,30,31	3,000,000,000	3,000,000,000	-
유동우선주부채	5,6,18	-	7,901,644,018	17,689,462,919
유동리스부채	5,6,13,30	347,301,515	669,302,071	669,302,071
기타유동부채	16	1,241,365,317	543,577,056	309,269,658
유동파생상품부채	5,6,18,30	-	8,147,875,585	29,722,234,920
유동충당부채	19,23	32,059,751	-	-
II. 비유동부채		391,306,880	958,705,473	1,513,442,967
비유동충당부채	19	76,281,153	98,936,943	92,128,361
비유동리스부채	5,6,13,30	315,025,727	859,768,530	1,421,314,606
부 채 총 계		7,633,457,327	22,714,379,348	50,678,874,781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4,447,854,384	2,679,566,499	(35,997,226,376)
자본금	1,20	7,419,987,000	6,546,862,000	4,800,476,000

과 목	주석	제9기 (2025년말)	제8기 (2024년말)	제7기 (2023년말)
자본잉여금	20	69,405,704,222	45,223,457,189	2,736,068,181
기타자본구성요소	20,21	2,930,582,231	2,443,488,408	1,927,040,729
결손금	22	(65,308,419,069)	(51,534,241,098)	(45,460,811,286)
II. 비지배지분		-	-	-
자 본 총 계		14,447,854,384	2,679,566,499	(35,997,226,37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2,081,311,711	25,393,945,847	14,681,648,405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9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마키나락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9기 (2025년도)	제8기 (2024년도)	제7기 (2023년도)
I. 영업수익	23	11,459,475,112	8,293,903,006	5,206,034,260
II. 영업비용	24,25,32	19,500,597,323	19,190,830,958	16,364,060,528
III. 영업손실		(8,041,122,211)	(10,896,927,952)	(11,158,026,268)
IV. 영업외손익		(5,733,055,760)	4,823,498,140	(7,185,898,073)
금융수익	6,26	444,917,856	6,036,264,423	345,088,905
금융비용	6,26	5,895,424,171	1,264,416,555	7,526,160,873
기타수익	27	121,106,184	81,088,387	9,963,228
기타비용	27	403,655,629	29,438,115	14,789,333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3,774,177,971)	(6,073,429,812)	(18,343,924,341)
VI. 법인세비용	28	-	-	-
VII. 당기순손실		(13,774,177,971)	(6,073,429,812)	(18,343,924,341)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3,774,177,971)	(6,073,429,812)	(18,343,924,341)
- 비지배지분		-	-	-
VIII. 기타포괄손익		1,280,031	2,951,022	(23,163,27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20	1,280,031	2,951,022	(23,163,275)
해외사업환산손익		1,280,031	2,951,022	(23,163,275)
IX. 총포괄손실		(13,772,897,940)	(6,070,478,790)	(18,367,087,616)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3,772,897,940)	(6,070,478,790)	(18,367,087,616)
- 비지배지분		-	-	-
X. 주당손실	29			
기본주당손실		(1,052)	(530)	(1,941)
희석주당손실		(1,052)	(530)	(1,941)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9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마키나락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결손금	합 계		
2023년 01월 01일(전전기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589,797,500	5,934,766,500	1,217,427,591	(27,116,886,945)	(19,374,895,354)	-	(19,374,895,354)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	(18,343,924,341)	(18,343,924,341)	-	(18,343,924,341)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차이	-	-	(23,163,275)	-	(23,163,275)	-	(23,163,275)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	-	-	1,021,499,485	-	1,021,499,485	-	1,021,499,485
주식선택권 행사	8,762,000	811,991,072	(288,723,072)	-	532,030,000	-	532,030,000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	1,500,000	227,608,869	-	-	229,108,869	-	229,108,869
무상증자	4,200,416,500	(4,200,416,500)	-	-	-	-	-
주식발행비용	-	(37,881,760)	-	-	(37,881,760)	-	(37,881,760)
2023년 12월 31일(전전기말)	4,800,476,000	2,736,068,181	1,927,040,729	(45,460,811,286)	(35,997,226,376)	-	(35,997,226,376)
2024년 01월 01일(전기초)	4,800,476,000	2,736,068,181	1,927,040,729	(45,460,811,286)	(35,997,226,376)	-	(35,997,226,376)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	(6,073,429,812)	(6,073,429,812)	-	(6,073,429,812)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차이	-	-	2,951,022	-	2,951,022	-	2,951,022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	-	-	1,449,470,985	-	1,449,470,985	-	1,449,470,985
주식선택권 행사	98,354,000	1,636,648,224	(935,974,328)	-	799,027,896	-	799,027,896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	1,648,032,000	40,858,106,514	-	-	42,506,138,514	-	42,506,138,514
주식발행비용	-	(7,365,730)	-	-	(7,365,730)	-	(7,365,730)
2024년 12월 31일(전기말)	6,546,862,000	45,223,457,189	2,443,488,408	(51,534,241,098)	2,679,566,499	-	2,679,566,499
2025년 01월 01일(당기초)	6,546,862,000	45,223,457,189	2,443,488,408	(51,534,241,098)	2,679,566,499	-	2,679,566,499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	(13,774,177,971)	(13,774,177,971)	-	(13,774,177,971)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차이	-	-	1,280,031	-	1,280,031	-	1,280,031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	-	-	643,370,060	-	643,370,060	-	643,370,060
보통주 발행	130,434,500	2,869,559,000	-	-	2,999,993,500	-	2,999,993,500

과 목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결손금	합 계		
무상감자	(144,132,000)	144,132,000	-	-	-	-	-
주식선택권 행사	17,252,000	280,459,516	(157,556,268)	-	140,155,248	-	140,155,248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	869,570,500	20,895,930,467	-	-	21,765,500,967	-	21,765,500,967
주식발행비용	-	(7,833,950)	-	-	(7,833,950)	-	(7,833,950)
2025년 12월 31일(당기말)	7,419,987,000	69,405,704,222	2,930,582,231	(65,308,419,069)	14,447,854,384	-	14,447,854,384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9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마키나락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9기 (2025년도)	제8기 (2024년도)	제7기 (2023년도)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802,514,687)	(10,638,005,714)	(10,182,744,918)
영업활동에서 유출된 현금(주30)	(7,906,881,771)	(10,571,950,637)	(10,315,783,519)
이자의 수취	312,249,126	113,952,935	363,924,462
이자의 지급	(173,482,202)	(226,045,442)	(176,935,431)
법인세의 환급(납부)	(34,399,840)	46,037,430	(53,950,43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649,728,280	(8,895,022,846)	5,825,894,840
유형자산의 처분	-	9,113,821	10,935,000
유형자산의 취득	(522,588,442)	(1,198,055,871)	(251,630,642)
무형자산의 취득	(47,374,762)	(202,783,596)	(333,409,518)
보증금의 감소	300,000,000	-	-
보증금의 증가	(76,708,516)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0,303,294,400	5,800,000,000	26,200,000,000

과 목	제9기 (2025년도)	제8기 (2024년도)	제7기 (2023년도)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2,299,994,400)	(13,303,297,200)	(19,8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6,900,00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주30)	2,658,948,938	19,230,213,290	3,042,677,451
단기차입금의 차입	3,000,000,000	3,000,000,000	-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	16,000,097,200	2,997,091,020
보통주 발행	2,999,993,500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799,027,896	532,03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3,000,000,000)	-	-
주식발행비용	(7,833,950)	(7,365,730)	(37,881,760)
리스부채의 상환	(333,210,612)	(561,546,076)	(448,561,809)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506,162,531	(302,815,270)	(1,314,172,627)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015,913,611	2,290,716,115	3,627,832,283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9,615,518	28,012,766	(22,943,541)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Ⅴ+Ⅵ+Ⅶ)	4,571,691,660	2,015,913,611	2,290,716,115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9(당)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8(전)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마키나락스와 그 종속기업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마키나락스(이하 "지배기업")는 2017년 12월 21일 AI Solution 개발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3, 12층(신덕빌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립시 최초 자본금은 30,000천원이며 수차례 유·무상증자 및 당기 중 무상감자를 통해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의 납입자본금은 7,419,987천원 입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금액(원)	지분율
윤성호	1,824,000	912,000,000	12.29%
이재혁	1,221,016	610,508,000	8.23%
임용섭	1,216,000	608,000,000	8.19%
심상우	1,216,000	608,000,000	8.19%
박민수	194,300	97,150,000	1.31%
에스케이텔레콤(주)	1,152,000	576,000,000	7.76%
한국산업은행	713,080	356,540,000	4.81%
네이버 주식회사	640,000	320,000,000	4.31%
Applied Ventures Innovation Fund I, L.P.	528,688	264,344,000	3.56%
포지티브 에이아이 벤처투자조합제1호	443,592	221,796,000	2.99%
LG CNS Fund I LLC	441,376	220,688,000	2.97%
코너스톤 822 제2호 신기술조합	421,376	210,688,000	2.84%
포지티브세컨더리벤처투자조합제2호	326,086	163,043,000	2.20%
미래에셋증권(주)	260,869	130,434,500	1.76%
기타	4,241,591	2,120,795,500	28.59%
합 계	14,839,974	7,419,987,000	100.00%

(2) 종속기업의 현황

①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지분율(%)
MakinaRocks.,Inc	미국	AI Solution 개발 및 판매	100.00
MakinaRocks KK	일본	AI Solution 개발 및 판매	100.00

②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원)					
구 분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MakinaRocks.,Inc	17,079,113	390,587,054	-	(37,678,959)	(29,808,181)
MakinaRocks KK	390,940,184	192,740,739	242,926,845	(222,493,808)	(229,084,555)

2) 전기

(단위: 원)					
구 분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MakinaRocks., Inc	49,540,734	393,240,494	-	(820,899,591)	(817,948,569)

③ 연결범위의 변동

당기 중 MakinaRocks KK.의 설립으로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추가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3월 20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포함한 미래에 대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와 기후 관련 약정과 일관성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3: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9, 23: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 손실율에 대한 가정
- 주석 18, 21: 상환전환우선주 및 주식선택권 측정 - 기초자산 가치 및 변동성에 대한 가정
- 주석 19: 충당부채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28: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방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6: 금융상품
- 주석 21: 주식매수선택권

3.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기업이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을 결정할 때 일관된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이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

①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금융자산: 사업모형평가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모형	
현금흐름수취 목적	연결실체는 AI Solution 개발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취채권과 정기에적금 등을 현금흐름수취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4)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예: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 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②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36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③ 연결채무상대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

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추정내용연수
비품	5년
시설장치	5년
사용권자산	5년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추정내용연수
특허권과 상표권	10년
소프트웨어	5년

(7) 정부보조금

-자산관련보조금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리스

- 리스이용자

계약 내에 여러 리스요소나 리스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

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고,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리스와 복합기 및 사무용품과 같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9)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계약 식별 → ②수행의무

식별 → ③거래가격 산정 →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① 수행의무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AI Solution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연결실체가 개발한 AI Product 라이선스를 판매하며, 관련 하드웨어의 공급을 포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개발위탁 계약 및 라이선스 공급 계약, 하드웨어 공급계약 등에서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개발 용역

연결실체는 고객이 의뢰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고 대가를 수령하는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수행하는 개발 용역의 경우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라이선스 판매

연결실체는 지배기업이 개발한 AI Product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권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해당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이 지적 재산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지적 재산의 사용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시점을 수익의 인식시점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라이선스 판매 수익인식 금액은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을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④ 하드웨어 공급계약

연결실체는 외부로부터 구매한 하드웨어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하드웨어는 주로 AI Solution 개발 용역 또는 라이선스 판매와 결합된 계약 형태로 제공됩니다. 계약상 하드웨어는 다른 재화 또는 용역과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므로, 고객에게 하드웨어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⑤ 기타매출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개발 용역과 라이선스 판매 및 하드웨어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을 기타매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타매출에는 연결실체가 매월 일정대가를 수령하며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결실체는 서비스 유형별로 고객이 연결실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익을 소비하는 형태를 고려하여 수익의 인식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금융상품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금융부채 결제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 명확화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에 대한 추가 공시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

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동 개정사항은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 요구사항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일부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예상 전력거래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동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에 특정 총합계와 중간합계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를 요구하고, 주요 재무제표와 주식의 역할에 따라 재무정보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동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기준서는 소급 적용이 요구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

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동 기준서를 적용하여 재작성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재무위험관리

(1)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주주에게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합니다.

산업 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연결실체는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은 이자부 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차입금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순차입금:		
우선주부채 및 리스부채	662,327,242	9,430,714,619
단기차입금	3,000,000,000	3,000,000,000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4,571,691,660	2,015,913,611
순차입금	(909,364,418)	10,414,801,008
자본:		
총자본	13,538,489,966	13,094,367,507
부채비율(*)	-	79.54%

(*) 당기말의 경우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이므로 부채비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2)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주로 연결실체의 재무부서가 주관하고 있으며, 재무부서는 영업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무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에 근거하여 투자, 자본조달 및 영업과 관련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①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 외환위험

연결실체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및 구매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와 EUR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외화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123,069,235	-	1,338,876	-
EUR	301,067,620	-	-	-
합 계	424,136,855	-	1,338,876	-

당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인 원화 환율의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환종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12,306,923	(12,306,923)
EUR	30,106,762	(30,106,762)
합 계	42,413,685	(42,413,685)

외화환산시 적용된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평균환율		기말환율	
	당기	전기	당기말	전기말
USD	1,422.22	1,363.98	1,434.90	1,470.00
EUR	1,607.46	-	1,685.72	-
JPY	9.5079	-	9.1763	-

나. 가격위험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보유지분증권이 없으므로, 보유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부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1%상승시	1%하락시
현금및현금성자산	25,716,917	(25,716,917)

(단위: 원)		
구 분	1%상승시	1%하락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친 영향	25,716,917	(25,716,917)

②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결실체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31의 지급보증 내역을 제외하고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연결실체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신용공여 개시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의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거래처가 많고 상호 연관성이 없으므로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제한적입니다.

(3) 유동성위험

연결실체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분석은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현금흐름	잔존계약 만기	
			1년 이내	1년 초과 5년 이내
기타지급채무(*)	1,961,893,264	1,961,893,264	1,961,893,264	-
리스부채	662,327,242	732,000,000	366,000,000	366,000,000
차입금	3,000,000,000	3,018,918,357	3,018,918,357	-
합 계	5,624,220,506	5,712,811,621	5,346,811,621	366,000,000

(*) 금융부채가 아닌 직원 등 관련 미지급비용 659,531천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현금흐름	잔존계약 만기	
			1년 이내	1년초과 5년 이내
기타지급채무	1,493,275,145	1,493,275,145	1,493,275,145	-
상환전환우선주(*)	7,901,644,018	19,058,463,437	-	19,058,463,437
리스부채	1,529,070,601	1,682,000,000	696,000,000	986,000,000
차입금	3,000,000,000	3,026,717,808	3,026,717,808	-
합 계	13,923,989,764	25,260,456,390	5,215,992,953	20,044,463,437

(*) 연결재무상태표 상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주부채와 파생상품부채로 분리하여 인식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에 행사 및 지급을 가정하였으며, 상법상배당가능이익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① 금융자산

(단위: 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1)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571,691,660	2,015,913,611
단기금융상품	5,299,997,200	13,303,297,200
매출채권	4,244,659,324	1,191,019,350
기타수취채권(*2)	400,577,346	2,555,233,032
기타비유동수취채권(*2)	296,959,820	1,361,887,565
장기금융상품	6,900,000	-
합 계	14,820,785,350	20,427,350,758

(*1)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2) 금융자산이 아닌 계약자산(유동계약자산: 3,055,052천원, 비유동계약자산 : 1,015,175천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② 금융부채

1) 당기말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기타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기타지급채무(*)	1,961,893,264	-	-	1,961,893,264	-
단기차입금	3,000,000,000	-	-	3,000,000,000	-
유동리스부채	-	-	347,301,515	347,301,515	-
비유동리스부채	-	-	315,025,727	315,025,727	-
합 계	4,961,893,264	-	662,327,242	5,624,220,506	-

(*1) 금융부채가 아닌 직원 등 관련 미지급비용 659,531천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전기말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기타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유동파생상품부채	-	8,147,875,585	-	8,147,875,585	8,147,875,585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단기차입금	3,000,000,000	-	-	3,000,000,000	-
기타지급채무	1,493,275,145	-	-	1,493,275,145	-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기타	합 계	
유동우선주부채	7,901,644,018	-	-	7,901,644,018	-
유동리스부채	-	-	669,302,071	669,302,071	-
비유동리스부채	-	-	859,768,530	859,768,530	-
합 계	12,394,919,163	-	1,529,070,601	13,923,989,764	-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역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수준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투입변수(관측불가능한 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

①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당기말:				
파생상품부채(*)	-	-	-	-
전기말:				
파생상품부채	-	-	8,147,875,585	8,147,875,585

(*) 주석 18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액 전환되어 당기말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 말에 인식하며, 당기와 전기 중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② 가치평가방법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유의적 투입변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 3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평가방법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유의적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가. 전환시

구 분	공정가치	평가방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공정가치 측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
파생상품부채	12,921,817,627원	T-f 모형	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 변동성	7,076원 61.42%	• 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됩니다. - 기초자산 가격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기초자산 변동성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2) 전기

가. 당기말 평가

구 분	공정가치	평가방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공정가치 측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
파생상품부채	8,147,875,585원	T-f 모형	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 변동성	4,057원 64.18%	• 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됩니다. - 기초자산 가격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기초자산 변동성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나. 발행시

구 분	공정가치	평가방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공정가치 측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
파생상품부채	8,130,484,175원	T-f 모형	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 변동성	4,057원 63.27%	• 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됩니다. - 기초자산 가격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기초자산 변동성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다. 전환시

구 분	공정가치	평가방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공정가치 측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
파생상품부채	23,838,199,128원	T-f 모형	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 변동성	9,107원 67.39 ~ 67.73%	• 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됩니다. - 기초자산 가격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기초자산 변동성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③ 수준 3으로 분류된 파생상품부채의 공정가치의 당기와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8,147,875,585	29,722,234,920
발생	-	8,130,484,175
전환(*)	(12,921,817,627)	(23,838,199,128)
평가	4,773,942,042	(5,866,644,382)
기말	-	8,147,875,585

(*) 2025년 11월 11일에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액 전환되었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리스부채	합 계
이자수익	322,877,224	-	-	-	322,877,224
이자비용	-	(1,054,528,530)	-	(60,359,388)	(1,114,887,918)
파생상품평가손실	-	-	(4,773,942,042)	-	(4,773,942,042)
순손익	322,877,224	(1,054,528,530)	(4,773,942,042)	(60,359,388)	(5,565,952,736)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리스부채	합 계
이자수익	152,228,631	-	-	-	152,228,631
파생상품평가이익	-	-	5,884,035,792	-	5,884,035,792
이자비용	-	(1,105,762,639)	-	(134,453,924)	(1,240,216,563)
파생상품평가손실	-	-	(17,391,410)	-	(17,391,410)
순손익	152,228,631	(1,105,762,639)	5,866,644,382	(134,453,924)	4,778,656,450

금융상품 중 외화표시 화폐성항목의 결제 및 환산으로 인한 손익은 제외되어 있으며,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없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2,571,691,660	2,015,913,611
기타제예금	2,000,000,000	-
합 계	4,571,691,660	2,015,913,611

8.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단기금융상품 중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내역
단기금융상품	300,000,000	300,000,000	법인카드 결제대금 보증금

9. 매출채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4,244,659,324	1,191,019,350
차감: 대손충당금	-	-
차감 계	4,244,659,324	1,191,019,350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발생일 기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손상된 금액	매출채권	손상된 금액
만기 미도래	4,078,825,991	-	1,163,519,350	-
6개월 이내	-	-	27,500,000	-
1년 이내	165,833,333	-	-	-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손상된 금액	매출채권	손상된 금액
합 계	4,244,659,324	-	1,191,019,350	-

10. 기타수취채권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		
미수금	384,641,340	401,477
미수수익(*)	3,104,222,541	2,582,263,481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33,234,561)	(27,431,926)
합 계	3,455,629,320	2,555,233,032
비유동:		
장기미수수익(*)	1,249,600,000	1,166,666,666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234,425,421)	(265,895,503)
임차보증금	326,037,208	550,000,000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44,307,388)	(90,563,598)
기타보증금	15,230,000	1,680,000
합 계	1,312,134,399	1,361,887,565

(*) 주석 23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계약자산 4,070,227천원 및 3,430,521천원을 각각 포함하고 있습니다.

11. 기타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선급금	9,384,989	5,965,047
선급비용	220,514,809	330,501,533
소 계	229,899,798	336,466,580
비유동: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장기선급비용	-	92,857,156
합 계	229,899,798	429,323,736

12. 유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합 계
비품	2,836,795,885	(1,266,388,905)	(26,371,335)	1,544,035,645
시설장치	362,766,271	(289,479,535)	-	73,286,736
사용권자산	1,833,788,285	(1,192,112,512)	-	641,675,773
합 계	5,033,350,441	(2,747,980,952)	(26,371,335)	2,258,998,154

② 전기말

(단위: 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합 계
비품	2,814,931,085	(736,566,187)	(70,644,596)	2,007,720,302
시설장치	362,766,271	(216,926,281)	-	145,839,990
사용권자산	2,986,198,489	(1,484,291,010)	-	1,501,907,479
합 계	6,163,895,845	(2,437,783,478)	(70,644,596)	3,655,467,771

(2)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	환율변동효과	기말장부금액
비품	2,007,720,302	22,588,442	-	(485,867,618)	(405,481)	1,544,035,645
시설장치	145,839,990	-	-	(72,553,254)	-	73,286,736
사용권자산	1,501,907,479	383,442,557	(886,629,286)	(357,044,977)	-	641,675,773
합 계	3,655,467,771	406,030,999	(886,629,286)	(915,465,849)	(405,481)	2,258,998,154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	대체	처분	감가상각	환율변동효과	기말장부금액
비품	519,779,334	1,698,055,871	15,018,180	(14,524,023)	(212,240,897)	1,631,837	2,007,720,302

(단위: 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	대체	처분	감가상각	환율변동효과	기말장부금액
시설장치	218,393,244	-	-	-	(72,553,254)	-	145,839,990
사용권자산	2,124,472,615	-	-	-	(622,565,136)	-	1,501,907,479
합 계	2,862,645,193	1,698,055,871	15,018,180	(14,524,023)	(907,359,287)	1,631,837	3,655,467,771

13. 리스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은 없으며, 리스이용자와 관련한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기와 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장부금액
건물	1,501,907,479	383,442,557	(886,629,286)	(357,044,977)	641,675,773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감가상각	기말장부금액
건물	2,124,472,615	(622,565,136)	1,501,907,479

(2) 당기와 전기 중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사용권자산상각비	357,044,977	622,565,136
리스부채 이자비용	60,359,388	134,453,924
단기리스료	386,376,551	102,649,793
소액자산 리스료	13,016,268	8,726,064
합 계	816,797,184	868,394,917

(3) 당기와 전기 중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현금흐름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현금유출	393,570,000	696,000,000
단기리스와 관련된 현금유출	386,376,551	102,649,793
소액자산리스와 관련된 현금유출	13,016,268	8,726,064
총 현금유출액	792,962,819	807,375,857

(4) 리스와 관련한 계약상 만기별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1년 이내	366,000,000	696,000,000
1년 초과 ~ 2년 이내	366,000,000	638,000,000
2년 초과 ~ 3년 이내	-	348,000,000
합 계	732,000,000	1,682,000,000

(5) 연장선택권

부동산 리스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해지불능기간 종료 전에 리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하면 새로운 리스 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려고 노력합니다. 연장선택권은 연결실체만 행사할 수 있고, 리스제공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다시 평가합니다.

14. 무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합 계
특허권(*)	701,725,708	(182,061,942)	(2,615,550)	517,048,216

(단위: 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합 계
상표권	29,612,823	(7,076,853)	(1,539,001)	20,996,969
소프트웨어	10,000,000	(9,166,666)	-	833,334
건설중인무형자산	114,453,907	-	-	114,453,907
합 계	855,792,438	(198,305,461)	(4,154,551)	653,332,426

(*) 해당 특허권 중 일부가 연결실체의 차입금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17)

② 전기말

(단위: 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합 계
특허권(*)	658,048,659	(113,100,413)	(2,989,200)	541,959,046
상표권	22,145,122	(4,115,572)	(1,767,000)	16,262,550
소프트웨어	10,000,000	(7,166,666)	-	2,833,334
건설중인무형자산	307,079,062	-	-	307,079,062
합 계	997,272,843	(124,382,651)	(4,756,200)	868,133,992

(*) 해당 특허권 중 일부가 연결실체의 차입금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17)

(2)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	상각	대체	손상	기말장부금액
특허권	541,959,046	-	(68,587,879)	43,677,049	-	517,048,216
상표권	16,262,550	-	(2,733,282)	7,467,701	-	20,996,969
소프트웨어	2,833,334	-	(2,000,000)	-	-	833,334
건설중인무형자산	307,079,062	44,915,917	-	(51,144,750)	(186,396,322)	114,453,907
합 계	868,133,992	44,915,917	(73,321,161)	-	(186,396,322)	653,332,426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	상각	대체	기타	기말장부금액
특허권	455,654,617	-	(60,807,771)	108,385,596	38,726,604	541,959,046
상표권	10,579,329	-	(1,588,588)	6,447,809	824,000	16,262,550
소프트웨어	4,833,334	-	(2,000,000)	-	-	2,833,334
건설중인무형자산	236,851,397	205,242,441	-	(114,833,405)	(20,181,371)	307,079,062
합 계	707,918,677	205,242,441	(64,396,359)	-	19,369,233	868,133,992

(3) 당기와 전기 중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각각 3,402,002천원 및

3,337,748천원으로 전액 영업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5. 기타지급채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지급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미지급비용	2,458,949,838	940,669,836
미지급금	162,474,026	552,605,309
합 계	2,621,423,864	1,493,275,145

16. 기타유동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선수수익(*1)	855,785,322	342,726,096
예수금	152,313,671	148,370,960
국고보조금(*2)	233,266,324	52,480,000
합 계	1,241,365,317	543,577,056

(*1) 주식23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선수취한 금액 중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 및 기간 미경과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결실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으로부터 특정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수취하였으며, 당기 중 415,331천원이 보조금 금액에서 상계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17. 단기차입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차입처	내역	만기일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주)우리은행(*1)	기업운전자금	2026-02-20	3.53	2,000,000,000	2,000,000,000
(주)우리은행(*2)	기업운전자금	2026-03-23	4.03	1,000,000,000	1,000,000,000
합 계				3,000,000,000	3,000,000,000

(*1)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00,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의 특허권을 담보(설정액 : 1,200,000천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8. 상환전환우선주

(1)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내 용
발행일	2024년 12월 6일, 2024년 12월 13일, 2024년 12월 20일
발행가액	16,000,097,200
발행주식수	1,739,141주
당기 중 보통주 전환 주식수	1,739,141주
주당발행가	9,200
의결권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개시일	2027년 12월 6일 이후
배당에 관한 사항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로 1주당 액면가액 기준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적으로 배당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 배당률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배당받음
전환권	우선주는 존속기간(발행일로부터 10년간)내에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전환가능
전환가격 조정	최초의 전환가격은 전환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으로 하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환가격 등을 조정 (1)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조정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조정전 우선주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환 비율 조정 (2) 회사가 우선주식의 전환전에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기타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 (3) 우선주 발행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투자자는 발행전 투자자 보유 우선주식수 x (발행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발행전 회사 발행주식총수)-1)만큼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음 (4) 회사가 타사와 합병 혹은 인수, 주식교환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당 평가액의 80%가 당시의 우선주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주당 평가액의 80%가 되도록 전환비율 조정 (5)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시 그 분할 또는 병합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 (6) 합병, 분할,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가 변경,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분할,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가 변경, 자본감소 직전에 본건 주식의 전액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 조정 (7) 회사가 전환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 (8) 후행투자의 전환가격 조정이 유리한 경우 후행투자자의 전환가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
투자자의 조기 상환권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며, 계약상 약정한 상환청구개시일 이후에 상환청구할 수 있으며, 상환청구시 우선주 발행가액과 연 6% 복리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기지급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우선주부채	-	7,901,644,018
유동파생상품부채	-	8,147,875,585

(*) 당기 중 보통주로 전액 전환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자본의 분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은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주계약과 분리하여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상각	보통주전환	평가손실	기말
우선주부채	7,901,644,018	942,039,322	(8,843,683,340)	-	-
파생상품부채	8,147,875,585	-	(12,921,817,627)	4,773,942,042	-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발행	상각	보통주전환	평가이익	평가손실	기말
우선주부채	17,689,462,919	7,869,613,025	1,010,507,460	(18,667,939,386)	-	-	7,901,644,018
파생상품부채	29,722,234,920	8,130,484,175	-	(23,838,199,128)	(5,884,035,792)	17,391,410	8,147,875,585

(4)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인해 부채로 분류된 각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인식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및 조기상환권	-	8,147,875,585

(★) 당기 중 보통주로 전액 전환되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관련손익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순손실	(13,774,177,971)	(6,073,429,812)
평가이익(손실)	(4,773,942,042)	5,866,644,382
평가손익 제외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손실	(9,000,235,929)	(11,940,074,194)

19. 충당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손실충당부채(★)	32,059,751	-
비유동:		
복구충당부채	76,281,153	98,936,943

(★) 보고기간 말 현재 진행중인 용역제공계약의 총예정원가가 계약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32,060천원의 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주석 23의 (5) 참조).

(2) 당기와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손실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당기	당기	전기
기초	-	98,936,943	92,128,361
설정	32,059,751	-	-
감소	-	(29,250,001)	-
상각	-	6,594,211	6,808,582

(단위: 원)			
구 분	손실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당기	당기	전기
기말	32,059,751	76,281,153	98,936,943

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연결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복구충당부채 상각액은 금융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수권주식수	보통주	100,000,000주	100,000,000주
	우선주		
발행주식수	보통주	14,839,974주	13,093,724주
	우선주(*)	-	1,739,141주
주당금액	보통주	500	500
자본금	보통주	7,419,987,000	6,546,862,000

(*) 전량 상환전환우선주이며, 당기 중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69,261,572,222	45,223,457,189
감자차익	144,132,000	-
합 계	69,405,704,222	45,223,457,189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주식매수선택권	2,884,849,831	2,399,036,039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해외사업장환산손익	45,732,400	44,452,369
합 계	2,930,582,231	2,443,488,408

(4) 당기와 전기 중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보통주식수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주식매수선택권	해외사업장환산손익
전기초(2024.01.01)	9,600,952주	4,800,476,000	2,736,068,181	-	1,885,539,382	41,501,34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196,708주	98,354,000	1,636,648,224	-	(935,974,328)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3,296,064주	1,648,032,000	40,858,106,514	-	-	-
주식보상비용	-	-	-	-	1,449,470,985	-
주식발행비용	-	-	(7,365,730)	-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	-	-	2,951,022
전기말(2024.12.31)	13,093,724주	6,546,862,000	45,223,457,189	-	2,399,036,039	44,452,369
당기초(2025.01.01)	13,093,724주	6,546,862,000	45,223,457,189	-	2,399,036,039	44,452,369
무상감자	(288,264)주	(144,132,000)	-	144,132,000	-	-
보통주 발행	260,869주	130,434,500	2,869,559,000	-	-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1,739,141주	869,570,500	20,895,930,467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34,504주	17,252,000	280,459,516	-	(157,556,268)	-
주식보상비용	-	-	-	-	643,370,060	-
주식발행비용	-	-	(7,833,950)	-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	-	-	1,280,031
당기말(2025.12.31)	14,839,974주	7,419,987,000	69,261,572,222	144,132,000	2,884,849,831	45,732,400

21. 주식매수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연결실체는 주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결실체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부여일	행사가격	부여방법	가득조건	부여주식수	행사가능주식수
4차 주식선택권(※)	2020-08-31	4,062원	신주발행 교부	용역제공조건 : 2년	116,800주	9,900주
5차 주식선택권(※)	2021-03-31				72,000주	-
6차 주식선택권(※)	2021-08-20				96,000주	4,800주
7차 주식선택권(※)	2022-03-31				302,048주	140,744주
8차 주식선택권(※)	2022-04-22				16,000주	-
9차 주식선택권(※)	2023-11-30	13,750원			371,200주	232,800주
10차 주식선택권	2024-03-28				8,000주	8,000주
11차 주식선택권	2024-05-02				65,600주	41,600주
12차 주식선택권	2025-11-07				63,200주	63,200주

구 분	부여일	행사가격	부여방법	가득조건	부여주식수	행사가능주식수
합 계					1,110,848주	501,044주

(*)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부여주식, 행사가능주식수 및 행사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2) 연결실체는 이항모형에 의한 공정가치 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통주 공정가치(*1)	행사가격	보통주 공정가치 변동성(%)(*2)	무위험이자율(%)	개당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4차 주식선택권	3,295원	4,062원	69.02	0.46 ~ 1.88	2,037원
5차 주식선택권	3,295원		59.50	0.51 ~ 2.60	1,816원
6차 주식선택권	4,675원		52.63	0.53 ~ 2.41	2,700원
7차 주식선택권	8,503원		53.62	1.39 ~ 3.32	6,192원
8차 주식선택권	8,503원		53.60	1.47 ~ 3.50	6,227원
9차 주식선택권	10,525원	13,750원	79.17	3.38 ~ 3.78	7,404원
10차 주식선택권	9,107원		68.74	3.19 ~ 3.52	5,503원
11차 주식선택권	9,107원		67.95	3.41 ~ 3.74	5,478원
12차 주식선택권	7,076원		61.31	2.44 ~ 3.65	3,457원

(*)1 보통주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2 보통주 공정가치의 변동성은 유사한 상장회사를 선정하여 기준일 직전 1년 기준 상장 증가의 역사적 변동성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미행사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주)					
구 분	기초	부여	행사	소멸(*)	기말
4차 주식선택권	23,400	-	(13,500)	-	9,900
5차 주식선택권	-	-	-	-	-
6차 주식선택권	4,800	-	-	-	4,800
7차 주식선택권	161,748	-	(21,004)	-	140,744
8차 주식선택권	-	-	-	-	-
9차 주식선택권	300,000	-	-	(67,200)	232,800
10차 주식선택권	8,000	-	-	-	8,000
11차 주식선택권	62,400	-	-	(20,800)	41,600
12차 주식선택권	-	63,200	-	-	63,200
합 계	560,348	63,200	(34,504)	(88,000)	501,044

(*) 가득요건을 충족하기 전 퇴사로 인한 소멸입니다.

당기말 현재 미행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잔여만기는 4.7년입니다.

② 전기

(단위 : 주)					
구 분	기초	부여	행사	소멸(*)	기말
4차 주식선택권	60,800	-	(37,400)	-	23,400
5차 주식선택권	21,408	-	(21,408)	-	-
6차 주식선택권	14,400	-	(9,600)	-	4,800
7차 주식선택권	274,048	-	(112,300)	-	161,748
8차 주식선택권	16,000	-	(16,000)	-	-
9차 주식선택권	363,200	-	-	(63,200)	300,000
10차 주식선택권	-	8,000	-	-	8,000
11차 주식선택권	-	65,600	-	(3,200)	62,400
합 계	749,856	73,600	(196,708)	(66,400)	560,348

(*) 가득요건을 충족하기 전 퇴사로 인한 소멸입니다.

전기말 현재 미행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잔여만기는 5.3년 입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원)				
구 분	기초	당기인식보상원가	행사	기말
4차 주식선택권	47,665,800	-	(27,499,500)	20,166,300
5차 주식선택권	-	-	-	-
6차 주식선택권	12,960,000	-	-	12,960,000
7차 주식선택권	1,001,543,616	-	(130,056,768)	871,486,848
8차 주식선택권	-	-	-	-
9차 주식선택권	1,206,315,069	529,182,531	-	1,735,497,600
10차 주식선택권	16,765,346	22,012,055	-	38,777,401
11차 주식선택권	113,786,208	76,013,760	-	189,799,968
12차 주식선택권	-	16,161,714	-	16,161,714
합 계	2,399,036,039	643,370,060	(157,556,268)	2,884,849,831

② 전기

(단위 : 원)				
구 분	기초	당기인식보상원가	행사	기말
4차 주식선택권	123,849,600	-	(76,183,800)	47,665,800
5차 주식선택권	38,876,928	-	(38,876,928)	-
6차 주식선택권	38,880,000	-	(25,920,000)	12,960,000
7차 주식선택권	1,485,662,720	211,242,496	(695,361,600)	1,001,543,616
8차 주식선택권	84,230,310	15,401,690	(99,632,000)	-
9차 주식선택권	114,039,824	1,092,275,245	-	1,206,315,069

(단위 : 원)				
구 분	기초	당기인식보상원가	행사	기말
10차 주식선택권	-	16,765,346	-	16,765,346
11차 주식선택권	-	113,786,208	-	113,786,208
합 계	1,885,539,382	1,449,470,985	(935,974,328)	2,399,036,039

22. 결손금

(1) 당기와 전기 중 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51,534,241,098	45,460,811,286
당기순손실	13,774,177,971	6,073,429,812
기말금액	65,308,419,069	51,534,241,098

(2) 당기와 전기 중 지배기업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처리예정일: 2026년 3월 20일)		(처리확정일: 2025년 3월 28일)	
I. 미처리결손금		65,308,419,069		51,534,241,098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51,534,241,098		45,460,811,286	
당기순손실	13,511,292,238		6,073,429,812	
II. 결손금처리액		-		-
III. 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		65,050,621,701		51,534,241,098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기와 전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주요계약 :		
용역제공	7,157,868,846	4,384,413,248
라이선스판매수익	2,330,776,815	3,693,489,758
하드웨어판매수익	1,804,142,786	99,000,000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기타수익	166,686,665	117,000,000
합 계	11,459,475,112	8,293,903,006
수익인식시기 :		
한 시점에 인식	4,134,919,601	3,792,489,758
기간에 걸쳐 인식	7,324,555,511	4,501,413,248
합 계	11,459,475,112	8,293,903,006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취채권,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수취채권 (*1)	4,244,659,324	1,191,019,350
계약자산 (*2)	4,070,226,553	3,430,521,176
계약부채 (*3)	855,785,322	342,726,096

(*1)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미청구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상 미수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선수취한 금액 중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 및 기간 미경과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상 선수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없습니다.

(4)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기와 전기에 인식한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개발용역 등	342,726,096	146,397,048

(5) 보고기간 말 현재 총예정원가가 계약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32,060천원의 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6) 총예정원가 추정치 변동

직전 보고기간 말 현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 계약과 관련하여 총 계약금액 및

총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의 변경으로 인해 보고기간과 미래기간의 손익,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7) 부문별 정보

① 영업부문의 현황

연결실체는 AI Solution 개발 및 판매를 수행하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당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의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고객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고객 A	1,623,846,694	14.17%	-	-
고객 B	1,212,572,939	10.58%	-	-
고객 C	398,101,337	3.47%	1,004,832,676	12.12%
고객 D	-	-	872,539,025	10.52%
고객 E	-	-	856,384,324	10.33%
고객 F	136,363,636	1.19%	851,988,744	10.27%
합 계	3,370,884,606	29.41%	3,585,744,769	43.24%

24. 성격별 비용

당기와 전기의 영업비용을 그 성격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종업원급여 (주석 25참조)	11,171,805,670	12,922,009,603
감가상각비	558,420,872	284,794,151
사용권자산상각비	357,044,977	622,565,136
무형자산상각비	73,321,161	64,396,359
여비교통비	298,363,452	380,463,234
세금과공과	353,088,395	365,770,884
지급임차료	399,392,819	111,375,857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보험료	538,535,490	676,235,037
소모품비	1,959,455,089	239,784,285
지급수수료	2,763,262,291	2,401,696,204
광고선전비	376,887,660	483,551,673
기타영업비용	651,019,447	638,188,535
합 계	19,500,597,323	19,190,830,958

25. 종업원급여

(1) 당기와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급여 및 상여	5,973,354,894	6,982,837,799
확정기여제도 퇴직급여	906,570,749	866,581,428
복리후생비	340,858,995	384,140,621
경상연구개발비	3,307,650,972	3,238,978,77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643,370,060	1,449,470,985
합 계	11,171,805,670	12,922,009,603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급휴가 관련 부채(미지급비용)	289,131,837	375,743,631

26.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와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금융수익 :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이자수익	444,917,856	152,228,631
파생상품평가이익	-	5,884,035,792
금융수익 합계	444,917,856	6,036,264,423
금융비용 :		
이자비용	1,121,482,129	1,247,025,145
파생상품평가손실	4,773,942,042	17,391,410
금융비용 합계	5,895,424,171	1,264,416,555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순금융손익	(5,450,506,315)	4,771,847,868

27.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기타수익 :		
외환차익	13,463,338	294,638
외화환산이익	3,960,620	47,156,513
유형자산처분이익	86,078,595	-
잡이익	17,603,631	33,637,236
기타수익 합계	121,106,184	81,088,387
기타비용 :		
외환차손	2,909,166	4,126,769
외화환산손실	12,346,947	8,352,005
유형자산처분손실	-	5,410,202
건설중인자산손상차손	186,396,322	-
보상금반환손실(*)	194,475,698	-
잡손실	7,527,496	11,549,139
기타비용 합계	403,655,629	29,438,115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으로 인해 인식한 비용입니다(주석31 참조).

28.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1)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부담액 및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차감전 순손실과 법인세비용과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3,774,177,971)	(6,073,429,812)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1,416,988,937)	(601,269,551)
조정사항:		
비일시적차이	52,987,823	155,450,511
이연법인세가 인식되지 않은 일시적 차이 등	1,364,001,114	445,819,040
법인세비용	-	-
유효세율(*)	-	-

(*)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하여 유효세율이 산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	기말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			
종속기업투자주식	414,056,091	46,006,232	460,062,323
파생상품부채	848,650,373	(848,650,373)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776,057,443	(776,057,443)	-
리스부채	151,377,989	(78,521,992)	72,855,997
사용권자산	(148,688,841)	78,104,506	(70,584,335)
복구충당부채	9,794,758	(1,403,831)	8,390,927
미수수익	(2,483,073)	730,112	(1,752,961)
임차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8,965,796	(4,091,983)	4,873,813
기타	46,354,139	48,744,680	95,098,819
소 계	2,104,084,675	(1,535,140,092)	568,944,583
이월결손금	4,447,554,424	1,144,781,770	5,592,336,194
이월세액공제	7,668,738,027	1,608,034,371	9,276,772,398
합 계	14,220,377,126	1,217,676,049	15,438,053,175
실현가능성이 낮아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14,220,377,126)	(1,217,676,049)	(15,438,053,175)
차감 후 이연법인세자산	-	-	-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	기말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			
종속기업투자주식	206,432,951	207,623,140	414,056,091
파생상품부채	2,942,501,257	(2,093,850,884)	848,650,373
상환전환우선주부채	1,751,256,829	(975,199,386)	776,057,443
리스부채	206,971,051	(55,593,062)	151,377,989
사용권자산	(210,322,789)	61,633,948	(148,688,841)
복구충당부채	9,120,708	674,050	9,794,758
미수수익	(4,248,608)	1,765,535	(2,483,073)
임차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12,155,385	(3,189,589)	8,965,796
기타	27,799,191	18,554,948	46,354,139
소 계	4,941,665,975	(2,837,581,300)	2,104,084,675
이월결손금	3,027,626,848	1,419,927,576	4,447,554,424
이월세액공제	5,574,056,659	2,094,681,368	7,668,738,027
합 계	13,543,349,482	677,027,644	14,220,377,126
실현가능성이 낮아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13,543,349,482)	(677,027,644)	(14,220,377,126)
차감 후 이연법인세자산	-	-	-

(4) 보고기간말 현재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않은 일시적차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일시적차이	5,172,223,485	21,253,380,567
세무상결손금	42,531,750,912	32,604,229,770
이월세액공제	9,276,772,398	7,668,738,027

(5) 보고기간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세무상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의 만료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만료시기	세무상결손금	이월세액공제
2028년	275,628,852	18,160,228
2029년	775,926,731	97,467,182
2030년	1,045,252,740	633,245,294
2031년	-	1,048,819,191

(단위: 원)		
만료시기	세무상결손금	이월세액공제
2032년	-	1,663,205,252
2033년	-	2,113,159,512
2034년	-	2,330,183,311
2035년	222,493,808	1,372,532,428
2036년	3,132,523,587	-
2037년	5,092,097,215	-
2038년	8,958,554,443	-
2039년	11,138,878,071	-
2040년 이후	11,890,395,465	-
합 계	42,531,750,912	9,276,772,398

29. 주당손익

(1) 당기와 전기의 기본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보통주당기순손익	(13,774,177,971)	(6,073,429,81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3,095,116주	11,456,699주
기본주당손익	(1,052)	(530)

① 당기

구 분	일자	주식수(주)	일수	적수
기초	2025-01-01	13,093,724	365	4,779,209,260
무상감자(*)	2025-01-01	(288,264)	365	(105,216,360)
보통주 발행	2025-11-04	260,869	58	15,130,40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5-11-07	34,504	55	1,897,720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2025-11-11	1,739,141	51	88,696,191
소 계				4,779,717,21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3,095,116주

(*) 기중 무상감자 효과는 기초로 소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② 전기

구 분	일자	주식수(주)	일수	적수
기초	2024-01-01	9,600,952	366	3,513,948,432

구 분	일자	주식수(주)	일수	적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4-04-08	144,808	268	38,808,54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4-05-20	43,900	226	9,921,400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2024-05-22	2,477,608	224	554,984,192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2024-05-27	818,456	219	179,241,86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4-05-27	8,000	219	1,752,000
무상감자(*)	2024-01-01	(288,264)	366	(105,504,624)
소 계				4,193,151,80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456,699주

(*) 전기 유통보통주식수 계산시 당기중 무상감자 효과는 전기초로 소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반회석효과로 인하여 회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30. 현금흐름표

(1) 당기와 전기 중 영업으로부터 유출된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1. 당기순손실	(13,774,177,971)	(6,073,429,812)
2. 비용(수익) 조정사항	7,223,427,190	(2,403,384,776)
이자비용	1,121,482,129	1,247,025,145
외화환산손실	12,346,947	8,352,005
감가상각비	558,420,872	284,794,151
무형자산상각비	73,321,161	64,396,359
사용권자산상각비	357,044,977	622,565,136
손실충당부채전입액	32,059,751	-
유형자산처분손실	-	5,410,202
건설중인자산손상차손	186,396,322	-
잡손실	-	10,788,700
파생상품평가손실	4,773,942,042	17,391,410
주식보상비용	643,370,060	1,449,470,985
이자수익	(444,917,856)	(152,228,631)
외화환산이익	(3,960,620)	(47,156,513)
유형자산처분이익	(86,078,595)	-
파생상품평가이익	-	(5,884,035,792)
잡이익	-	(30,157,933)
3. 영업자산 부채의 변동	(1,356,130,990)	(2,095,136,049)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3,055,937,962)	756,525,149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579,674,275)	(1,911,536,162)
미수금의 감소(증가)	(232,869,947)	(259,677)
선급금의 감소(증가)	(3,429,945)	12,539,408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200,080,834	(28,830,113)
선급부가세의 감소(증가)	(20,124,440)	-
기타보충금의 감소(증가)	(13,550,000)	(700,000)
장기미수수익의 감소(증가)	13,439,851	(824,456,424)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371,428,576)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227,582)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513,059,226	196,329,048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18,198,816	44,956,779
국고보조금의 증가(감소)	180,786,324	52,480,00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1,519,787,537	(5,026,249)
예수금의 증가(감소)	4,102,991	(14,501,650)
4. 영업으로부터 유출된 현금흐름(1+2+3)	(7,906,881,771)	(10,571,950,637)

(2) 당기와 전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우선주부채 및 파생상품부채의 전환	21,765,500,967	42,506,138,514
무상감자	144,132,000	-
리스계약해지에 따른 사용권자산의 감소	886,629,286	-
리스계약해지에 따른 리스부채의 감소	895,835,548	-
리스계약변경에 따른 사용권자산의 증가	383,442,557	-
리스계약변경에 따른 리스부채의 증가	362,302,801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304,030,474	561,546,076
장기선급비용의 선급비용 대체	92,857,156	-
유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502,458,845)	502,458,845

(3) 당기와 전기 중 주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현금변동				기말
		차입	상환	이자지급	전환	리스변경 및 해지	평가	상각	
우선주부채	7,901,644,018	-	-	-	(8,843,683,340)	-	-	942,039,322	-
파생상품부채	8,147,875,585	-	-	-	(12,921,817,627)	-	4,773,942,042	-	-

(단위: 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현금변동				기말
		차입	상환	이자지급	전환	리스변경 및 해지	평가	상각	
리스부채	1,529,070,601	-	(333,210,612)	(60,359,388)	-	(533,532,747)	-	60,359,388	662,327,242
단기차입금	3,000,000,000	3,000,000,000	(3,000,000,000)	-	-	-	-	-	3,000,000,000
합 계	20,578,590,204	3,000,000,000	(3,333,210,612)	(60,359,388)	(21,765,500,967)	(533,532,747)	4,773,942,042	1,002,398,710	3,662,327,242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현금변동			기말
		차입	상환	이자지급	전환	평가	상각	
우선주부채	17,689,462,919	7,869,613,025	-	-	(18,667,939,386)	-	1,010,507,460	7,901,644,018
파생상품부채	29,722,234,920	8,130,484,175	-	-	(23,838,199,128)	(5,866,644,382)	-	8,147,875,585
리스부채	2,090,616,677	-	(561,546,076)	(134,453,924)	-	-	134,453,924	1,529,070,601
단기차입금	-	3,000,000,000	-	-	-	-	-	3,000,000,000
합 계	49,502,314,516	19,000,097,200	(561,546,076)	(134,453,924)	(42,506,138,514)	(5,866,644,382)	1,144,961,384	20,578,590,204

31.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차입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연결실체가 지급보증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약정내용	한도	실행액
(주)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2,000,000,000	2,000,000,000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00,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액	담보권자
특허권	25,163,128	1,200,000,000	1,000,000,000	(주)우리은행

(3) 연결실체는 계약이행보증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총 1,952,408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으며, 원고로 1건의 소송

을 진행중입니다.

(단위: 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내용	소송가액
서울행정법원	지배기업 외 2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취소 등	114,825,233

상기의 소송은 지배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처분 및 부과된 제재부과금 194,476천원의 부과 및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지배기업은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이행하였으나, 시험성적서 지연 제출을 사유로 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처분 및 제재부과금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상기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은 집행정지 인용되었고 제재부과금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으며 당기 중 제재부과금 194,476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3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기타 특수관계자	주요 경영진	주요 경영진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은 없습니다.

(5) 당기와 전기 중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단기급여	891,225,720	875,255,000
퇴직급여	74,185,476	251,022,322
주식보상비용	-	180,943,352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합 계	965,411,196	1,307,220,674

33. 보고기간후사건

지배개입은 2026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9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8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7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9기 (2025년말)	제8기 (2024년말)	제7기 (2023년말)
자 산				
I. 유동자산		17,472,003,180	19,378,877,411	10,206,075,717
현금및현금성자산	5,6,7	4,348,104,032	1,979,610,609	1,887,571,550
단기금융상품	6,8	5,299,997,200	13,303,297,200	5,800,000,000
매출채권	5,6,9,24,33	4,181,067,565	1,191,019,350	1,708,482,470
기타수취채권	5,6,10,24,33	3,383,851,072	2,555,233,032	710,694,670
기타유동자산	11	210,913,881	336,047,630	39,620,007
당기법인세자산	29	48,069,430	13,669,590	59,707,020
II. 비유동자산		4,628,573,234	5,965,527,702	6,089,071,186
장기금융상품	6	6,900,000	—	—
종속기업투자	12,33	427,284,000	—	2,097,203,431
유형자산	13,14	2,247,499,379	3,642,648,989	2,855,750,748
무형자산	15,32	653,332,426	868,133,992	707,918,677
기타비유동수취채권	5,6,10,24	1,293,557,429	1,361,887,565	428,198,330

과 목	주석	제9기 (2025년말)	제8기 (2024년말)	제7기 (2023년말)
기타비유동자산	11	-	92,857,156	-
자 산 총 계		22,100,576,414	25,344,405,113	16,295,146,903
부 채				
I. 유동부채		7,049,350,182	21,755,673,875	49,155,975,690
기타지급채무	5,6,16,26	2,433,059,000	1,493,275,145	765,706,122
단기차입금	5,6,18,31,32	3,000,000,000	3,000,000,000	-
유동우선주부채	5,6,19	-	7,901,644,018	17,689,462,919
유동리스부채	5,6,14,31	347,301,515	669,302,071	669,302,071
기타유동부채	17	1,236,929,916	543,577,056	309,269,658
유동파생상품부채	5,6,19,31	-	8,147,875,585	29,722,234,920
유동충당부채	20,24	32,059,751	-	-
II. 비유동부채		391,306,880	958,705,473	1,513,442,967
비유동충당부채	20	76,281,153	98,936,943	92,128,361
비유동리스부채	5,6,14,31	315,025,727	859,768,530	1,421,314,606
부 채 총 계		7,440,657,062	22,714,379,348	50,669,418,657
자 본				
I. 자본금	1,21	7,419,987,000	6,546,862,000	4,800,476,000
II. 자본잉여금	21	69,405,704,222	45,223,457,189	2,736,068,181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21,22	2,884,849,831	2,399,036,039	1,885,539,382
IV. 결손금	23	(65,050,621,701)	(51,539,329,463)	(43,796,355,317)
자 본 총 계		14,659,919,352	2,630,025,765	(34,374,271,75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2,100,576,414	25,344,405,113	16,295,146,903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9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9기 (2025년도)	제8기 (2024년도)	제7기 (2023년도)
I. 영업수익	24,33	11,216,548,267	8,293,903,006	4,912,723,460

과 목	주석	제9기 (2025년도)	제8기 (2024년도)	제7기 (2023년도)
II. 영업비용	25,26,33	18,992,733,291	18,543,087,822	15,015,325,952
III. 영업손실		(7,776,185,024)	(10,249,184,816)	(10,102,602,492)
IV. 영업외손익		(5,735,107,214)	2,506,210,670	(7,189,907,379)
금융수익	6,27,33	444,886,233	6,039,263,897	345,088,748
금융비용	6,27	5,895,424,171	1,264,416,555	7,524,663,633
기타수익	28	119,086,324	81,088,387	3,412,511
기타비용	12,28	403,655,600	2,349,725,059	13,745,005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3,511,292,238)	(7,742,974,146)	(17,292,509,871)
VI. 법인세비용	29	-	-	-
VII. 당기순손실		(13,511,292,238)	(7,742,974,146)	(17,292,509,871)
VIII. 총포괄손실		(13,511,292,238)	(7,742,974,146)	(17,292,509,871)
IX. 주당손실	30			
기본주당손실		(1,032)	(676)	(1,830)
희석주당손실		(1,032)	(676)	(1,830)

자 본 변 동 표

제 9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결손금	총 계
2023년 1월 1일(전전기초)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589,797,500	5,934,766,500	1,152,762,969	(26,503,845,446)	(18,826,518,477)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	(17,292,509,871)	(17,292,509,871)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	-	-	1,021,499,485	-	1,021,499,485
주식선택권 행사	8,762,000	811,991,072	(288,723,072)	-	532,030,000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	1,500,000	227,608,869	-	-	229,108,869
무상증자	4,200,416,500	(4,200,416,500)	-	-	-
주식발행비용	-	(37,881,760)	-	-	(37,881,760)
2023년 12월 31일(전전기말)	4,800,476,000	2,736,068,181	1,885,539,382	(43,796,355,317)	(34,374,271,754)
2024년 1월 1일(전기초)	4,800,476,000	2,736,068,181	1,885,539,382	(43,796,355,317)	(34,374,271,754)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	(7,742,974,146)	(7,742,974,146)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	-	-	1,449,470,985	-	1,449,470,985
주식선택권 행사	98,354,000	1,636,648,224	(935,974,328)	-	799,027,896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보통주 전환	1,648,032,000	40,858,106,514	-	-	42,506,138,514
주식발행비용	-	(7,365,730)	-	-	(7,365,730)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결손금	총계
2024년 12월 31일(전기말)	6,546,862,000	45,223,457,189	2,399,036,039	(51,539,329,463)	2,630,025,765
2025년 01월 01일(당기초)	6,546,862,000	45,223,457,189	2,399,036,039	(51,539,329,463)	2,630,025,765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	(13,511,292,238)	(13,511,292,238)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	-	-	643,370,060	-	643,370,060
보통주 발행	130,434,500	2,869,559,000	-	-	2,999,993,500
무상감자	(144,132,000)	144,132,000	-	-	-
주식선택권 행사	17,252,000	280,459,516	(157,556,268)	-	140,155,248
상환전환우선주채의 보통주 전환	869,570,500	20,895,930,467	-	-	21,765,500,967
주식발행비용	-	(7,833,950)	-	-	(7,833,950)
2025년 12월 31일(당기말)	7,419,987,000	69,405,704,222	2,884,849,831	(65,050,621,701)	14,659,919,352

현금흐름표

제 9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8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7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단위 : 원)

과목	제9기 (2025년도)	제8기 (2024년도)	제7기 (2023년도)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531,423,201)	(10,047,724,547)	(9,063,581,470)
영업활동에서 유출된 현금(주31)	(7,635,758,662)	(9,981,669,306)	(9,198,117,154)
이자의 수취	312,217,503	113,952,771	363,924,305
이자의 지급	(173,482,202)	(226,045,442)	(175,438,191)
법인세의 환급(납부)	(34,399,840)	46,037,430	(53,950,43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243,925,013	(9,095,153,963)	4,500,746,165
유형자산의 처분	-	9,113,821	10,935,000
유형자산의 취득	(520,355,987)	(1,190,961,988)	(247,779,317)
무형자산의 취득	(47,374,762)	(202,783,596)	(333,409,518)
보증금의 감소	300,000,000	-	-
보증금의 증가	(57,460,238)	-	-
종속기업투자자의 취득	(427,284,000)	-	(1,329,00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	-	132,80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	(207,225,000)	(132,800,0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0,303,294,400	5,800,000,000	26,2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2,299,994,400)	(13,303,297,200)	(19,8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6,900,0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주31)	2,658,948,938	19,230,213,290	3,042,677,451

과 목	제9기 (2025년도)	제8기 (2024년도)	제7기 (2023년도)
단기차입금의 차입	3,000,000,000	3,000,000,000	-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	16,000,097,200	2,997,091,020
보통주 발행	2,999,993,500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799,027,896	532,03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3,000,000,000)	-	-
주식발행비용	(7,833,950)	(7,365,730)	(37,881,760)
리스부채의 상환	(333,210,612)	(561,546,076)	(448,561,809)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II-III)	2,371,450,750	87,334,780	(1,520,157,854)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979,610,609	1,887,571,550	3,408,667,918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957,327)	4,704,279	(938,514)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IV+V+VI)	4,348,104,032	1,979,610,609	1,887,571,550

5. 재무제표 주석

제 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마키나락스(이하 "당사")는 2017년 12월 21일 AI Solution 개발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3, 12층(신덕빌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시 최초 자본금은 30,000천원이며 수차례 유·무상증자 및 당기 중 무상감자를 통해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납입자본금은 7,419,987천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금액(원)	지분율
윤성호	1,824,000	912,000,000	12.29%
이재혁	1,221,016	610,508,000	8.23%
임용섭	1,216,000	608,000,000	8.19%
심상우	1,216,000	608,000,000	8.19%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금액(원)	지분율
박민수	194,300	97,150,000	1.31%
에스케이텔레콤(주)	1,152,000	576,000,000	7.76%
한국산업은행	713,080	356,540,000	4.81%
네이버 주식회사	640,000	320,000,000	4.31%
Applied Ventures Innovation Fund I, L.P.	528,688	264,344,000	3.56%
포지티브 에이아이 벤처투자조합제1호	443,592	221,796,000	2.99%
LG CNS Fund I LLC	441,376	220,688,000	2.97%
코너스톤 822 제2호 신기술조합	421,376	210,688,000	2.84%
포지티브세컨더리벤처투자조합제2호	326,086	163,043,000	2.20%
미래에셋증권(주)	260,869	130,434,500	1.76%
기타	4,241,591	2,120,795,500	28.59%
합 계	14,839,974	7,419,987,0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3월 20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포함한 미래에 대한 추

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당사의 위험관리와 기후 관련 약정과 의 일관성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 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4: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9, 24: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 손실율에 대한 가정
- 주석 19, 22: 상환전환우선주 및 주식선택권 측정 - 기초자산 가치 및 변동성에 대한 가정
- 주석 20: 충당부채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29: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

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6: 금융상품
- 주석 22: 주식매수선택권

3.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기업이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을 결정할 때 일관된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이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금융자산 : 사업모형평가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사업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모형	
현금흐름수취 목적	당사는 AI Solution 개발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취채권과 정기에적금 등을 현금흐름수취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예: 비소구특징)

(3)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예: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 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②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36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③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비품	5년
시설장치	5년
사용권자산	5년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5)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추정내용연수
특허권과 상표권	10년
소프트웨어	5년

(6) 정부보조금

-자산관련보조금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리스

- 리스이용자

계약 내에 여러 리스요소나 리스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고,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8)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계약 식별 → ②수행의무 식별 → ③거래가격 산정 →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①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AI Solution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당사가 개발한 AI Product 라이선스를 판매하며, 관련 하드웨어의 공급을 포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개발 위탁 계약, 라이선스 공급 계약, 하드웨어 공급계약 등에서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개발 용역

당사는 고객이 의뢰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고 대가를 수령하는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하는 개발 용역의 경우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라이선스 판매

당사는 당사가 개발한 AI Product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권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고객이 지적 재산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지적 재산의 사용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시점을 수익의 인식시점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라이선스 판매 수익인식 금액은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을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④ 하드웨어 공급계약

당사는 외부로부터 구매한 하드웨어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하드웨어는 주로 AI Solution 개발 용역 또는 라이선스 판매와 결합된 계약 형태로 제공됩니다. 계약상 하드웨어는 다른 재화 또는 용역과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므로, 고객에게 하드웨어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⑤ 기타매출

당사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개발 용역과 라이선스 판매 및 하드웨어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을 기타매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타매출에는 당사가 매월 일정대가를 수령하며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는 서비스 유형별로 고객이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익을 소비하는 형태를 고려하여 수익의 인식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금융상품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금융부채 결제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 명확화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에 대한 추가 공시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동 개정사항은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 요구사항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일부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예상 전력거래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

정하는 경우,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동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에 특정 총합계와 중간합계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를 요구하고, 주요 재무제표와 주식의 역할에 따라 재무정보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동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기준서는 소급 적용이 요구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동 기준서를 적용하여 재작성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재무위험관리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주주에게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합니다.

산업 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당사는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은 이자부 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차입금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순차입금:		
우선주부채 및 리스부채	662,327,242	9,430,714,619
단기차입금	3,000,000,000	3,000,000,000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4,348,104,032	1,979,610,609
순차입금	(685,776,790)	10,451,104,010
자본:		
총자본	13,974,142,562	13,081,129,775
부채비율(*)	-	79.89%

(*) 당기말의 경우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이므로 부채비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2)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주로 당사의 재무부서가 주관하고 있으며, 재무부서는 영업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무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원칙에 근거하여 투자, 자본조달 및 영업과 관련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①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 외환위험

당사는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및 구매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와 EUR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506,920,109	-	394,580,840	-
EUR	301,067,620	-	-	-
합 계	807,987,729	-	394,580,840	-

당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환율의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환종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50,692,011	(50,692,011)
EUR	30,106,762	(30,106,762)
합 계	80,798,773	(80,798,773)

외화환산시 적용된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평균환율		기말환율	
	당기	전기	당기말	전기말
USD	1,422.22	1,363.98	1,434.90	1,470.00
EUR	1,607.46	-	1,685.72	-

나. 가격위험

당사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보유지분증권이 없으므로, 보유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합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부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1%상승시	1%하락시
현금및현금성자산	23,481,040	(23,481,0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친 영향	23,481,040	(23,481,040)

②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32의 지급보증 내역을 제외하고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당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중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에 인식된 손상은 다음과 같으며,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은 없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165,460,270	169,507,699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기타수취채권	218,390,604	223,732,795
합 계	383,850,874	393,240,494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393,240,494	-
손상	-	393,240,494
외화환산	(9,389,620)	-
기말	383,850,874	393,240,494

한편, 당사는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신용공여 개시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의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거래처가 많고 상호 연관성이 없으므로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제한적입니다.

(3) 유동성위험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분석은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현금흐름	잔존계약 만기	
			1년 이내	1년 초과 5년 이내
기타지급채무(*)	1,806,246,057	1,806,246,057	1,806,246,057	-
리스부채	662,327,242	732,000,000	366,000,000	366,000,000
차입금	3,000,000,000	3,018,918,357	3,018,918,357	-
합 계	5,468,573,299	5,557,164,414	5,191,164,414	366,000,000

(*) 금융부채가 아닌 직원 등 관련 미지급비용 626,813천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현금흐름	잔존계약 만기	
			1년 이내	1년 초과 5년 이내
기타지급채무	1,493,275,145	1,493,275,145	1,493,275,145	-
상환전환우선주(*)	7,901,644,018	19,058,463,437	-	19,058,463,437
리스부채	1,529,070,601	1,682,000,000	696,000,000	986,000,000
차입금	3,000,000,000	3,026,717,808	3,026,717,808	-
합 계	13,923,989,764	25,260,456,390	5,215,992,953	20,044,463,437

(*) 재무상태표 상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주부채와 파생상품부채로 분리하여 인식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에 행사 및 지급을 가정하였으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① 금융자산

(단위: 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1)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348,104,032	1,979,610,609

(단위: 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1)	
	당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	5,299,997,200	13,303,297,200
매출채권	4,181,067,565	1,191,019,350
기타수취채권(*2)	389,362,678	2,555,233,032
기타비유동수취채권(*2)	278,382,850	1,361,887,565
장기금융상품	6,900,000	-
합 계	14,503,814,325	20,391,047,756

(*1) 상각 후원가측정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2) 금융자산이 아닌 계약자산(유동계약자산: 2,994,488천원, 비유동계약자산: 1,015,175천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② 금융부채

1) 당기말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기타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기타지급채무(*)	1,806,246,057	-	-	1,806,246,057	-
단기차입금	3,000,000,000	-	-	3,000,000,000	-
유동리스부채	-	-	347,301,515	347,301,515	-
비유동리스부채	-	-	315,025,727	315,025,727	-
합 계	4,806,246,057	-	662,327,242	5,468,573,299	-

(*) 금융부채가 아닌 직원등 관련 미지급비용 626,813천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전기말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기타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유동파생상품부채	-	8,147,875,585	-	8,147,875,585	8,147,875,585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기타지급채무	1,493,275,145	-	-	1,493,275,145	-
단기차입금	3,000,000,000	-	-	3,000,000,000	-
유동우선주부채	7,901,644,018	-	-	7,901,644,018	-
유동리스부채	-	-	669,302,071	669,302,071	-
비유동리스부채	-	-	859,768,530	859,768,530	-
합 계	12,394,919,163	-	1,529,070,601	13,923,989,764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역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수준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투입변수(관측불가능한 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

①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말:				
파생상품부채(*)	-	-	-	-
전기말:				
파생상품부채	-	-	8,147,875,585	8,147,875,585

(*) 주석 19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액 전환되어 당기말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 말에 인식하며, 당기와 전기 중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② 가치평가기법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유의적 투입변수

수준 3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된 평가기법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유의적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가. 전환시

구 분	공정가치	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공정가치 측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
파생상품부채	12,921,817,627원	T-f 모형	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 변동성	7,076원 61.42%	- 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됩니다. - 기초자산 가격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기초자산 변동성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2) 전기

가. 전기말 평가

구 분	공정가치	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공정가치 측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
파생상품부채	8,147,875,585원	T-f 모형	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 변동성	4,057원 64.18%	- 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됩니다. - 기초자산 가격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기초자산 변동성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나. 발행시

구 분	공정가치	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공정가치 측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
파생상품부채	8,130,484,175원	T-f 모형	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 변동성	4,057원 63.27%	- 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됩니다. - 기초자산 가격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기초자산 변동성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다. 전환시

구 분	공정가치	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공정가치 측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
파생상품부채	23,838,199,128원	T-f 모형	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 변동성	9,107원 67.39 ~ 67.73%	- 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됩니다. - 기초자산 가격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기초자산 변동성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③ 수준 3으로 분류된 파생상품부채의 공정가치의 당기와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8,147,875,585	29,722,234,920
발생	-	8,130,484,175
전환(*)	(12,921,817,627)	(23,838,199,128)
평가	4,773,942,042	(5,866,644,382)
기말	-	8,147,875,585

(*) 2025년 11월 11일에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액 전환되었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리스부채	합 계
이자수익	322,845,601	-	-	-	322,845,601
이자비용	-	(1,054,528,530)	-	(60,359,388)	(1,114,887,918)
파생상품평가손실	-	-	(4,773,942,042)	-	(4,773,942,042)
순손익	322,845,601	(1,054,528,530)	(4,773,942,042)	(60,359,388)	(5,565,984,359)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리스부채	합 계
이자수익	155,228,105	-	-	-	155,228,105
파생상품평가이익	-	-	5,884,035,792	-	5,884,035,792
이자비용	-	(1,105,762,639)	-	(134,453,924)	(1,240,216,563)
파생상품평가손실	-	-	(17,391,410)	-	(17,391,410)
순손익	155,228,105	(1,105,762,639)	5,866,644,382	(134,453,924)	4,781,655,924

금융상품 중 외화표시 화폐성항목의 결제 및 환산으로 인한 손익은 제외되어 있으며,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없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2,348,104,032	1,979,610,609
기타제예금	2,000,000,000	-
합 계	4,348,104,032	1,979,610,609

8.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중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내역
단기금융상품	300,000,000	300,000,000	법인카드 결제대금 보증금

9. 매출채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4,346,527,835	1,360,527,049
차감: 대손충당금	(165,460,270)	(169,507,699)
차감 계	4,181,067,565	1,191,019,350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발생일 기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손상된 금액	매출채권	손상된 금액
만기미도래	4,015,234,232	-	1,163,519,350	-
6개월 이내	-	-	27,500,000	-
1년 이내	165,833,333	-	169,507,699	(169,507,699)
1년 초과	165,460,270	(165,460,270)	-	-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손상된 금액	매출채권	손상된 금액
합 계	4,346,527,835	(165,460,270)	1,360,527,049	(169,507,699)

10. 기타수취채권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		
미수금	373,426,672	401,477
미수수익(*)	3,046,814,565	2,585,496,276
차감 : 현재가치할인차금	(33,234,561)	(27,431,926)
차감 : 대손충당금	(3,155,604)	(3,232,795)
단기대여금	215,235,000	220,500,000
차감 : 대손충당금	(215,235,000)	(220,500,000)
합 계	3,383,851,072	2,555,233,032
비유동:		
장기미수수익(*)	1,249,600,000	1,166,666,666
차감 : 현재가치할인차금	(234,425,421)	(265,895,503)
임차보증금	307,460,238	550,000,000
차감 : 현재가치할인차금	(44,307,388)	(90,563,598)
기타보증금	15,230,000	1,680,000
합 계	1,293,557,429	1,361,887,565

(*) 주석 24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계약자산 4,009,663천원 및 3,430,521천원 포함하고 있습니다.

11. 기타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선금금	8,976,042	5,546,097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선급비용	201,937,839	330,501,533
소 계	210,913,881	336,047,630
비유동:		
장기선급비용	-	92,857,156
합 계	210,913,881	428,904,786

12. 종속기업투자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회사명	소재 국가	주요 영업활동	당기말		전기말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MakinaRocks.,Inc	미국	AI Solution 개발 및 판매	100	-	100	-
MakinaRocks KK	일본	AI Solution 개발 및 판매	100	427,284,000	-	-

(2) 당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	2,097,203,431
취득	427,284,000	-
손상(*)	-	(2,097,203,431)
기말	427,284,000	-

(*) 전기 중 MakinaRocks.,Inc 종속회사 관련하여 해외지역에 대한 경영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장부금액 전액을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3. 유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합 계
비품	2,808,241,483	(1,249,333,278)	(26,371,335)	1,532,536,870
시설장치	362,766,271	(289,479,535)	-	73,286,736
사용권자산	1,833,788,285	(1,192,112,512)	-	641,675,773
합 계	5,004,796,039	(2,730,925,325)	(26,371,335)	2,247,499,379

② 전기말

(단위: 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합 계
비품	2,787,885,496	(722,339,380)	(70,644,596)	1,994,901,520
시설장치	362,766,271	(216,926,281)	-	145,839,990
사용권자산	2,986,198,489	(1,484,291,010)	-	1,501,907,479
합 계	6,136,850,256	(2,423,556,671)	(70,644,596)	3,642,648,989

(2)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장부금액
비품	1,994,901,520	20,355,987	-	(482,720,637)	1,532,536,870
시설장치	145,839,990	-	-	(72,553,254)	73,286,736
사용권자산	1,501,907,479	383,442,557	(886,629,286)	(357,044,977)	641,675,773
합 계	3,642,648,989	403,798,544	(886,629,286)	(912,318,868)	2,247,499,379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	대체	처분	감가상각	기말장부금액
비품	512,884,889	1,690,961,988	15,018,180	(14,524,023)	(209,439,514)	1,994,901,520
시설장치	218,393,244	-	-	-	(72,553,254)	145,839,990
사용권자산	2,124,472,615	-	-	-	(622,565,136)	1,501,907,479
합 계	2,855,750,748	1,690,961,988	15,018,180	(14,524,023)	(904,557,904)	3,642,648,989

14. 리스

당사가 리스제공자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은 없으며, 리스이용자와 관련한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기와 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장부금액
건물	1,501,907,479	383,442,557	(886,629,286)	(357,044,977)	641,675,773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감가상각	기말장부금액
건물	2,124,472,615	(622,565,136)	1,501,907,479

(2) 당기와 전기 중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사용권자산상각비	357,044,977	622,565,136
리스부채 이자비용	60,359,388	134,453,924
단기리스료	180,112,536	-
소액자산 리스료	13,016,268	8,726,064
합 계	610,533,169	765,745,124

(3) 당기와 전기 중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현금흐름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현금유출	393,570,000	696,000,000
단기리스와 관련된 현금유출	180,112,536	-
소액자산리스와 관련된 현금유출	13,016,268	8,726,064
총 현금유출액	586,698,804	704,726,064

(4) 리스와 관련한 계약상 만기별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1년 이내	366,000,000	696,000,000
1년 초과 ~ 2년 이내	366,000,000	638,000,000
2년 초과 ~ 3년 이내	-	348,000,000
합 계	732,000,000	1,682,000,000

(5) 연장선택권

부동산 리스는 당사가 계약의 해지불능기간 종료 전에 리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하면 새로운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려고 노력합니다. 연장선택권은 당사만 행사할 수 있고, 리스제공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평가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다시 평가합니다.

15. 무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합 계
특허권(*)	701,725,708	(182,061,942)	(2,615,550)	517,048,216
상표권	29,612,823	(7,076,853)	(1,539,001)	20,996,969
소프트웨어	10,000,000	(9,166,666)	-	833,334
건설중인무형자산	114,453,907	-	-	114,453,907
합 계	855,792,438	(198,305,461)	(4,154,551)	653,332,426

(*) 해당 특허권 중 일부가 당사의 차입금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18)

② 전기말

(단위: 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합 계
특허권(*)	658,048,659	(113,100,413)	(2,989,200)	541,959,046
상표권	22,145,122	(4,115,572)	(1,767,000)	16,262,550

(단위: 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합 계
소프트웨어	10,000,000	(7,166,666)	-	2,833,334
건설중인무형자산	307,079,062	-	-	307,079,062
합 계	997,272,843	(124,382,651)	(4,756,200)	868,133,992

(*) 해당 특허권 중 일부가 당사의 차입금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18)

(2)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	상각	대체	손상	기말장부금액
특허권	541,959,046	-	(68,587,879)	43,677,049	-	517,048,216
상표권	16,262,550	-	(2,733,282)	7,467,701	-	20,996,969
소프트웨어	2,833,334	-	(2,000,000)	-	-	833,334
건설중인무형자산	307,079,062	44,915,917	-	(51,144,750)	(186,396,322)	114,453,907
합 계	868,133,992	44,915,917	(73,321,161)	-	(186,396,322)	653,332,426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기초장부금액	취득	상각	대체	기타	기말장부금액
특허권	455,654,617	-	(60,807,771)	108,385,596	38,726,604	541,959,046
상표권	10,579,329	-	(1,588,588)	6,447,809	824,000	16,262,550
소프트웨어	4,833,334	-	(2,000,000)	-	-	2,833,334
건설중인무형자산	236,851,397	205,242,441	-	(114,833,405)	(20,181,371)	307,079,062
합 계	707,918,677	205,242,441	(64,396,359)	-	19,369,233	868,133,992

(3) 당기와 전기 중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각각 3,402,002천원 및 3,337,748천원으로 전액 영업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6. 기타지급채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지급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미지급비용	2,433,059,000	940,669,836
미지급금	-	562,605,309
합 계	2,433,059,000	1,493,275,145

17. 기타유동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선수수익(*1)	855,785,322	342,726,096
예수금	147,878,270	148,370,960
국고보조금(*2)	233,266,324	52,480,000
합 계	1,236,929,916	543,577,056

- (*1) 주석24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선수취한 금액 중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 및 기간 미경과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당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으로부터 특정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수취하였으며, 당기 중 415,331천원이 보조금 금액에서 상계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18. 단기차입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차입처	내역	만기일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주)우리은행(*1)	기업운전자금	2026-02-20	3.53	2,000,000,000	2,000,000,000
(주)우리은행(*2)	기업운전자금	2026-03-23	4.03	1,000,000,000	1,000,000,000
합 계				3,000,000,000	3,000,000,000

- (*1)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00,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2)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특허권을 담보(설정액 : 1,200,000천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9. 상환전환우선주

(1) 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내 용
발행일	2024년 12월 6일, 2024년 12월 13일, 2024년 12월 20일
발행가액	16,000,097,200
발행주식수	1,739,141주
당기 중 보통주 전환 주식수	1,739,141주
주당발행가	9,200
의결권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개시일	2027년 12월 6일 이후
배당에 관한 사항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로 1주당 액면가액 기준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적으로 배당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 배당을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배당받음

(단위: 원)	
구 분	내 용
전환권	우선주는 존속기간(발행일로부터 10년간)내에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전환가능
전환가격 조정	최초의 전환가격은 전환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으로 하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환가격 등을 조정 (1)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조정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조정전 우선주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환 비율 조정 (2) 회사가 우선주식의 전환전에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기타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 (3) 우선주 발행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투자자는 발행전 투자자 보유 우선주 식수 x (발행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발행전 회사 발행주식총수)-1)만큼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음 (4) 회사가 타사와 합병 혹은 인수, 주식교환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당 평가액의 80%가 당시의 우선주 전환가 격을 하회하는 경우,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주당 평가액의 80%가 되도록 전환비율 조정 (5)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시 그 분할 또는 병합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 (6) 합병, 분할,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가 변경,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해 합병, 분할,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가 변경, 자본감소 직전에 본건 주식의 전액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 라면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 조정 (7) 회사가 전환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 (8) 후행투자자의 전환가격 조정이 유리한 경우 후행투자자의 전환가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
투자자의 조기 상환권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며, 계약상 약정한 상환청구개시일 이후에 상환청구할 수 있으며, 상환청구시 우선주 발행가격과 연 6% 복리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기지급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우선주부채	-	7,901,644,018
유동파생상품부채	-	8,147,875,585

(*) 당기 중 보통주로 전액 전환되었습니다.

당사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자본의 분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은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주계약과 분리하여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상각	보통주전환	평가손실	기말
우선주부채	7,901,644,018	942,039,322	(8,843,683,340)	-	-
파생상품부채	8,147,875,585	-	(12,921,817,627)	4,773,942,042	-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발행	상각	보통주전환	평가이익	평가손실	기말
우선주부채	17,689,462,919	7,869,613,025	1,010,507,460	(18,667,939,386)	-	-	7,901,644,018
파생상품부채	29,722,234,920	8,130,484,175	-	(23,838,199,128)	(5,884,035,792)	17,391,410	8,147,875,585

(4)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인해 부채로 분류된 각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인식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및 조기상환권	-	8,147,875,585

(*) 당기 중 보통주로 전액 전환되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관련손익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3,511,292,238)	(7,742,974,146)
평가이익(손실)	(4,773,942,042)	5,866,644,382
평가손익 제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8,737,350,196)	(13,609,618,528)

20. 충당부채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손실충당부채(*)	32,059,751	-
비유동:		
복구충당부채	76,281,153	98,936,943

(*) 보고기간 말 현재 진행중인 용역제공계약의 총예정원가가 계약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32,060천원의 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주석 24의 (5) 참조).

(2) 당기와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손실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당기	당기	전기
기초	-	98,936,943	92,128,361
설정	32,059,751	-	-

(단위: 원)			
구 분	손실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당기	당기	전기
감소	-	(29,250,001)	-
상각	-	6,594,211	6,808,582
기말	32,059,751	76,281,153	98,936,943

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복구충당부채 상각액은 금융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1.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수권주식수	보통주	100,000,000주	100,000,000주
	우선주		
발행주식수	보통주	14,839,974주	13,093,724주
	우선주(★)	-	1,739,141주
주당금액	보통주	500	500
자본금	보통주	7,419,987,000	6,546,862,000

(★) 전량 상환전환우선주이며, 당기 중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전부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69,261,572,222	45,223,457,189
감자차익	144,132,000	-
합 계	69,405,704,222	45,223,457,189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주식매수선택권	2,884,849,831	2,399,036,039

(4) 당기와 전기 중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보통주식수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주식매수선택권
전기초(2024.01.01)	9,600,952주	4,800,476,000	2,736,068,181	-	1,885,539,38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196,708주	98,354,000	1,636,648,224	-	(935,974,328)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3,296,064주	1,648,032,000	40,858,106,514	-	-
주식보상비용	-	-	-	-	1,449,470,985
주식발행비용	-	-	(7,365,730)	-	-
전기말(2024.12.31)	13,093,724주	6,546,862,000	45,223,457,189	-	2,399,036,039
당기초(2025.01.01)	13,093,724주	6,546,862,000	45,223,457,189	-	2,399,036,039
무상감자	(288,264)주	(144,132,000)	-	144,132,000	-
보통주 발행	260,869주	130,434,500	2,869,559,000	-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1,739,141주	869,570,500	20,895,930,467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34,504주	17,252,000	280,459,516	-	(157,556,268)
주식보상비용	-	-	-	-	643,370,060
주식발행비용	-	-	(7,833,950)	-	-
당기말(2025.12.31)	14,839,974주	7,419,987,000	69,261,572,222	144,132,000	2,884,849,831

22. 주식매수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당사는 주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부여일	행사가격	부여방법	가득조건	부여주식수	행사가능주식수
4차 주식선택권(*)	2020-08-31	4,062원	신주발행 교부	용역제공조건 : 2년	116,800주	9,900주
5차 주식선택권(*)	2021-03-31				72,000주	-
6차 주식선택권(*)	2021-08-20				96,000주	4,800주
7차 주식선택권(*)	2022-03-31				302,048주	140,744주
8차 주식선택권(*)	2022-04-22				16,000주	-
9차 주식선택권(*)	2023-11-30	13,750원			371,200주	232,800주
10차 주식선택권	2024-03-28				8,000주	8,000주
11차 주식선택권	2024-05-02				65,600주	41,600주
12차 주식선택권	2025-11-07				63,200주	63,200주
합 계					1,110,848주	501,044주

(*)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부여주식, 행사가능주식수 및 행사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2) 당사는 이항모형에 의한 공정가치 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통주 공정가치(*1)	행사가격	보통주 공정가치 변동성(%)(*2)	무위험이자율(%)	개당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4차 주식선택권	3,295원	4,062원	69.02	0.46 ~ 1.88	2,037원
5차 주식선택권	3,295원		59.50	0.51 ~ 2.60	1,816원
6차 주식선택권	4,675원		52.63	0.53 ~ 2.41	2,700원
7차 주식선택권	8,503원		53.62	1.39 ~ 3.32	6,192원
8차 주식선택권	8,503원		53.60	1.47 ~ 3.50	6,227원
9차 주식선택권	10,525원	13,750원	79.17	3.38 ~ 3.78	7,404원
10차 주식선택권	9,107원		68.74	3.19 ~ 3.52	5,503원
11차 주식선택권	9,107원		67.95	3.41 ~ 3.74	5,478원
12차 주식선택권	7,076원		61.31	2.44 ~ 3.65	3,457원

(*)1) 보통주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2) 보통주 공정가치의 변동성은 유사한 상장회사를 선정하여 기준일 직전 1년 기준 상장 종가의 역사적 변동성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미행사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주)					
구 분	기초	부여	행사	소멸(*)	기말
4차 주식선택권	23,400	-	(13,500)	-	9,900
5차 주식선택권	-	-	-	-	-
6차 주식선택권	4,800	-	-	-	4,800
7차 주식선택권	161,748	-	(21,004)	-	140,744
8차 주식선택권	-	-	-	-	-
9차 주식선택권	300,000	-	-	(67,200)	232,800
10차 주식선택권	8,000	-	-	-	8,000
11차 주식선택권	62,400	-	-	(20,800)	41,600
12차 주식선택권	-	63,200	-	-	63,200
합 계	560,348	63,200	(34,504)	(88,000)	501,044

(*) 가득요건을 충족하기 전 퇴사로 인한 소멸입니다.

당기말 현재 미행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잔여만기는 4.7년 입니다.

② 전기

(단위 : 주)					
구 분	기초	부여	행사	소멸(*)	기말
4차 주식선택권	60,800	-	(37,400)	-	23,400
5차 주식선택권	21,408	-	(21,408)	-	-
6차 주식선택권	14,400	-	(9,600)	-	4,800

(단위 : 주)					
구 분	기초	부여	행사	소멸(*)	기말
7차 주식선택권	274,048	-	(112,300)	-	161,748
8차 주식선택권	16,000	-	(16,000)	-	-
9차 주식선택권	363,200	-	-	(63,200)	300,000
10차 주식선택권	-	8,000	-	-	8,000
11차 주식선택권	-	65,600	-	(3,200)	62,400
합 계	749,856	73,600	(196,708)	(66,400)	560,348

(*) 가득요건을 충족하기 전 퇴사로 인한 소멸입니다.

전기말 현재 미행사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잔여만기는 5.3년 입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원)				
구 분	기초	당기인식보상원가	행사	기말
4차 주식선택권	47,665,800	-	(27,499,500)	20,166,300
5차 주식선택권	-	-	-	-
6차 주식선택권	12,960,000	-	-	12,960,000
7차 주식선택권	1,001,543,616	-	(130,056,768)	871,486,848
8차 주식선택권	-	-	-	-
9차 주식선택권	1,206,315,069	529,182,531	-	1,735,497,600
10차 주식선택권	16,765,346	22,012,055	-	38,777,401
11차 주식선택권	113,786,208	76,013,760	-	189,799,968
12차 주식선택권	-	16,161,714	-	16,161,714
합 계	2,399,036,039	643,370,060	(157,556,268)	2,884,849,831

② 전기

(단위 : 원)				
구 분	기초	당기인식보상원가	행사	기말
4차 주식선택권	123,849,600	-	(76,183,800)	47,665,800
5차 주식선택권	38,876,928	-	(38,876,928)	-
6차 주식선택권	38,880,000	-	(25,920,000)	12,960,000
7차 주식선택권	1,485,662,720	211,242,496	(695,361,600)	1,001,543,616
8차 주식선택권	84,230,310	15,401,690	(99,632,000)	-
9차 주식선택권	114,039,824	1,092,275,245	-	1,206,315,069
10차 주식선택권	-	16,765,346	-	16,765,346
11차 주식선택권	-	113,786,208	-	113,786,208
합 계	1,885,539,382	1,449,470,985	(935,974,328)	2,399,036,039

23. 결손금

(1) 당기와 전기 중 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51,539,329,463	43,796,355,317
당기순손실	13,511,292,238	7,742,974,146
기말금액	65,050,621,701	51,539,329,463

(2) 당기와 전기 중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처리예정일: 2026년 3월 20일)		(처리확정일: 2025년 3월 28일)	
I. 미처리결손금		65,050,621,701		51,539,329,463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	51,539,329,463		43,796,355,317	
당기순손실	13,511,292,238		7,742,974,146	
II. 결손금처리액		-		-
III. 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		65,050,621,701		51,539,329,463

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기와 전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주요계약 :		
용역제공	6,914,942,001	4,384,413,248
라이선스판매수익	2,330,776,815	3,693,489,758
하드웨어판매수익	1,804,142,786	99,000,000
기타수익	166,686,665	117,000,000
합 계	11,216,548,267	8,293,903,006
수익인식시기 :		
한 시점에 인식	4,134,919,601	3,792,489,758
기간에 걸쳐 인식	7,081,628,666	4,501,413,248
합 계	11,216,548,267	8,293,903,006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취채권, 계약자산과 계약부

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수취채권(*1)	4,181,067,565	1,191,019,350
계약자산(*2)	4,009,662,973	3,430,521,176
계약부채(*3)	855,785,322	342,726,096

(*1) 재무제표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미청구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상 미수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선수취한 금액 중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 및 기간 미경과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상 선수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없습니다.

(4)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기와 전기에 인식한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개발용역 등	342,726,096	146,397,048

(5) 보고기간 말 현재 총예정원가가 계약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32,060천원의 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6) 총예정원가 추정치 변동

직전 보고기간 말 현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 계약과 관련하여 총 계약금액 및 총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의 변경으로 인해 보고기간과 미래기간의 손익,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7) 부문별 정보

① 영업부문의 현황

당사는 AI Solution 개발 및 판매를 수행하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고객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고객A	1,623,846,694	14.48%	-	-
고객B	1,212,572,939	10.81%	-	-
고객C	1,128,353,905	10.06%	-	-
고객D	398,101,337	3.55%	1,004,832,676	12.12%
고객E	-	-	872,539,025	10.52%
고객F	-	-	856,384,324	10.33%
고객G	136,363,636	1.22%	851,988,744	10.27%
합 계	4,499,238,511	40.12%	3,585,744,769	43.24%

25. 성격별 비용

당기와 전기의 영업비용을 그 성격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종업원급여 (주석26참조)	11,003,638,174	12,443,909,898
감가상각비	555,273,891	281,992,768
사용권자산상각비	357,044,977	622,565,136
무형자산상각비	73,321,161	64,396,359
여비교통비	288,513,543	299,419,089
세금과공과	350,107,360	364,763,080
대손상각비	-	169,507,699
지급임차료	193,128,804	8,726,064
보험료	525,892,708	603,179,150
소모품비	1,954,231,430	239,784,285
지급수수료	2,731,961,545	2,389,609,786
광고선전비	346,737,225	450,886,712
기타영업비용	612,882,473	604,347,796
합 계	18,992,733,291	18,543,087,822

26. 종업원급여

(1) 당기와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급여 및 상여	5,827,831,783	6,534,793,229
확정기여제도 퇴직급여	906,570,749	859,781,920
복리후생비	318,214,610	360,884,994
경상연구개발비	3,307,650,972	3,238,978,77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643,370,060	1,449,470,985
합 계	11,003,638,174	12,443,909,898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급휴가 관련 부채(미지급비용)	289,131,837	375,743,631

2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와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금융수익 :		
이자수익	444,886,233	155,228,105
파생상품평가이익	-	5,884,035,792
금융수익 합계	444,886,233	6,039,263,897
금융비용 :		
이자비용	1,121,482,129	1,247,025,145
파생상품평가손실	4,773,942,042	17,391,410
금융비용 합계	5,895,424,171	1,264,416,555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순금융손익	(5,450,537,938)	4,774,847,342

28.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기타수익 :		
외환차익	13,463,338	294,638
외화환산이익	13,350,240	47,156,513
유형자산처분이익	86,078,595	-
잡이익	6,194,151	33,637,236
기타수익 합계	119,086,324	81,088,387
기타비용 :		
외환차손	2,909,166	4,126,769
외화환산손실	12,346,947	8,352,005
유형자산처분손실	-	5,410,202
건설중인자산손상차손	186,396,322	-
보상금 반환손실(*)	194,475,698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주석 12 참조)	-	2,097,203,431
기타의대손상각비	-	223,732,795
잡손실	7,527,467	10,899,857
기타비용 합계	403,655,600	2,349,725,059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으로 인해 인식한 비용입니다(주석32 참조).

29.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1)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부담액 및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과 법인세비용과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3,511,292,238)	(7,742,974,146)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1,337,617,932)	(766,554,440)
조정사항: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비일시적차이	52,987,823	155,450,511
이연법인세가 인식되지 않은 일시적차이 등	1,284,630,109	611,103,929
법인세비용	-	-
유효세율(*)	-	-

(*)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하여 유효세율이 산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	기말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			
종속기업투자주식	414,056,091	46,006,232	460,062,323
파생상품부채	848,650,373	(848,650,373)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776,057,443	(776,057,443)	-
리스부채	151,377,989	(78,521,992)	72,855,997
사용권자산	(148,688,841)	78,104,506	(70,584,335)
복구충당부채	9,794,758	(1,403,831)	8,390,927
미수수익	(2,483,073)	730,112	(1,752,961)
임차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8,965,796	(4,091,983)	4,873,813
기타	46,354,139	48,744,680	95,098,819
소 계	2,104,084,675	(1,535,140,092)	568,944,583
이월결손금	2,775,335,595	1,371,778,943	4,147,114,538
이월세액공제	7,668,738,027	1,608,034,371	9,276,772,398
합 계	12,548,158,297	1,444,673,222	13,992,831,519
실현가능성이 낮아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12,548,158,297)	(1,444,673,222)	(13,992,831,519)
차감 후 이연법인세자산	-	-	-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	기말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			
종속기업투자주식	206,432,951	207,623,140	414,056,091
파생상품부채	2,942,501,257	(2,093,850,884)	848,650,373
상환전환우선주부채	1,751,256,829	(975,199,386)	776,057,443
리스부채	206,971,051	(55,593,062)	151,377,989
사용권자산	(210,322,789)	61,633,948	(148,688,841)
복구충당부채	9,120,708	674,050	9,794,758
미수수익	(4,248,608)	1,765,535	(2,483,073)
임차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12,155,385	(3,189,589)	8,965,796

(단위: 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	기말
기타	27,799,191	18,554,948	46,354,139
소 계	4,941,665,975	(2,837,581,300)	2,104,084,675
이월결손금	1,908,735,079	866,600,516	2,775,335,595
이월세액공제	5,574,056,659	2,094,681,368	7,668,738,027
합 계	12,424,457,713	123,700,584	12,548,158,297
실현가능성이 낮아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12,424,457,713)	(123,700,584)	(12,548,158,297)
차감 후 이연법인세자산	-	-	-

(4) 보고기간말 현재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않은 일시적차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일시적차이	5,172,223,485	21,253,380,567
세무상결손금	37,701,041,258	28,033,692,883
이월세액공제	9,276,772,398	7,668,738,027

(5) 보고기간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세무상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의 만료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만료시기	세무상결손금	이월세액공제
2028년	275,628,852	18,160,228
2029년	775,926,731	97,467,182
2030년	1,045,252,740	633,245,294
2031년	-	1,048,819,191
2032년	-	1,663,205,252
2033년	-	2,113,159,512
2034년	-	2,330,183,311
2035년	-	1,372,532,428
2036년	3,132,523,587	-
2037년	5,092,097,215	-
2038년	8,958,554,443	-
2039년	11,138,878,071	-
2040년	7,282,179,619	-
합 계	37,701,041,258	9,276,772,398

30. 주당손익

(1) 당기와 전기의 기본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보통주당기순손익	(13,511,292,238)	(7,742,974,14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3,095,116주	11,456,699주
기본주당손익	(1,032)	(67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구 분	일자	주식수(주)	일수	적수
기초	2025-01-01	13,093,724	365	4,779,209,260
무상감자(*)	2025-01-01	(288,264)	365	(105,216,360)
보통주 발행	2025-11-04	260,869	58	15,130,40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5-11-07	34,504	55	1,897,720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2025-11-11	1,739,141	51	88,696,191
소 계				4,779,717,21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3,095,116주

(*) 기중 무상감자 효과는 기초로 소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② 전기

구 분	일자	주식수(주)	일수	적수
기초	2024-01-01	9,600,952	366	3,513,948,43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4-04-08	144,808	268	38,808,54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4-05-20	43,900	226	9,921,400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2024-05-22	2,477,608	224	554,984,192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2024-05-27	818,456	219	179,241,86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4-05-27	8,000	219	1,752,000
무상감자(*)	2024-01-01	(288,264)	366	(105,504,624)
소 계				4,193,151,80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456,699주

(*) 전기 유통보통주식수 계산시 당기중 무상감자 효과는 전기초로 소급하여 적용하였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반회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31. 현금흐름표

(1) 당기와 전기 중 영업으로부터 유출된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1. 당기순손실	(13,511,292,238)	(7,742,974,146)
2. 비용(수익) 조정사항	7,210,922,212	81,258,292
이자비용	1,121,482,129	1,247,025,145
외화환산손실	12,346,947	8,352,005
감가상각비	555,273,891	281,992,768
무형자산상각비	73,321,161	64,396,359
사용권자산상각비	357,044,977	622,565,136
손실충당부채전입액	32,059,751	-
대손상각비	-	169,507,699
기타의대손상각비	-	223,732,795
유형자산처분손실	-	5,410,202
건설중인자산손상차손	186,396,322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2,097,203,431
잡손실	-	10,788,700
파생상품평가손실	4,773,942,042	17,391,410
주식보상비용	643,370,060	1,449,470,985
이자수익	(444,886,233)	(155,228,105)
외화환산이익	(13,350,240)	(47,156,513)
유형자산처분이익	(86,078,595)	-
파생상품평가이익	-	(5,884,035,792)
잡이익	-	(30,157,933)
3. 영업자산 부채의 변동	(1,335,388,636)	(2,319,953,452)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990,048,215)	368,780,650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466,580,396)	(1,914,768,957)
미수금의 감소(증가)	(232,869,947)	(259,677)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선급금의 감소(증가)	(3,429,945)	(4,044,270)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221,420,850	(28,830,113)
기타보증금의 감소(증가)	(13,550,000)	(700,000)
장기미수수익의 감소(증가)	13,439,851	(824,456,424)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371,428,576)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513,059,226	196,329,048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50,146,464)	50,146,464
국고보조금의 증가(감소)	180,786,324	52,480,00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1,493,022,770	171,300,053
예수금의 증가(감소)	(492,690)	(14,501,650)
4. 영업으로부터 유출된 현금흐름(1+2+3)	(7,635,758,662)	(9,981,669,306)

(2) 당기와 전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우선주부채 및 파생상품부채의 전환	21,765,500,967	42,506,138,514
무상감자	144,132,000	-
리스계약해지에 따른 사용권자산의 감소	886,629,286	-
리스계약해지에 따른 리스부채의 감소	895,835,548	-
리스계약변경에 따른 사용권자산의 증가	383,442,557	-
리스계약변경에 따른 리스부채의 증가	362,302,801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304,030,474	561,546,076
장기선급비용의 선급비용 대체	92,857,156	-
유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502,458,845)	502,458,845

(3) 당기와 전기 중 주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현금변동				기말
		차입	상환	이자지급	전환	리스변경 및 해지	평가	상각	
우선주부채	7,901,644,018	-	-	-	(8,843,683,340)	-	-	942,039,322	-
파생상품부채	8,147,875,585	-	-	-	(12,921,817,627)	-	4,773,942,042	-	-
리스부채	1,529,070,601	-	(333,210,612)	(60,359,388)	-	(533,532,747)	-	60,359,388	662,327,242
단기차입금	3,000,000,000	3,000,000,000	(3,000,000,000)	-	-	-	-	-	3,000,000,000
합 계	20,578,590,204	3,000,000,000	(3,333,210,612)	(60,359,388)	(21,765,500,967)	(533,532,747)	4,773,942,042	1,002,398,710	3,662,327,242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현금변동			기말
		차입	상환	이자지급	전환	평가	상각	
우선주부채	17,689,462,919	7,869,613,025	-	-	(18,667,939,386)	-	1,010,507,460	7,901,644,018
파생상품부채	29,722,234,920	8,130,484,175	-	-	(23,838,199,128)	(5,866,644,382)	-	8,147,875,585
리스부채	2,090,616,677	-	(561,546,076)	(134,453,924)	-	-	134,453,924	1,529,070,601
단기차입금	-	3,000,000,000	-	-	-	-	-	3,000,000,000
합 계	49,502,314,516	19,000,097,200	(561,546,076)	(134,453,924)	(42,506,138,514)	(5,866,644,382)	1,144,961,384	20,578,590,204

32.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차입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으로부터 당사가 지급 보증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약정내용	한도	실행액
(주)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2,000,000,000	2,000,000,000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00,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액	담보권자
특허권	25,163,128	1,200,000,000	1,000,000,000	(주)우리은행

(3) 당사는 계약이행보증 등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총 1,952,408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으며, 원고로 1건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단위: 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내용	소송가액
서울행정법원	당사외 2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취소 등	114,825,233

상기의 소송은 당사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처분 및 부과된 제재부과금 194,476천원의 부과 및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당사는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이행하였으나, 시험성적서 지연 제출을 사유로 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처분 및 제재부과금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소송의 제기과 동시에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은 집행정지 인용되었고 제재부과금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으며 당기 중 제재부과금 194,476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3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종속기업	MakinaRocks.,Inc(*1) MakinaRocks KK(*2)	MakinaRocks.,Inc(*1)
기타 특수관계자	주요 경영진	주요 경영진

(*1) MakinaRocks.,Inc는 미합중국에 소재한 당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2) MakinaRocks KK는 당기중 설립된 일본에 소재한 당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2)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없으며,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전기
		이자수익
종속기업	MakinaRocks.,Inc	3,232,795

(3)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출자 거래	
		투자	회수
종속기업	MakinaRocks KK.	427,284,000	-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자금대여 거래	
		대여	회수
종속기업	MakinaRocks.,Inc	220,500,000	-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대여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분	특수관계자명	기초	대여	외환차이	기말
종속기업	MakinaRocks.,Inc	220,500,000	-	(5,265,000)	215,235,000

② 전기

(단위: 원)					
구분	특수관계자명	기초	대여	외환차이	기말
종속기업	MakinaRocks.,Inc	-	207,225,000	13,275,000	220,500,000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1)	기타수취채권(*2)	매출채권	기타수취채권
종속기업	MakinaRocks.,Inc	165,460,270	218,390,604	169,507,699	223,732,795

(*1) 동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165,460,270원을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2) 동 채권금액은 대여금 215,235,000원과 관련 미수이자 3,155,604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상차손 218,390,604원을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6)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단기급여	891,225,720	875,255,000
퇴직급여	74,185,476	251,022,322
주식보상비용	-	180,943,352
합 계	965,411,196	1,307,220,674

34. 보고기간후사건

당사는 2026년 2월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정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으로 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57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3.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제9기 (2025년도)	제8기 (2024년도)	제7기 (2023년도)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손실(백만원)		(13,774)	(6,073)	(18,345)
(별도)당기순손실(백만원)		(13,511)	(7,743)	(17,293)
(연결)주당순손실(원)		(1,052)	(530)	(1,941)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보통주	-	-	-

구 분	주식의 종류	제9기 (2025년도)	제8기 (2024년도)	제7기 (2023년도)
주당 주식배당(주)	우선주	-	-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 발행 등에 관한 사항

(1) 발행 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 고
2017.12.20	설립	보통주	60,000	500	500	설립 자본금
2018.03.07	유상증자	보통주	340,000	500	500	제3자배정
2018.05.31	유상증자	보통주	32,000	500	12,500	제3자배정
2018.06.12	유상증자	보통주	112,000	500	12,500	제3자배정
2019.11.09	유상증자	보통주	21,000	500	71,500	제3자배정
2019.11.19	유상증자	우선주	63,451	500	72,500	제3자배정
2020.02.28	유상증자	우선주	27,586	500	72,500	제3자배정
2020.04.15	유상증자	우선주	27,586	500	72,500	제3자배정
2020.07.14	유상증자	우선주	27,586	500	72,500	제3자배정
2021.03.26	스톡옵션행사	보통주	6,920	500	4,000	-
2021.08.25	스톡옵션행사	보통주	7,000	500	4,000	-

2021.09.09	무상증자	보통주	578,920	500	-	주(1)
		우선주	146,209	500	-	
2022.04.30	유상증자	우선주	22,000	500	137,900	제3자배정
		보통주	21,755	500	137,900	
2022.07.30	유상증자	우선주	26,447	500	137,900	제3자배정
2022.10.05	유상증자	우선주	7,250	500	137,900	제3자배정
2022.12.29	유상증자	우선주	47,135	500	137,900	제3자배정
2023.10.27	유상증자	우선주	13,185	500	151,690	제3자배정
2023.11.30	스톡옵션행사	보통주	12,524	500	32,500	-
		보통주	5,000	500	25,000	
2023.12.01	유상증자	우선주	2,958	500	151,690	제3자배정
2023.12.09	유상증자	우선주	3,615	500	151,690	제3자배정
2023.12.11	전환권 행사	우선주	(3,000)	500	-	주(2)
		보통주	3,000	500	-	
2023.12.20	무상증자	보통주	8,400,833	500	-	주(3)
		우선주	2,884,056	500	-	
2024.04.08	스톡옵션행사	보통주	144,808	500	4,062	-
2024.05.20	스톡옵션행사	보통주	43,900	500	4,062	-
2024.05.24	전환권 행사	우선주	(2,477,608)	500	-	주(2)
		보통주	2,477,608	500	-	
2024.05.27	스톡옵션행사	보통주	8,000	500	4,062	-
2024.05.28	전환권 행사	우선주	(818,456)	500	-	주(2)
		보통주	818,456	500	-	
2024.12.06	유상증자	우선주	326,086	500	9,200	제3자배정
2024.12.13	유상증자	우선주	217,392	500	9,200	제3자배정
2024.12.20	유상증자	우선주	1,195,663	500	9,200	제3자배정
2025.04.29	무상감자	보통주	(288,264)	500	-	주(4)
2025.10.30	유상증자	보통주	260,869	500	11,500	제3자배정
2025.11.07	스톡옵션행사	보통주	34,504	500	4,062	-
2025.11.11	전환권 행사	우선주	(869,564)	500	-	주(2)
		보통주	869,564	500	-	
2025.11.12	전환권 행사	우선주	(869,577)	500	-	주(2)
		보통주	869,577	500	-	
합계			14,839,974	-	-	-

(주1) 당사는 2021년 9월 9일 100%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2) 상환전환우선주가 1:1의 전환비율로 보통주 전환되었습니다.

(주3) 당사는 2023년 12월 20일 700%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4) 당사는 최대주주 등 4인을 대상으로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채무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원)

구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의사용계획		실제 자금 사용내역		차이발생 사유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	2018-03-07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170,000,0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170,000,000	-
유상증자	-	2018-05-31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400,000,0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400,000,000	-

구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의사용계획		실제 자금 사용내역		차이발생 사유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	2018-06-12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1,400,000,0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1,400,000,000	-
유상증자	-	2019-11-09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1,501,500,0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1,501,500,000	-
유상증자	-	2019-11-19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4,600,197,5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4,600,197,500	-
유상증자	-	2020-02-28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1,999,985,0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1,999,985,000	-
유상증자	-	2020-04-15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1,999,985,0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1,999,985,000	-
유상증자	-	2020-07-14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1,999,985,0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1,999,985,000	-
유상증자	-	2022-04-3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6,033,814,5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6,033,814,500	-
유상증자	-	2022-07-3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3,647,041,3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3,647,041,300	-
유상증자	-	2022-10-05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999,775,0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999,775,000	-
유상증자	-	2022-12-29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6,499,916,5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6,499,916,500	-
유상증자	-	2023-10-27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2,000,032,65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2,000,032,650	-
유상증자	-	2023-12-01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448,699,02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448,699,020	-
유상증자	-	2023-12-09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548,359,35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548,359,350	-
유상증자	-	2024-12-06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2,999,991,2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2,999,991,200	-
유상증자	-	2024-12-13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2,000,006,4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2,000,006,400	-
유상증자	-	2024-12-2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11,000,099,6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11,000,099,600	-
유상증자	-	2025-10-3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2,999,993,500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2,999,993,500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백만원)

종류	운용상품명	운용금액	계약기간	실투자기간
예·적금	보통예금	-	-	-
예·적금	정기예금	-	-	-
계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제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제작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당사의 과거기간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로 개시되는 2023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를 적용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거나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당사가 적용한 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추정치에 대한 예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22년 1월 1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와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습니다.

②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간주원가 적용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장부가액을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③ 리스

당사는 전환일에 전환일부터 12개월 이내의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리스에 대해서는 단기리스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2) 회계정책의 주요 차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요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리스

리스이용자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영향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르면 당사는 대부분의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즉, 대부분의 리스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일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장부금액
건물	1,305,764,645

당사는 전환일에 존재하는 리스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현재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잔여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면제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치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합니다.
- 계약이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포함한다면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사후판단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전환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6기초
리스부채	1,155,635,431
임차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92,764,023
복구충당부채	57,365,191
유형자산으로 표시한 사용권자산(합계)	1,305,764,645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에 대한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당사는 2022년 1월 1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리스료를 할인하였습니다. 적용된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은 10.07%입니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운용리스 약정에 따른 리스부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6기초
2022년 1월 1일에 인식된 금융리스부채(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	567,598,167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면제규정 적용	(23,830,301)
전환시점에 남은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리스에 대한 면제규정 적용	-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연장 선택권 반영	611,867,565
2022년 1월 1일에 인식한 리스부채(합계)	1,155,635,431

② 종속기업투자

당사는 중대한 영향력을 지닌 피투자회사에 대해 과거회계기준은 피투자회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원가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였

는 바, 전환일 현재 종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을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가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③ 상환전환우선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상환전환우선주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함에 따라 금융부채로 계정 재분류하였으며, 동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④ 주식교부형 주식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부여시 별도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주식교부형 주식선택권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부여시점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주식선택권 가득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차이 조정 내역

① 2022년 1월 1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현재 재무상태표 차이 조정

(단위: 원)			
구 분	자산	부채	자본
과거회계기준	7,064,151,570	339,403,061	6,724,748,509
조정액:			
리스(*1)	1,213,000,622	1,213,000,622	-
상환전환우선주(*2)(*3)	-	13,477,299,077	(13,477,299,077)
기타사항	(20,000,000)	22,875,180	(42,875,180)
조정액 합계	1,193,000,622	14,713,174,879	(13,520,174,25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8,257,152,192	15,052,577,940	(6,795,425,748)

(*1)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구비용을 추정하여 총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3) 상환전환우선주에 부여된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② 2022년 12월 31일(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기간의 종료일)현재 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성과 차이 조정

(단위: 원)					
구 분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과거회계기준	18,787,889,045	789,477,721	17,998,411,324	(5,958,192,408)	(5,893,542,885)

(단위: 원)					
구 분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조정액:					
종속기업투자(*1)	548,376,877	-	548,376,877	613,026,400	548,376,877
리스(*2)	918,362,993	940,912,411	(22,549,418)	(22,549,418)	(22,549,418)
상환전환우선주(*3)(*4)	-	37,308,822,069	(37,308,822,069)	(9,650,990,192)	(9,650,990,192)
주식기준보상(*5)	-	-	-	(866,838,484)	(866,838,484)
기타사항	(20,000,000)	21,935,191	(41,935,191)	939,989	939,989
조정액 합계	1,446,739,870	38,271,669,671	(36,824,929,801)	(9,926,411,705)	(9,991,061,22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234,628,915	39,061,147,392	(18,826,518,477)	(15,884,604,113)	(15,884,604,113)

- (*1)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장부가액을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2)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구비용을 추정하여 총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 (*3) 과거회계기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 (*4) 상환전환우선주에 부여된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 (*5)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최근 연차재무제표의 최종 기간(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의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과거 회계기준에 따르면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수취, 이자지급 및 법인세지급액을 현금흐름표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비용) 및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비현금성 금액만 표시했던 이자 수취금액, 이자 지급금액 및 법인세 지급금액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 사이에 그 밖의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7기(2023년)	매출채권	1,766,104	-	0.00%
제8기(2024년)	매출채권	1,191,019	-	0.00%
제9기(2025년)	매출채권	4,244,659	-	0.00%

(2)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분	제9기 (2025년)	제8기 (2024년)	제7기 (2023년)
1. 기초대손충당금 잔액	-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계상(환입)액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1+2-3)	-	-	-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가) 개별평가

결산일 현재 채권자의 신용상태 및 거래상황을 파악하여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파산 등)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나) 집합평가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4) 2025년 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만기미도래	6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초과	매출채권 잔액	부도금액 (업체수)
2023년 말	1,766,104	-	-	-	1,766,104	-
2024년 말	1,163,519	27,500	-	-	1,191,019	-
2025년 말	4,078,826	-	165,833	-	4,244,659	-

다. 재고자산 현황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6.금융상품」 및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6.금융상품」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의견	감사인	채택회계기준	수정사항 및 그 영향	감사인 지정	특기사항
제6기	적정	신한회계법인	K-GAAP	-	-	-
제7기	적정	삼정회계법인	K-IFRS	-	2023.09.12	-
제8기	적정	삼정회계법인	K-IFRS	-	2024.03.14	-
제9기	적정	삼정회계법인	K-IFRS	-	2025.03.17	-

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의견	감사인	채택회계기준	수정사항 및 그 영향	감사인 지정	특기사항
제7기	적정	삼정회계법인	K-IFRS	-	2023.09.12	-
제8기	적정	삼정회계법인	K-IFRS	-	2024.03.14	-
제9기	적정	삼정회계법인	K-IFRS	-	2025.03.17	-

다. 감사인(공인회계사)과의 거래내용 및 기타 관계 여부

(1)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6기	신한회계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K-GAAP)	20,000	160	20,000	163
제7기	삼정회계법인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K-IFRS)	100,000	850	155,000	949
제8기	삼정회계법인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K-IFRS)	168,000	1,180	168,000	1,186
제9기	삼정회계법인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K-IFRS)	145,000	1,180	145,000	1,182

(2)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보수	비고
제7기	2024.02.15	세무조정	2024.02.15~2024.08.31	12,500	2023년도 세무조정
제8기	2024.07.09	세무조정	2024.07.09~2025.03.31	13,750	2024년도 세무조정
제9기	2025.12.01	세무조정	2025.12.01~2026.03.31	16,000	2025년도 세무조정

라. 세무조사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최근 5사업연도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요

규정명 : 내부회계관리규정 (2023년 12월 5일 제정)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설계·운영을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회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 및 회사의 감사가 보고한 사항들은 없으며 상장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년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를 수행하고 보고 및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내부회계관리 조직

(1)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구분	성명	겸임업무	근속년수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내부회계책임자	윤성호	대표이사	8.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책임 내부회계 평가 결과의 최종 승인 및 이사회 보고

감사	김철수	감사	2.5년 (비상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자	박민수	CFO	6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총괄
내부회계평가자	장지선	회계	5.5년	회계 부문의 내부회계 운영평가
내부회계평가자	성제후	자금	3.5년	자금 부문의 내부회계 운영평가
내부회계평가자	오상명	회계	1.5년	회계 부문의 내부회계 운영평가
내부회계평가자	용현주	구매	2.5년	구매 부문의 내부회계 운영평가

(2)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경력	비고
박민수	1974년 1월 12일	('17.10~23.03) (주)브릭스원 대표이사 ('16.05~17.09) (주)로보쓰리 부사장 ('14.09~16.04) 올릭스(주) CFO ('07.09~14.09) 신한회계법인 ('02.10~07.08) 삼일회계법인 ('01.02)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한국공인회계사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계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기마다 점검사항에 대한 이상의 유무를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등, 내부회계관리를 합리화하여 회계정보의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사업연도	보고일자	보고내용
2025년도 (제9기)	2026년 2월 10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구성 및 전반적인 운영 내용 - 설계 및 평가현황 - 설계 평가 수행결과 내역 및 개선사항

사업연도	보고일자	보고내용
2024년도 (제8기)	2025년 2월 11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구성 및 전반적인 운영 내용 - 설계 및 평가현황 - 설계 평가 수행결과 내역 및 개선사항
2023년도 (제7기)	2024년 2월 15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구성 및 전반적인 내용 - 설계 및 평가현황 - 설계 평가 수행결과 내역 및 개선사항

(나) 회사의 감사가 보고한 내용

[당사의 감사가 보고한 내용]

사업연도	보고일자	보고내용
2025년도 (제9기)	2026년 2월 10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2024년도 (제8기)	2025년 2월 07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2023년도 (제7기)	2024년 2월 16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

사업연도	감사인	유형(감사/검토)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지적사항	회사의대응조치
제7기	삼정회계법인	검토	적정의견	-	-
제8기	삼정회계법인	검토	적정의견	-	-
제9기	삼정회계법인	검토	적정의견	-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사업과 관련된 중요 계약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2) 이사회 의 권한 내용

당사는 이사회 의 구성 및 권한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정관 제34조 (이사의 수)	1.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독립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구분	내용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관 제39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2. 회장 또는 부회장은 사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4.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3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제40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41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의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2항과 전항의 소집권자로 한다. 5.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구분	내용
정관 제42조 (이사회 결의방법)	2.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정관 제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이사회 운영 규정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이사회 운영 규정 제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1일 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이사회 운영 규정 제9조 (결의사항)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구분	내용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사외이사 및 그 변동 현황

(단위: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6	2	-	-	-

나. 중요 의결사항

개최일자	안건의 주요 내용	의결현황	사내이사 윤성호	사내이사 이재혁	사내이사 허영신	사내이사 박민수	기타비상무이사 장홍성	기타비상무이사 김용욱	사외이사 장영재	사외이사 서용진	감사 김철수
2023.02.15	1. 제6기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
2023.02.24	1. 미국법인 단기대여금 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
2023.03.15	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
2023.04.07	1. 미국법인 유상증자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
2023.07.03	1. 미국법인 법인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
2023.08.31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
2023.09.26	1. 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불참	-	-	-
2023.10.26	1. 1차 실권주 처리의 건 2. 2차 실권주 처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불참	-	-	-
2023.11.15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
2023.12.05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사내 규정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불참	-	-	-

개최일자	안건의 주요 내용	의결현황	사내이사 윤성호	사내이사 이재혁	사내이사 허영신	사내이사 박민수	기타비상무이사 장홍성	기타비상무이사 김용욱	사외이사 장영재	사외이사 서용진	감사 김철수
	3. 무상증자 승인의 건										
2023.12.19	1.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
2023.12.29	1. 미국법인 Service Fee 청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2024.02.15	1. 2023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2024.02.26	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차입금 실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불참	-	-	불참
2024.03.25	1.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2024.03.27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명의개세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불참	-	-	불참
2024.05.01	1. 미국법인 법인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5.24	1.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5.27	1. 주식매수 선택권 취소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7.19	1. 미국법인 단기대여금 대여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8.12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11.04	1. 차입금 실행의 건 2. 미국법인 단기대여금 대여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11.25	1. 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불참	불참
2024.11.28	1. 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불참	찬성
2024.12.05	1. 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불참	찬성
2024.12.30	1. 주식매수 선택권 취소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5.02.03	1. 일본법인 법인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5.02.11	1.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일본 법인 설립 및 자본금 5백만엔 납입의 건 3. 무상감자의 건 4. 제8기 재무제표(안) 확정건의 건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불참	찬성
2025.03.28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불참	불참	불참
2025.07.01	1. 일본법인 증자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025.09.22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불참	불참	찬성
2025.10.15	1.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025.11.10	1.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개최일자	안건의 주요 내용	의결현황	사내이사 윤성호	사내이사 이재혁	사내이사 허영신	사내이사 박민수	기타비상무이사 장홍성	기타비상무이사 김용욱	사외이사 장영재	사외이사 서용진	감사 김철수
2025.12.05	1. 일본법인 증자의 건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025.12.31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026.02.10	1.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제 9기 재무제표(안) 확정 의 건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4.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2026.03.20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 승 인의 건 2. 신주인수권 부여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주1) 전 대표이사 이재혁은 일신상의 사유로 2023년 12월 20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2024년 3월 28일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주2) 2025년 2월 20일 기타비상무이사 김용욱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다. 이사회내 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상법을 준수하여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주주총회 개최 전 해당 후보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직위	선임일	연임여부	회사와의거래	최대주주와의관계
윤성호	사내이사 (대표이사)	2017.12.20	연임	-	본인
허영신	사내이사	2024.03.28	-	-	
박민수	사내이사	2024.03.28	-	-	
장홍성	기타비상무이사	2018.08.27	연임	-	
장영재	사외이사	2024.03.28	-	-	
서용진	사외이사	2024.03.28	-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장영재	('20.02~현재) 다임리서치(주) 대표 ('19.01~현재) KAIST 디지털 미래기술 연구센터 센터장 ('10.11~현재)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부교수 ('07.02~ '10.10)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본사 기획실 기획팀장 ('07.06) MIT 기계공학, 경영공학 박사 ('01.06)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경영공학 석사 ('99.06) MIT 기계공학 석사 ('97.05) 보스턴대학 우주항공공학 학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서용진	('14.04~현재) 대한법률학원 민법 교수 ('14.04~현재) 법무법인(유) 강남 ('13.10~ '14.03) 법무법인 태한 ('12.03~ '15.10) 법무법인 한결 ('06.09~ '09.02) 삼일회계법인 ('12.02)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04.02) 고려대 토목건축공학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리 조직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사외이사 교육 실시 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장영재 사외이사 및 서용진 사외이사는 당사의 사업분야와 관련 기술의 최고 전문가로서 경력 및 전문성 측면에서 검증된 인력으로 의사결정 필요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추후 업무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구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감사 1인(김철수)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독립적 비상근감사 1인이 당사 정관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22.02~현재)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		

김철수	('20.04~현재) 주식회사 핑거 사외이사 ('19.02) 법무법인 문평 대표변호사 ('18.09)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7.08~18.07)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16.01) 서울 서부지방법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14.01)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12.05) 주 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01.05~12.04) 검찰청 검사 ('95.02)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	--------	--------

다.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정관 제46조 (감사)	1.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단,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일 때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상법 제409조에 따라 감사의 기능을 이사 또는 주주총회가 담당한다. 2.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제3항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6.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한다.
정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구분	내용
제47조 (감사의 임기)	종결 시 까지로 한다.
정관 제48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관 제49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감사에 대해서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7.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8. 제 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안건의 주요 내용	가결여부	비고
2023.12.29	1. 미국법인 Service Fee 청구의 건	가결	-
2024.02.15	1. 2023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 승인의 건	가결	-
2024.03.25	1.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	가결	-
2024.05.01	1. 미국법인 법인장 선임의 건	가결	-
2024.05.24	1.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건	가결	-
2024.05.27	1. 주식매수 선택권 취소의 건	가결	-
2024.07.19	1. 미국법인 단기대여금 대여의 건	가결	-
2024.08.12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2024.11.04	1. 차입금 실행의 건 2. 미국법인 단기대여금 대여의 건	가결 가결	-
2024.11.25	1. 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의 건	가결	-
2024.11.28	1. 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의 건	가결	-

개최일자	안건의 주요 내용	가결여부	비고
2024.12.05	1. 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의 건	가결	-
2024.12.30	1. 주식매수 선택권 취소의 건	가결	-
2025.02.03	1. 일본법인 법인장 선임의 건	가결	-
2025.02.11	1.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일본 법인 설립 및 자본금 5백만엔 납입의 건 3. 무상감자의 건 4. 제8기 재무제표(안) 확정건의 건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2025.03.28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
2025.07.01	1. 일본법인 증자의 건	가결	-
2025.09.22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가결 가결	-
2025.10.15	1.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가결	-
2025.11.10	1.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건	가결	-
2025.12.05	1. 일본법인 증자의 건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건	가결 가결	-
2025.12.31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
2026.02.10	1.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제 9기 재무제표(안) 확정건의 건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4.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마. 교육 실시 현황

감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등을 통해 당사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 교육 실시 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는 심의 필요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당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관리조직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계 5,00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상의 준법지원인의 선임의무가 없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4,839,974	
	우선주	-	
	보통주	-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의결권없는 주식수(B)	우선주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 제된 주식수(C)	보통주	-	
	우선주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우선주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우선주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보통주	14,839,974	
	우선주	-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주식사무

구분	내용
	제10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

구분	내용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해외진출, 생산·판매·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⑪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주주명부폐쇄시기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

구분	내용		
	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결산일	12월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방법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akinarocks.ai)에 게재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 국경제신문에 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개최일자	구분	안건	결의내용	비고
2022.01.28	임시주주총회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목적)	가결	-
2022.03.31	정기주주총회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2. 2021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3.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2022.04.22	임시주주총회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
2022.04.22	임시주주총회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
2023.03.30	정기주주총회	1. 2022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2023.09.15	임시주주총회	1. 정관(일부) 변경의 건 2. 임원 퇴직금 규정 신설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가결	-
2023.11.30	임시주주총회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가결	-
2023.12.20	임시주주총회	1. 감사 선임의 건	가결	-
2024.03.28	정기주주총회	1. 제7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사내이사 선임 승인의 건 3.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가결	-

개최일자	구분	안건	결의내용	비고
2024.05.02	임시주주총회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가결	-
2024.09.27	임시주주총회	1.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가결	-
2025.03.28	정기주주총회	1. 제8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사내이사 후보 윤성호(중임)선임의 건 3.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5. 자본감소의 건	가결	-
2025.11.07	임시주주총회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가결	-
2026.03.20	정기주주총회	1. 제9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일부 변경의 건 3. 감사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윤성호	본인	보통주	1,824,000	12.29%	1,824,000	12.29%	-
심상우	미등기임원	보통주	1,216,000	8.19%	1,216,000	8.19%	-
임용섭	미등기임원	보통주	1,216,000	8.19%	1,216,000	8.19%	-
박민수	등기임원	보통주	194,300	1.31%	194,300	1.31%	-
허영신	등기임원	보통주	86,504	0.58%	86,504	0.58%	-
계		보통주	4,536,804	30.57%	4,536,804	30.57%	-

(주1) 기초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성명	직위	담당업무	주요경력
윤성호	사내이사	대표이사	('18.05~현재)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대표이사 ('16.06~ '18.06) SK텔레콤 ICT 기술원 Manager ('12.07~ '16.05)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사업부 책임연구원 ('12.06)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물리학 박사 ('05.12)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물리학 학사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이행내용 포함)

(1)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을 통한 경영안정성 강화

당사의 최대주주등 중 윤성호, 심상우, 임용섭 3인 및 2대주주 이재혁 1인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량을 3년동안 보호예수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최대주주 우호 지분 의무보유 및 공동목적보유 현황]

주주명	관계	공모후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	지분율	확약 주식수	지분율	확약 기간
윤성호	최대주주 (대표이사)	1,824,000	10.39%	1,824,000	10.39%	3년
심상우	미등기임원	1,216,000	6.93%	1,216,000	6.93%	
임용섭	미등기임원	1,216,000	6.93%	1,216,000	6.93%	
이재혁	기타	1,221,016	6.96%	1,221,016	6.96%	
합계		5,477,016	31.20%	5,477,016	31.20%	-

(출처: 당사 내부자료)

3.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등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윤성호	보통주	1,824,000	12.29%	최대주주(대표이사)
	심상우	보통주	1,216,000	8.19%	미등기임원
	임용섭	보통주	1,216,000	8.19%	미등기임원
	이재혁	보통주	1,221,016	8.23%	-
	합계		5,477,016	36.9%	-
우리사주조합			-	-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분	주주			소유주식			비고
	소액주주수	전체주주수	비율(%)	소액주식수	총발행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43	71	60.56	1,407,597	14,839,974	9.48	-

(주1)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 경력	소유주식 수		최대주주 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윤성호	남	1983.11	대표이사	등기	상근	대표이사	('18.05~현재)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대표이사 ('16.06~ '18.06) SK텔레콤 ICT 기술원 Manager ('12.07~ '16.05)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사업부 책임연구원 ('12.06)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물리학 박사 ('05.12)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물리학 학사	1,824,000	-	본인	8년	2028.04.22
박민수	남	1974.01	사내이사	등기	상근	최고재무책임자 (CFO)	('20.02~현재)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CFO ('17.10~ '23.03) (주)브락스원 대표이사 ('16.05~ '17.09) (주)로보쓰리 부사장 ('14.09~ '16.04) 올락스(주) CFO ('07.09~ '14.09) 신한회계법인 ('02.10~ '07.08) 삼일회계법인 ('01.02)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194,300	-	타인	6년	2027.03.28
허영신	남	1977.05	사내이사	등기	상근	최고사업책임자 (CBO)	('19.02~현재)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CBO ('17.12~ '18.12) 주식회사 원티드랩, 신사업 총괄 ('17.01~ '17.11) IBM, 상무 ('10.10~ '16.12) Accenture, 이사 ('10.10) 뉴욕대학교 경영대학, MBA ('04.01~ '08.01) Accenture, Senior Consultant ('04.02)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86,504	-	타인	7년	2027.03.28
장홍성	남	1969.03	기타비상무이사	등기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	('18.08~현재)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기타 비상무이사 ('05.08~ '24.12) SK텔레콤 ('99.03~ '05.07) 삼성전자 ('99.02)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	-	타인	8년	2027.09.26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 경력	소유주식 수		최대주주 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장영재	남	1974.03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24.03~현재)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사외이사 ('20.09~현재) BK21 디지털 제조혁신 인재양성 사업단 단장 ('20.02~현재) 다임리서치(주) 대표 ('19.01~현재) KAIST 디지털 미래기술 연구센터 센터장 ('10.11~현재)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부교수 ('07.02~ '10.10)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본사 기획실 기획팀장 ('07.06) MIT 기계공학, 경영공학 박사 ('01.06)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경영공학 석사 ('99.06) MIT 기계공학 석사 ('97.05) 보스턴대학 우주항공공학 학사	-	-	타인	2년	2027.03.28
서용진	남	1979.11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24.03~현재)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사외이사 ('14.04~현재) 대한법률학원 민법 교수 ('14.04~현재) 법무법인(유) 강남 ('13.02~현재)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감사 ('13.02~현재) 학교법인 양정의숙, 감사 ('13.10~ '14.03) 법무법인 태한 ('12.03~ '15.10) 법무법인 한결 ('06.09~ '09.02) 삼일회계법인 ('12.02)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04.02) 고려대 토목건축공학	-	-	타인	2년	2027.03.28
김철수	남	1970.03	감사	등기	비상근	감사	('23.12~현재)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감사 ('22.02~현재)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 ('20.04~현재) 주식회사 핑거 사외이사 ('19.02) 법무법인 문평 대표변호사 ('18.09)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7.08~ '18.07)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16.01)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14.01)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12.05) 주 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01.05~ '12.04) 검찰청 검사 ('95.02)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	-	타인	3년	2027.03.31
심상우	남	1980.05	사내이사	미등기	상근	기술 개발 총괄 (CTO)	('18.05~현재)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CTO ('17.04~ '18.04) 삼성전자 데이터 분석가 ('14.02~ '17.04) Worldquant LLC, Vice President ('12.07~ '14.02)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Associate ('12.05) Harvard University 물리화학 박사 ('07.02) 서울대학교 물리화학 석사 ('02.08) 서울대학교 화학과 학사	1,216,000	-	타인	8년	-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 경력	소유주식 수		최대주주 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임용섭	남	1986.12	사내이사	미등기	상근	AI 연구개발 총괄 (CAIO)	('18.05~현재) 마키나락스CAIO (17.02~18.05) SK 텔레콤 ICT 기술원, 데이터과학자 (15.09~16.06)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후연구원 (15.08) KAIST 전산학부 박사 (11.02) KAIST 전산학부 석사 (09.02) 아주대학교 정보 및 컴퓨터공학 학사	1,216,000	-	타인	8년	-

나. 타 회사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성명	당사직위	선임시기	겸직현황	
			직장명	직위
김철수	감사	2022.12.2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재인
			주식회사 핑거	사외이사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
장영재	사외이사	2024.03.28	KAIST	부교수
			다임리서치(주)	대표이사
			BK21 디지털 제조혁신 인재양성 사업단	단장
서용진	사외이사	2024.03.28	대한법률학원	교수
			법무법인(유)강남	변호사
			학교법인 양정의숙	감사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감사
--	--	--	---------------	----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주1)	연간급여 총액 (주2)	1인평균 급여액 주4)	남	여	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미등기임원	남	2	-	-	-	2	7.8	299,633	25,177	-	-	-	-
	여	-	-	-	-	-	-	-	-				-
사무	남	1	-	1	-	2	1.9	171,238	17,416				-
	여	7	-	1	-	8	3.1	537,063	13,997				-
영업	남	15	-	1	-	16	1.6	1,669,105	23,377				-
	여	8	-	-	-	8	1.9	575,644	14,869				-
연구-제품	남	26	-	-	-	26	2.7	2,407,096	19,802				-
	여	8	-	1	-	9	2.2	528,542	11,000				-
연구-프로젝트	남	33	1	4	-	38	2.4	3,116,873	14,701				-
	여	5	-	4	-	9	1.6	530,586	9,991				-
합계		105	1	12	-	118	2.3	9,835,780	150,330				-

(주1) 평균 근속연수는 기준일에 재직중인 직원을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주2) 연간 급여총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월별 급여액 합계를 연환산한 금액입니다.

(주3) 1인평균 급여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월별 급여총액을 월평균 근무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계입니다.

라.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25년 (제9기)	2024년 (제8기)	2023년 (제7기)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1	-	-
육아휴직 사용자수 (전체)	1	-	-
육아휴직 사용률(남)	0%	0%	0%
육아휴직 사용률(여)	100%	0%	0%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100%	0%	0%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	-

구분	2025년 (제9기)	2024년 (제8기)	2023년 (제7기)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6	5	2

(주1) 육아휴직 사용률은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수 / 당해 출생 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직원수로 산출 하였습니다.

마. 임신기,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단위 : 명, %)

구분	2025년 (제9기)	2024년 (제8기)	2023년 (제7기)
임신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	-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률	0%	0%	50%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0%	0%	0%

바.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5년 (제9기)	2024년 (제8기)	2023년 (제7기)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활용	활용	활용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100	106	96

(주1) 유연근무제와 원격근무제를 동시에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 선택가능)

사.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연간급여총액(주1)	1인 평균 급여액(주2)	비고
미등기임원	2명	299,633	25,177	-

(주1) 연간 급여총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월별 급여액 합계를 연환산한 금액입니다.

(주2) 1인평균 급여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월별 급여총액을 월평균 근무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계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주총회 승인 금액

(단위 : 명, 천원)

구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의 보수한도	6	1,000,000	-
감사의 보수한도	1	100,000	-

(주1) 2026년 3월 20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입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감사 전체

(단위 : 명,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7	235,880	33,697	-

(주1) 인원수는 사내이사(3인), 기타비상무이사(1인), 사외이사(2인), 감사(1인)를 포함했습니다.

(주2) 보수총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지급된 보수의 합계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동일 기준의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2) 유형별 지급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기타비상무이사 제외)	4	231,880	77,293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2,000	1,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기타비상무이사	1	1,000	1,000	
감사	1	1,000	1,000	-

(주1) 보수총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지급된 보수의 합계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동일 기준의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3) 이사·감사의 보수 지급기준

이사·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 및 활동 수준,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4)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가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현황

(1) 임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개요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부여받은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2	1,186,761,216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사외이사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감사	-	-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부여 회차	부여대상	관 계	부여일	주식의 종류	부여방법	부여 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비고
1회	○○○ 등 2명	임직원	2019.03.25	보통주	신주교부	110,720	-	2021.03.25~2026.03.24	250	주2)
2회	○○○ 등 4명	임직원	2019.08.19	보통주	신주교부	128,000	-	2021.08.19~2026.08.18	250	
3회	○○○ 등 2명	임직원	2020.03.26	보통주	신주교부	40,000	-	2022.03.26~2027.03.25	3,125	
4회	○○○ 등 7명	임직원	2020.08.31	보통주	신주교부	116,800	9,900	2022.08.31~2027.03.30	4,062	
5회	○○○ 등 5명	임직원	2021.03.31	보통주	신주교부	72,000	-	2023.03.31~2028.03.30	4,062	
6회	○○○ 등 16명	임직원	2021.08.20	보통주	신주교부	96,000	4,800	2023.08.20~2028.08.19	4,062	
7회	○○○ 등 16명	임직원	2022.03.31	보통주	신주교부	302,048	140,744	2024.03.31~2029.03.30	4,062	
8회	○○○	임직원	2022.04.22	보통주	신주교부	16,000	-	2024.04.22~2029.04.21	4,062	
9회	○○○ 등 81명	임직원	2023.11.30	보통주	신주교부	371,200	232,800	2025.11.30~2030.11.29	13,750	
10회	○○○	임직원	2024.03.28	보통주	신주교부	8,000	8,000	2026.03.28~2031.03.27	13,750	
11회	○○○ 등 28명	임직원	2024.05.02	보통주	신주교부	65,600	41,600	2026.05.02~2031.05.01	13,750	
12회	○○○ 등 6명	임직원	2025.11.07	보통주	신주교부	63,200	63,200	2027.11.07~2032.11.06	13,750	
합계						1,389,568	501,044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 미행사수량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해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잔여 미행사수량 501,044주 중 129,244주는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계
-	-	2	2

나. 계열회사간의 지배 · 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회사명	상장여부	주요업종	지분율
MakinaRocks.,Inc	비상장	AI Solution 개발 및 판매	100%
MakinaRocks KK.	비상장	AI Solution 개발 및 판매	100%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사 등기임원		겸직하고 있는 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책	상근여부(상근/비상근)
허영신	사내이사	MakinaRocks KK.	법인장	비상근
윤성호	대표이사	MakinaRocks KK.	이사	비상근

라.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계	기초 장부가액 (주1)	증가(감소)		기말 장부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2	2	-	427,284	-	427,284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계	-	2	2	-	427,284	-	427,284

(주1) 기초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타법인출자 상세 현황은 「X.상세표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한 내역

대상	관계	종류	일자	목적	통화	대여금액	조건	의사결정방법
MakinaRocks, Inc.	종속회사	금전대여	2019.06.24	운영자금	USD	300,000	금리: 4.0% (대여기간: 2년)	이사회 결의
			2023.03.10			100,000	금리: 4.6% (대여기간: 3개월)	
			2024.07.22			100,000	금리: 4.6% (대여기간: 1년)	
			2024.11.05			50,000	금리: 4.6% (대여기간: 1년)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MakinaRocks, Inc.의 대여금 잔액은 USD 150,000 입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주요 거래 내역, 채권·채무 잔액, 자금 거래 내역 및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2.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3.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으며, 원고로 1건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기 소송에 대한 상세 내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과제를 이행하였으나, 시험성적서 지연 제출을 사유로 진흥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처분 및 제재부과금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은 집행정지 인용되었고 제재부과금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으며 2025년 중 제재부과금 194,476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상세 내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2.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3.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중소기업기준 등 기준 검토표]

사업연도

2024-01-01
2024-12-3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인명

주식회사 다카나락스

사업자등록번호

441-86-C1015

구분

요건

검토내용

③ 적합여부

⑤ 적합여부

(101) 사업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 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 본 2023.03.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구분	기준경비율코드	사업수입금액
입대분		
(01) 정부서비스업	(04) 722000	(07) 8,293,903,006
(02) 도매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8,293,903,006

(17) 제 ⑦ 부적합 (N)

(26)

(102) 규모요건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 종업자도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출액	
- 당 회사(10)	(82.9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500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253.4 억원)

(18) 제 ⑦ 부적합 (N)

(27)

(103) 독립성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5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한합·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102)의 ③ 가한 이내일 것

(19) 제 ⑦ 부적합 (N)

(28)

(104) 유예기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

-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10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해년마다 판단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가격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제 ⑦ 부적합 (N)

(29)

(105)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10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 요건(103)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제 ⑦ 부적합 (N)

(27)

(106)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 매출액

- 당 회사(14) (82.9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50 억원) 이하

(22) 제 ⑦ 부적합 (N)

(28)

(107)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적용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10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제 ⑦ 부적합 (N)

(29)

(108)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한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제 ⑦ 부적합 (N)

(30)

(109)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3조 제1항) : 1천5백억원 미만(신규성장 중견기업에 한함)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 5천억원 미만
㉢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억원 미만

직전 3년 공제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25) 제 ⑦ 부적합 (N)

(3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의무보유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공모에 따라 예정된 의무보유 사항 이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의무보유 중인 주식이 없습니다.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천원)

상호	설립일	소재지	주요 사업	최근사업년도의 자산총액	지배관계근거	주요종속회사여부
MakinaRocks.,Inc	2018.03.06	미국	AI Solution 개발 및 판매	17,079	지분 100%	부
MakinaRocks KK	2025.04.28	일본	AI Solution 개발 및 판매	390,940	지분 100%	부

2. 계열회사 현황(상세)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비상장	2	MakinaRocks.,Inc	주(1)
		MakinaRocks KK.	주(2)

주(1)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미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일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 취득일자	출자목적	최초 취득 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순손익
								수량	금액						
MakinaRocks.,Inc	비상장	2018.03.06	경영참여	51,425	35,000,000	100%	-	-	-	-	35,000,000	100%	-	17,079	(37,679)
MakinaRocks KK	비상장	2025.04.28	경영참여	427,284	-	-	-	4500	427,284	-	4500	100%	427,284	390,940	(222,494)

(주1) 기초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5년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